

한국어문학의 심화와 확산
온라인 강의 동영상
가이드북

한국어 고전 자료 읽기

김 성 규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K학술확산연구센터

이 영상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K학술확산연구소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
(AKS-2021-KDA-1250006)

강의계획서

- 강의명: 한국어 고전 자료 읽기
- 강사명: 김성규
- 구성: 총 10강
- 분과: 한국어학
- 수준: 중급
- 특징: 학제간, 통합형
- 수업방식: 강의형

- 강의 목표

이 강의는 15세기 이후 20세기 초반까지 한글로 적힌 자료들을 사전과 문법서 등을 참고하면서 수강생 자신의 힘으로 현대한국어로 번역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시기별 표기법의 특징, 어휘의 특징, 음운론적 특징, 문법론적 특징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강의에서는 관련 자료를 함께 읽어가면서 그러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 강의 계획

순서	강의 제목	강의 내용
1	한국어 고전 자료를 읽는 자세	① 도입 ② 고전 자료 이해의 자세 ③ 15세기와 현대 한국어의 차이 ④ ‘훈민정음 언해’에 대한 이해와 강독 ⑤ 고전 자료 이해를 위한 사전 찾기 ⑥ 정리
2	20세기 자료	① 도입 ② ‘어린이(1923년)’에 대한 이해 ③ ‘어린이(1923년)’ 강독 ④ 정리
3	19세기 자료	① 도입 ② ‘독립신문(1896년)’에 대한 이해와 강독1 ③ ‘독립신문(1896년)’에 대한 이해와 강독2 ④ ‘독립신문(1896년)’에 대한 이해와 강독3 ⑤ 정리
4	19세기 및 17세기 자료	① 도입 ② ‘규합총서(1809년)’에 대한 이해와 강독 ③ ‘음식디미방(1670년 전후)’에 대한 이해와 강독 ④ 정리
5	16세기 자료 1	① 도입 ② ‘선조국문유서(1593년)’에 대한 이해와 강독 ③ ‘구황촬요(1554년)’에 대한 이해와 강독 ④ 정리

6	16세기 자료 2	① 도입 ② '번역노걸대(1517년)'에 대한 이해 ③ '번역노걸대(1517년)' 강독1 ④ '번역노걸대(1517년)' 강독2 ⑤ '번역노걸대(1517년)' 강독3 ⑥ 정리
7	16세기 자료 3	① 도입 ② '번역노걸대(1517년)' 강독4 ③ '번역노걸대(1517년)' 강독5 ④ '번역노걸대(1517년)' 강독6 ⑤ 정리
8	15세기 자료 1	① 도입 ② '삼강행실도(1481년)'에 대한 이해 ③ '삼강행실도(1481년)' 강독 ④ 정리
9	15세기 자료 2	① 도입 ② '월인석보(1447년)'에 대한 이해 ③ '월인석보(1447년)' 강독 ④ 정리
10	15-20세기 자료	① 도입 ② 15세기 자료 강독 ③ 16-17세기 자료 강독 ④ 19-20세기 자료 강독 ⑤ 정리

- 수강생 유의사항

1. 학습활동으로 제시된 퀴즈, 토론, 보고서 과제들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강좌 내용 및 학습 과정과 관련하여 질문 사항이 있는 경우 K-MOOC 강의 게시판 또는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K학술확산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1차시> 한국어 고전 자료를 읽는 자세

■ 학습목표

1.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한글 고전 자료에 친근해진다.
2. 한글 고전 자료를 함께 읽으면서 지난 시기의 언어를 이해한다.
3. 자료를 통해 표기, 음운, 어휘, 의미, 문법 등의 변화를 개략적으로 이해한다.
4. 새로운 한글 고전 자료를 접했을 때 이해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 강의 목차

1. 도입
2. 고전 자료 이해의 자세
3. 15세기와 현대 한국어의 차이
4. ‘훈민정음 언해’에 대한 이해와 강독
5. 고전 자료 이해를 위한 사전 찾기
6.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도입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한국어 고전 자료 읽기’ 과목을 진행해 나갈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김성규입니다. 앞으로 전체 열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한글로 적힌 다양한 종류의 예전 자료들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고전 자료 읽기’라는 과목은 어떻게 보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난 시기의 자료가 현재와 표기법이 다르고 음운, 어휘, 의미, 문법 등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시기의 한국어를 이해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예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꿈을 조금 작게 가지고, 현재와 지난 시기의 한국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을 목표로 한다면 처음부터 위축된 상태에서 이 과목을 수강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수업의 목표를 특정 시기의 한국어 문법이나 국어사적으로 일어난 문법적 변화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러분이 “나도 노력하면 읽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는 데 두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 문법적인 설명 등은 최소로 줄이고 동일한 자료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보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료를 반복해서 읽다 보면 따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자료를 저와 함께 눈과 귀로 읽어간다면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 자료가 간행된 시기의 언어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수업을 통해 한글 고전 자료에 친근해질 수 있다는 자세를 갖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자료를 함께 읽어가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지난 시기의 언어와 언어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여러분이 새로운 한글 고전 자료를 접했을 때 그 자료를 이해하는 방법을 습득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솔직한 바람입니다.

이 강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읽을 자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첫 수업인 오늘 강의에서는 한글이 만들어진 15세기와 현재의 언어가 어느 정도 다른지 개괄적으로 보기 위해 《용비어천가》라는 노래의 일부분과 한국어를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보아야 할 《훈민정음 언해》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용비어천가》는 조선이라는 국가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담고 있는 시가입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언해》는 세종이 문자 ‘훈민정음’ 즉 한글을 처음 만들고 ‘훈민정음’이라는 새로운 문자 창제에 대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이후 두 번째 수업부터는 현재에서 가까운 자료부터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3년 자료인 《어린이》라는 잡지를 통해 100년 전의 한국어를 접해보고, 그 다음에는 1896년에 나온 《독립신문》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음식 만드는 방법을 써놓은 책 두 가지를 읽어 보겠습니다. 우선 1809년에 나온 《규합총서》를 볼 텐데, 이 책에는 집안 살림과 요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규합총서》보다는 조금 더 오래된 요리서인 《음식디미방》을 보겠습니다. 이 책은 1670년 전후에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에는 조선의 임금 선조가 일본군에게 잡혀서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보낸 한글 편지를 보겠습니다. 임금이 백성에게 보내는 편지 등을 ‘유서’라고 하는데 이번에 볼 자료는 한글로 적혀 있기 때문에 <선조 국문 유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구황촬요》라는 책의 일부 내용을 읽겠습니다. 《구황촬요》는 흉년으로 농사가 안 되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를 대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렸을 때 대처하는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6차시와 7차시에는 중국어 학습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16세기 초반의 언어도 이해하고 조선시대에는 중국어를 어떤 데서 어떤 방식으로 배웠는지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조선 시대의 외국어 학습 방법과 자신의 한국어 학습 과정을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차시에는 《삼강행실도》라는 윤리 교과서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선 시대에 백성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윤리 내용에 대한 이해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9차시와 10차시에는 《월인석보》라는 불교 관련 한글 자료를 함께 읽겠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나라의 종교로 정했지만 왕실은 불교를 믿고 있었는데, 조선 시대의 임금인 세조가 임금이 되기 전에 부처의 일대기를 편찬하였고, 그것이 결국 《월인석보》라는 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의에서는 예전의 한글 자료를 함께 읽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순서는 현재에서 가까운 자료부터 이해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오래된 자료를 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최종적으로는 한글이 만들어진 15세기 자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짜여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료를 보는 방식을 택한 이유는, 현대 한국어와 가장 유사한 자료부터 보면서 조금씩 그 이전의 자료로 옮겨갈 때,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우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자료는 15세기의 것입니다. 오늘 이 자

료들을 읽는 목적은 해당 자료의 문법적인 내용의 이해에 있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자료 읽기’에 앞서, 여러분이 예비적으로 “아! 언어가 지금과 다르구나. 이러한 내용이 다르네.” 하는 정도의 감각만 가져 주시면 됩니다.

2. 고전 자료 이해의 자세

본격적으로 자료를 읽기에 앞서 현재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특이한 표기들의 사진 몇 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진들이 500년 후까지 남게 되었을 때 그때의 사람들은 현재의 한국어를 어떻게 이해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의 오른쪽 아래를 보면 ‘우리몽실’이라는 표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영어로 ‘hair’라고 쓰여 있으니 ‘몽실’은 ‘미용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요. 표준어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지만, 조금 빨리 발음하는 일상 발화에서는 ‘미용실’이 ‘몽실’로 발음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대의 사람이 이 표기를 본다면 현재 한국어에서는 ‘미용실’이 ‘몽실’로도 발음될 수 있었으리라고 추측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전의 자료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의 추론을 하게 됩니다. 자료를 통해 당시의 언어가 어떠했으리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쓰레기통인데요, 쓰레기를 분리하기 위해 쓰레기통을 두 개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왼쪽 사진을 보면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자료를 후대 사람이 보면 현재의 한국어에서 ‘ㅍ’ 뒤의 모음 ‘으’가 ‘우’로 변하는 현상이 있었으리라고 추측할 겁니다. 우리가 예전의 자료를 볼 때도 이처럼 말소리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통해 언어의 변화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에는 “세차를 하시면 새차가 됩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와 ‘새차’를 붉은 글씨로 써 놓았습니다. 표기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세차’와 ‘새차’를 붉게 써놓은 것은 두 단어의 발음이 혼동되기 때문일 겁니다. 재미를 더하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써놓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후대의 사람들 역시 이 자료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전후한 한국어에서는 ‘에’와 ‘애’가 표기에서는 구분되어도 발음에서는 유사했을 가능성이 있다.”와 같은 추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기의 자료를 볼 때도 이와 유사한 추정을 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표기를 통해 그 이전에는 서로 달랐던 모음들이 혼동되는 상황을 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문을 잠그어 주세요”라고 써있는데요, 문법적으로는 “문을 잠가 주세요.”가 맞습니다. 이 경우는 과도하게 용언 어간 ‘잠그’를 분리해서 표기한 결과입니다. 예전 자료에서 사람들의 문법 의식이 언어 표현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를 살펴보는 일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현재의 사람들과 똑같이 언어 사회에서 살고 있고 항상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과는 다른 종류일 수 있겠지만, 머릿속의 언어 규칙인 문법의 틀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문법 의식을 찾아내는 게 바로 언어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중심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오자’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바닥에 침을 뱉지 마세요”에서 ‘바닥’을 ‘바뎡’으로 썼는데, 그렇게 쓴 명확한 이유를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예전 자료들을 볼 때도 이러한 오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오자를 토대로 당시의 언어를 추정하면 안 될 겁니다. 문제는 어떤 게 오자이고 어떤 게 언어의 변화 결과인가를 구별해 내는 작업인데요, 이러한 작업은 한국어의 역사를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생겨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보여드리는 자료는 ‘볶음’입니다. 원래 ‘볶음’으로 써야 하는데 앞에 ‘닭’이 ‘리’ 받침으로 써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흉내내서 ‘볶음’으로 썼다고 이해됩니다. 실제로 왼쪽에는 ‘닭발볶음’이라고 제대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러한 추측이 맞을 것 같습니다. 표기에 재미를 더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됩니다. ‘볶음’ 밑에 있는 ‘안갈캐주지롱’이나 ‘잡사보송’ 같이 재미를 더해주기 위해 써 놓은 표기를 볼 때도 그러한 추측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예전 자료에서는 이러한 한글 표기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 자료들은 출판되어 나오던 것들이고, 출판의 목적 자체가 개인적인 놀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한국 사회의 여기저기에서 발견되는 비표준적인 표기들을 보았습니다. 이 예들은 표준어가 있는데도 그것과 다른 표기를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1933년에 만들어진 표준어 규정이나 맞춤법,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어휘 사전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읽는 자료들은 당시에 분명히 책으로 또는 문자 언어로 통용되었습니다. 이 책들에는 당시 사람의 이해 범위 안에 있는 어휘가 들어 있고, 이 책들의 표기는 시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통용되던 표기 방식을 따랐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전 자료를 볼 때, 현재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발견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유형의 정제되지 않은 표기형들을 마주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합니다. 이 수업에서 그러한 예들이 나오면 그때그때 설명을 하거나 현대 한국어와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여러분이 그러한 표기형들을 이해하시도록 돕겠습니다.

3. 15세기와 현대 한국어의 차이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에 기반을 둔 의사소통 도구입니다. 이러한 언어의 약속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약속은 시기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의 약속은 ‘음운, 단어의 겉모습인 형태, 단어의 의미 또는 해당 단어의 존재 여부, 문법’ 등 다양한 차원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이기는 하지만 표기법에 대한 약속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강의에서 함께 읽을 자료들은 15세기의 한국어를 반영하는 것부터 100년 전의 한국어를 반영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오랜 시간 동안 한국어도 변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표기법도 변화하였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전제로 이 강의에서 다루는 자료들을 읽을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15세기와 현대 한국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몇 개의 예를 들어가며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시하는 문장 자체는 현대 한국어의 문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만 15세기의 표현으로 바꾸었고 관련 부분들은 문장의 다른 부분과 차이가 나게 표기했습니다. 제시되는 두 문장 중에서 왼쪽이 15세기의 언어를 보여드리기 위한 문장입니다.

우선 음운의 차이에 대해 보겠습니다. ①번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① 말‘쌘’해 주세요. - 말‘쌘’해 주세요.

예를 들어 15세기에 ‘말쌘’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합시다. 이 단어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말’의 높임말 ‘말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쌘’과 ‘말쌘’을 비교해 보면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모음 글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세기의 ‘말쌘’의 두 번째 음절의 모음 자리에

점이 한 개 찍혀 있는데, 이 모음을 요즘 ‘아래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 발음으로 나는데 자음의 밑에 즉 자음의 아래에 적는다고 해서 ‘아래아’라고 하는 겁니다. 아래아가 찍혀 있는 ‘말씀’과 같은 자료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모음이 15세기에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이 모음 ‘아래아’는 제주도 방언에 남아 있는데 ‘아’와 ‘오’의 중간 발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수업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아’와 똑같이 읽겠습니다.

다음으로 ②번에 있는 문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② 이것을 ‘쁘’세요. - 이것을 ‘쓰’세요.

‘이것을 쓰세요’의 첫 음절의 자음은 15세기라면 ‘ㅂ’으로 시작하는 ‘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당시에 단어를 시작할 때 /ㅂㅅ/라는 식으로 발음할 수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15세기와 현대의 한국어를 비교해 보면 모음과 자음 등 말소리 자체와 말소리를 사용 방식에 대한 약속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③번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③ 가‘디’ 마세요. -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의 경우는 어미 ‘지’가 ‘디’에서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가 ‘지’로 되는 소리의 변화를 ‘구개음화’라고 하는데, ‘가디’와 같은 표기를 통해 15세기에는 ‘구개음화’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어의 겉모습인 형태가 현재와 15세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①번 문장들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그렇게 할 ‘뜯’이 없다. - 그렇게 할 ‘뜻’이 없다.

“그렇게 할 뜯이 없다.”에서 보듯이 ‘뜯’이라는 단어는 ‘ㅅ’으로 끝나지 않고 ‘ㄷ’으로 끝나는 단어였는데, 그 형태가 변하여 현재는 ‘ㅅ’으로 끝나는 ‘뜻’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②번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② 그 두 사람은 ‘서르’ 안다. - 그 두 사람은 ‘서로’ 안다.

‘서로’의 두 번째 음절의 모음이 예전에는 ‘으’였었는데 ‘서로’의 ‘오’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③번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③ 여기 ‘이셔도’ 돼요? - 여기 ‘있어도’ 돼요?

‘이셔도’는 어간 ‘이시’와 어미 ‘어도’로 분석되기 때문에 ‘있다’가 ‘이시다’에서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④번 문장들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④ ‘나이’ 이것을 만들었다. ‘내’ 이것을 만들었다. -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

현대 한국어에서 주격 조사가 있는 ‘내가’는 조금은 복잡한 단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주격조사가 앞에 오는 명사에 따라 ‘이’ 또는 ‘가’로 실현됩니다. ‘집이’의 경우는 주격조사가 자음 뒤에서 ‘이’로 실현된 것이고, ‘친구가’의 경우는 주격조사가 모음 뒤에서 ‘가’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15세기에는 주격조사가 ‘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현대 한국어에서 주격조사가 결합한 ‘친구가’는 15세기에는 ‘친구이’로 실현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내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인칭 대명사는 ‘나’인데 이 모습은 15세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15세기에 ‘나’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하면 ‘나이’가 되겠죠. ‘아이’를 ‘애’로 표기하던 당시의 표기를 따르면 ‘나’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되면 ‘내’와 같이 표기가 되고 발음은 ‘나이’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모음 뒤에서 주격조사 ‘가’가 새롭게 생겨납니다. 이때 ‘나이’는 하나의 음절 ‘내’로 발음이 바뀌고 여기에 다시 주격조사 ‘가’가 결합하여 ‘내가’가 만들어집니다. ‘나는, 나를, 나도, 나와’와 같은 예에서는 항상 ‘나’이던 대명사가 주격조사와 결합할 때 ‘내가’에서 보듯이 ‘내’가 되는 것은 ‘내’ 안에 벌써 주격조사 ‘이’가 들어있지만 ‘나’와 ‘이’라는 두 개의 형태소가 하나로 합쳐져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본 예들은 우리가 15세기의 자료들을 읽을 때 현재의 단어 형태들과 다를 것이라는 예상을 해야 함을 알려 줍니다.

다음으로 단어의 의미 변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①번 문장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그는 나와 잘 ‘사뭇’지 않는다. - 그는 나와 잘 ‘통하’지 않는다.

“그는 나와 잘 통하지 않는다.”와 같은 문장의 ‘통하다’는 15세기의 고유어로 바꾼다면 ‘사뭇다’가 됩니다. 현재는 그 자체로는 찾아보기 힘든 단어인데 ‘사무치다’라는 단어에 남아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사무치다’가 ‘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②번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② 그 사람을 ‘어엿비’ 생각한다. -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한다.

‘어엿비 생각한다’의 ‘어엿브다’는 현대국어에서 ‘예쁘다’라는 단어로 이어지지만 15세기에는 ‘불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어들의 뜻도 변화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문법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번 문장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나는 너‘에’ 다르다. - 나는 너‘와’ 다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우며 ‘나는 너와 다르다’를 ‘나는 너에 다르다’라고 한다면 틀렸다는 지적을 받을 겁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다르다’라는 단어 앞에 오는 조사는 ‘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왼쪽 문장을 보면 15세기에는 ‘다르다’라는 단어는 그 앞에 ‘에’라는 조사가 왔습니다.

다음으로 ②번 문장들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그는 나‘와로’ 잘 통한다. - 그는 나‘와’ 잘 통한다.

현대 한국어에서 “그는 나와로 잘 통한다.”는 매우 어색한 문장이지만 15세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5세기의 자료들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책에다 썼을 리는 없기 때문에 현대 한국어와 아무리 달라도 당시에는 왼쪽에 제시된 문장에 있는 문법이 가능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끝으로 표기법을 보겠습니다. ①번 문장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기다릴 ‘짜’름이다. - 기다릴 ‘따’름이다.

현대 한국어의 “기다릴 따름이다.”의 경우 ‘따름’은 15세기라면 ‘ㅅ’으로 시작하는 ‘ㅈ’으로 표기됩니다. 이러한 ‘ㅈ’은 일반적으로 현대 한국어의 된소리 즉 경음에 해당한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자료에서 초성의 자음 자리에 ‘ㅅ7, ㅈ, ㅉ, ㅊ, ㅌ’ 등의 표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ㄱ, ㄷ, ㅃ, ㅍ, ㅆ/와 같은 소리로 읽으면 됩니다. 이 경우는 문자의 음가 문제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②번 문장의 표기법을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② 그‘부니’ 말‘쓰믈’ 잘 ‘드러’ 봄시다. -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 봄시다.

현대 한국어와 15세기에 문자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 한국어의 표기법은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또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와 결합하면 그 둘을 분리하여 적습니다. ‘그 분 의, 말 씬 을, 들 어’가 그러한 예인데요, 이러한 표기법을 분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5세기에는 일반적으로 ‘그 부 니, 말 쓰 믈, 드 러’처럼 앞에 오는 명사나 어간의 마지막 자음을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의 첫 자음 자리로 옮겨서 적었습니다. 이러한 표기 방식을 연철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③번 문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③ 나하고 함께 ‘값’ 사람 - 나하고 함께 ‘갈’ 사람[싸람]

‘가다’라는 어간에 관형형 어미 ‘ㄹ’이 결합하고 여기에 명사 ‘사람’이 결합하면 ‘갈싸람’처럼 발음되는데, 현대 한국어의 표기법에서는 이러한 발음의 변화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그냥 ‘갈 사람’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5세기에는 이러한 경우에 관형형 어미 ‘ㄹ’ 뒤에 다음 음절의 첫 자음이 된소리 즉 경음으로 발음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글자인 ‘여린히울 ㅎ’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③번의 왼쪽 문장에 보이는 것처럼 ㄹ 뒤에 여린히울이 있는 ‘값 사람’처럼 표기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15세기와 현대 한국어를 비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차이는 100년 전과 현대 한국어 사이에서도 발견됩니다. 물론 그 차이는 현대와 15세기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표기, 음운, 단어, 문법 등 언어 표현의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수업에서 자료를 볼 때는 당연히 모든 자료가 현대의 한국어와 비교할 때 언어의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날 것이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훈민정음 언해’에 대한 이해와 강독

우리는 앞에서 현대 한국어와 15세기의 한국어가 어떤 면에서 다를지 예상하는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토대로 ‘훈민정음’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설명하지는 않고 반복해서 읽은 후, 현대국어와 비교하면서 15세기의 국어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자료는 《훈민정음 언해》의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오른쪽에는 큰 글씨로 된 한자가 써 있고, 각각의 한자 밑에 조금 작은 한글로 한자의 음이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글씨들로 어떤 내용이 쓰여 있으며, 중간쯤 한글로 크게 쓰인 한국어 부분이 보입니다. 물론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표기도 보입니다.

원래 1443년에 훈민정음, 즉 한글이 처음 만들어지고 그 문자를 설명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을 일반적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합니다. 이때 ‘해례’는 해설을 하고 예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사진에서 보듯이 한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을 만들고 그 해설서를 왜 한문으로 썼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글이 처음 만들어지고 한글의 해설서를 한글로 쓴다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지식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문으로 해설서를 만드는 게 당연했을 겁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온 이후에 그 책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진에 보이는 《훈민정음 언해》입니다. 여기서 ‘언해’라는 것은 한국어로 번역했다는 뜻입니다.

이 책의 구조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큰 글씨가 있고 작은 글씨들이 있습니다. 큰 글씨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문으로 쓰여 있는 부분입니다. 중간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문이 끝나는 부분을 보면, 한문을 읽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사 ‘이’가 보이죠? 조금 왼쪽에는 한문 뒤에 ‘아래아’가 있는 ‘햏’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이러한 ‘이’나 ‘햏’ 같은 말들은 한문을 끊어서 읽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사나 어미와 같은 종류의 말들입니다. 그리고 중간 조금 왼쪽에도 ‘아래아’가 있는 ‘나랏말싸미’라는 표기가 보이죠? 이 부분은 한 줄 오른쪽에 있는 한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한문으로 쓰여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보았던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한자가 써 있는 부분을 보시면 각각의 한자에 한글로 한자의 음을 붙여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 한자음은 실제로 당시에 발음되던 한자음은 아니었습니다. 세종이 한글을 만들고 그다음에 한 작업 중에는 한자음의 표준음을 이상적으로 결정하는 작업도 있었는데, 그 결과로 나온 책이 《동국정운》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한자음 표기는 바로 그러한 표준화의 결과로 나온 표기로,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고 합니다. 화면 가운데쯤의 제일 위에 한자 國(국)이 보이는데요, 그 바로 밑에 작은 글씨로 ‘꺄’이라고 써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이 한자는 당시에 실제로는 ‘국’으로 발음되었지만 동국정운식의 이상적인 한자음인 ‘꺄’이 적힌 겁니다. “한자음은 원래 이렇게 발음되어야 한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표기에 보이는 한자음이 실제로 그대로 발음되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업을 진행할 때는 한자음은 현재의 한자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으로 크게 쓰인 부분 바로 다음에는 작은 글씨들이 보입니다. 그 부분은 한문에 보이는 한자를 설명하거나 한자어의 뜻풀이를 보이는 내용입니다. 요즘 식으로 하면 주석에

해당합니다.

“國之語音”이라는 한문을 번역한 ‘나랏말싸미’도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나랏’으로 시작하는 부분 보이시지요? 이 부분은 주석을 참조하면서 한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결과입니다. 물론 현재에는 사용하지 않는 표기도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나랏말싸미’를 보면 각 글자의 왼쪽에 점이 찍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것을 방점이라고 합니다. ‘나’ 옆에는 점이 없고 ‘랏’ 왼쪽에는 점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말’ 왼쪽에는 점이 두 개 찍혀 있습니다. 이 점은 당시의 성조 즉 말의 높낮이를 표기한 것입니다. 점이 없으면 낮은 소리이고, 점이 하나 있으면 높은 소리이며, 점이 두 개 있으면 처음에는 낮게 발음하다가 나중에는 높은 소리로 발음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들 각각을 평성, 거성, 상성이라고 합니다. 점이 없는 낮은 소리는 평성, 점이 하나 있는 높은 소리는 거성, 점이 두 개 있는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는 상성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상성은 현대 한국어의 표준어에서는 대개 긴소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점은 훈민정음 즉 한글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표기되어 16세기 말까지 계속 표기됩니다. 현대 한국어의 표준어에는 말의 높낮이가 뜻을 구별해 주지 않지만 15세기와 16세기에는 말의 높낮이가 뜻을 구별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조가 표기에도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15세기나 16세기의 자료를 다룰 때 이러한 성조까지 함께 이야기해야 완전하겠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편의상 성조 부분은 제외하고 읽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지금 본 이 사진의 내용 중 일부를 보기 쉽게 활자화시켜서 자료의 형식에 대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①번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한문은 ‘國之語音’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문을 읽기 위해 문법형태소 ‘이’가 들어가서 ‘國之語音이’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한자의 뒤에 ‘國·국·之·징·語·어’에서 보듯이 조금 작은 글씨로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적게 됩니다. 이게 첫 줄이고요, 그 다음 줄을 보시면 한자 國이 한국어로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國은 나라히라’라고 써 있는데 현대 한국어로 하면 ‘국은 나라이다’가 됩니다. 그런데 국가를 의미하는 ‘나라’라는 명사가 15세기에는 ‘ㅎ’으로 끝나는 말이었습니다. 이 명사에 ‘이다’라는 말이 붙으면 당연히 ‘나라히다’가 되겠지요. 그리고 15세기에는 ‘이다’는 항상 ‘이라’로 쓰였기 때문에 ‘國은 나라히라’가 됩니다. 여기서 한자 國 다음에 보이는 글자 ‘은’은 아래아라고 하는 점과 같이 생각되는 모음 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어의 조사 ‘은’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③번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之’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받침에 동그라미인 이응이 보이시지요? 동국정운식 한자음에서는 하나의 글자가 온전하게 음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초성, 중성, 종성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之’처럼 종성이 없는 한자들이 있어서 이 경우에는 실제 발음에는 없어도 이상적으로 종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아서 동그라미인 이응을 붙였습니다. 이 이응은 현대국어에서는 ‘궁’하고 발음할 때의 받침과 모습이 같은데요, 15세기에는 이러한 받침의 소리가 나는 이응은 지금과 모습이 달라서 동그라미 위에 꼭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옛이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한자음 ‘지’ 밑에 보이는 동그라미는 어떤 발음을 가졌을까요? 이것은 발음이 되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이응입니다. 이러한 예는 현대 한국어 표기에서도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아’라고 할 때 모음 앞의 동그라미는 아무 음가가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 다음에 아래아가 있는 조사가 들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은’이 현대국어의 ‘은’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조사 ‘는’은 현대 한국어의 조사 ‘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뜻풀이에 ‘입꺀’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은 ‘문법형태소’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④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語에 대해 현대 한국어의 ‘말씀’에 해당하는 표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석을 토대로 하여 “國之語音이”가 “나랏말씀미”로 번역되어 표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외형적으로는 현대 한국어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에서의 ‘말씀’은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자료에 보이는 ‘말씀’에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말’로 번역해도 됩니다.

①번의 한문에 ‘音(음)’이라는 한자도 있는데 이 한자에 대해서는 주석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책에서 《훈민정음》이라는 명칭을 보일 때 이미 ‘音(음)’이라는 한자에 대해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같은 것을 두 번 보이는 일이 비경제적이라고 생각해서 생략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①의 한문에 조사 등을 붙이고, ②부터 ④까지 각각의 한자에 대한 설명을 한 후 결국 ⑤의 ‘나랏말씀미’와 같은 번역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15세기 문헌의 형식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제 《훈민정음 언해》의 한국어 번역 부분만 따로 떼어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면서 앞에서 현대 한국어와 15세기 한국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언어적 약속에서 다르다고 말씀 드릴 때 설명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에 원문과 띄어쓰기를 한 것을 함께 보였습니다. 제가 읽으면 어떻게 읽는지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랏 말씀미

中東國國에 달아 文文字종와로 서르 스몏디 아니홀씨
 이런 전초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흙 배 이셔도
 ㅁ춤내 제 ㅼ들 시러 ㅼ디 ㅁ흙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彔하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 여들 字종를 밍꺀노니
 사름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ㅼ메 便便安안키 ㅎ고져 흙 ㅼ르미니라

이번에는 원문을 띄어쓰기한 것만 전체를 읽어 보겠습니다.

나랏 말씀미 中國(중국)에 달아

文字(문자)와로 서르 스몏디 아니홀씨
 이런 전초로 어린 百姓(백성)이 니르고져 흙 배 이셔도
 ㅁ춤내 제 ㅼ들 시러 ㅼ디 ㅁ흙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위)하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 여들 字(자)를 밍꺀노니
 사름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ㅼ메 便安(편안)키 ㅎ고져 흙 ㅼ르미니라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잠시 드리고 제가 다시 읽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①번을 소리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 말쓰미 中國(중국)에 달아

②번을 소리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文字(문자)와로 서르 스몯디 아니홀씨

③번을 소리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츠로 어린 百姓(백성)이 니르고져 훗 배 이셔도

④번을 소리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ㅁ춤내 제 뜨들 시러 퍼디 몬훗 노미 하니라

⑤번을 소리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를 爲(위)햏야 어엿비 너겨

⑥번을 소리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스믈 여늬 字(자)를 밍궤노니

⑦번을 소리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름마다 히여 수빅 니겨

마지막으로 ⑧번을 소리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날로 뿌메 便安(편안)키 햏고져 훗 썩궤미니라

이번에는 현대한국어 번역을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문법이나 표기 등은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여러분은 15세기의 표현과 현대 한국어의 표현을 비교해서 읽으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추측만 하시면 됩니다. 현대어 번역은 두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으로 가는 중간 단계를 하나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에 제시된 것이 현대국어의 번역입니다.

나라 말쓰미 中國(중국)에 달아

나라 말쓰미 중국에 달라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말씀’에 존경의 의미가 없다는 점은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르다’라는 형용사는 현대 한국어와 활용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다르다’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다르다, 다르고, 달라’와 같이 활용하지만 15세기에는 ‘다르다’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다르’로 실현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달ㅇ’으로 실현되어서 ‘다르다, 다르고, 달아’처럼 활용하였습니다. 이때 ‘달아’로 표기된 이유는 두 번째 음절에 있는 ‘ㅇ’가 음가가 있는 자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한자 ‘之(지)’의 종성에 발음되지 않는 이응을 쓴

예에서 보았듯이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종성 이응(ㅇ)이나 ‘아’라고 할 때의 초성의 ‘ㅇ’은 음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훈민정음 언해》에 보이는 ‘달아’의 이응(ㅇ)은 음가가 있는 자음이었으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음이 아니라면 ‘달아’처럼 분철이 되지 않고 ‘다라’로 연철되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르다’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 앞에 조사가 올 때는 ‘나는 너와 다르다’처럼 조사 ‘와/과’가 있어야 하지만 15세기에는 조사 ‘에’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다르다”와 같은 표현이 가능했던 겁니다.

나랏 말쓰미 中國(중국)에 달아
나랏 말쓰미 중국에 달라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다음 부분입니다.

文字(문자)와로 서르 스몏디 아니홀씨
문자와로 서로 사맛지 아니하므로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서르’는 ‘서로’로 바뀌었고요, 자료에는 ‘스’ 받침의 ‘스몏디’로 쓰였는데, ‘스’ 받침의 ‘사몏디’는 현대국어의 ‘사무치다’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의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몏디’는 ‘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몏디’의 ‘디’는 현대국어에서는 구개음화를 겪은 후 ‘지’로 바뀌었습니다. ‘아니홀씨’에 보이는 아래아가 있는 ‘홀’은 현대국어의 동사 ‘하다’의 활용형 ‘할’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니홀씨’는 ‘아니하므로’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文字(문자)와로 서르 스몏디 아니홀씨
문자와로 서로 사맛지 아니하므로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이런 전초로 어린 百姓(백성)이 니르고져 ्ह 배 이셔도
이런 까답으로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여기서 ‘전초’는 까답이나 이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어리다’는 ‘어리석다, 생각이 깊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르다’는 ‘이르다,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르ㅎ’이 받침에 있는 ‘्ह’은 ‘할’로 번역하면 되는데, 여린히웅(ㅎ)은 관형형 뒤의 경음화를 표기해 주는 것입니다. ‘배’는 ‘것’을 뜻하는 ‘바’라는 의존명사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현대 한국어라면 ‘바가’로 표기될 겁니다. ‘이셔도’는 ‘이시다’의 어간에 어미 ‘-어도’가 결합한 것인데, ‘이시다’는 현대 한국어의 ‘있다’에 이어집니다.

이런 전초로 어린 百姓(백성)이 니르고져 ्ह 배 이셔도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ㅁ츨내 제 ㅼ들 시러 ㅼ디 ㅁㅎ 노미 하니라
마침내 제 뜻을 능히 ㅼ지 못할 사람이 많으니라
마침내 자기의 뜻을 능히 (글로) ㅼ치지(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아래아가 있는 ‘ㅁ츨내’는 현대 한국어에서 ‘마침내’가 되었고요, ‘ㅁ’으로 시작하고 ‘ㄷ’ 받침이 써 있는 ‘ㅼ’은 현대 한국어의 ‘뜻’에 이어집니다. 여기 보이는 ‘ㅁ’은 원래 두 자음이 모두 발음되었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경음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예전 자료를 읽을 때도 경음으로 읽습니다. ‘ㅼ디’의 ‘디’는 구개음화를 겪었고요, ‘ㅁ’도 ‘ㄷ’ 종성이었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ㅅ’ 종성으로 표기됩니다. ‘ㄹㅎ’이 쓰인 ‘ㅎ’은 관형형 어미를 ‘ㄹㅎ’으로 고정시켜서 표기한 것입니다. ‘ㅁㅎ 노미’는 현대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못할 놈이’가 되겠지만 당시에 ‘놈’은 현대 한국어처럼 다른 사람을 낮추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니라’의 ‘하다’는 ‘많다,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던 단어인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매우 많다라는 뜻을 가지는 ‘하고많다’에 남아 있습니다.

ㅁ츨내 제 ㅼ들 시러 ㅼ디 ㅁㅎ 노미 하니라
마침내 제 뜻을 능히 ㅼ지 못할 사람이 많으니라
마침내 자기의 뜻을 능히 (글로) ㅼ치지(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이를 爲(위)ㅎ야 어엿비 너겨
내 이를 위하여 불쌍하게 여겨
내가 이것을 위하여 불쌍하게 생각하여

여기서 ‘내’는 1인칭 대명사 ‘나’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엿브다’는 형태적으로 현대 한국어의 ‘예쁘다’에 이어지지만 그 뜻은 ‘불쌍하다’였습니다.

내 이를 爲(위)ㅎ야 어엿비 너겨
내 이를 위하여 불쌍하게 여겨
내가 이것을 위하여 불쌍하게 생각하여

새로 스물 여덟 字(자)를 ㅁㅇ노니
새로 스물 여덟 자를 ㅁㅇ노니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여기서 ‘스물’은 ‘ㅁ’ 뒤에서 ‘으’가 ‘우’로 변하여서 현대 한국어에서는 ‘스물’이 되었습니다. ‘여덟’의 두 번째 음절의 모음 ‘으’는 ‘어’로 변했고요. ‘ㅁㅇ노니’는 현대 한국어의 ‘만들다’에 해당하는 ‘ㅁㅇ다’라는 동사에 어미 ‘-노니’가 결합한 것인데, 이 어미는 현대 한국어에서 그냥 ‘-니’로 번역하면 됩니다. ‘ㅁㅇ’의 어간 말 ‘ㄹ’이 ‘노니’의 ‘ㄴ’ 앞에서

탈락하여 ‘밍ㄱ노니’가 되었습니다.

새로 스물 여덟 字(자)를 밍ㄱ노니
새로 스물 여덟 자를 맵가노니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사름마다 히여 수빅 니겨
사람마다 하게 하여 쉽게 익혀
사람마다 쉽게 익히게(배우게) 하여

두 번째 음절에 아래아가 있던 ‘사름’은 아래아가 ‘아’로 변하여 현대 한국어에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음절에 이음이 두 개 보이는데, ‘히여’는 매우 특이한 표기입니다. ‘하다’의 어간에 ‘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더하기 위해 접미사 ‘이’를 결합하였고 여기에 어미 ‘어’가 다시 결합한 것입니다. 특이한 표기이기 때문에 표기 자체에 대한 이해까지는 하지 않고, 뜻이 ‘하게 하다, 하게 만들다’라는 정도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빅’라는 표기가 보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쉽게’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빅’ 밑에 동그라미가 있는 자음은 ‘순경음 비읍’이라고 합니다. 두 입술을 아주 살짝 닿게 하다가 떼어내는 발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 자료를 읽을 때는 그냥 ‘빅’으로 읽습니다. ‘수빅’은 순경음 비읍으로 끝난 어간 ‘실’에 부사를 만드는 ‘이’가 결합하면서 어간의 모음 ‘이’가 떨어져서 만들어진 어형입니다. ‘니겨’는 현대 한국어에서 ‘학습하다, 배우다’라는 의미를 갖는 ‘익히다’의 활용형 ‘익혀’에 해당합니다.

사름마다 히여 수빅 니겨
사람마다 하게 하여 쉽게 익혀
사람마다 쉽게 익히게(배우게) 하여

날로 뿌메 便安(편안)키 ᄒ고져 ᄒᄒ 썩르미니라
날로 썩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날마다 사용하기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ㅂ’으로 시작하는 ‘뿌메’는 현대 한국어에서 사용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쓰다’의 명사형에 조사 ‘에’가 결합한 것과 같습니다. 15세기에는 초성의 ㅂ과 ㅅ이 모두 발음되었지만 자료를 읽을 때는 그냥 ‘ㅃ’로 읽습니다. ‘ᄒᄒ’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현대 한국어의 ‘하다’의 관형형 ‘할’로 이어집니다. ‘르ᄒ’에도 ‘여린히울’이 보입니다. ‘ㅃ’으로 시작하는 ‘썩르미니라’는 ‘썩름’에 ‘이다’라는 뜻을 갖는 ‘이니라’가 결합한 어형입니다. 이때 ‘ㅃ’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ㅍ/로 실현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당시에 /ㅍ/로 발음되었으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날로 뿌메 便安(편안)키 ᄒ고져 ᄒᄒ 썩르미니라
날로 썩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날마다 사용하기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혹시 앞에서 잠시 이야기했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15세기와 현대한국어의 약속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고 했던 이야기에서 두 시기의 언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들은 바로 이 훈민정음언해에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보고 오셔도 됩니다. 다시 한 번 비교해서 읽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 더 좋고 눈으로 따라 읽으셔도 됩니다. 따라 읽으면서 《훈민정음 언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15세기의 한국어와 현대의 한국어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굳이 어떤 표기나 어형에 대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시지 말고 감각적으로 15세기의 언어는 이런 방식으로 읽으면 되는구나 하고 느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먼저 읽으실 시간을 드리고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①번의 15세기 표기를 소리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랏 말싸미 中國(중국)에 달아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②번의 15세기 표기를 소리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文字(문자)와로 서르 스몯디 아니홀씨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③번의 15세기 표기를 소리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초로 어린 百姓(백성)이 니르고져 훗 배 이셔도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④번의 15세기 표기를 소리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ㅁ츨내 제 ㅼ들 시러 ㅼ디 ㅁㅎ 노미 하니라
마침내 자기의 뜻을 능히 글로 펼치지(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⑤번의 15세기 표기를 소리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를 爲(위)햏야 어엿비 너겨
내가 이것을 위하여 불쌍하게 생각하여

⑥번의 15세기 표기를 소리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스물 여덟 字(자)를 ㅁㅇ노니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⑦번의 15세기 표기를 소리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름마다 히여 수비 니겨
사람마다 쉽게 익히게(배우게) 하여

⑧번의 15세기 표기를 소리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날로 ㅼ매 便安(편안)키 ㅎ고져 훗 ㅼ르미니라
날마다 사용하기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지금까지 《훈민정음 언해》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처음보다는 읽는 데 불편함이 적어지셨나요? 이 강의는 지금 훈민정음을 본 방식으로 여러 자료를 함께 읽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물론 이번 ‘훈민정음’에서는 문법 등의 설명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궁금증이 생기시면 그것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차차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15세기의 문법을 설명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5. 고전 자료 이해를 위한 사전 찾기

현대 한국어와 예전의 한국어는 언어의 여러가지 면에서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한글 자료를 보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반복해서 읽다보면 표기나 음운 등은 어떻게 읽어야 할지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단어가 완전히 다를 때는 그러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전을 참조해서 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예전의 한글 자료를 읽을 때 사전을 참조하는 방법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위해 가져온 자료는 《용비어천가》입니다. 《용비어천가》는 한글이 창제되고 바로 이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 내용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이 《용비어천가》는 노랫말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구절이 짧으면서 어미가 생략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부분만 현대 한국어로 먼저 보여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뿌리가 땅속 깊이 박힌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린다.

깊은 샘에서부터 나오는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으므로
냇물이 되어 바다까지 간다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내용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다음에 나오는 15세기의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땅속 깊이 박힌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린다.

깊은 샘에서부터 나오는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으므로
냇물이 되어 바다까지 간다

지금 보시는 표기가 15세기의 자료입니다.

불휘 기픈 남근 부르매 아니 뭇씨 곶 도코 여름 하느니
시미 기픈 므른 구믄래 아니 그출씨 내히 이려 바르래 가느니

다시 읽겠습니다.

불휘 기픈 남근 부르매 아니 뭇씨 곶 도쿄 여름 하나니
시미 기픈 므른 ㄱ므래 아니 그츨씨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다음으로는 현대 한국어 번역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한 부분을 읽으시면 제가 그 다음에 읽고 현대 한국어 번역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용비어천가》를 함께 보는 이유는 모르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어 변화 등에 대해서는 설명 없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①번의 15세기 표기를 소리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불휘 기픈 남근
뿌리 깊은 나무는
뿌리가 땅속 깊이 박힌 나무는

②번의 15세기 표기를 소리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매 아니 뭇씨
바람에 안 움직이므로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③번의 15세기 표기를 소리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곶 도쿄 여름 하나니
꽃 좋고 열매 많으니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리니(열린다).

④번의 15세기 표기를 소리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미 기픈 므른
샘이 깊은 물은
깊은 샘에서부터 나오는 물은

⑤번의 15세기 표기를 소리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ㄱ므래 아니 그츨씨
가물에 안 끊어지므로
가뭄에도 마르지 않으므로

⑥번의 15세기 표기를 소리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니
넋물이 되어 바다까지 가니(간다).

《용비어천가》의 한 구절을 보여드렸습니다. 내용도 좋고 시적으로도 운율이 잘 맞는 표현으

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문제는 저와 함께 읽을 때는 제가 현대 한국어에 없는 표현들을 찾아서 제시하지만 여러분이 혼자 읽을 때는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표현을 해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불휘 기픈 남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해석하려면 ‘불휘’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때는 ‘우리말샘’이라는 온라인 사전을 찾아보는 방법을 추천드리면서 사용법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옛글을 혼자서 읽는 힘을 기르시라고 ‘우리말샘’이라는 사전에서 옛 단어를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인터넷을 통해 ‘우리말샘’이라는 곳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화면에서 ‘불휘’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몇 개의 예가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두 번째 ‘불휘’에 “‘뿌리’의 옛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눌러봅니다.

‘불휘’를 누르면 ‘불휘’가 사용된 예문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첫 번째 예시로 ‘불휘 기픈 남근’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방금 전에 찾은 ‘불휘’는 조금 쉬운 경우였습니다.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는 글자와 맞춤법으로 검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전 자료를 보면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문자들이 있으므로 그 문자를 포함한 단어들을 검색하려면 현대 한국어식의 문자 입력과는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말샘’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지요? 《용비어천가》에서 봤던 ‘브르매 아니 밀씨’를 찾는다고 합시다. 우선 ‘브름’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브’라는 글자부터 입력을 해야 합니다.

1단계에는 ‘우리말샘’의 오른쪽 위에 있는 ‘옛한글’ 부분을 누릅니다.

2단계에는 ‘입력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 초성 자음을 찾고 모음 순서를 생각해서 누릅니다. ‘아래아’는 모음 순서에서 가장 뒷쪽에 배치됩니다. 그러면 ‘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로 해당 글자를 누르면 ‘브’가 입력됩니다. ‘름’을 지금 설명드린 순서로 찾아서 ‘브’ 다음에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브름’이라는 단어의 뜻과 예문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이 직접 몇 번 해보시면 익숙해져서 쉽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6. 정리

오늘 강의에서는 처음에 한글 고전 자료 읽기라는 과목의 성격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이 강의에 참여하면 되는지도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아홉 번 더 진행되는 이 강의에서는 100년 전 자료부터 15세기의 자료까지 시간을 거꾸로 훑으면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현대 한국어와 15세기의 한국어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날지를 예측하기 위해 《훈민정음 언해》의 ‘서문’ 부분과 《용비어천가》의 일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적힌 예전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 인터넷 사전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모든 단어가 다 실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없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뜻풀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이니깐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선택형 (8분)

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히어’에는 ‘ㅎ--이--어’로 분석된다.
- ② 15세기 한국어에는 주격조사 ‘가’가 없었다.
- ③ 한자음 종성 표기에 쓰인 ‘ㅇ’은 항상 발음되었다.
- ④ ‘ㅎ’은 관형형 뒤의 경음화를 표기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정답: ③

2.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 ① 15세기 문헌은 연철이 아닌 분철 방식으로 쓰였다.
- ② 《용비어천가》는 완성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③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문이 아니라 한글로 쓰인 책이다.
- ④ 《동국정운》은 한자음의 표준음을 이상적으로 결정하여 정리한 책이다.

정답: ④

3.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15세기 한국어 자료에 쓰인 초성의 ‘ㅅ’은 ‘ㅆ’과 ‘ㅅ’이 모두 발음되었다.
- ② 《훈민정음 언해》에 보이는 ‘달아’의 이응(ㅇ)은 음가가 없는 자음이였다.
- ③ 현대 한국어의 ‘스물’은 ‘ㅁ’ 뒤에서 ‘으’가 ‘우’로 바뀐 변화를 겪은 것이다.
- ④ ‘어리다’는 현대 한국어와 다르게 ‘어리석다, 생각이 깊지 않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정답: ②

단답형 (5분)

1. ‘빙’의 발음에 대해 쓰시오.

정답: 두 입술을 아주 살짝 닿게 하다가 떼어내는 발음

2. ‘밍꺄노니’를 형태소 분석하시오.

정답: 밍꺄- + -노니

3.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오늘 강의의 제5장 ‘고전 자료 이해를 위한 사전 찾기’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용비어천가》가 ()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구절이 짧으면서 어미가 생략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답: 노랫말

O/X형 (5분)

1. 《용비어천가》는 조선이라는 국가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담고 있는 시가이다.

정답: O

2. 현대 국어의 ‘예쁘다’로 이어지는 중세 국어의 ‘어엿쁘다’는 지금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정답: X

3. 중세 국어 자료에는 표준어 규정이나 맞춤법이 제정되지 않아 정제되지 않은 표기들이 나타날 수 있다.

정답: O

나. 토의 (30분)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다. 과제 (60분)

아래 자료를 현대 한국어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현대어로 바꾸어 쓰시오.

나랏말싸미中國에달아文字와로서르스 못디아니할씨이런전 초로어린百姓이니르고저홍배이셔도
뭇츨내제뜨들시러퍼디문홍노미하나라내이를爲호야어엿비너겨새로스물여둡字를밍?노니사름마
다히여수비니겨날로뿌메便安키호고저홍씩르미니라

■ 참고자료

《용비어천가》 (디지털한글박물관)

《훈민정음 언해》 (디지털한글박물관)

우리말샘 (우리말샘 바로가기)

고영근(1987/2010),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이기문(1972/1998),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2차시> 20세기 자료

■ 학습목표

1. 100년 전에 표기된 자료를 소리내어 읽는 능력을 기른다.
2. 100년 전의 한국어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
3. 100년 전의 한국어와 현대 한국어를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핀다.

■ 강의 목차

1. 도입
2. ‘어린이(1923년)’에 대한 이해
3. ‘어린이(1923년)’ 강독
4.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도입

한국어 고전 자료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전 자료의 표기에 접근하는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 지향해 가는 15세기의 자료 중 <용비어천가>와 <훈민정음언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시간을 다시 돌려서 현대에서 조금은 가까운 시기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가깝다고 했지만 그래도 100년 전 자료입니다. 이 시간에 100년 전 자료를 함께 읽어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오래된 자료를 읽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오래된 자료를 읽는 방식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15세기를 향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자료는 1923년에 나온 아동잡지 <어린이>에 실린 동화 한 편입니다. <어린이>라는 잡지는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든 방정환이라는 분이 중심이 되어 1923년에 창간한 아동잡지로 1934년에 폐간되었습니다. 오늘 읽을 동화는 1805년에 태어나서 1875년에 돌아가신 덴마크의 작가 안데르센이 1845년에 지은 ‘성냥팔이 소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동화의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동화를 택했습니다. 읽는 자료의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100년 전의 한국어에 접근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그 자료를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동화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이 동화를 읽으며 100년 전에 표기된 자료를 소리내어 읽는 능력을 기르고, 당시의 한국어에 대해 이해를 한 후, 100년 전의 한국어와 현대 한국어를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피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2. '어린이(1923년)'에 대한 이해

사진에서 보듯이 잡지의 제목인 '어린이'라는 단어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린 글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써 있고, 각각의 행은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표기 방향은 한자 문화권에서 이전부터 써오던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에 글자만 한글로 바꾸면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이 됩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두 면에 걸쳐 번역되어 있습니다. 추워서 떨고 있는 소녀의 모습을 그린 그림도 보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제목이 '석냥파리소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냥'으로 발음되는 단어는 원래 '석류황(石硫黃)'이라는 단어가 변한 것입니다. '돌'을 뜻하는 한자어 '석'에 '유황'이라는 단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석류황'이 '석뉴황'이 되고 단어가 줄어들면서 '석냥'이 된 후에, 사람들이 이 단어의 어원을 모르게 되면서 '석'의 'ㄱ'이 'ㄴ' 앞에서 변한 종성 'ㅇ'이 그대로 표기에 반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파리'는 '팔다'에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이'가 결합하였는데 현대국어 표기법에서는 '팔이'로 쓰이지만 당시에는 발음 그대로 '파리'로 썼습니다.

우선 이 원문을 그대로 입력한 내용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생각하면서 눈과 귀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무섭게추운밤이였습니다. 눈은 자꾸썩다지고 밤은 점점깊허가는데, 이날은 일년에도 맨썩 첫달그믐날밤이였습니다.

이러케춍고 어두운밤에 한어린소녀(少女)가 머리에는 아모것도 돌느지안코, 벌거벗은맨발로 눈싸히는한길을 아장아장것고 잇섯습니다.

벌서 아싸 집에서 나올재에는 헌신발이나마 신엇섯스나 그 나마 돌아가신어머니가 신으시든 것이엇슴으로 넘우도커서 발에맞지안는것을 그대로 쓸면서다니다가 아싸 두채의마차가 몹시빨 른속력으로, 화닥닥엽흘지날적에 급히피하야 길을건느는통에 벗겨져버렸습니다.

마차가지나간후에 다시가서 아모리차젼스나 한쌍은 영영보이지안हत고 남아지한쌍은 심술구 존아이에게뺏기어 흙투성이가 되고 말앗습니다.

그래서이 소녀는 벌거벗은맨발로 눈싸힌길을것고잇섯습니다.

가엽게도 족으만발은 열고열어서 뺨아타가못하야 자짓빛이되엇습니다. 소녀는 헌 압치마에 는 석냥갑을 만히싸들고 쏘한손에도석냥갑을 들고잇섯습니다.

오늘은원종일 이새까지돌아다녀도 한사람도 석냥을팔아주는이가업고 동전한푼주는사람도 업 셧습니다. 배는곱흐고 춥기는 하고 가련한소녀는 발발떨면서 타박타박것고잇섯습니다.

함박가티썩다지는 눈송이는 자꾸나려와 소녀의 탐스럽게 긴머리우를 하-야케덥혔습니다. 그 러나 소녀는 그것을 털마음도 괴운도업섯습니다.

행길좌우편에 즐비하게 느러서잇는집집의 유리창으로서는 몹시짜뜻해보이는 불빛이 불어웁 게흘러나오고 썩곱고 국쓸히는맛잇는내암새가 코에까지마쳐웁니다. 소녀는 줄임과추위에 견디 지못하게되엇습니다.

집과집사이의 첩하미테 흙진곳이잇서서 소녀는 거기가썩그리고 안젼습니다. 차딛차게열고 열 은발을 족음이라도눅일가하고 두손으로만저도보고 몸뚱으로썩으려 너허보기도하엿스나 차딛찬 랭기가전신에숨여들뿐이엇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썬석냥을한갑도팔지못하였슴으로 그냥 빈손으로는 집에돌아갈수가 업섯습니다.

빈손으로돌아가면 사나운 아버지에게 죽도록 어더맛기만할일이 썬하였슴입니다. 그리고 집에 간대야 춤기는 마찬가지로입니다. 집이라고 이름만집이지 아모리집히나 헌겁조각으로 구녁을틀어막드라도 살을벨듯이 모진바람이 싸-싸-들어오는데 어찌케 무슨수로춤지안켓습니까…….

남의집침하미테 쏘그리고 안즌소녀의몸은 점점심하게열어서 살수업시되엇습니다.

하다못하야 “이석냥이라도 한개쓰어내서 불을켜면은 그래도 손씻만이라도녹일수가잇겠지……”하였슴니다.

소녀는 석냥한개피를써내서드옥그엇슴니다. 확-하고 밝은 불이켜젓슴니다. 소녀는 얼어빠진 두손으로 석냥불을 에워쌌슴니다.

아아 하고 얇은한숨을쉬이면서 그때 소녀의두눈에는 눈물이핑돌앗슴니다.

소녀는 손을 녹이면서 환하게 빛나는 그불을 드러다보느라니까 이상도하지요 눈물에서즌 그눈에는 훌륭한 커-다란난로가보이고 자괴가 그크고 훈훈한난로엽헤불을쏘이고잇는것가답슴니다. 노-라코짹안불은 휘황하게 아름답게 타오르고잇섯슴니다. 소녀는 발을녹일양으로 두다리를써드니까 아차 석냥불은그만써져버렸슴니다.

눈에보이든 커-다란난로도 살아져버렸슴니다. 손에남아잇는것은 타다남은 석냥개비뿐이엇슴니다.

소녀는 쏘한개를 드옥그엇슴니다. 확! 하고 불이켜지니까 그엽헛벽(壁)이 얇다란비단가티 흰하게 그속이드러다보였슴니다. 보니까 거괴에는 방이하나잇고갓채려노흔밥상우에는 김이 무렁무렁나게 통으로 그냥구어노흔 썬이노혀잇섯슴니다.

그리더니 이상하게 그썬이살아나서 그릇에서뛰어나와서 버둥버둥젓슴니다. 다른 곳으로도아니가고 소녀압흐로 걸어웁니다. 그러자 그때 석냥불이 흑 써져버리고 엽헤는 차디찬담벼락이 보일뿐이엇슴니다.

소녀는 쏘하나를켓슴니다.

이번에는 설빔작만해논것이 보였슴니다. 수업시 만히켜노흔 불빛에 찬란히비추는 빗고흔 비단당기와 썬작썬작빛나는 어여쁜구두며 비단치마 비단저고리가 어찌케도훌륭한지 상점류리창에 늘어노흔 구두나 비단도 이리케곱지는못하리만큼 훌륭한것이엇슴니다.

그러자 안탁갑게도 쏘석냥불이써져버렸슴니다. 그리고 그만흔불은 점점점점 한올로솟아올라가더니 한올에가서 별이되엇슴니다.

그중에하나가 길다라케 꼬리를썬고 썬루룩썬어젓슴니다. 소녀는 그것을 보고

“아아, 지금 누가하나 죽었나보다!”하였슴니다. 그것은 전에 돌아가신 한머니께서 “한올에서 별이떨어지는것은 사람하나가 죽어서 그령흔이 한올나라로 가는표란다” 하고 가르켜주신것을 닛지안코 잇는싸닭이엇슴니다.

이가련한소녀를 짜뜻이 사랑해준이는 이세상에서 그한머니가단한분뿐이엇슴니다. 불상한소녀는어더맛고구박을마즐씩마다몸이압흐고숨흘적마다어찌케그한머니를 부르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소녀는쏘하나를드옥그엇슴니다. 확!하고불이켜져서 다시환하게 밝아젓슬때에 거괴에는 반가운반가운 한머니가 덕이넘치는부들어운얼굴로서계시지안습니까.

“아아, 한머니!”하고 소녀는 소리젓슴니다. 그리고 목메인 소리로 “한머니이 제발 저를 다리고 가셔요? 네? 한머니 이석냥불이 써지면 한머니께서는 살아져업서지지만습니까 한머니 제발저를다리고가주셔요”라고 애원하였슴니다. 그러면서 일변남은석냥을 다 풀어서 한써번에 불

을켰습니다. 한머니를 오랫동안 여긔있게하려는생각이었습니다.

석냥불은 햇빛보다도 더밝고찬란스럽게빛났습니다.

한머니의모양은처음보게아름답고 커-다래보였습니다. 한머니는오래간만에 이불상한손녀(孫女)를 두팔로 꼭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점점점점솟아올라서 밝게빛나는 속으로 높히 높히올라 갔습니다. 거기는 멀고먼한울나라였습니다. 인제는소녀에게추위도, 줄임도, 걱정도, 아모것도 남지아니하였습니다.

춡고쌀쌀한새벽 먼동이 흰하게밤아올재에 이집담엽헤 소녀는 째이 불그레-하고 입모습에는 웃음을 찌운채로 죽어 잇섯습니다.

새해의 아츰햇빛은 이죽으만죽음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안즌채로 고대로 죽어버린소녀는 죽은후까지도 손에는 타다남은석냥을 들고잇섯습니다.

그것을 본사람들은,

“가여워라, 이석냥불로 몸을녹이려했고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케 아름다운것을보고 밝은광채중에서 한머님과함께새해를마즌줄은 아모도 아지 못하였습니다(웃)

전체 내용은 어느정도 알 듯도 한데, 현재와는 띄어쓰기와 맞춤법에 차이가 나서 정확하게 뜻을 파악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았고 계속 반복되는 표현도 있고 하므로 첫 번째 읽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재와 같은 띄어쓰기를 한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무섭게 추운 밤이었습니다.

눈은 자꾸 쏘다지고 밤은 점점 깊혀 가는데,

이 날은 일년에도 맨쫓 첫달그믐날 밤이었습니다.

이러케 춡고 어두운 밤에 한 어린 소녀(少女)가

머리에는 아모것도 돌느지 안코,

벌거벗은 맨발로 눈 싸히는 한길을 아장아장 것고 잇섯습니다.

벌써 아싸 집에서 나올 재에는 흰 신발이나마 신엇섯스나

그 나마 돌아가신 어머니가 신으시든 것이엇슴으로

넘우도 커서 발에 맞지 안는 것을 그대로 끌면서 다니다가

아싸 두 채의 마차가 몹시 빨른속력으로, 화닥닥 엽흘 지날 적에

급히 피하야 길을 건느는 통에 벗겨져 버렸습니다.

마차가 지나간 후에 다시 가서 아모리 차젼스나

한 째은 영영 보이지 안하고 남아지 한 째은 심술구즌 아이에게 췌기어

흙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벌거벗은 맨발로 눈 싸힌 길을 것고 잇섯습니다.

가엽게도 족으만 발은 열고 열어서 췌아타가 못하야 자젼빛이 되었습니다.

소녀는 흰 압치마에는 석냥갑을 만히 싸들고

또 한 손에도 석냥갑을 들고 잇섯습니다.

오늘은 원종일 이재까지 돌아다녀도

한 사람도 석냥을 팔아주는 이가 업고

동전 한 푼 주는 사람도 업섯습니다.

배는 곱히고 춤기는 하고
 가련한 소녀는 발발 썰면서 타박타박 걷고 잇섯습니다.
 함박가티 쏘다지는 눈송이는 자꾸 내려와
 소녀의 탐스럽게 긴 머리 우를 하-야케 덮혔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그것을 털 마음도 괴운도 업섯습니다.
 행길 편에 즐비하게 느려서 잇는 집집의 유리창으로서는
 몹시 짜뜻해 보이는 불빛이 불어옴게 흘러나오고
 썩 굵고 국 쓸히는 맛잇는 내암새가 코에까지 마쳐 옵니다.
 소녀는 줄임과 추위에 견디지 못하게 되섯습니다.
 집과 집 사이의 침하 미테 흙 진 곳이 잇서서
 소녀는 거기 가 쏘그리고 안젓습니다.
 차디차게 열고 열은 발을 족음이라도 녹일가 하고
 두 손으로 만져도 보고 몸 맛으로 꼽으려 너허 보기도 하였스나
 차디찬 랭기가 전신에 숨여들 썩이섯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새섯 석냥을 한 갑도 팔지 못하였슴으로
 그냥 빈손으로는 집에 돌아갈 수가 업섯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면
 사나운 아버지에게 죽도록 어더맛기만 할 일이 썩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간대야 춤기는 마찬가지로입니다.
 집이라고 이름만 집이지
 아모리 집히나 헌겁 조각으로 구녁을 틀어막드라도
 살을 벨 듯이 모진 바람이 썩-썩- 들어오는데
 어찌케 무슨 수로 춤지를 안젓습니까…….
 남의 집 침하 미테 쏘그리고 안즌 소녀의 몸은
 점점 심하게 얼어서 살 수 업시 되섯습니다.
 하다못하야
 “이 석냥이라도 한 개 쓰어내서 불을 켜면은
 그래도 손 썩만이라도 녹일 수가 잇겠지……”하였습니다.
 소녀는 석냥 한 개피를 썩내서 드욱 그엇습니다.
 확-하고 밝은 불이 켜젓습니다.
 소녀는 얼어빠진 두 손으로 석냥불을 에워쌌습니다.
 아아 하고 얇은 한숨을 쉬이면서
 그새 소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다.
 소녀는 손을 녹이면서
 환하게 빛나는 그 불을 드러다보느라니까
 이상도 하지요
 눈물에 저즌 그 눈에는 훌륭한 커-다란 난로가 보이고
 자기가 그 크고 훈훈한 난로 옆헤 불을 쏘이고 잇는 것 가탯습니다.
 노-라코 째안 불은 휘황하게 아름답게 타오르고 잇섯습니다.
 소녀는 발을 녹일 양으로 두 다리를 썩드니까
 아차 석냥불은 그만 썩져 버렸습다.

눈에 보이든 커-다란 난로도 살아져 버렸습니다.
 손에 남아 있는 것은 타다 남은 석냥개비뿐이었습니다.
 소녀는 또 한 개를 드웁 그었습니다.
 확! 하고 불이 켜지니까
 그 엽헛 벽(壁)이 얇다란 비단가티 흰하게 그 속이 드러다보였습니다.
 보니까 거기에는 방이 하나 있고
 갓 채려 노흔 밥상 우에는
 김이 무령무령 나게 통으로 그냥 구어 노흔 썰이 노혀 잇섯습니다.
 그리더니 이상하게 그 썰이 살아나서
 그릇에서 뛰어나와서 버둥버둥 깃습니다.
 다른 곳으로도 아니 가고 소녀 압흐로 걸어옵니다.
 그러자 그새 석냥불이 흑 써져버리고
 엽헛는 차디찬 담벼락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소녀는 또 하나를 켓습니다.
 이번에는 설빔 작만해 논 것이 보였습니다.
 수업시 만히 켓 노흔 불빛에 찬란히 비추는
 빗 고흔 비단 당기와 째작째작 빛나는 어여쁜 구두며
 비단 치마 비단 저고리가 어찌케도 훌륭한지
 상점 류리창에 늘어노흔 구두나 비단도
 이리케 곱지는 못하리만큼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안탁갑게도 또 석냥불이 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만흔 불은 점점점점 한울로 솟아 올라가더니
 한울에 가서 별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길다라케 쏘리를 끌고 쭈루룩 떨어졌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보고
 “아아, 지금 누가 하나 죽었나 보다!”하였습니다.
 그것은 전에 돌아가신 한머니께서
 “한울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은 사람 하나가 죽어서
 그 령혼이 한울나라로 가는 표란다” 하고
 가르켜 주신 것을 닛지 안코 잇는 짜담이었습니다.
 이 가련한 소녀를 짜쑤이 사랑해 준 이는
 이 세상에서 그 한머니가 단 한 분뿐이었습니다.
 불상한 소녀는 어더맛고 구박을 마즐 썩마다
 몸이 압흐고 슴흘 적마다
 어찌케 그 한머니를 부르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소녀는 또 하나를 드웁 그었습니다.
 확! 하고 불이 켜져서 다시 환하게 밝아졌을 췌에
 거기에는 반가운 반가운 한머니가
 덕이 넘치는 부들어운 얼굴로 서 계시지 안습니까.
 “아아, 한머니!”하고 소녀는 소리 쳤습니다.
 그리고 목 메인 소리로 “한머니이 제발 저를 다리고 가셔요? 네?

한머니 이 석냥불이 썬지면 한머니께서는 살아져 업서지지 안습니까
 한머니 제발 저를 다리고 가 주셔요”라고 애원하엿습니다.
 그러면서 일변 남은 석냥을 다 풀어서 한꺼번에 불을 켜습니다.
 한머니를 오랫동안 여긔 잇게 하려는 생각이엿습니다.
 석냥불은 햇빛보다도 더 밝고 찬란스럽게 빛났습니다.
 한머니의 모양은 처음 보게 아름답고 커-다래 보엿습니다.
 한머니는 오래간만에 이 불상한 손녀(孫女)를 두 팔로 꼭 썬안앗습니다.
 그리고 점점점점 솟아 올라서
 밝게 빛나는 속으로 높히 높히 올라갓습니다.
 거긔는 멀고먼 한올나라엿습니다.
 인제는 소녀에게 추위도, 줄임도, 걱정도, 아모것도 남지 아니하엿습니다.
 춥고 쌀쌀한 새벽 먼동이 흰하게 밝아올 썬에 이 집 담 엽헤
 소녀는 뽀이 볼그레-하고 입 모습에는 웃음을 썬 채로 죽어 잇섯습니다.
 새해의 아침 햇빛은 이 족오만 죽음을 환하게 비추엿습니다.
 안즌 채로 고대로 죽어 버린 소녀는
 죽은 후까지도 손에는 타다 남은 석냥을 들고 잇섯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가여워라, 이 석냥불로 몸을 녹이려 했고나” 하엿습니다.
 그러나
 그러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밝은 광채 중에서
 한머니와 함께 새해를 마즌 줄은
 아모도 아지 못하엿습니다
 (끗)

어떻습니까? 띄어쓰기를 하고 읽으니까 처음보다는 약간 더 이해가 되고, 어! 이게 이런 거
 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불이켜져서’처럼 띄어쓰기가 되어 있
 지 않았던 경우도 ‘불이 켜져서’로 쓰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지요? 그리고 ‘안습니까, 떨어
 지는, 썬작썬작, 마즐썬마다’ 등에서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ㅅ, ㅆ, ㅞ, ㅟ’이 어두에 사용
 된 예들도 보입니다. 이 경우 ‘ㅅ, ㅆ, ㅞ, ㅟ’은 각각 ‘ㅅ, ㅆ, ㅞ, ㅟ’로 읽으면 됩니다. 그리
 고 ‘높이’가 ‘높히’로 쓰이거나 ‘신엿엇으나’가 ‘신엇섯스나’로 쓰이는 것처럼 맞춤법에서도 차
 이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 이외에 ‘할머니’라는 단어가 당시
 에는 ‘한머니’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 ‘어린이(1923년)’ 강독

이번에는 ‘어린이’에 실린 ‘성냥팔이 소녀’의 원문과 그것을 현대국어로 바꾼 내용을 비교하
 면서 보겠습니다. 특히 표기가 어떻게 다른지 눈으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원문과 현대어로 직역한 것을 보여드리고 단어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이해를 돕
 기 위한 번역을 한 줄 더 추가했습니다.

석냥 파리 소녀
성냥팔이 소녀

무섭게 추운 밤이었습시다.
무섭게 추운 밤이었습시다.

눈은 자꾸 쏘다지고 밤은 점점 깊어 가는데,
눈은 자꾸 쏟아지고 밤은 점점 깊어 가는데,

이 날은 일년에도 맨췌 첫달그믐날 밤이었습시다.
이 날은 일년에도 맨췌 선달그믐날 밤이었습시다.
이 날은 일년에도 맨췌 1년의 마지막날 밤이었습시다.

이러케 춥고 어두운 밤에 한 어린 소녀(少女)가
이러케 춥고 어두운 밤에 한 어린 소녀(少女)가

머리에는 아모것도 돌느지 안코,
머리에는 아무것도 두르지 았고,

벌거벗은 맨발로 눈 싸히는 한길을 아장아장 꺾고 잇섯습시다.
벌거벗은 맨발로 눈 쌓이는 한길을 아장아장 꺾고 잇섯습시다.
벌거벗은 맨발로 눈 쌓이는 큰길을 아장아장 꺾고 잇섯습시다.

벌써 아까 집에서 나올 췌에는 흰 신발이나마 신엇섯스나
벌써 아까 집에서 나올 췌에는 흰 신발이나마 신엇엇으나

그 나마 돌아가신 어머니가 신으시든 것이엇슴으므로
그 나마 돌아가신 어머니가 신으시던 것이엇으므로

넘우도 커서 발에 맞지 았는 것을 그대로 췌면서 다니다가
너무도 커서 발에 맞지 았는 것을 그대로 췌면서 다니다가

아까 두 췌의 마차가 몹시 췌른 속력으로, 화닥닥 엽흘 지날 적에
아까 두 췌의 마차가 몹시 빠르 속력으로, 화닥닥 옆을 지날 적에
아까 두 대의 마차가 매우 빠르 속도로 화닥닥 옆을 지날 췌에

급히 피하야 길을 건느는 통에 벗겨져 버렸습시다.
급히 피하여 길을 건너는 통에 벗겨져 버렸습시다.

마차가 지나간 후에 다시 가서 아모리 차젷스나
마차가 지나간 후에 다시 가서 아무리 찾앗으나

한 짝은 영영 보이지 안혔고
한 짝은 영영 보이지 않았고

남아지 한 짝은 심술구즌 아이에게 뺏기어 흠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한 짝은 심술긋은 아이에게 뺏기어 흠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별거벗은 맨발로
그래서 이 소녀는 별거벗은 맨발로

눈 싸힌 길을 걷고 잊었습니다.
눈 쌓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엿게도 족으만 발은 열고 열어서
가엿게도 조그만 발은 열고 열어서

뺏아타가 못하여 자짓빛이 되었습니다.
빨강다가 못하여 자줏빛이 되었습니다.

소녀는 흰 앞치마에는 석냥갑을 만히 싸들고
소녀는 흰 앞치마에는 성냥갑을 많이 싸들고

또 한 손에도 석냥갑을 들고 잊었습니다.
또 한 손에도 성냥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원종일 이새까지 돌아다녀도
오늘은 온종일 이때까지 돌아다녀도
오늘은 하루종일 이때까지 돌아다녀도

한 사람도 석냥을 팔아주는 이가 없고
한 사람도 성냥을 팔아주는 이가 없고

동전 한 푼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동전 한 푼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주 적은 돈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배는 곱히고 춥기는 하고 가련한 소녀는
배는 고프고 춥기는 하고 가련한 소녀는

발발 썰면서 타박타박 걷고 잊었습니다.

발발 떨어뜨려 타박타박 걷고 있었습니다.

함박가티 쏘다지는 눈송이는 자꾸 내려와
함박같이 쏟아지는 눈송이는 자꾸 내려와

소녀의 탐스럽게 긴 머리 우를 하-야케 덮혔습니다.
소녀의 탐스럽게 긴 머리 위를 하얗게 덮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그것을 털 마음도 괴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그것을 털 마음도 기운도 없었습니다.

행길 좌우편에 즐비하게 느려서 잇는 집집의 유리창으로서는
한길 좌우편에 즐비하게 늘어서 잇는 집집의 유리창으로서는
큰길 좌우에 줄지어 늘어서잇는 집집의 유리창에서는

몹시 싸뜻해 보이는 불빛이 불어옴게 흘러나오고
몹시 따듯해 보이는 불빛이 부럽게 흘러나오고

썩 굵고 국 쓸히는 맛있는 내암새가 코에까지 마쳐 옵니다.
썩 굵고 국 끓이는 맛있는 냄새가 코에까지 맞혀 옵니다.
썩 굵고 국 끓이는 맛있는 냄새가 코에까지 다다라 옵니다.

소녀는 줄임과 추위에 견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주림과 추위에 견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굶주림(배고픔)과 추위에 견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집과 집 사이의 첨하 미테 흠 진 곳이잇서서
집과 집 사이의 처마 밑에 흠 진 곳이 잇어서
집과 집 사이의 지붕 밑에 조금 파진 곳이 잇어서

소녀는 거기 가 쪼그리고 안졌습니다.
소녀는 거기 가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차디차게 열고 얼은 발을 족음이라도 녹일가 하고
차디차게 열고 언 발을 조금이라도 녹일까 하고

두 손으로 만져도 보고 몸 밑으로 솟으려 너혀 보기도 하였으나
두 손으로 만져도 보고 몸 밑으로 꼬부려 넣어 보기도 하였으나

차디찬 랭기가 전신에 숨여들 썩이었습니다.
차디찬 냉기가 전신에 스며들 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껏 석냥을 한 갑도 팔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나 오늘은 이제껏 성냥을 한 갑도 팔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나 오늘은 이제까지 성냥을 한 갑도 팔지 못하였으므로

그냥 빈손으로는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빈손으로는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면 사나운 아버지에게
빈손으로 돌아가면 사나운 아버지에게

죽도록 어더맞기만 할 일이 뻘하였습시다.
죽도록 얻어맞기만 할 일이 뻘하였습시다.

그리고 집에 간대야 चु기는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리고 집에 간대야 चु기는 마찬가지로입니다.

집이라고 이름만 집이지
집이라고 이름만 집이지

아무리 집이나 헌겅 조각으로 구멍을 틀어막드라도
아무리 짚이나 형겅 조각으로 구멍을 틀어막더라도

살을 벨 듯이 모진 바람이 짹-짹- 들어오는데
살을 벨 듯이 모진 바람이 짹 짹 들어오는데
살을 벨 듯이 사납고 무서운 바람이 짹 짹 들어오는데

어찌케 무슨 수로 चु지를 안겅습니까…….
어떻게 무슨 수로 चु지를 안겅습니까…….

남의 집 첨하 미테 쪼그리고 안즌 소녀의 몸은
남의 집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은 소녀의 몸은
남의 집 지붕 밑에 쪼그리고 앉은 소녀의 몸은

점점 심하게 얼어서 살 수 업시 되었습시다.
점점 심하게 얼어서 살 수 업시 되었습시다.

하다못하야 “이 석냥이라도 한 개 쓰어내서 불을 켜면은
하다못해 “이 성냥이라도 한 개 꺼내서 불을 켜면

그래도 손 쫓만이라도 녹일 수가 잇겅지……” 하였습시다.

그래도 손 끝만이라도 녹일 수가 있겠지……” 하였습니다.

소녀는 석냥 한 개피를 써내서 드욱 그었습니다.

소녀는 성냥 한 개피를 꺼내서 드욱 그었습니다.

확-하고 밝은 불이 켜졌습니다.

확 하고 밝은 불이 켜졌습니다.

소녀는 얼어빠진 두 손으로 석냥불을 에워쌌습니다.

소녀는 얼어빠진 두 손으로 성냥불을 에워쌌습니다.

소녀는 얼어버린 두 손으로 성냥불을 감쌌습니다.

아아 하고 얇은 한숨을 쉬이면서

아아 하고 얇은 한숨을 쉬면서

그때 소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소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소녀는 손을 녹이면서 환하게 빛나는 그 불을 드러다보느라니까

소녀는 손을 녹이면서 환하게 빛나는 그 불을 들여다보노라니까

이상도 하지요 눈물에 저준 그 눈에는

이상도 하지요 눈물에 젖은 그 눈에는

훌륭한 커-다란 난로가 보이고

훌륭한 커다란 난로가 보이고

자기가 그 크고 훈훈한 난로 옆에

자기가 그 크고 훈훈한 난로 옆에

불을 쪼이고 잇는 것 가졌습니다.

불을 쪼이고 잇는 것 같았습니다.

노-라코 째안 불은 휘황하게 아름답게 타오르고 잇었습니다.

노랑고 빨간 불은 휘황하게 아름답게 타오르고 있었었습니다.

소녀는 발을 녹일 양으로 두 다리를 썬드니까

소녀는 발을 녹일 양으로 두 다리를 뻗으니까

소녀는 발을 녹이려는 생각으로 두 다리를 뻗으니까

아차 석냥불은 그만 써져 버렸습니다.

아차 성냥불은 그만 꺼져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든 커-다란 난로도 살아져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던 커다란 난로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손에 남아 있는 것은 타다 남은 석냥개비뿐이었습니다.

손에 남아 있는 것은 타다 남은 성냥개비뿐이었습니다.

손에 남아 있는 것은 타다가 남은 성냥 하나뿐이었습니다.

소녀는 또 한 개를 드윙 그었습니다.

소녀는 또 한 개를 드윙 그었습니다.

확! 하고 불이 켜지니까

확! 하고 불이 켜지니까

그 옆엿 벽(壁)이 앓다란 비단가티

그 옆엿 벽이 앓다란 비단같이

흰하게 그 속이 드러다보였습니다.

흰하게 그 속이 들여다보였습니다.

보니까 거기에는 방이 하나 있고

보니까 거기에는 방이 하나 있고

갓 채려 노흔 밥상 우에는

갓 차려 놓은 밥상 위에는

방금 차려 놓은 밥상 위에는

김이 무렁무렁 나게

김이 무력무력 나게

통으로 그냥 구어 노흔 썰이 노혀 잇섯습니다.

통으로 그냥 구워 놓은 썰이 놓여 있었었습니다.

그리더니 이상하게 그 썰이 살아나서

그러더니 이상하게 그 썰이 살아나서

그릇에서 뛰어나와서 버둥버둥 깃습니다.

그릇에서 뛰어나와서 버둥버둥 걷습니다.

다른 곳으로도 아니 가고 소녀 압흐로 걸어옵니다.

다른 곳으로도 안 가고 소녀 앞으로 걸어옵니다.

그러자 그때 석냥불이 훅 꺼져버리고
그러자 그때 성냥불이 훅 꺼져버리고

옆에는 차디찬 담벼락이 보일 뿐이었습니니다.
옆에는 차디찬 담벼락이 보일 뿐이었습니니다.
옆에는 매우 차가운 담이/벽이 보일 뿐이었습니니다.

소녀는 또 하나를 켜습니다.
소녀는 또 하나를 켜습니다.

이번에는 설빔 작만해 놓 것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설빔 장만해 놓은 것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설날 입기 위한 새 옷'을 준비해 놓은 것이 보였습니다.

수업시 만히 켜 노흔 불빛에 찬란히 비추는
수없이 많이 켜 놓은 불빛에 찬란히 비추는

빛 고흔 비단 당기와
빛 고운 비단 댕기와
색이 예쁜 비단 머리장식과

뽀작뽀작 빛나는 어여쁜 구두며 비단 치마 비단 저고리가
뽀작뽀작 빛나는 어여쁜 구두며 비단 치마 비단 저고리가

어찌케도 훌륭한지 상점 유리창에 늘어노흔 구두나 비단도
어떻게도 훌륭한지 상점 유리창에 늘어놓은 구두나 비단도

이러케 곱지는 못하리만큼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곱지는 못하리만큼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안타깝게도 또 석냥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안타깝게도 또 성냥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만흔 불은 점점점점 한울로 솟아 올라가더니
그리고 그 많은 불은 점점점점 하늘로 솟아 올라가더니

한울에 가서 별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가서 별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길다라케 꼬리를 끌고 쭈루룩 떨어졌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기다랗게 꼬리를 끌고 쭈루룩 떨어졌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보고
소녀는 그것을 보고

“아아, 지금 누가 하나 죽었나 보다!” 하였습니다.
“아아, 지금 누가 하나 죽었나 보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전에 돌아가신 한머니께서
그것은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한울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은

사람 하나가 죽어서 그 영혼이 한울나라로 가는 표란다” 하고
사람 하나가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는 표란다” 하고
사람 하나가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는 표시란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을 닛지 안코 잇는 까닭이였습니다.
가르쳐 주신 것을 잇지 않고 잇는 까닭이였습니다.

이 가련한 소녀를 짜뜻이 사랑해 준 이는
이 가련한 소녀를 따뜻이 사랑해 준 이는
이 가련한 소녀를 따뜻이 사랑해 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한머니가 단 한 분뿐이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할머니가 단 한 분뿐이였습니다.

불상한 소녀는 어더맛고 구박을 마즐 썩마다
불쌍한 소녀는 얻어맛고 구박을 맛을 썩마다
불쌍한 소녀는 얻어맛고 심한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몸이 압흐고 숨흘 적마다
몸이 아프고 슬플 적마다

어찌케 그 한머니를 부르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 할머니를 부르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소녀는 쏘 하나를 드웁 그엇습니다.
소녀는 또 하나를 드웁 그엇습니다.

확! 하고 불이 켜져서 다시 환하게 밝아졌을 때에
확! 하고 불이 켜져서 다시 환하게 밝아졌을 때에

거기에는 반가운 반가운 한머니가
거기에는 반가운 반가운 할머니가

덕이 넘치는 부들어운 얼굴로 서 계시지 않습니까.
덕이 넘치는 부드러운 얼굴로 서 계시지 않습니까.

“아아, 한머니!”하고 소녀는 소리 쳤습니다.
“아아, 할머니!”하고 소녀는 소리 쳤습니다.

그리고 목 메인 소리로 “한머니이 제발 저를 다리고 가세요? 네?
그리고 목 메인 소리로 “할머니 제발 저를 데리고 가세요? 네?

한머니 이 석냥불이 꺼지면 한머니께서는 살아져 업서지지 않습니까
할머니 이 성냥불이 꺼지면 할머니께서는 사라져 없어지지 않습니까?

한머니 제발 저를 다리고 가 주세요”라고 애원하였습니다.
할머니 제발 저를 데리고 가 주세요”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변 남은 석냥을 다 풀어서
그러면서 일변 남은 성냥을 다 풀어서
그러면서 한 편으로는 남은 성냥을 다 풀어서

한꺼번에 불을 켜습니다.
한꺼번에 불을 켜습니다.

한머니를 오랫동안 여기 있게 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오랫동안 여기 있게 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석냥불은 햇빛보다도 더 밝고 찬란스럽게 빛났습니다.
성냥불은 햇빛보다도 더 밝고 찬란스럽게 빛났습니다.

한머니의 모양은 처음 보게 아름답고 커-다래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모양은 처음 보게 아름답고 커다래 보였습니다.

한머니는 오래간만에 이 불상한 손녀를 두 팔로 푹 썬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오래간만에 이 불쌍한 손녀를 두 팔로 푹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점점점점 솟아 올라서 밝게 빛나는 속으로 높히 높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점점점점 솟아 올라서 밝게 빛나는 속으로 높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거기는 멀고먼 한올나라였습니다.
거기는 멀고먼 하늘나라였습니다.

인제는 소녀에게 추위도, 줄임도, 걱정도,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는 소녀에게 추위도, 주림도, 걱정도,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는 소녀에게 추위도 굶주림도(배고픔도) 걱정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츄고 쌀쌀한 새벽 먼동이 흰하게 밝아올 쟈에
츄고 쌀쌀한 새벽 먼동이 흰하게 밝아올 때에
츄고 쌀쌀한 새벽의 멀리 보이는 동쪽이 흰하게 밝아올 때에

이 집 담 옆헤 소녀는 뺨이 불그레-하고
이 집 담 옆에 소녀는 뺨이 불그레하고

입 모습에는 웃음을 찌운 채로 죽어 잇섯습니다.
입 모습에는 웃음을 띤 채로 죽어 잇었습니다.

새해의 아침 햇빛은 이 족오만 죽음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새해의 아침 햇빛은 이 조그만 주검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새해의 아침 햇빛은 이 작은 죽은 몸(시신)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안즌 채로 고대로 죽어 버린 소녀는
얏은 채로 고대로 죽어 버린 소녀는

죽은 후까지도 손에는 타다 남은 석냥을 들고 잇섯습니다.
죽은 후까지도 손에는 타다 남은 성냥을 들고 잇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본 사람들은,

“가여워라, 이 석냥불로 몸을 녹이려 했고나” 하였습니다.
“가여워라, 이 성냥불로 몸을 녹이려 했구나”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케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고

밝은 광채 중에서 한머님과 함께 새해를 마즌 줄은
밝은 광채 중에서 할머님과 함께 새해를 맞은 줄은

아모도 아지 못하였습니다(뜻)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끝)

이번에는 주어진 자료를 여러분이 한 번 먼저 읽고 제가 그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읽어내실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표시해 두었다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밑줄 친 ①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석냥 파리 소녀

성냥팔이 소녀

다음으로 밑줄 친 ②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게 추운 밤이었습시다.

무섭게 추운 밤이었습시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③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은 자꾸 쏘다지고 밤은 점점 깊혀 가는데,

눈은 자꾸 쏟아지고 밤은 점점 깊어 가는데.

다음으로 밑줄 친 ④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일년에도 맨쫘 첫달그믐날 밤이었습시다.

이 날은 일년에도 맨끝 1년의 마지막날 밤이었습시다.

여기서도 ①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게 춥고 어두운 밤에 한 어린 소녀(少女)가

이렇게 춥고 어두운 밤에 한 어린 소녀(少女)가

다음으로 밑줄 친 ②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에는 아모것도 돌느지 안코,

머리에는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

다음으로 밑줄 친 ③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거벗은 맨발로 눈 싸히는 한길을 아장아장 걷고 잇섯습시다.

별거벗은 맨발로 눈 쌓이는 큰길을 아장아장 걷고 잇섯습시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④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써 아짜 집에서 나올 췌에는 현 신발이나마 신엇섯스나

별써 아짜 집에서 나올 때에는 현 신발이나마 신엇엇으나

여기서도 ①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돌아가신 어머니가 신으시든 것이었으므로
그나마 돌아가신 어머니가 신으시던 것이었으므로

다음으로 밑줄 친 ②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넘우도 커서 발에 맞지 않는 것을 그대로 끌면서 다니다가
너무도 커서 발에 맞지 않는 것을 그대로 끌면서 다니다가

다음으로 밑줄 친 ③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두 채의 마차가 몹시 빠른 속력으로, 화닥닥 엽흘 지날 적에
아까 두 대의 마차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화닥닥 옆을 지날 때에

다음으로 밑줄 친 ④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급히 피하여 길을 건너는 통에 벗겨져 버렸습니다.
급히 피하여 길을 건너는 통에 벗겨져 버렸습니다.

여기서도 ①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차가 지나간 후에 다시 가서 아모리 차젓스나
마차가 지나간 후에 다시 가서 아무리 찾았으나

다음으로 밑줄 친 ②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짝은 영영 보이지 안하고
한 짝은 영영 보이지 않았고

다음으로 밑줄 친 ③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지 한 짝은 심술구즌 아이에게 뺏기어 흙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한 짝은 심술긋은 아이에게 뺏기어 흙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④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별거벗은 맨발로
그래서 이 소녀는 별거벗은 맨발로

여기서도 ①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눈 싸힌 길을 걷고 잇섯습니다.
눈 쌓인 길을 걷고 있었습시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②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엿게도 족으만 발은 얼고 얼어서
가엿게도 조그만 발은 얼고 얼어서

다음으로 밑줄 친 ③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뿔아타가 못하야 자짓빛이 되엇습시다.

빨갳다가 못하여 자줏빛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④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녀는 헌 압치마에는 석냥갑을 만히 싸들고

소녀는 헌 앞치마에는 성냥갑을 많이 싸들고

여기서도 ①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손에도 석냥갑을 들고 잇섯습니다.

또 한 손에도 성냥갑을 들고 있었습디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②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원종일 이새까지 돌아다녀도

오늘은 하루종일 이때까지 돌아다녀도

다음으로 밑줄 친 ③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석냥을 팔아주는 이가 업고

한 사람도 성냥을 팔아주는 이가 업고

다음으로 밑줄 친 ④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전 한 푼 주는 사람도 업섯습니다.

아주 적은 돈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디다.

여기서도 ①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배는 곱히고 춤기는 하고 가련한 소녀는

배는 고프고 춤기는 하고 가련한 소녀는

다음으로 밑줄 친 ②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발발 떨어서 타박타박 것고 잇섯습니다.

발발 떨어서 타박타박 걷고 있었습디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③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박가티 쏘다지는 눈송이는 자꾸 내려와

함박같이 쏟아지는 눈송이는 자꾸 내려와

다음으로 밑줄 친 ④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녀의 탐스럽게 긴 머리 우를 하-야게 덮혔습니다.

소녀의 탐스럽게 긴 머리 위를 하얗게 덮었습디다.

여기서도 ①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소녀는 그것을 털 마음도 괴운도 업섯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그것을 털 마음도 기운도 없었습디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②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길 좌우편에 즐비하게 느러서 잇는 집집의 유리창으로서는
큰길 좌우에 줄지어서 늘어서있는 집집의 유리창에서는

다음으로 밑줄 친 ③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몹시 짜뜻해 보이는 불빛이 불어옴게 흘러나오고
몹시 따뜻해 보이는 불빛이 부럽게 흘러나오고

다음으로 밑줄 친 ④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썰 굽고 국 쓸히는 맛있는 내암새가 코에까지 마쳐 옵니다.
평양 굽고 국 끓이는 맛있는 냄새가 코에까지 다다라 옵니다.

여기서도 ①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소녀는 줄임과 추위에 견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굶주림(배고픔)과 추위에 견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②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과 집 사이의 첨하 미테 흠 진 곳이잇서서
집과 집 사이의 지붕 밑에 조금 파진 곳이 있어서

다음으로 밑줄 친 ③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녀는 거기 가 쪼그리고 안젓습니다.
소녀는 거기 가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④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차디차게 열고 열은 발을 족음이라도 녹일가 하고
차디차게 열고 언 발을 조금이라도 녹일까 하고

여기서도 ①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손으로 만져도 보고 몸 맛으로 솟으려 너혀 보기도 하였스나
두 손으로 만져도 보고 몸 밑으로 꼬부려 넣어 보기도 하였으나

다음으로 밑줄 친 ②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차디찬 랭기가 전신에 숨여들 뿐이엇습니다.
차디찬 냉기가 전신에 스며들 뿐이엇습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③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새섯 석냥을 한 갑도 팔지 못하였슴으로
그러나 오늘은 이때까지 성냥을 한 갑도 팔지 못하였으므로

다음으로 밑줄 친 ④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빈손으로는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빈손으로는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①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면 사나운 아버지에게
빈손으로 돌아가면 사나운 아버지에게

다음으로 밑줄 친 ②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어더맞기만 할 일이 뻘하였습니다.
죽도록 얻어맞기만 할 일이 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③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간대야 चु기는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리고 집에 간대야 चु기는 마찬가지로입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④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이라고 이름만 집이지
집이라고 이름만 집이지

여기서도 ①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집히나 헛겍 조각으로 구멍을 틀어막더라도
아무리 짚이나 형겍 조각으로 구멍 틀어막더라도

다음으로 밑줄 친 ②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살을 벨 듯이 모진 바람이 싸-싸- 들어오는데
살을 벨 듯이 사납고 무서운 바람이 싸 싸 들어오는데

다음으로 밑줄 친 ③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케 무슨 수로 चु지를 안꼈습니까…….
어떻게 무슨 수로 चु지를 안꼈습니까…….

다음으로 밑줄 친 ④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집 침하 미테 쪼그리고 안즌 소녀의 몸은
남의 집 지붕 밑에 쪼그리고 앉은 소녀의 몸은

여기서도 ①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심하게 얼어서 살 수 업시 되었습니다.
점점 심하게 얼어서 살 수 업시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②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하야 “이 석냥이라도 한 개 쓰어내서 불을 켜면은
하다못해 “이 성냥이라도 한 개 꺼내서 불을 켜면

다음으로 밑줄 친 ③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손 씻만이라도 녹일 수가 있겠지……” 하였습니다.
그래도 손 끝만이라도 녹일 수가 있겠지……”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④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녀는 석냥 한 개피를 썬내서 드윅 그었습니다.
소녀는 성냥 한 개피를 꺼내서 드윅 그었습니다.

여기서도 ①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확-하고 밝은 불이 켜졌습니다.
확 하고 밝은 불이 켜졌습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②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녀는 얼어빠진 두 손으로 석냥불을 에워쌌습니다.
소녀는 얼어버린 두 손으로 성냥불을 감쌌습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③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아 하고 얇은 한숨을 쉬이면서
아아 하고 얇은 한숨을 쉬면서

다음으로 밑줄 친 ④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소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소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기서도 ①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소녀는 손을 녹이면서 환하게 빛나는 그 불을 드러다보느라니까
소녀는 손을 녹이면서 환하게 빛나는 그 불을 들여다보노라니까

다음으로 밑줄 친 ②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도 하지요 눈물에 저즌 그 눈에는
이상도 하지요 눈물에 젖은 그 눈에는

다음으로 밑줄 친 ③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커-다란 난로가 보이고
훌륭한 커다란 난로가 보이고

다음으로 밑줄 친 ④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그 크고 훈훈한 난로 옆에

자기가 그 크고 훈훈한 난로 옆에

여기서도 ①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불을 쪼이고 있는 것 가뒀습니다.

불을 쪼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②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라코 빨안 불은 휘황하게 아름답게 타고르고 잇섯습니다.

노랑고 빨간 불은 휘황하게 아름답게 타고르고 있었습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③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녀는 발을 녹일 양으로 두 다리를 썸드니까

소녀는 발을 녹이려는 생각으로 두 다리를 뺨으니까

다음으로 밑줄 친 ④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 석냥불은 그만 썸져 버렸습다.

아차 성냥불은 그만 꺼져 버렸습다.

여기서도 ①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든 커-다란 난로도 살아져 버렸습다.

눈에 보이던 커다란 난로도 사라져 버렸습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②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에 남아 있는 것은 타다 남은 석냥개비뿐이었습다.

손에 남아 있는 것은 타다가 남은 성냥 하나뿐이었습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③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녀는 쫓 한 개를 드욱 그었습다.

소녀는 또 한 개를 드욱 그었습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④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확! 하고 불이 썸지니까

확! 하고 불이 썸지니까

여기서도 ①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옆엿 벽(壁)이 앓다란 비단가티

그 옆엿 벽이 앓다란 비단같이

다음으로 밑줄 친 ②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흰하게 그 속이 드러다보엿습다.

흰하게 그 속이 들여다보엿습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③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거기에는 방이 하나 있고
보니까 거기에는 방이 하나 있고

다음으로 밑줄 친 ④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갓 채려 노흔 밥상 우에는
방금 차려 놓은 밥상 위에는

여기서도 ①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김이 무령무령 나게
김이 무력무력 나게

다음으로 밑줄 친 ②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통으로 그냥 구어 노흔 썩이 노혀 잇섯습니다.
통으로 그냥 구워 놓은 썩이 놓여 있었었습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③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더니 이상하게 그 썩이 살아나서
그러더니 이상하게 그 썩이 살아나서

다음으로 밑줄 친 ④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릇에서 뛰어나와서 버둥버둥 걸습니다.
그릇에서 뛰어나와서 버둥버둥 걷습니다.

여기서도 ①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으로도 아니 가고 소녀 압흐로 걸어옵니다.
다른 곳으로도 안 가고 소녀 앞으로 걸어옵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②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새 석냥불이 흑 써져버리고
그러자 그때 성냥불이 흑 꺼져버리고

다음으로 밑줄 친 ③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는 차디찬 담벼락이 보일 뿐이엇습니다.
옆에는 매우 차가운 담이/벽이 보일 뿐이엇습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④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녀는 또 하나를 껌습니다.
소녀는 또 하나를 껌습니다.

여기서도 ①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설빔 작만해 논 것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설날 입기 위한 새 옷'을 준비해 놓은 것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②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시 만히 켜 노흔 불빛에 찬란히 비추는
수없이 많이 켜 놓은 불빛에 찬란히 비추는

다음으로 밑줄 친 ③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빛 고흔 비단 당기와
색이 예쁜 비단 머리장식과

다음으로 밑줄 친 ④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뽀작뽀작 빛나는 어여쁜 구두며 비단 치마 비단 저고리가
뽀작뽀작 빛나는 어여쁜 구두며 비단 치마 비단 저고리가

여기서도 ①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케도 훌륭한지 상점 유리창에 늘어노흔 구두나 비단도
어떻게도 훌륭한지 상점 유리창에 늘어놓은 구두나 비단도

다음으로 밑줄 친 ②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게 곱지는 못하리만큼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곱지는 못하리만큼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③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안타깝게도 또 석냥불이 썩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안타깝게도 또 성냥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④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흔 불은 점점점점 한울로 솟아 올라가더니
그리고 그 많은 불은 점점점점 하늘로 솟아 올라가더니

여기서도 ①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울에 가서 별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가서 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②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하나가 길다라케 꼬리를 끌고 쭈루룩 떨어졌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기다랗게 꼬리를 끌고 쭈루룩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③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녀는 그것을 보고

소녀는 그것을 보고

다음으로 밑줄 친 ④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아, 지금 누가 하나 죽었나 보다!” 하였습니다.

“아아, 지금 누가 하나 죽었나 보다!”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①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에 돌아가신 한머니께서

그것은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다음으로 밑줄 친 ②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울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은

다음으로 밑줄 친 ③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하나가 죽어서 그 령혼이 한울나라로 가는 표란다” 하고

사람 하나가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는 표시란다” 하고

다음으로 밑줄 친 ④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주신 것을 닛지 안코 잇는 까닭이였습니다.

가르쳐 주신 것을 잇지 않고 잇는 까닭이였습니다.

여기서도 ①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련한 소녀를 짜뜻이 사랑해 준 이는

이 가련한 소녀를 따뜻이 사랑해 준 사람은

다음으로 밑줄 친 ②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 한머니가 단 한 분뿐이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할머니가 단 한 분뿐이였습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③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불상한 소녀는 어더맛고 구박을 마즐 썩마다

불쌍한 소녀는 얻어맛고 심한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④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압흐고 숨흘 적마다

몸이 아프고 슬플 적마다

여기서도 ①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케 그 한머니를 부르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 할머니를 부르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②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녀는 쏘 하나를 드욱 그었습니다.

소녀는 또 하나를 드욱 그었습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③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확! 하고 불이 켜져서 다시 환하게 밝아졌을 췌에

확! 하고 불이 켜져서 다시 환하게 밝아졌을 때에

다음으로 밑줄 친 ④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반가운 반가운 할머니가

거기에는 반가운 반가운 할머니가

여기서도 ①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덕이 넘치는 부들어운 얼굴로 서 계시지 안습니까.

덕이 넘치는 부드러운 얼굴로 서 계시지 안습니까.

다음으로 밑줄 친 ②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아, 할머니!”하고 소녀는 소리 쳤습니다.

“아아, 할머니!”하고 소녀는 소리 쳤습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③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 메인 소리로 “한머니이 제발 저를 다리고 가셔요? 네?

그리고 목 메인 소리로 “할머니 제발 저를 데리고 가세요? 네?

다음으로 밑줄 친 ④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머니 이 석냥불이 췌지면 한머니께서는 살아져 업서지지 안습니까

할머니 이 성냥불이 췌지면 할머니께서는 사라져 없어지지 안습니까?

여기서도 ①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머니 제발 저를 다리고 가 주셔요”라고 애원하엿습니다.

할머니 제발 저를 데리고 가 주셔요”라고 애원하엿습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②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일변 남은 석냥을 다 풀어서

그러면서 한 편으로는 남은 성냥을 다 풀어서

다음으로 밑줄 친 ③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불을 췌습니다.

한꺼번에 불을 췌습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④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머니를 오랫동안 여긔 있게 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오랫동안 여긔 있게 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도 ①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석양불은 햇빛보다도 더 밝고 찬란스럽게 빛났습니다.
성양불은 햇빛보다도 더 밝고 찬란스럽게 빛났습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②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머니의 모양은 처음 보게 아름답고 커-다래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모양은 처음 보게 아름답고 커다래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③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머니는 오래간만에 이 불쌍한 손녀를 두 팔로 꼭 썬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오래간만에 이 불쌍한 손녀를 두 팔로 꼭 껴안았습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④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점점 솟아 올라서 밝게 빛나는 속으로 높히 높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점점점점 솟아 올라서 밝게 빛나는 속으로 높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도 ①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긔는 멀고먼 한울나라였습니다.
거긔는 멀고먼 하늘나라였습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②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는 소녀에게 추위도, 줄임도, 걱정도,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는 소녀에게 추위도 굶주림도(배고픔도) 걱정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③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츄고 찻찻한 새벽 먼동이 흰하게 밝아올 썰에
츄고 찻찻한 새벽의 멀리 보이는 동쪽이 흰하게 밝아올 썰에

다음으로 밑줄 친 ④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 담 옆헤 소녀는 뽀이 불그레-하고
이 집 담 옆에 소녀는 뽀이 불그레하고

여기서도 ①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입 모습에는 웃음을 찌운 채로 죽어 잇섯습니다.
입 모습에는 웃음을 띤 채로 죽어 잇섯습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②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의 아침 햇빛은 이 족으만 죽음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새해의 아침 햇빛은 이 작은 죽은 몸(시신)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③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즌 채로 고대로 죽어 버린 소녀는
앉은 채로 고대로 죽어 버린 소녀는

다음으로 밑줄 친 ④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은 후까지도 손에는 타다 남은 석냥을 들고 잇섯습니다.
죽은 후까지도 손에는 타다 남은 성냥을 들고 있었었습니다.

여기서도 ①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음으로 밑줄 친 ②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여워라, 이 석냥불로 몸을 녹이려 했고나” 하였었습니다.
“가여워라, 이 성냥불로 몸을 녹이려 했구나” 하였었습니다.

다음으로 밑줄 친 ③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케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고

다음으로 밑줄 친 ④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 광채 중에서 한머님과 함께 새해를 마즌 줄은
밝은 광채 중에서 할머니님과 함께 새해를 맞은 줄은

여기서도 ①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도 아지 못하였습시다(뜻)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시다(끝)

어떻습니까? 먼저 읽는 데 어려움이 있었나요? 표기에서 현대 한국어와 차이가 나는 점이 있지만 띄어쓰기를 현재와 동일하게 해 두고 읽으면 몇 군데 이외에는 읽어내는 일이 매우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함께 읽기로 한 100년 전의 언어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4. 정리

이번 강의에서는 1923년에 발간된 아동 잡지인 ‘어린이’에 실린 ‘성냥팔이 소녀’라는 동화를 통해 100년 전의 한국어와 현재의 한국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00년간 언어가 어느 정도 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내용을 여러번 반복하

며 보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실제 원 자료를 보면서 번역하지는 않았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부분이 원 자료의 시작 부분입니다. 오른쪽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읽으며 왼쪽으로 읽어나가면 “무섭게 추운 밤이였습니다. 눈은 자꾸 쏘다지고 밤은 점점 깊혀 가는데, 이날은 일 년에도 맨쫘 첫달 그믐날 밤이였습니다. 이러케 춥고 어두운 밤에 한 어린 소녀(少女)가 머리에는 아모 것도 들느지 안코, 별거벗은 맨발로 눈 싸히는 한길을 아장아장 것고 잇섯습니다.”와 같이 읽게 됩니다. 그런데 글자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여 오늘 강의에서는 원자료는 제외한 상태로 내용을 읽었습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중요한 점은 자신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보이지도 않는 글자를 보라고 강요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한글로 쓰인 예전 자료에서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원래의 자료를 직접 다루지 않았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원 자료들을 찾아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업에서는 문법적인 설명이나 당시의 표기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의 어떤 단어를 어떻게 표기할지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표기자들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고, 같은 표기자도 경우에 따라 달리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함께 동일한 자료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으면 읽는 과정을 통해 ‘이해’의 측면에서 당시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시기의 자료를 접하면 모르는 단어 몇 개 정도는 사전을 찾아봐야 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고 표기법이 다른 당시의 문자언어에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함께 읽어갈 다른 문헌도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8분)

선택형 (8분)

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파리’는 ‘팔-’에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 ② ‘석낭팔이 소녀’의 띄어쓰기는 현대 한국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되어 있다.
- ③ 《어린이》가 택한 표기 방향은 한자 문화권에서 이전부터 써오던 방식과 같다.
- ④ ‘석낭팔이 소녀’에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ㅅ7, ㅅ8’ 등이 어두에 사용된 예가 나타난다.

정답: ②

2.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어린이》는 왼쪽 행에서 시작하여 오른쪽 방향으로 읽는다.
- ② 《어린이》는 방정환이 중심이 되어 1923년에 창간한 아동 잡지이다.
- ③ 표기자가 한 명인 경우에도 서로 다른 표기법이 나타날 수 있었다.
- ④ ‘성냥’은 기원적으로 ‘석(石)’과 ‘유황(硫黃)’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정답: ①

나. 토의 (30분)

수업 시간에 읽은 <성냥팔이 소녀>와 모국어로 쓰인 <성냥팔이 소녀>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다. 과제 (70분)

아래 자료를 현대 한국어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현대어로 바꾸어 쓰시오.

소녀는 쏘하나를꼈습니다. 이번에는 설빔작만해논것이 보였습니다. 수업시 만히켜노흔 불 빛에 찬란히비추는 빗고흔 비단당기와 썩작썩작빛나는 어여썩구두며 비단치마 비단저고리가 어셔케도훌륭한지 상점류리창에 늘어노흔 구두나 비단도 이러케곱지는못하리만큼 훌륭한것이 었습니다.

그러자 안탁갑게도 쏘석냥불이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만흔불은 점점점점 한울로솟아올 라가더니 한울에가서 별이되었습니다. 그중예하나가 길다라케 쏘리를썩고 썩루룩썰어졌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보고

“아아, 지금 누가하나 죽었나보다!”하였습니다. 그것은 전에 돌아가신 한머니께서 “한울에 서별이떨어지는것은 사람하나가 죽어서 그렁흔이 한울나라로 가는표란다” 하고 가르켜주신것 을 닛지안코 잇는싸담이였습니다.

■ 참고자료

《어린이》(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우리말샘 (우리말샘 바로가기)

고영근(1987/2010),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이기문(1972/1998),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3차시> 19세기 자료

■ 학습목표

1. 130년 전에 표기된 자료를 소리 내어 읽는 능력을 기른다.
2. 130년 전의 한국어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
3. 130년 전의 한국어와 현대 한국어를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핀다.

■ 강의 목차

1. 도입
2. ‘독립신문(1896년)’에 대한 이해와 강독1
3. ‘독립신문(1896년)’에 대한 이해와 강독2
4. ‘독립신문(1896년)’에 대한 이해와 강독3
5.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도입

안녕하십니까? ‘한국어 고전 자료 읽기’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1923년에 나온 《어린이》라는 잡지에 실린 동화 〈성냥팔이 소녀〉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 자료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고 맞춤법이 현재와 조금 차이가 나지만, 반복해서 읽는 과정을 통해 100년 전의 언어를 어렵뜻하게나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을 자료는 《독립신문》입니다. <그림 1>이 《독립신문》입니다. 지금 표기법으로는 ‘독립’이라고 쓰이지만 당시에는 ‘독남’으로 쓰였습니다. 글은 위에서 아래로 쓰는 세로쓰기를 하였고 각각의 행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됩니다.

<그림 1>에서 본 《독립신문》은 1896년에 ‘독립협회’의 서재필 중심으로 해서 창간된 최초의 민간 신문으로, 1899년에 폐간되었습니다. 《독립신문》은 순 한글로 이루어져 있고 <그림 2>와 같은 영어판과 함께 발간되었습니다.

《독립신문》의 창간과 깊은 관련이 있는 ‘독립협회’는 1896에 한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 서울의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을 국민의 헌금으로 건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독립신문》을 읽는 과정을 통해 약 130년 전의 언어에 접근할 예정입니다. 당시의 자료를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그때의 언어 표현에 대해 이해하며 현재의 한국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이번

수업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독립신문》은 순 한글로 쓰였으면서 <그림 4>에서 보듯이 띄어쓰기를 정착시켰다는 데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림 4>는 한국어 영어 사전인 ‘한영사전’과 영어 문법서인 ‘한영문법’이라는 책의 광고입니다. ‘한영사전’은 ‘한영자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조선 사람이 영국 말을 비호라면’과 같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 사람이 영국 말을 배우려면’이란 뜻입니다. ‘사람’과 ‘비호라면’에는 ‘ㆍ[아래아]’가 쓰여 있는데 ‘ㆍ[아래아]’와 모음 ‘이’가 함께 쓰인 ‘비호라면’의 첫 번째 음절 ‘비’의 모음은 ‘애’로 읽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독립신문》은 문법적으로 정제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어들 몇 개만 제외하면 지난 시간에 읽은 <성냥팔이 소녀>보다는 읽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2. ‘독립신문(1896년)’에 대한 이해와 강독1

《독립신문》은 현재의 신문과 동일하게 다양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논설’과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주는 ‘해외 통신’ 그리고 ‘광고’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이 짧은 광고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림 5>는 앞에서 띄어쓰기 이야기를 하며 잠시 봤던 자료입니다.

이 내용을 읽기 편하게 써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선 사람이 영국 말을 비호라면
이 두척보다 더 긴흔 거시 업느니라
이 두척이 미국인 워두우 문돈 거시니
한영조전은 영국 말과 언문과 한문을 합햐 문돈 칙이오
한영문법은 영국문법과 조선문법을 서로 견주엇시니
말이 간단햐야 영국 말을 조세히 비호라면
이척이 잇서야홀거시니라
갑슨 한영조전 스원 한영문법 삼원
비지학당 한미화 활판소에 와 사라

모음의 표기를 보면 점으로 찍힌 ‘ㆍ[아래아]’가 있는데, 이 모음은 현재 제주도 방언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15세기에 ‘아’와 ‘오’의 중간 발음 정도에 해당했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세기의 이 모음은 그 자체의 발음이 변하여서 현대 한국어의 표준어에서는 단어에 따라서 ‘아’ 또는 ‘오’로 발음됩니다. 이 ‘ㆍ[아래아]’는 독립신문이 창간되었을 때는 표기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음 글자 ‘ㆍ[아래아]’는 1933년에 현대 한국어의 맞춤법이 정비될 때 폐지되었습니다. ‘ㆍ[아래아]’는 ‘아’ 또는 ‘오’로 변하였지만 일단 《독립신문》을 자료로 읽을 때는 모두 편의상 ‘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업느니라, 문돈’ 등에 ‘ㆍ[아래아]’가 써 있지만 ‘사람, 업난지라, 만단’과 같이 읽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ㆍ[아래아]’와 모음 ‘이’가 함께 적혀 있는 ‘비호라면, 칙, 비지’ 같은 표기는 ‘배호라면, 책, 배재’로 읽겠습니다.

《독립신문》의 띄어쓰기를 보면 ‘이 두 책’이 ‘이 두척’으로 되어 있고, ‘이 책’이 ‘이척’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현재의 한국어 띄어쓰기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점만 조금 수정해서 다시 써 놓고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전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조선 사람이 영국 말을 비호라면 이 두 칙보다 더 긴흔 거시 업느니라
이 두 칙이 미국인 워두우 문둔 거시니
한영조던은 영국 말과 언문과 한문을 합햐야 문둔 칙이오
한영문법은 영국문법과 조선문법을 서로 견주엇시니
말이 간단햐야 영국 말을 조세히 비호라면
이 칙이 잇서야 흘 거시니라
갑손 한영조던 스 원 한영문법 삼 원
비지학당 한미화 활판소에 와 사라

조금 더 이해가 쉬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낫선 표기가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부분부분 나누어서 현대 한국어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는 중간 단계도 보이겠습니다.

조선 사람이 영국 말을 비호라면
조선 사람이 영국 말을 배우려면

‘조선’은 모음 ‘요’와 ‘여’가 있는 ‘조선’으로 쓰여 있지만 이것은 한자음의 표기에서만 그렇고 당시에도 발음은 ‘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표기에는 ‘ㆍ[아래아]’가 쓰인 ‘비호다’의 당시 발음은 ‘배호다’였는데 ‘ㅎ’이 탈락하고 두 번째 음절의 ‘오’가 ‘우’로 바뀌어 현대 한국어에서는 ‘배우다’가 되었습니다.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 두 칙보다 더 긴흔 거시 업느니라
이 두 책보다 더 긴한 것이 없느니라
이 두 책보다 더 긴요한(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어서

‘긴흔’은 ‘ㆍ[아래아]’가 ‘흔’에 쓰여 있지만 당시 발음은 현재와 같은 ‘긴한’이었습니다. ‘거시’는 ‘것’의 종성 자음 ‘ㅅ’을 다음 음절로 옮겨 쓰는 연철에 의해 ‘거’, ‘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업느니라’에서 두 번째 음절의 아래아는 일단 이 수업에서 ‘아’로 읽습니다. 그러나 원래 ‘ㆍ[아래아]’라는 모음은 대개는 첫 번째 음절에서 ‘아’로 변하고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는 ‘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업느니라’로 읽은 것을 ‘업느니라’로 바꾸는 중간 단계를 보였습니다.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 두 칙이 미국인 워두우 문둔 거시니
이 두 책이 미국인 원두우 만든 것이니

이 두 책은 미국인 언더우드(Underwood)가 만든 것이니

여기 나온 ‘워두우’은 ‘원두우’의 오자로 보입니다. ‘원두우’는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Underwood)의 한자 이름입니다. 언더우드는 선교를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였으며, 1890년에는 ‘한영문법’과 사전인 ‘한영자전’을 출판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는 광고가 바로 그 책들에 대한 광고입니다.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한영즈뎨은 영국 말과 언문과 한문을 합햐야 문뎨 칙이오

한영자전은 영국 말과 언문과 한문을 합하여 만든 책이오

‘즈뎨’은 ‘ㄷ’이 모음 ‘이’나 ‘야, 여, 요, 유’ 등의 앞에서 ‘ㅈ’으로 변하는 구개음화에 의해 ‘자전’이 되었습니다. 독립신문이 나오던 시기에도 실제 발음은 ‘자전’이었지만 한자음의 표기라서 옛날의 표기 방식을 따라서 ‘뎨’으로 적혀 있습니다. ‘즈뎨’의 ‘즈’나 ‘합햐야’의 ‘햐’는 표기에 ‘ㆍ[아래아]’가 나오지만 이 당시의 실제 발음은 ‘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ㆍ[아래아]’가 두 번 나오는 ‘문뎨’은 첫 번째 음절인 ‘문’의 ‘ㆍ[아래아]’는 ‘아’로 바뀌었고 두 번째 음절 ‘뎨’의 ‘ㆍ[아래아]’는 ‘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만뎨’으로 번역됩니다. 이처럼 ‘ㆍ[아래아]’가 쓰인 예들은 독립신문이 나온 시기에도 현재와 발음이 동일하였으나 표기의 보수성에 의해 ‘ㆍ[아래아]’가 나타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언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외국어에 대응하여 한국어를 지칭할 때 예전에는 ‘언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처음 만들어진 후 한문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를 ‘언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한영문법은 영국 문법과 죠션 문법을 서로 견주엇시니

한영문법은 영국 문법과 조션 문법을 서로 견주엇으니

한영문법은 영국 문법과 조션 문법을 서로 비교하였으니

‘견주엇시니’에서는 과거를 나타내는 ‘엇’이 표기에서 받침 자리에 ‘ㅅ’이 하나만 있는 ‘엇’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음절에도 ‘ㅅ’이 나타나서 ‘시’로 표기되었습니다. ‘견주다’라는 단어는 ‘비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말이 간단햐야 영국 말을 쯔세히 비호랴면

말이 간단하여 영국 말을 자세히 배우려면

‘쯔세히’의 경우는 한자음 표기이므로 보수적인 표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호다’는 ‘ㅎ’이 탈락하고 그 음절의 모음이 ‘우’로 변하여 현대국어의 ‘배우다’가 되었습니다.

이 칙이 잇서야 흘 거시니라

이 책이 있어야 할 것이니라

이 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잇서야’는 현대 한국어에서 쌍시옷 받침인데 ‘ㅅ’ 하나만 받침에 쓰고 다른 하나를 다음 음절로 옮겨서 쓴 예입니다. ‘거시나라’는 ‘것’의 종성 자음을 다음 음절의 모음 앞으로 옮겨서 적은 연철을 한 결과인데 현대 한국어 방식의 분철을 한다면 번역 부분에 쓰여 있듯이 ‘것이 나라’가 됩니다.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갑손 한영즈던 스 원 한영문법 삼 원
값은 한영자전 스 원, 한영문법 삼 원
값은 한영자전은 4원, 한영문법은 3원

시작 부분의 ‘갑손’은 연철에 의해 ‘값’의 종성 자음 ‘ㅂ’과 ‘ㅅ’ 중 ‘ㅅ’을 다음 음절의 초성 자리로 옮겨 적은 결과입니다. 어미 ‘은’도 보수적 표기로 ‘은’으로 써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읽을 때는 ‘안’으로 읽지만 독립신문이 나온 당시에도 발음은 ‘은’이었습니다.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비지학당 한미화 활판소에 와 사라
배재학당 한미화 활판소에 와 사라
배재학당(학교) 한미화 출판사에 와서 사라

‘비지’는 두 음절 모두 ‘ㆍ[아래아]’가 있는데, ‘배재’로 읽습니다. 학교 이름인 고유명사입니다. ‘배재학당’의 ‘학당’은 ‘학교’라는 뜻이고 활판소는 현재의 인쇄소나 출판사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와서 4원을 주고 한영자전을 사거나 3원을 주고 한영문법을 사라는 광고였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읽는데 처음에 여러분이 소리 내어 읽는 시간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사전의 저자인 ‘월두우’가 ‘워두우’로 적혀 있으므로 그 부분만 고쳐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①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 사람이 영국 말을 비호라면 이 두 칙보다 더 긴흔 거시 업논지라
조선 사람이 영국 말을 배우려면 이 두 책보다 더 긴요한(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어서

다음으로 ②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칙이 미국인 원두우 문든 거시니
이 두 책은 미국인 언더우드(Underwood)가 만든 것이니

다음으로 ③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영즈던은 영국 말과 언문과 한문을 합하야 문든 칙이오
한영자전은 영국 말과 언문과(조선어와) 한문을 합하여 만든 책이오

다음으로 ④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영문법은 영국 문법과 조선 문법을 서로 견주었시니
한영문법은 영국 문법과 조선 문법을 서로 비교하였으니

다음으로 ⑤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간단하야 영국 말을 자세히 비호라면 이 책이 잇서야 흘 거시니라
말이 간단하여 영국 말을 자세히 배우려면 이 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⑥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갑손 한영조던 스 원 한영문법 삼 원 비지학당 한미화 활판소에 와 사라
값은 한영사전은 4원, 한영문법은 3원 배재학당(학교) 한미화 출판사에 와서 사라

어떻습니까? 거의 130년이 다 되어가는 자료이지만 읽어내는 데 많은 어려움은 없지요? 제
가 마지막으로 한 번 소리 내어 읽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 사툼이 영국 말을 비호라면 이 두 책보다 더 긴흔 거시 업는지라
이 두 책이 미국인 원두우 문돈 거시니
한영조던은 영국 말과 언문과 한문을 합하야 문돈 책이오
한영문법은 영국 문법과 조선 문법을 서로 견주었시니
말이 간단하야 영국 말을 자세히 비호라면 이 책이 잇서야 흘 거시니라
갑손 한영조던 스 원 한영문법 삼 원 비지학당 한미화 활판소에 와 사라

3. ‘독립신문(1896년)’에 대한 이해와 강독2

앞에서 광고를 함께 읽었는데, 이번에는 외국의 소식을 알려주는 ‘외국 통신’을 함께 보겠습
니다.

이 글을 보면 ‘아메리가 합중국, 규바, 셔바나’와 같은 국가 이름이 나오는데 각각 ‘아메리
카 합중국, 쿠바, 스페인’에 해당합니다. ‘스페인’은 ‘셔바라, 셔바나, 셔반아’로 나오는데, ‘셔
바라’는 오자이고 ‘셔바나’와 ‘셔반아’는 동일한 발음을 달리 표기한 것입니다.

이제는 원문을 입력한 내용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외국 통신

아메리가 합중국 남쪽에 잇는 규바라 흐는 섬은 셔바라 속국인디
거긔 빅성들이 자쥬 독립하라고 니러나셔
셔바나 관병하고 싸흠 시작흔 지 발셔 일년이 너머논디
합중국 정부에서 규바를 독립국으로 디접하즈 흐는 말이 만히 잇논디
근일에 합중국 의회원에서 규바 인병을 셔반아 역적으로 아니 디접하고
의병으로 알아 쥬자논 의논이 잇셔든이
셔바나 신문지 들이 합중국을 디단이 험담하고
셔바나 인민이 미국 사툼들을 디하야 실네하흔 지 만이 잇논 고로
셔바나 정부에서 별노이 조속하고
셔바나에 잇는 미국 인민을 보호한다더라

그리고 ‘ㅈ’ 뒤에 ‘유, 여’ 등이 써 있는 ‘쥬, 저’와 같은 표기는 ‘주, 저’로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ㆍ[아래아]’가 있는 ‘디’와 같은 표기는 ‘대’로 읽으면 되고요. 분명한 오자 ‘셔바라’만 ‘셔바나’로 고쳐 놓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외국 통신

아메리카 합중국 남쪽에 잇는 규바라 호는 섬은 셔바나 속국인디
거기 빅성들이 자주 독닙호라고 니러나셔
셔바나 관병호고 싸흠 시작한 지 벌써 일년이 너머논디
합중국 정부에서 규바를 독납국으로 디접호즈 호는 말이 만히 잇논디
근일에 합중국 의회원에서 규바 인병을 셔반아 역적으로 아니 디접호고
의병으로 알아 쥬자논 의논이 잇셔든이
셔바나 신문지 들이 합중국을 디단이 험담호고
셔바나 인민이 미국 사름들을 디호야 실네호는 지 만이 잇는 고로
셔바나 정부에서 별노이 조속호고
셔바나에 잇는 미국 인민을 보호한다더라

이 기사를 전체적으로 읽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한자어들을 한글로 써 놓은 경우, 요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에 들어 있어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줍니다. 이런 경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면 나올 테니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몇 개의 단어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전체를 읽어 내는 능력을 키워나가려는 노력입니다. 모르는 한자어는 일단 그대로 두고 넘어가도 됩니다.

이번에는 부분부분 잘라서 현대 한국어와 대비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아메리카 합중국 남쪽에 잇는 규바라 호는 섬은 셔바나 속국인디
아메리카 합중국 남쪽에 잇는 쿠바라 하는 섬은 스페인 속국인디

‘남쪽’의 ‘쪽’의 초성이 ‘ㅈ’으로 시작하는 ‘ㅈ’으로 적혀 있는데, 이 경우는 ‘ㅈ’로 읽으면 됩니다. ‘호는’은 일단 여기서 ‘하난’으로 읽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하는’으로 발음됩니다. 독립신문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표기의 보수성으로 인해 이러한 표기가 나타난 겁니다. ‘속국인디’의 마지막 음절에는 ‘ㆍ[아래아]’와 ‘이’가 결합한 형태의 모음 글자가 보이는데, 신문을 읽을 때는 일단 ‘대’로 읽습니다. 그러나 이 어미의 형태는 현대 한국어의 ‘-데’입니다.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거기 빅성들이 자주 독닙호라고 니러나셔
거기 백성들이 자주 독립하려고 일어나셔

여기서는 ‘거기’가 ‘거기’로 적혀 있고 ‘독립’이 ‘독닙’으로 적혀 있는 것 이외에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어나다’가 이전에는 ‘닐어나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셔바나 관병하고 싸흙 시작흔 지 발셔 일년이 너머논디
스페인 관병하고 싸흙 시작한 지 벌써 일 년이 넘었는데
스페인 군인하고 싸흙을 시작한 지 벌써 일 년이 넘었는데

‘셔바나’는 스페인이고, ‘싸호다’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비호다’가 ‘배우다’로 변하였듯이 ‘ㅎ’이 탈락하고 두 번째 음절의 ‘오’가 ‘우’로 바뀌었습니다. ‘발셔’는 ‘벌써’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너머논디’에서는 과거 시제 어미 ‘었’이 표기에서 실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중국 정부에서 규바를 독립국으로 디접흐즈 흐논 말이 만히 잇논디
합중국 정부에서 쿠바를 독립국으로 대접하자 하는 말이 많이 있는데
아메리카합중국(미국) 정부에서 쿠바를 독립국으로 대접하자고 하는 말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ㆍ[아래아]’가 쓰인 단어들이 보이는데 ‘디접, 흐즈, 흐논, 잇논디’에서 ‘디’만 ‘대’로 읽고 나머지 부분은 ‘ㆍ[아래아]’를 ‘아’로 읽으면 됩니다. 물론 현대 한국어에서 ‘흐논’과 ‘잇논디’는 ‘하는’과 ‘있는데’로 실현됩니다. ‘ㅈ’ 뒤에 ‘유, 여’의 표기가 있는 ‘합중국, 정부, 디접’은 독립신문이 발행되었을 때나 현재나 동일하게 ‘합중국, 정부, 대접’으로 발음됩니다. 그리고 ‘많이’는 받침의 ‘ㅎ’이 연결되어 ‘만히’로 쓰였습니다.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근일에 합중국 의회원에서 규바인병을 셔반아 역적으로 아니 디접흐고
근일에 합중국 의회원에서 쿠바인 병사를 스페인 역적으로 아니 대접하고
최근에 미국 국회에서 쿠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인을 스페인의 역적으로 대접하지 않고

이제 표기 등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의회가 국회이기 때문에 ‘합중국 의회원’을 ‘미국 국회’로 번역하였습니다.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의병으로 알아 쥬자논 의논이 잇셔든이
의병으로 알아주자논 의논이 있었더니
의병으로 이해해 주자고 하는 논의가 있었더니

여기서는 ‘주다’가 ‘유’모음을 가지고 있는 ‘쥬다’로 표기된 점이 특이합니다. ‘있었더니’가 ‘잇셔든이’로 표기된 것 역시 독특합니다. ‘ㅈ’ 종성의 ‘있다’가 ‘ㅈ’ 종성의 ‘잇’으로 표기되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었’의 ‘어’와 ‘ㅈ’이 결합하고 ‘어’가 ‘여’로 표기된 독특한 표기가 나타납니다. 또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 ‘었’의 종성 ‘ㅈ’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니’의 어미 ‘더’가 ‘드’로 표기되어 있는데, 현대 한국어의 일상 발화에서도 ‘더’와 ‘드’는 혼동되어 발음되는 일이 많습니다. ‘더니’가 과도하게 분절되어 ‘든이’로 표기된 점도 특징적입니다.

이 부분들은 쿠바를 점령하고 있는 스페인 관점에서는 쿠바인 군사들은 반란을 일으키는 역적에 해당하지만, 쿠바를 독립국으로 인정하려는 미국 국회의 관점에서는 나라를 구하려는 의병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서바나 신문지 들이 합중국을 디단이 험담하고
스페인 신문지들이 합중국을 대단히 험담하고
스페인 신문들이 미국을 대단히 나쁘게 이야기하고

현대 한국어에서 ‘ㅎ’이 들어가서 ‘대단히’로 발음하는 부분이 ‘ㅎ’이 없는 ‘디단이’로 쓰였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 ‘대단히’를 일상대화에서 조금 빠르게 발음하면 ‘ㅎ’이 탈락하여 ‘대다니’로 발음되는데 독립신문의 ‘디단이’도 ‘ㅎ’이 탈락한 표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험담하다’는 한자어인데 나쁘게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서바나 인민이 미국 사람들을 디하야 실네하는 지 만이 잇는 고로
스페인 인민이 미국 사람들을 대하여 실레하는 때 많이 잇는 고로
스페인 국민들이 미국 사람들을 대하여서는 실레를 범하는 때가 많이 있으므로

‘실레’가 ‘실네’로 쓰여 있지만 두 표기 방식의 발음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현대 한국어에서는 ‘많다’의 종성 ‘ㅎ’은 모음 앞에서 발음되지 않는데, 그러한 발음이 표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만이’로 쓰였습니다. ‘있다’의 여간은 ‘ㅅ’이 하나만 있는 ‘잇’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서바나 정부에서 별노이 조속하고 서바나에 잇는 미국 인민을 보호한다더라
스페인 정부에서 별도이 단속하고 스페인에 잇는 미국 인민을 보호한다더라.
스페인 정부에서는 별도로 단속하고 스페인에 잇는 미국 국민을 보호한다고 하더라

여기서 ‘별노이’는 오자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별도로’ 정도로 번역될 것 같습니다. ‘조속하다’는 ‘단속하다’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되는데, 스페인에 있는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매우 어렵지는 않지요? 쿠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할 때 일어난 쿠바 독립전쟁의 기사였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읽는데 처음에 여러분이 소리내어 읽는 시간을 먼저 드리
고 그 다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오자로 보이는 ‘별노이’는 ‘별도이’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일 먼저 ①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메리카 합중국 남쪽에 잇는 규바라 하는 섬은 서바나 속국인데
아메리카 합중국 남쪽에 잇는 쿠바라 하는 섬은 스페인 속국인데

②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빅성들이 자주 독넙하랴고 니러나서
거기 백성들이 자주독립 하려고 일어나서

③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셔바나 관병하고 싸움 시작한 지 벌써 일년이 너머는디
스페인 군인하고 싸움을 시작한 지 벌써 일 년이 넘었는데

④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합중국 정부에서 규바를 독립국으로 디접흐즈 흐는 말이 만히 잇는디
아메리카합중국(미국) 정부에서 쿠바를 독립국으로 대접하자고 하는 말이 많이 있는데

⑤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일에 합중국 의회원에서 규바인 병사를 셔바나 역적으로 아니 디접흐고
최근에 미국 국회에서 쿠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인을 스페인의 역적으로 대접하지 않고

⑥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의병으로 알아 쥬자는 의논이 잇셔든이 셔바나 신문지 들이 합중국을 디단이 험담흐고
의병으로 이해해 주자는 논의가 잇섯더니, 스페인 신문들이 미국을 대단히 나쁘게 이야기하
고

⑦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셔바나 인민이 미국 사람들을 디흐야 실네흐는 지 만이 잇는 고로
스페인 국민들이 미국 사람들을 대하여서는 실례를 범하는 때가 많이 잇으므로

⑧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셔바나 정부에서 별도로 조속흐고 셔바나에 잇는 미국 인민을 보호한다더라
스페인 정부에서는 별도로 단속흐고 스페인에 잇는 미국 국민을 보호한다고 하더라

이제 이 기사는 어느 정도 읽어내실 수 있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사 전체를
한 번 더 읽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소리 내어 읽어 주시기 바랍
니다.

외국 통신

아메리카 합중국 남쪽에 잇는 규바라 흐는 섬은 셔바나 속국인디
거긔 빅성들이 자쥬 독립흐랴고 니러나셔
셔바나 관병하고 싸움 시작한 지 벌써 일년이 너머는디
합중국 정부에서 규바를 독립국으로 디접흐즈 흐는 말이 만히 잇는디
근일에 합중국 의회원에서 규바 인병을 셔바나 역적으로 아니 디접흐고
의병으로 알아 쥬자는 의논이 잇셔든이
셔바나 신문지 들이 합중국을 디단이 험담흐고
셔바나 인민이 미국 사람들을 디흐야 실네흐는 지 만이 잇는 고로
셔바나 정부에서 별도로 조속흐고
셔바나에 잇는 미국 인민을 보호한다더라

4. ‘독립신문(1896년)’에 대한 이해와 강독3

이번에는 독립신문의 창간호에 실린 논설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독립신문을 창간하는 이유와 독립신문의 역할 등에 대한 소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어를 포함한 단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표기법 등은 앞에 본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우선 논설 전체를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생각하면서 눈과 귀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논설

우리가 독립신문을 오늘 처음으로 출판하느니
조선 속에 잇는 니외국 인민의게
우리 주의를 미리 말습혀 아시게 하노라
우리는 첫지 편벽되지 아니한 고로 무슴 당에도 상관이 업고
상하 귀천을 달니 디접 아니하고 모도 조선 사름으로만 알고
조선만 위하며 공평이 인민의게 말할 터인디
우리가 서울 빅성만 위할 게 아니라 조선 전국 인민을 위하며
무슴 일이든지 디언혀 주랴 흠
정부에서 하시는 일을 빅성의게 전할 터이요
빅성의 정세를 정부에 전할 터이니
만일 빅성이 정부 일을 자세이 알고
정부에서 빅성에 일을 자세이 아시면
피츠에 유익한 일 만히 잇슬 터이요
불평한 무슴과 의심하느니 심각이 업서질 터이요
우리가 이 신문 출판하느니 취리하라는 게 아닌 고로 갑슬 헐허도록 하였고
모도 언문으로 쓰기느니 남녀 상하 귀천이 모도 보게 흠이요
또 귀절을 췌여 쓰기느니 알아보기 쉽도록 흠이라
우리는 바른 디로만 신문을 할 터인 고로
정부 관원이라도 잘못하느니 이 잇스면 우리가 말할 터이요
탐관오리들을 알면 세상에 그 사름의 형적을 폐일 터이요
스스빅성이라도 무법한 일 하느니 사름은 우리가 차저 신문에 설명할 터이요
우리는 조선대군주 폐하와 조선 정부와 조선 인민을 위하느니 사름드린 고로
편당 잇는 의논이든지 한 쪽만 심각코 하느니 말은 우리 신문상에 업실 터이요
또 한 쪽에 영문으로 기록하느니 외국 인민이 조선 스정을 자세이 몰은즉
혹 편벽된 말만 듯고 조선을 잘못 심각할사 보아
실상 스정을 알게 하고져 하여 영문으로 조금 기록흠
그리하느니 이 신문은 꼭 조선만 위함을 가히 알 터이요
이 신문을 인연하여 니외 남녀 상하 귀천이 모도 조선 일을 서로 알 터이요
우리가 또 외국 사정도 조선 인민을 위하며 간간이 기록할 터이니
그걸 인연하여 외국은 가지 못하드리도 조선 인민이 외국 사정도 알 터이요
오늘은 처음인 고로 대강 우리 주의만 세상에 고후고
우리 신문을 보면 조선 인민이 소견과 지혜가 진보함을 밋노라
논설 췌치기 전에 우리가 대군주 폐하의 송덕하고 만세를 부르노이다

조금 길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내용 중에서 특히 한자어들의 의미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장을 끝내는 어미도 지금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설을 시작하는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면 ‘무엇무엇을 함’과 같이 문장을 끝맺고 있지요? 그리고 ‘한다, 믿는다’는 뜻을 가지는 ‘하노라, 믿노라’나 ‘부릅니다’의 뜻은 ‘부르느이다’도 현대 한국어에서는 안 쓰이는 문장 종결형입니다. 표기 측면에서 보면 ‘주의, 조선, 귀천, 군주, 상하, 세상’ 같은 단어들은 현재와는 달리 모음을 ‘유, 요, 여, 예 야, 유’로 쓰고 있는데 이 단어들을 자세히 보면 모두 ‘ㅜ’이나 ‘ㅚ’ 뒤의 모음에서 그런 표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경우는 그냥 ‘주의, 조선, 귀천, 군주, 상하, 세상’으로 읽으면 됩니다. 형태 면에서는 ‘정세을, 만세을’ 같은 예에서는 모음 뒤에서 목적격 조사 ‘를’을 써야 하는데도 ‘을’로 표기한 것이 특이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조사의 표기를 ‘을’로 썼을 뿐이지 실제 발음이 ‘을’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음 뒤에서 목적격 조사 ‘를’을 표기한 사례는 ‘우리 주의를’에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 이외에 ‘무엇무엇 할 터’라는 표현이 많이 보인다는 사실을 추가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내가 갈 터이니 그렇게 알아라.”와 같이 의지를 나타내거나 ‘예정’ 또는 ‘추측’을 나타내는 문장 표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터이니’의 ‘터이’는 ‘테’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할 테면 해 봐!’와 같은 문장에서 사용됩니다.

이 논설은 독립신문을 처음 출판하면서 조선인과 외국인에게 이 신문을 만드는 이유를 미리 말하려고 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선 전 국민을 위하여 어떤 한 편에 치우친 기사를 쓰지 않는다고 하면서, 서울 사람만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와 국민의 사이에서 서로의 일을 자세하게 알도록 전하여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만든 독립신문은 이익을 취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하였고, 한글로 신문을 제작하는 이유는 신분 지위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그리고 남녀 모두 읽을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며, 띄어쓰기를 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리든 일반인이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 신문에서 파헤칠 것인데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 합니다. 독립신문이 영문판도 발간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선 내에 있는 외국인이 치우친 정보를 듣고 조선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외국에 가지 않아도 외국의 사정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 통신을 넣는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가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문제 없습니다. 중간중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전체적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눈과 귀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논설

우리가 독립신문을 오늘 처음으로 출판하느니
 조선 속에 있는 니외국 인민의게
 우리 주의를 미리 말씀하여 아시게 하노라
 우리는 첫지 편벽되지 아니흔 고로 무슴 당에도 상관이 업고
 상하 귀천을 달니 디접 아니흔고 모도 조선 사름으로만 알고
 조선만 위하며 공평이 인민의게 말할 터인디

우리가 서울 빅성만 위할 게 아니라 조선 전국 인민을 위하여
 무슴 일이든지 디언혀 주랴 흠
 정부에서 헐시는 일을 빅성의게 전할 터이요
 빅성의 정세을 정부에 전할 터이니
 만일 빅성이 정부 일을 자세이 알고
 정부에서 빅성에 일을 자세이 아시면
 피촉에 유익한 일 만히 잇슬 터이요
 불평한 모음과 의심하는 심각이 업서질 터이음
 우리가 이 신문 출판하기는 취리하라는 게 아닌 고로 갑슬 헐허도록 헐였고
 모도 언문으로 쓰기는 남녀 상하 귀천이 모도 보게 흠이요
 또 귀절을 쪼여 쓰기는 알아보기 쉽도록 흠이라
 우리는 바른 디로만 신문을 할 터인 고로
 정부 관원이라도 잘못하는 이 잇스면 우리가 말할 터이요
 탐관오리들을 알면 세상에 그 사름의 형적을 폐일 터이요
 스스빅성이라도 무법한 일 하는 사름은 우리가 차저 신문에 설명할 터이음
 우리는 조선대군주 폐하와 조선 정부와 조선 인민을 위하는 사름드린 고로
 편당 잇는 의논이든지 한 쪽만 심각코 하는 말은 우리 신문상에 업실 터이음
 또 한 쪽에 영문으로 기록하기는 외국 인민이 조선 스정을 자세이 몰은즉
 혹 편벽된 말만 듯고 조선을 잘못 심각할싸 보아
 실상 스정을 알게 하고져 하여 영문으로 조금 기록흠
 그리하즉 이 신문은 꼭 조선만 위함을 가히 알 터이요
 이 신문을 인연하여 니외 남녀 상하 귀천이 모도 조선 일을 서로 알 터이음
 우리가 또 외국 사정도 조선 인민을 위하여 간간이 기록할 터이니
 그걸 인연하여 외국은 가지 못하드리도 조선 인민이 외국 사정도 알 터이음
 오날은 처음인 고로 대강 우리 주의만 세상에 고흐고
 우리 신문을 보면 조선 인민이 소견과 지혜가 진보함을 밋노라
 논설 쫓치기 전에 우리가 대군주 폐하씩 송덕하고 만세를 부르노이다

이제부터는 전체 논설을 조금씩 나누어서 현대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설에 나오는 표기나 문법의 변화 등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에 어느 정도 들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한자어 등은 현대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을 통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추가적인 설명 없이 논설 자체와 현대 한국어 번역만을 읽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독립신문을 오늘 처음으로 출판하느디
 우리가 독립신문을 오늘 처음으로 출판하는데

조선 속에 잇는 니외국 인민의게
 조선 속에 잇는 내외국 인민에게
 조선 속에 잇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우리 주의를 미리 말습혀 아시게 호노라
우리 주의를 미리 말씀하여 아시게 한다
우리 생각을 미리 말씀드려 아시게 한다

우리는 첫지 편벽되지 아니한 고로 무슨 당에도 상관이 업고
우리는 첫째 편벽되지 아니한 고로 무슨 당에도 상관이 없고
우리는 첫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므로 무슨 당에도 상관이 없고

상하 귀천을 달니 디접 아니하고 모도 조선 사람으로만 알고
상하귀천을 달리 대접 아니하고 모두 조선 사람으로만 알고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을 달리 대접하지 않고 모두 조선 사람으로만 알고

조선만 위하며 공평이 인민에게 말할 터인디
조선만 위하며 공평하게 인민에게 말할 터인데
조선만 위하며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말할 것인데

우리가 서울 빅성만 위할 게 아니라 조선 전국 인민을 위하여
우리가 서울 백성만 위할 게 아니라 조선 전국 인민을 위하여
우리가 서울 백성만 위할 게 아니라 조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디언혀 주랴 흠
무슨 일이든지 대언하여 주려 함.
무슨 일이든지 대신 말하여 주려고 한다.

정부에서 하시는 일을 빅성의게 전할 터이요
정부에서 하시는 일을 백성에게 전할 터이고
정부에서 하시는 일을 백성에게 전할 것이고

빅성의 정세를 정부에 전할 터이니
백성의 정세를 정부에 전할 터이니
백성의 상황을 정부에 전할 터이니

만일 빅성이 정부 일을 자세이 알고
만일 백성이 정부 일을 자세하게 알고

정부에서 빅성에 일을 자세이 아시면
정부에서 백성의 일을 자세하게 아시면

피차에 유익한 일 만히 잇슬 터이요
피차에 유익한 일이 많이 잇을 터이고,

서로 간에 유익한 일이 많이 있을 것이고,

불평한 모습과 의심하는 심각이 업서질 터이옵
불평한 마음과 의심하는 생각이 없어질 터임.
불공평하다는 마음과 의심을 하는 생각이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 신문 출판하기를 취리하라는 게 아닌 고로 갑술 헐허도록 하였고
우리가 이 신문 출판하기를 이득을 취하려는 게 아니므로 값을 헐하도록 하였고
우리가 이 신문을 출판하는 것은 이득을 취하려는 게 아니므로 값을 싸게 하였고

모도 언문으로 쓰기는 남녀 상하 귀천이 모도 보게 흠이요
모두 한글로 쓰기는 남녀 상하 귀천이 모두 보게 함이고,
모두 한글로 쓰는 이유는 남녀 또는 신분 상관 없이 모두 보게 하려는 것이고

또 귀절을 째여 쓰기는 알아보기 쉽도록 흠이라
또 구절을 띄어쓰기는 알아보기 쉽도록 함이다.
또 구절을 띄어서 쓰는 이유는 알아보기 쉽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바른 디로만 신문을 할 터인 고로
우리는 바른 대로만 신문을 할 터인 고로
우리는 바른 대로만 신문의 역할을 할 것이므로

정부 관원이라도 잘못하는 이 잇스면 우리가 말할 터이요
정부 관원이라도 잘못하는 이 있으며 우리가 말할 터이고
정부 관리라도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말할 것이고

탐관오리들을 알면 세상에 그 사람의 형적을 폐일 터이요
탐관오리들을 알면 세상에 그 사람의 행적을 폐일 터이고
나쁜 짓을 하는 관리들을 알면 세상에 그 사람의 행적을 널리 퍼서 알릴 것이고

스스빅성이라도 무법한 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차저 신문에 설명할 터이옵
사사로운 백성이라도 무법한 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 신문에 설명할 것임.
사적인 백성이라도 법을 어기는 사람은 우리가 이 신문에 설명할 것이다.

우리는 조선대군주 폐하와 도선 정부와 조선 인민을 위하는 사람드린 고로
우리는 조선 대 군주 폐하와 조선 정부와 조선 인민을 위하는 사람들인 고로
우리는 조선 대 군주 임금님과 조선 정부와 조선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들이므로

편당 잇는 의논이든지 한 쪽만 심각코 하는 말은 우리 신문상에 업실 터이옵
편당 잇는 의논이든지 한 쪽만 생각하고 하는 말은 우리 신문 상에 없을 것임.
당파에 치우친 의견이든지 한 쪽만 생각하고 하는 말은 우리 신문 상에 없을 것이다.

또 한 쪽에 영문으로 기록하기는 외국 인민이 조선 사정을 자세히 몰은즉
또 한 쪽에 영문으로 기록하는 것은 외국 인민이 조선의 사정을 자세하게 모르는 즉
또 한 쪽에 영문으로 기록하는 것은 외국 인민이 조선의 사정을 자세하게 모르므로

혹 편벽된 말만 듣고 요선을 잘못 생각할까 보아
혹 치우친 말만 듣고 조선을 잘못 생각할까 보아

실상 사정을 알게 하고져 하여 영문으로 조금 기록함
실제의 사정을 알게 하고자 하여 영문으로 조금 기록하는 것이다.

그리혹즉 이 신문은 꼭 조선만 위함을 가히 알 터이요
그러한 즉 이 신문은 딱 조선만 위함을 가히 알 것이고
그러므로 이 신문은 딱 조선만 위한다는 것을 능히 알 것이고

이 신문을 인연하여 내외 남녀 상하 귀천이 모두 조선 일을 서로 알 터이요
이 신문을 인연하여 내외 남녀 상하 귀천이 모두 조선 일을 서로 알 것임.
이 신문과 인연이 되어 내외국 사람과 남녀 상하 귀천이 모두 조선 일을 서로 알 것이다.

우리가 또 외국 사정도 조선 인민을 위하여 간간히 기록할 터이니 그걸 인연하여
우리가 또 외국 사정도 조선 인민을 위하여 간간히 기록할 터이니 그것을 인연하여
우리가 또 외국 사정도 조선 인민을 위하여 간간히 기록할 터이니 그것이 인연이 되어

외국은 가지 못하더라도 조선 인민이 외국 사정도 알 터이요
외국은 가지 못하더라도 조선 인민이 외국 사정도 알 것임.
외국은 가지 못하더라도 조선 인민이 외국 사정도 알 것이다.

오늘은 처음인 고로 대강 우리 주의만 세상에 고하고
오늘은 처음인 고로 대강 우리 주의만 세상에 고하고
오늘은 처음이므로 전반적인 우리의 생각만 세상에 말하고

우리 신문을 보면 조선 인민이 소견과 지혜가 진보함을 믿노라
우리 신문을 보면 조선 인민이 소견과 지혜가 진보함을 믿노라
우리 신문을 보면 조선 백성이 생각과 지혜가 진보함을 믿는다.

논설 쓰치기 전에 우리가 대군주 폐하씩 송덕하고 만세를 부르노이다
논설 쓰치기 전에 우리가 대군주 폐하께 송덕하고 만세를 부릅니다.
논설을 끝내기 전에, 우리가 대군주 임금님께 덕을 기리고 만세를 부릅니다.

전반적인 글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었는지요? 부분적으로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겠
지만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보다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알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고 제가 그 다음에 읽는 순서로 독립신문의 논설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①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독립신문을 오늘 처음으로 출판하^는디
우리가 독립신문을 오늘 처음으로 출판하^는데

②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 속에 있는 니외국 인민의게
조선 속에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③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를 미리 말습^혀여 아시게 하^노라
우리 생각을 미리 말^씀드려 아시게 한^다

④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첫지 편벽되지 아니^한 고로 무삼 당에도 상관이 업고
우리는 첫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므로 무삼 당에도 상관이 없^고

①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하 귀천을 달니 디접 아니^한고 모도 죠션 사^름으로만 알고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을 달리 대접하지 않고 모두 조선 사^름으로만 알고

②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죤션만 위^하며 공평이 인민의게 말^할 터인디
죤션만 위^하며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말^할 것인데

③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울 빅성만 위^할 게 아니라 죤션 전국 인민을 위^하여
우리가 서울 백성만 위^할 게 아니라 죤션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④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삼 일이든지 디언^혀여 주^랴 흠
무삼 일이든지 대신 말^하여 주^려고 한^다.

①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을 빅성의게 전^할 터이요 빅성의 정세를 정부에 전^할 터이니
정부에서 하^는 일을 백성에게 전^할 것이고, 백성의 상황을 정부에 전^할 것이니

②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빅성이 정부 일을 자세이 알고
만일 백성이 정부 일을 자세하게 알고

③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빅성에 일을 자세이 아시면
정부에서 백성의 일을 자세하게 아시면

④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피츠에 유익한 일 만히 잇슬 터이요
서로 간에 유익한 일이 많이 잇을 것이고,

①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불평한 무옴과 의심하는 심각이 업서질 터이옴
불공평하다는 마음과 의심을 하는 생각이 없어질 것이다.

②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문 출판하기를 취리하라는 게 아닌 고로 값을 헐허도록 하였고
우리가 이 신문을 출판하는 것은 이득을 취하려는 게 아니므로 값을 싸게 하였고

③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도 언문으로 쓰기는 남녀 상하 귀천이 모도 보게 흠이요
모두 한글로 쓰는 이유는 남녀 또는 신분 상관 없이 모두 보게 하려는 것이고

④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귀절을 빼여 쓰기는 알아보기 쉽도록 흠이라
또 구절을 띄어서 쓰는 이유는 알아보기 쉽도록 하려는 것이다.

①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른 디로만 신문을 흘 터인 고로
우리는 바른 대로만 신문의 역할을 할 것이므로

②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관원이라도 잘못하는 이 잇스면 우리가 말할 터이요
정부 관리라도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말할 것이고

③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탐관오리들을 알면 세상에 그 사람의 형적을 폐일 터이요
나쁜 짓을 하는 관리들을 알면 세상에 그 사람의 행적을 널리 펴서 알릴 것이고

④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빅성이라도 무법한 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차저 신문에 설명할 터이옴

사적인 백성이라도 법을 어기는 사람은 우리가 이 신문에 설명할 것이다.

①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선대군주 폐하와 도선 정부와 조선 인민을 위하는 사롭드린 고로
우리는 조선 대 군주 임금님과 조선 정부와 조선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들이므로

②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편당 잇는 의논이든지 한 쪽만 싱각코 하는 말은 우리 신문상에 업실 터이음
당파에 치우친 의견이든지 한 쪽만 생각하고 하는 말은 우리 신문 상에 없을 것이다.

③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쪽에 영문으로 기록하기는 외국 인민이 조선 소정을 자세이 몰은즉
또 한 쪽에 영문으로 기록하는 것은 외국 인민이 조선의 사정을 자세하게 모르므로

④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 편벽된 말만 듣고 조선을 잘못 싱각할까 보아
혹 치우친 말만 듣고 조선을 잘못 생각할까 보아

①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실상 소정을 알게 하고져 하여 영문으로 조금 기록함
실제의 사정을 알게 하고자 하여 영문으로 조금 기록하는 것이다.

②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즉 이 신문은 꼭 조선만 위함을 가히 알 터이요
그러므로 이 신문은 딱 조선만 위한다는 것을 능히 알 것이고

③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문을 인연하여 니외 남녀 상하 귀천이 모두 조선 일을 서로 알 터이음
이 신문과 인연이 되어 내외국 사람과 남녀 상하 귀천이 모두 조선 일을 서로 알 것이다.

④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외국 사정도 조선 인민을 위하여 간간이 기록할 터이니 그걸 인연하여
우리가 또 외국 사정도 조선 인민을 위하여 간간이 기록할 것이니 그것이 인연이 되어

①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은 가지 못하드러도 조선 인민이 외국 사정도 알 터이음
외국은 가지 못하더라도 조선 인민이 외국 사정도 알 것이다.

②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처음인 고로 대강 우리 주의만 세상에 고하고
오늘은 처음이므로 전반적인 우리의 생각만 세상에 말하고

③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문을 보면 조선 인민이 소견과 지혜가 진보함을 믿노라
우리 신문을 보면 조선 백성이 생각과 지혜가 진보함을 믿는다.

④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논설 쓰치기 전에 우리가 대군주 폐하씩 송덕하고 만세를 부르노이다
논설을 끝내기 전에, 우리가 대군주 임금님께 덕을 기리고 만세를 부릅니다.

5. 정리

지금까지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에 실린 광고, 외국 통신, 논설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아직은 표기가 눈에 익지 않고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간혹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반복해서 읽다 보면 큰 어려움 없이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자료를 읽어나가면서 “이 표기가 뭐지?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 문장을 끝낼 때 이렇게 표현한 건 뭐라고 번역해야 하지?”와 같은 의문이 생길 경우가 많을 겁니다. 물론 그때그때 그 의문들을 모두 풀고 다음 문장을 읽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수업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저는 많은 의문을 하나씩 한 번에 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 놓은 번역을 보면서 대략적인 추측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추측들이 한 강좌 한 강좌 진행되면서 쌓이다 보면 큰 질문과 작은 질문들이 구분될 겁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큰 질문들을 전공 서적을 통해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모르는 것보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추측해서 읽어낸 부분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한국어 고전 자료를 읽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890년대의 자료를 함께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오래된 자료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선택형 (10분)

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독립신문》에는 연철 표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한문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를 ‘언해’라고 하였다.
- ③ 《독립신문》에 쓰인 ‘실례’와 ‘실네’의 발음은 동일하다.
- ④ 《독립신문》에는 모음 뒤에서 목적격 조사 ‘을’이 나타난 경우가 있다.

정답: ①

2.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 ① 《독립신문》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 ② 《독립신문》은 순 한글로 이루어져 있다.
- ③ 《독립신문》은 나라에서 간행한 최초의 신문이다.
- ④ 《독립신문》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가로쓰기를 하였다.

정답: ②

3.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ㆍ’는 1933년에 현대 한국의 맞춤법이 정비될 때 폐지되었다.
- ② 《독립신문》에는 ‘ㅅ, ㅈ’ 뒤에서 ‘유, 요, 여, 예, 야, 유’가 쓰인 단어가 나타난다.
- ③ 《독립신문》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 ‘-었-’의 종성 ‘ㅈ’이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④ ‘싸호다’와 ‘비호다’는 어종의 ‘ㅎ’이 탈락하여 오늘날 ‘싸우다’와 ‘배우다’로 바뀌었다.

정답: ③

단답형 (8분)

1. ‘갑손 한영조던 스원’에서 ‘갑손’을 형태소 분석하시오.

정답: 갑 + -은

2. ‘규바’, ‘셔바나’는 어떤 나라들을 뜻하는지 쓰시오.

정답: 쿠바, 스페인

3. 《독립신문》에서 외국어에 대응하여 한국어를 지칭할 때 사용한 단어는 무엇인가.

정답: 언문

나. 토의 (30분)

《독립신문》은 영어판도 발행되었는데, 이러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창간호에 실린 논설 부분을 참고).

다. 과제 (60분)

아래 자료를 현대 한국어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현대어로 바꾸어 쓰시오. 그리고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표기법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조선 사림이 영국 말을 비호라면
이 두척보다 더 긴흔 거시 업논지라
이 두척이 미국인 워두우 문돈 거시니
한영즈던은 영국 말과 언문과 한문을 합햐 문돈 칙이오
한영문법은 영국문법과 조선문법을 서로 견주엇시니
말이 간단햐 영국 말을 즈세히 비호라면
이척이 잇서야홀거시니라
갑손 한영즈던 스원 한영문법 삼원
비지학당 한미화 활판소에 와 사라

■ 참고자료

《독립신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독립신문(창간호)》(디지털한글박물관)

우리말샘 (우리말샘 바로가기)

고영근(1987/2010),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이기문(1972/1998),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4차시> 19세기 및 17세기 자료

■ 학습목표

1. 《규합총서》와 《음식디미방》을 소리내어 읽는 능력을 기른다.
2. 1800년과 1670년 경의 근대 한국어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
3. 근대 한국어와 현대 한국어를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핀다.

■ 강의 목차

1. 도입
2. ‘규합총서(1809년)’에 대한 이해와 강독
3. ‘음식디미방(1670년 전후)’에 대한 이해와 강독
4.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도입

안녕하세요? ‘한국어 고전 자료 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890년대의 신문인 《독립신문》을 함께 읽으며 지금부터 130여 년 전의 언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본 《어린이》라는 잡지와 《독립신문》은 세로쓰기를 하기는 했지만 모두 현대적인 활자로 만들어지고 찍어쓰기도 시도된 자료들이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1900년 전후의 언어에 대한 감각이 약간은 생겨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기를 19세기 이전으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오늘을 포함해 앞으로 볼 자료들은 2차시와 3차시의 자료보다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차시 때 《훈민정음 언해》《용비어천가》라는 15세기의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보아나갈 자료는 《어린이》와 《독립신문》이라는 한 쪽 끝과 《훈민정음 언해》와 《용비어천가》라는 다른 한 쪽 끝의 사이에 있는 자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적으로 양 쪽 끝에 있는 자료를 보았으니까, 지금부터 볼 자료는 그 양쪽 끝의 언어 표현들 사이에서 해석해 나가면 된다고 편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볼 자료는 1809년에 나온 《규합총서》와 1670년 경에 나온 《음식디미방》입니다. 《규합총서》의 ‘규합’은 한자어로 여성이 거처하는 공간인 안방을 뜻하고, ‘총서’는 여러 가

지 정보를 모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음식디미방》 역시 한자어인데, ‘음식’이라는 단어에 ‘맛을 아는 방법’에 해당하는 한자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할 때의 ‘지’가 예전에는 ‘디’로 읽혔고, ‘시각, 청각, 미각’이라고 할 때의 맛에 해당하는 ‘미’, 그리고 ‘방법’을 뜻하는 ‘방’이 합쳐져서 ‘디미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표지에는 한자로 ‘규곤시의방’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에게 필요한 것을 올바르게 풀이한 처방’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이 책을 만든 사람의 후손이 나중에 책 표지를 새로 붙이면서 책 이름을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규합총서》와 《음식디미방》이 시간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난 2차시와 3차시의 수업에서 보았듯이 100년 조금 넘는 시간 사이의 언어는 달라진 부분보다는 유사한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자료를 볼 때, 두 자료의 언어 차이가 100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일어난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1670년과 1809년의 언어 자료는 현재의 100여 년보다 차이가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나는 두 자료를 선택한 이유는 두 자료에 모두 음식을 만드는 방법 즉 조리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두 시기의 요리책을 함께 읽으면서 당시의 언어에 접근하겠습니다. 《규합총서》와 《음식디미방》이 만들어진 시기를 한국어의 역사에서는 근대 한국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업은 두 자료를 읽으면서 근대 한국어와 현대 한국어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 ‘규합총서(1809년)’에 대한 이해와 강독

《규합총서》는 1809년에 조선시대의 유일한 실학자라고 평가받는 ‘빙허각 이 씨’라는 분이 51세에 쓴 책입니다. 그 책은 요리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요리 이외에도 염색, 옷 만들기, 바느질 방법 등 다양한 살림살이 즉 집안일을 할 때 알아야 할 항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일종의 생활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규합총서》라는 제목은 저자의 남편이 지어주었다고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규합총서》의 ‘규합’은 한자어로 여성이 거처하는 공간인 안방을 뜻하고, ‘총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모은 책을 뜻합니다. ‘빙허각 이 씨’는 평생을 서울에서 살았다고 하므로 이 책을 통해 1800년 전후의 서울의 음식 문화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그림 4>와 같습니다.

제일 오른쪽 위에는 ‘규합총서목록’이라고 써 있습니다. 《규합총서》의 목차라는 뜻입니다. ‘목록’과 ‘목록’의 발음이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줄 제일 위에는 ‘술빚는길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현대 한국어의 표기법으로 쓴다면 ‘술 빚는 길일’입니다. 술을 만드는 것을 빚는다고 하는데, 술을 빚는 길일 즉 술 빚기 좋은 날부터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 밑에는 ‘규합총서모록 종’이라고 써 있습니다. ‘모록’은 ‘목록’의 오자입니다. ‘규합총서 목록 끝’이라는 뜻의 ‘규합총서 목록 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책은 목판본입니다. 목판본이라는 것은 종이에 글을 쓰고 그것을 나무판에 새겨서 다시 종이에 찍어낸 책을 부르는 말인데, 목판을 만드는 과정에 ‘목록’이 ‘모록’으로 잘못 새겨진 것 같습니다.

<그림5>는 《규합총서》의 내용 중 일부인데 글자를 알아보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규합총서》는 목판본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나무판에 새겨 넣는 과정에서 글자가 명확하게 새겨지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무판에 먹을 바르고 종이에 찍어내는 과정에서도 먹이

옆으로 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번 먹을 칠하여 종이에 책을 찍어내면서 세월이 흐르면 나무판에 새겨 넣은 글자가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규합총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처음 볼 자료는 ‘두부장’입니다. 두부장은 두부를 고추장이나 된장 또는 간장의 속에 오래 넣어 두었다가 꺼내서 먹는 반찬입니다.

두부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두부를 여러 조각으로 두껍게 자른 후 소금을 골고루 뿌립니다. 두부를 두껍게 자른다는 말은 ‘저민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소금을 뿌린 두부를 면으로 만든 자루에 넣고 지그시 눌러서 물을 뺀 후에 베로 만든 주머니에 넣고 입구를 봉하고, 그 베주머니를 고추장이나 된장 또는 간장 속에 넣어 두면 두부장이 됩니다. 두부에 장의 맛이 배면 꺼내서 먹는 반찬이 두부장입니다.

이제 《규합총서》의 ‘두부장’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의 자료는 읽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입력한 내용을 읽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부장 만드는 방법을 떠올리면서 《규합총서》의 표현이 무엇을 뜻할지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부장

두부두체을굴게점여소곰흔접시골고로뿌려

잘우에너허진득히눌너

물이썩연후에뵈즙치에너허봉햐

고초장밋헤너코혹간장밋헤도너허라

다시 읽겠습니다.

두부장

두부두체을굴게점여소곰흔접시골고로뿌려

잘우에너허진득히눌너

물이썩연후에뵈즙치에너허봉햐

고초장밋헤너코혹간장밋헤도너허라

이번에는 방금 읽은 내용을 현대 한국어의 띄어쓰기 방식으로 띄어서 써 놓고 읽어보겠습니다. 다. 띄어쓰기가 없는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이해가 더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두부장

두부 두 체을 굴게 점여

소곰 흔 접시 골고로 뿌려

잘우에 너허 진득히 눌너 물이 썩연 후에

뵈즙치에 너허 봉햐

고초장 밋헤 너코 혹 간장 밋헤도 너허라

다시 읽겠습니다.

두부장

두부 두 체을 굴게 접여
소곰 훈 접시 골고로 썬려
잘우에 너허 진득히 놀너 물이 썬연 후에
뵈죤치에 너허 봉햐야
고초장 밋헤 너코 혹 간장 밋헤도 너허라

이번에는 내용의 단위를 조금 잘게 나누어서 현대 한국어 번역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장
두부장

두부 두 체을 굴게 접여
두부 두 체를 굴게 저미어

소곰 훈 접시 골고로 썬려
소곰 한 접시 골고루 썬려

잘우에 너허 진득히 놀너 물이 썬연 후에
자루에 넣어 힘을 약간만 주어 놀러 물이 뿌엇게 된 후에

뵈죤치에 너허 봉햐야
베주머니에 넣어 봉햐야

고초장 밋헤 너코 혹 간장 밋헤도 너허라
고추장 밑에 넣고 혹 간장 밑에도 넣어라.

다시 읽으면서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두부장
두부장

‘장’이 ‘야’ 모음의 ‘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독립신문》에서도 ‘ㅅ, ㅈ, ㅊ’ 등의 뒤에서 ‘아, 어, 오, 우’ 등이 ‘야, 여, 요, 유’로 표기 되는 현상을 확인하였는데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부 두 체을 굴게 접여
두부 두 체를 굴게 저미어

모음 ‘예’가 붙어있는 ‘체’는 현대 한국어에서 모음 ‘에’의 ‘체’라는 단어로 남아 있는데, 두 부나 목을 세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모음으로 끝나는 ‘체’ 다음의 목적격 조사가 ‘을’로 쓰였지만 근대 한국어 시기에도 이 환경에서 실제로 발음되던 목적격 조사는 ‘를’이었습니다. 이러

한 예는 1900년 경의 신문인 《독립신문》에도 나온 것을 3차시에서 함께 보았는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굴게’를 보면 현대 한국어에서 ‘굴게’로 표기되는 어형에서 중간 ‘ㄱ’ 하나가 표기되지 않고 ‘굴게’로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여’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저미다’의 활용형 ‘저미어, 저며’로 표기됩니다. ‘저미다’는 어떤 것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베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곰 현 접시 골고로 뿌려
소곰 한 접시 골고루 뿌려

‘접시’의 첫 음절의 모음이 ‘여’로 써 있네요. 그리고 ‘소곰’이 이전에는 ‘소곰’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 한국어의 ‘골고루’는 원래 ‘골고로’였는데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오’에서 ‘우’로 바뀌었습니다. ‘썩’으로 시작하는 ‘뿌려’는 ‘뽀’ 발음의 ‘뿌려’로 읽으면 됩니다.

잘우에 너허 진득히 놀너 물이 썩연 후에
자루에 넣어 힘을 약간만 주어 놀러 물이 뿌연(뿌엇게 된) 후에

‘잘우’는 ‘자루’가 과도하게 분철된 예입니다. ‘너허’는 현대 한국어 표기라면 ‘ㅎ’ 받침의 ‘널어’로 분철을 할 대상이지만 《규합총서》에서는 종성의 자음 즉 받침으로 쓰일 자음을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서 적는 연철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놀너’는 ‘누르다’의 활용형 ‘놀러’와 발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표기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도 그렇지만 1800년 경에도 ‘ㄹ’과 ‘ㄴ’이 이어서 발음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썩연’의 첫 자음 ‘썩’은 현대 한국어에서 ‘뽀’으로 실현됩니다. 그리고 ‘썩연’은 ‘썩연’이라는 표현이 달리 발음되는 것을 표기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썩연 후’라는 표현은 문법적으로도 특이합니다. 현대 한국어에서 동사의 경우는 ‘먹은 후’처럼 관형형 다음에 ‘후’가 오면서 과거나 결과를 표현할 수 있지만, ‘뿌엇다’의 활용형 ‘뿌연’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예전에 그러한 표현이 가능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 한국어의 문법에 맞추면 ‘뿌엇게 된’으로 번역됩니다.

뽀썩치에 너허 붕하야
베주머니에 넣어 붕하여

‘뽀썩치’의 ‘썩치’는 ‘주머니’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썩치’나 ‘주머니’나 모두 ‘썩’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베’는 예전에는 ‘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뽀썩치’는 ‘베로 만든 주머니’입니다. ‘너허’는 ‘널다’의 어간말 종성 ‘ㅎ’을 다음 음절로 옮겨서 적는 연철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고초장 밋헤 너코 혹 간장 밋헤도 너허라
고추장 밑에 넣고 혹 간장 밑에도 넣어라.

‘고초장’과 ‘간장’ 모두 ‘장’이 모음 ‘야’를 가지고 있는 ‘장’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현대 한국어나 근대 한국어나 ‘ㅈ, ㅉ’ 뒤에서는 ‘아’가 오든 ‘야’가 오든 발음이 동일합니다. ‘고초장’

은 ‘고추장’으로 변했는데 이 경우도 두 번째 음절의 모음이 변하여 ‘초’가 ‘추’로 바뀌었습니다. 앞에서 ‘골고로’가 ‘골고루’로 변한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현대 한국어의 ‘밑에’의 ‘ㅌ’이 ‘ㅅ’ 종성과 ‘ㅎ’ 초성으로 나누어서 적혔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ㅌ’ 받침의 ‘밑에’와 ‘ㄷ’과 ‘ㅎ’으로 나뉜 ‘민혜’는 발음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ㅅ’ 받침의 ‘밋’과 ‘ㄷ’ 받침의 ‘민’도 그 자체의 발음은 동일합니다. 이러한 두 유형의 동일성을 토대로 ‘ㅌ’ 받침의 ‘밑에’가 ‘ㅅ’과 ‘ㅎ’으로 나뉜 ‘밋혜’로 적힌 겁니다. 발음은 서로 같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 ‘넣다’는 활용형을 표기할 때 제1음절 받침에 ‘ㅎ’을 표기하여 ‘넣고, 넣어’가 됩니다. 그런데 근대 한국어 자료인 《규합총서》에서는 ‘너코’와 ‘너허’로 표기하였습니다. ‘너코’는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한국어의 ‘ㅎ’ 받침으로 표기되는 ‘넣어’ 역시 이 당시에는 ‘ㅎ’이 발음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생각하면서 다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읽고 제가 따라서 읽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①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부장
두부장

②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부 두 체을 굴게 점여 소곰 훈 접시 골고로 뿌려
두부 두 체를 굴게 저미어 소곰 한 접시 골고루 뿌려

③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잘우에 너허 진득히 놀너 물이 썬연 후에
자루에 넣어 힘을 약간만 주어 놀러 물이 뿌영게 된 후에

④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뵈즘치에 너허 봉햐야
베주머니에 넣어 봉햐야

⑤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초장 밋혜 너코 혹 간장 밋해도 너허라
고추장 밑에 넣고 혹 간장 밑에도 넣어라.

어떤가요? 처음보다는 이해가 조금 더 쉬워졌는지요? 《규합총서》의 ‘두부장’ 부분 전체를 다시 읽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부장

두부 두 체을 굴게 점여 소곰 훈 접시 골고로 뿌려
잘우에 너허 진득히 놀너 물이 썬연 후에
뵈즘치에 너허 봉햐야
고초장 밋혜 너코 혹 간장 밋해도 너허라

다음으로는 생선을 굽는 방법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목은 ‘싱선굽는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선 굽는 법’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물고기 중 먹기 위한 것을 생선이라고 하는데, 이 생선을 굽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선은 그냥 구우면 되는데 여기서 뭔가 특별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선을 굽기 위해서는 우선 생선을 입에서부터 기다란 꼬챙이로 꿰어 두고, 세지 않은 불에 생선이 직접 닿지 않게 꼬챙이를 들고서 불에 찢니다. 생선을 불에 찢면서 앞뒤로 여러 번 뒤집어 주면 생선의 입에서부터 즙이 나오는데, 그때 생선을 토막으로 잘라서 구우면 생선이 맛있게 구워진다고 합니다.

이제 원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원문을 제가 두 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싱선굽는법

긴적곳츠로싱선입브터질너

화로가에머리들고뒤덕여덥게뽀즌

싱선즙이스스로입으로날거시니

그런후에토막지어구으면마시쇼흐니다

싱선굽는법

긴적곳츠로싱선입브터질너

화로가에머리들고뒤덕여덥게뽀즌

싱선즙이스스로입으로날거시니

그런후에토막지어구으면마시쇼흐니다

여기서 마지막의 ‘쇼흐니다’는 현대 한국어 ‘좋습니다’와 유사해 보이지만, 이것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글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옛 말투 ‘ 좋으니라’에 해당합니다. ‘쇼흐니다’의 마지막 ‘다’는 ‘라’가 잘못 적힌 결과입니다. 이 표현의 뜻은 ‘좋은 것이다. 당연히 좋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고치고, 현대 한국어 기준의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다시 써 놓고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싱선 굽는 법

긴 적곳츠로 싱선 입브터 질너

화로 가에 머리 들고 뒤덕여 덥게 뽀즌

싱선 즙이 스스로 입으로 날 거시니

그런 후에 토막 지어 구으면 마시 쇼흐니라

싱선 굽는 법

긴 적곳츠로 싱선 입브터 질너

화로 가에 머리 들고 뒤덕여 덥게 뽀즌

싱선 즙이 스스로 입으로 날 거시니

그런 후에 토막 지어 구으면 마시 죠흐니라

아직은 현대 한국어와는 다른 표기 방식을 읽어내기가 어렵고, ‘적곶츠로, 뒤덕여’와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현대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도 함께 보면서 필요한 단어들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싱션 굽는 법

생선 굽는 법

‘싱션’의 첫 음절은 ‘생’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굽는’의 두 번째 음절 ‘는’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느’이 되었지만 여기서도 ‘·[아래아]’는 모음 ‘아’로 읽습니다.

긴 적곶츠로 싱션 입브터 질너

긴 적곶으로 생선 입부터 질러

긴 적꼬치로 생선 입부터 질러 꺾어서

‘적곶츠로’는 명사 ‘적곶’과 조사 ‘으로’가 결합한 것입니다. ‘적곶’은 현대 한국어에서 ‘적꼬치’라고 합니다. 이때 ‘적’은 ‘기다란 고챙이에 꿰어 불에 굽거나 지진 음식’이고 ‘꼬치’는 가늘고 긴 막대기입니다. 생선을 길고 가는 막대기로 입부터 꺾어서 손에 들고 굽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적꼬치’는 현대 한국어에서도 줄임말로 ‘적곶’이 있습니다. ‘고챙이’에 해당하는 ‘곶’에 조사 ‘으로’가 결합하면 ‘곶으로’가 될 텐데, ‘곶츠로’가 바로 그러한 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표기에서는 연철이 된 ‘고츠로’나 분철이 된 ‘곶으로’가 아닌 첫 번째 음절이 ‘스’ 받침이 된 ‘곶츠로’로 쓰였습니다. 예전 자료를 보면 ‘츠’으로 끝나는 명사는 자음 앞에서 ‘스’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곶과’의 첫 음절이 ‘스’ 받침의 ‘곶과’처럼 쓰이는 겁니다. 이 경우 두 표기 모두 발음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모음 앞에서는 ‘꼬치’처럼 연철을 하였습니다. 이 두 표기에 나오는 자음 앞의 ‘스’ 받침의 ‘곶’과 모음 앞의 ‘곶’이라는 표기가 합성되면 첫 번째 음절의 받침이 ‘스’이고 두 번째 음절이 ‘츠’으로 시작하는 ‘곶치’와 같은 표기가 나오겠지요? 이 자료에 보이는 ‘곶츠로’도 그러한 표기에 해당합니다. 조사 ‘브터’는 ‘브’ 뒤에서 모음 ‘으’가 ‘우’로 변하여 현대 한국어에서는 ‘부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너’는 꿰는다는 뜻을 가지는 ‘지르다’의 활용형 ‘질러’를 표기한 것입니다. ‘르’ 뒤에 ‘ㄴ’이 표기되어 있는데 당시에 이것처럼 ‘질’, ‘너’로 표기하든 ‘질’, ‘러’로 표기하든 발음이 동일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로 가에 머리 들고 뒤덕여 덤게 찢 즉

화룻가에 멀리 들고 뒤적여 덤게 찢즉

화룻가에서 멀리서 들고 뒤적이며 따듯하게 찢면

‘화로’는 아주 세지 않은 불이 있는 큰 그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 8>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는 여기에 숯이 들어 있습니다. ‘머리 들고’는 잘못하여 ‘생선의 머리를 들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대 한국어의 ‘멀리’에 해당합니다. ‘멀다’의 어간 ‘멀-’에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머리’가 된 것입니다. ‘뒤덕여’는 ‘뒤덕이다’의 활

용형입니다. 두 번째 음절의 ‘덕’의 ‘ㄷ’이 모음 ‘여’ 앞에서 구개음화를 거쳐서 ‘ㅈ’으로 변하였습니다. ‘덥다’라는 말은 날씨로 이야기하면 ‘춥다’의 반대말이지만 여기서와 같은 물체의 온도를 이야기할 때는 ‘차갑다’나 ‘차다’의 반대말인 ‘따뜻하다’ 정도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아주 세지 않은 열기를 생선에 쬐는 거지요. 화로 주변 조금 멀리서 생선을 췌 꼬챙이를 들고 생선을 뒤집어가면서 생선이 따뜻해지게 만드는 모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싱선 줍이 스스로 입으로 날 거시니
생선 줍이 스스로 입으로 날 것이니
생선 줍이 스스로 입으로부터 나올 것이니

‘스스로’의 두 번째 음절은 ‘으’로 변하여서 ‘스스로’가 현대 한국어에서는 ‘스스로’가 되었지만 여기서는 일단 ‘스사로’로 읽습니다.

그런 후에 토막 지어 구으면 마시 죠흐니라
그런 후에 토막 만들어 구우면 맛이 좋으니라.
그런 후에 토막 내어 구우면 맛이 좋다.

‘토막’은 부분적으로 자른 덩어리이고요, ‘지어’는 만든다는 뜻을 가진 ‘짓다’의 활용형입니다. ‘토막을 지어’는 ‘토막을 만들어’에 해당하고, 현대 한국어에서는 ‘토막을 내다’라는 표현도 자주 씁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굽다’의 어간에 어미 ‘-으면’을 결합하면 ‘구우면’이 됩니다. 근대 한국어 당시에도 큰 차이는 없었지만 표기를 ‘구으면’으로 하였습니다. ‘구-면’처럼 길게 발음해 보시면 ‘구으면’으로 표기한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합총서》에서 설명하는 생선 굽는 방법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는지요? 다음으로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먼저 한 번 읽고 제가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①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싱선 굽는 법, 긴 적곳츠로 싱선 입브터 질너
생선 굽는 법, 긴 적꼬치로 생선 입부터 질러 꺾어서

②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화로 가에 머리 들고 뒤덕여 덥게 췌 즉
화롯가에서 멀리서 들고 뒤적이며 따뜻하게 췌면

③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싱선 줍이 스스로 입으로 날 거시니
생선 줍이 스스로 입으로부터 나올 것이니

④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토막 지어 구으면 마시 죠흐니라
그런 후에 토막 내어 구우면 맛이 좋다.

처음 읽었을 때와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조금 더 쉬워졌는지요? 이제 《규합총서》의 ‘생선 굽는 법’ 부분 전체를 다시 읽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싱선 굽는 법

긴 적곳츠로 싱선 입브터 질너

화로 가에 머리 들고 뒤덕여 덩게 뵈 죽

싱선 즈이 스스로 입으로 날 거시니

그런 후에 토막 지어 구으면 마시 죠흐니라

3. ‘음식디미방(1670년 전후)’에 대한 이해와 강독

이번에는 17세기의 음식 조리법을 기록한 《음식디미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경상북도 안동 사람인 장 씨가 지은 책입니다. 저자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에 나온 표현 중에는 ‘새우’를 ‘사이’라고 한다거나 ‘간장’을 ‘지령’이라고 하고, 뚜껑을 ‘두에’라고 하는 등 방언이 나오기 합니다. 장 씨는 1598년에 태어나 168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책에 ‘눈이 어두운데 간신히 썼다’는 표현이 있는 점을 근거로 대개 1670년 전후에 이 책을 쓴 게 아닌가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저자의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눈이 어두운데 간신히 썼다.

이 뜻을 알아 이대로 시행해라.

딸자식들은 각각 베껴 가되, 이 책을 가져 갈 생각은 절대로 내지 말라.

이 책을 부디 상하지 않게 간수하여 빨리 떨어져 버리게 하지 말라.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 책의 제목은 《음식디미방(飲食知味方)》입니다.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뜻의 한자 ‘지(知)’가 당시에는 ‘디’로 읽혔기 때문에 ‘음식지미방’이 아닌 ‘음식디미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표지에는 <그림 9>처럼 한자로 ‘규곤시의방’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에게 필요한 것을 올바르게 풀이한 처방’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장 씨의 후손이 나중에 책 표지를 새로 붙이면서 책 이름을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그림 10>에서 보듯이 손으로 쓴 필사본입니다.

이제 《음식디미방》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 요리법은 ‘계란’으로 국과 같은 ‘탕’을 만드는 ‘계란탕법’입니다. 이 책의 표기에는 글자가 쓰일 자리에 두 점이 찍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점 앞 음절의 표기가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띄어쓰기가 없고 동일한 글자에 점이 두 개 찍혀 있는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계란탕법

사이젯국이나지령국이나맛마초와기름터

뭇이쓸혀고빅질제알을웃부우리를허러결에뵈고

두에다 " 소 " 쓸혀져근뎡스이에열의거든

알소옥이채닉지아녀셔엿튼그르식?만 " " 씨

젓국이어든초타하고장국이든그저노흐라
오온알얼굴이잇느니라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새우’와 ‘간장’ 그리고 ‘뚜껍의’ 방언형 ‘사이, 지령, 두에’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러한 표현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란탕법
사이젓국이나지령국이나맛마초와기름터
ㅁ이쓸혀고비질제알을웃부으리롤허러곁에뺏고
두에다 " 소 " 쓸혀져근뎡스이에얼의거든
알소옥이채닉지아녀셔엿툰그르식 7만 " " 씨
젓국이어든초타하고장국이든그저노흐라
오온알얼굴이잇느니라

이번에는 반복 글자를 표현하는 두 점은 온전한 글자로 바꾸어 쓰고, 현대 한국어 표기법을 따라 띄어쓰기를 해 놓은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계란탕 법
사이젓국이나 지령국이나
맛 마초와 기름 터
ㅁ이 쓸혀 고비질 제
알을 웃부으리롤 허러 곁에 뺏고
두에 다다 소소 쓸혀
저근뎡 스이에 얼의거든
알 소옥이 채 닉지 아녀셔
엿툰 그르식 7만 7만 씨
젓국이어든 초 타 하고
장국이든 그저 노흐라
오온 알 얼굴이 잇느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나 표현도 있었고 이해가 되는 단어나 표현도 있었을 겁니다. 모르는 단어나 표시를 하시면서 눈과 귀로 따라 읽으시거나 아는 단어나 표시를 하시면서 눈과 귀로 따라 읽으시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계란탕 법
사이젓국이나 지령국이나
맛 마초와 기름 터
ㅁ이 쓸혀 고비질 제
알을 웃부으리롤 허러 곁에 뺏고
두에 다다 소소 쓸혀

저근덧 수이에 얼의거든
알 소옥이 채 닉지 아녀셔
옛튼 그르식 7만7만 썬
젓국이어든 초 타 흥고
장국이든 그저 노흐라
오온 알 얼굴이 잇느니라

아직은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더 많겠지요? 이번에는 번역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탕 법
계란탕 만드는 방법

사이젓국이나 지령국이나
새우젓국이나 간장국이나
새우젓국이거나 간장국이거나

현대 한국어의 ‘새우’는 15세기에는 ‘빙[순경음비읍]’이 들어가 있던 ‘사빰’였습니다. ‘빙[순경음비읍]’은 두 입술을 잠깐 대었다가 떼는 소리인데 ‘부’와 ‘우’의 중간 정도의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소리는 현대 한국어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읽을 때는 ‘ㅂ’으로 읽습니다. ‘사빰’의 ‘빙[순경음비읍]’이 이후 모음과 ‘이’ 사이에서 발음되지 않게 되어 ‘사이’가 된 게 바로 여기 보이는 ‘사이젓국’의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새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현대 한국어에 ‘새우’와 ‘사이’가 서로 다른 방언형으로 있듯이 이전 시기에도 그러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세기의 ‘사빰’을 여기 보이는 ‘사이’가 그대로 이은 것이고 ‘새우’는 다른 방언형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현대 한국어의 표준어는 ‘새우’입니다. ‘사이젓’은 ‘새우젓’입니다. 작은 새우에 소금을 뿌려 만드는 건데 김치 등을 담글 때 들어갑니다. <그림11>과 같이 생겼는데, ‘사이젓국’은 ‘새우젓’으로 끓이는 국을 뜻합니다.

‘지령’은 ‘간장’의 방언형입니다. ‘사이젓국이나 지령국이나’는 새우젓이나 간장과 같이 짠 재료를 넣어 국물을 만들어 국을 끓이는 방법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맛 마초와 기름 터
맛 맞추어 기름 쳐
맛을 맞추고 기름을 쳐서

‘맛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두 번째 음절의 ‘오’가 ‘우’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현대 한국어의 ‘기름’입니다. 두 번째 음절에서 ‘ㆍ[아래아]’가 모음 ‘으’로 변하였습니다. 이 ‘ㆍ[아래아]’의 원래의 발음이 사라지는 것은 18세기 중엽 이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대개의 경우 첫 번째 음절에서는 ‘아’로 변하고 두 번째 음절에서는 ‘으’로 변하였습니다. ‘터’는 ‘티다’의 활용형인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구개음화라는 현상을 거쳐서 ‘치다’가 되었습니다.

맛이 싹혀 고빅질 제

많이 끓여 고비질 때
많이 끓여서 물이 굵이칠 때

‘뭇이’의 첫 음절은 ‘아’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 단어는 ‘많이’의 방언형입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으면 물방울이 올라오면서 끓는 물이 움직이는데, 이 모습을 ‘고비지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물이 흘러가다가 물길이 꺾이는 곳에서는 물이 휘돌아 흐르게 되는데, 이럴 때 ‘굽이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보인 ‘고비지다’의 ‘고비’는 ‘굽이치다’의 ‘굽이’보다 움직임이 작은 ‘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을 옷 부으리를 허러 곁에 쫓고
알을 윗부리를 헐어 그 곁에 쫓고
알을 윗부리를 깨서 그 즉시 끓는 물에 쫓고

어떤 물건의 뽀족한 부분을 ‘부리’라고 하는데, 달걀도 그런 부분이 있지요? 달걀 위쪽의 부리를 여기서는 ‘옷 부으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허러’는 ‘헐다’의 활용형입니다. 달걀 위쪽을 깨는 행동을 여기서는 ‘헐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곁’이라는 단어는 ‘즉시’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로 요즘은 이러한 뜻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곁, 꿈곁’과 같은 단어에 보이는 ‘시간’을 뜻하는 ‘곁’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ㅁ’으로 시작하는 ‘쫓다’의 ‘ㅁ’은 15세기라면 ‘ㅂ’과 ‘ㅅ’이 모두 발음되었겠지만 이 자료의 시기에는 ‘ㅃ’으로 발음되었습니다. 이 표기는 원래의 발음과 관련이 없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한국어 표기에서 ‘ㅅ’ 받침이 있는 ‘쫓다’와 ‘ㄷ’ 받침이 있는 ‘쫓다’의 제1음절의 발음이 동일한데, 여기서도 그러한 이유로 ‘ㅅ’ 받침의 ‘쫓’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목에 ‘계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한자어입니다. 이 단어의 고유어는 ‘달걀’인데 이 어형은 원래 ‘닭의 알’이었습니다. ‘달기알’이 ‘달기알’이 되고 ‘달걀’이 된 겁니다.

두에 다다 소소 쓸혀
뚜껑 달아 솟게 끓여
뚜껑을 달고 물을 솟구치게 끓여

병이나 그릇의 ‘뚜껑’의 방언형 ‘두에’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소소’는 솟아오른다는 뜻의 어간 ‘솟-’에 부사를 만드는 ‘-오’가 결합한 것입니다. ‘ㅅ’으로 시작하는 ‘쓸혀’의 첫 자음은 ‘ㄱ’의 발음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근덧 스이에 얼의거든
적은덧 사이에 엉기거든
잠깐 사이에 달걀 흰자가 엉기거든

‘저근덧’은 잠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옛말입니다. ‘작다, 적다’라고 할 때의 ‘적다’의 모음이 ‘여’로 적혀 있네요. ‘덧’은 시간을 뜻하는데, 현대 한국어에도 ‘어느덧 가을이 되었다’라고 할 때 ‘덧’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근덧’을 ‘잠깐’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스이’의 첫 음절은 ‘·[아래아]’가 쓰여 있는데 ‘아’로 읽으시면 됩니다. ‘얼의다’는 ‘엉기다’라는 뜻인데

달걀을 뜨거운 물에 풀었을 때 잠시 후에 흰자가 멍치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 소옥이 채 닉지 아녀서
알 속이 채 익지 아니 하여서
알 속이 아직 익지 않았을 때

‘속’이 ‘소옥’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익다’는 원래 ‘닉다’였는데 어두의 ‘ㄴ’이 모음 ‘이’나 ‘야, 여, 요, 유’ 등의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에 의해 현대 한국어의 ‘익다’가 되었습니다. ‘아녀서’는 그 자체로 분석하면 ‘아니’와 ‘-어서’의 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아니다’는 ‘아니하다, 않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옛튼 그릇식 7만7만 쩌
열은 그릇에 가만가만 떠
속이 깊지 않은 그릇에 가만가만히 떠 놓고

‘옛튼’은 ‘ㅌ’ 받침이 있는 ‘열다’의 활용형 ‘열은’을 표기한 것입니다. ‘ㅌ’이 두 번째 음절로 넘어간 ‘여튼’으로 쓰면 발음대로 표기하는 것일 텐데, 두 번째 음절은 ‘ㅌ’으로 썼지만, ‘열다’와 같은 경우 첫 번째 음절이 자음 앞에서 ‘ㄷ’으로 발음되고, 그 발음은 ‘ㅌ’으로 표기해도 동일하기 때문에 어간을 고정시키면서 ‘옛’과 같이 표기하였습니다. 자음 앞의 발음과 모음 앞의 발음이 모두 표기에 반영되어서, 여기서 보는 ‘ㅌ’ 받침을 가지는 ‘옛튼’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릇’의 두 번째 음절의 모음은 원래 ‘으’인데 표기에서 ‘ㆍ[아래아]’로 쓰인 겁니다.

젓국이어든 초 타 ㅎ고
젓국이거든 초를 타서 하고
끓인 탕이 새우젓국이거든 식초를 타서 놓고

이 부분은 번역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 설명을 하지 않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 여기서 마지막의 ‘ㅎ고’를 ‘놓고’로 번역한 이유는 바로 다음 내용이 ‘놓다’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장국이든 그저 노흐라
장국이거든 그저 놓으라.
끓인 탕이 간장국이거든 그대로 놓아라.

‘놓으라’는 연철에 의해 ‘노흐라’로 쓰였습니다.

오온 알 얼굴이 잇느니라
온 알의 모습이 있게 된다.
온전한 알의 모습이 그대로 있게 된다.

‘오온’은 예전에는 ‘온전하다, 원래의 모습 그대로이다’라는 뜻을 가지는 ‘오올다’라는 단어의 어간에 관형형 어미 ‘ㄴ’이 결합하면서 ‘오올’의 ‘ㄹ’이 탈락한 어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오온’을 거쳐 ‘온’이 될 수 있겠지요. 현대 한국어에는 ‘온 마음을 다해, 온몸으로’와 같은 말에 남아 있습니다. 이때는 ‘전체 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온’이 여기서는 ‘오온’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머리의 앞 쪽에 눈, 코, 입이 있는 부분을 가리키는데, 예전에는 ‘모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달걀의 원래의 동그란 모양이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음식디미방》에서 설명하는 계란탕 끓이는 방법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는지요? 다음으로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먼저 한 번 읽고 제가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①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계란탕법 사이젓국이나 지령국이나 맛 마초와 기름 터
계란탕 만드는 방법. 새우젓국이거나 간장국이거나 맛을 맞추고 기름을 쳐서

②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ㅁ이 쓸혀 고비질 제 알을 옷 부으리틀 허러 곁에 쫓고
많이 끓여서 물이 굵이칠 때 알을 윗부리를 깨서 즉시 끓는 물에 쏘고

③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에 다다 소소 쓸혀 저근덧 스이에 얼의거든
뚜껑을 달고 물을 솟구치게 끓여 잠깐 사이에 달걀흰자가 엉기거든

④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알 소옥이 채 닉지 아녀셔 옛튼 그릇식 7만7만 짜
알 속이 아직 익지 않았을 때 속이 깊지 않은 그릇에 가만가만히 떠 놓고

⑤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젓국이든 초 타 후고 장국이든 그저 노흐라
새우젓국이거든 식초를 타서 놓고, 간장국이거든 그대로 놓아라

⑥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온 알 얼굴이 잇느니라
온전한 알의 모습이 그대로 있게 된다.

처음 읽었을 때와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조금 더 쉬워졌는지요? 이제 《음식디미방》의 ‘계란탕법’ 부분 전체를 다시 읽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란탕법

사이젓국이나 지령국이나 맛 마초와 기름 터
ㅁ이 쓸혀 고비질 제 알을 옷 부으리틀 허러 곁에 쫓고
두에 다다 소소 쓸혀 저근덧 스이에 얼의거든

알 소옥이 채 닉지 아녀서 옛튼 그르식 7만7만 써
젓국이어든 초 타 호고 장국이든 그저 노흐라
오온 알 얼굴이 잇느니라

다음으로는 ‘빈대떡’ 요리법을 보겠습니다. ‘빈대떡’은 녹두를 물에 불려서 껍질을 벗긴 후 갈아서 나물이나,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를 넣고 프라이팬이나 번철에 부쳐서 먹는 음식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림 12>가 빈대떡이지요? 그리고 녹두는 <그림 13>과 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녹두를 갈아서 프라이팬이나 번철에 부쳐서 먹는다고 했는데, 프라이팬은 아실테고, 번철은 옛날의 프라이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 14>와 같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빈대떡 요리법이 지금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음식디미방》에서 설명하는 17세기의 녹두 빈대떡의 요리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빈자법

녹두를뉘업시거피호여되게7라
기름즈므디아니케부어쓸히고
적게찌노코거피호뜻술에므라소녀코
또그우희녹도7니로더퍼
빳치유지빳7치지져사쵸호니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빈자법

녹두를뉘업시거피호여되게7라
기름즈므디아니케부어쓸히고
적게찌노코거피호뜻술에므라소녀코
또그우희녹도7니로더퍼
빳치유지빳7치지져사쵸호니라

이번에는 현대 한국어의 띄어쓰기에 맞추어 써 놓고 읽어보겠습니다.

빈자법

녹두를 뉘 업시 거피호여 되게 7라
기름 즘므디 아니케 부어 쓸히고
적게 찌 노코
거피호 뜻 술에 므라 소 녀코
또 그 우희 녹도 7니로 더퍼
빳치 유지빳7치 지져사 쵸호니라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이해되는 부분에 표시를 하시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표시를 하시면서 눈과 귀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빈자법

녹두를 뉘 업시 거피혀여 되게 ㄱ라
기름 즈므디 아니케 부어 쓸히고
적게 씨 노코
거피흔 풋 꿀에 므라 소 녀코
또 그 우희 녹도 ㄱ니로 더퍼
빗치 유지빚 ㄱ치 지저사 죠히니라

이번에는 현대 한국어 번역과 함께 보겠습니다.

빈자법
빈대 법
빈대떡 만드는 방법

‘빈대떡’의 ‘빈대’는 예전에는 여기서 보인 것처럼 ‘빈자’ 또는 ‘빙자’로 표기되었습니다. 원래 중국어에서 온 차용어라고 하는데 만드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녹두를 뉘 업시 거피혀여 되게 ㄱ라
녹두를 뉘 없이 거피하여 되게 갈아
녹두를 껍질 있는 알갱이 없이 껍질 벗기고 되게 갈아서

‘뉘’는 현대 한국어에도 있는 단어인데, 껍질이 아직 남아 있는 곡식 알갱이입니다. ‘거피하다’는 한자어로 껍질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기름 즈므디 아니케 부어 쓸히고
기름 잠기지 않게 부어 끓이고
녹두 간 것이 기름에 잠기지 않게 기름을 부어 끓인 후

‘즈므디’는 ‘즈므-’라는 어간에 어미 ‘-디’가 결합한 것입니다. 이 ‘-디’는 구개음화에 의해 현대 한국어에서는 ‘-지’가 되었습니다. ‘즈므다’는 ‘잠기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케’는 ‘아니하게’가 줄어든 말입니다.

적게 씨 노코
적게 떠 놓고
기름에 끓인 녹두를 조금씩 떠 놓고

‘적다’의 모음이 ‘여’로 되어 있어서 현대 한국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피흔 풋 꿀에 므라 소 녀코
거피한 팥 꿀에 말아 소 넣고
껍질 벗긴 팥을 꿀에 반죽해서 소를 만들어 넣고

현대 한국어의 ‘팥’은 예전에는 모음이 ‘ㆍ[아래아]’였습니다. ‘소’는 현대 한국어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송편이나 만두를 만들 때 맛을 내기 위해 익히기 전에 속에 넣는 여러 가지 재료를 ‘소’라고 합니다. 김치 담글 때 배추 속에 넣는 재료 역시 ‘소’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꿀에 반죽하여 빈대떡 속에 넣는 재료를 소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 우희 녹도 ㄱ니로 더퍼
또 그 위에 녹두 간 이로 덮어
또 그 위에 녹두 간 것으로 덮어

현대 한국어의 ‘위’는 예전에는 ‘ㅎ’으로 끝나는 명사였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의 초성으로 옮겨가서 적혔습니다. ‘ㄱ니로’는 현대 한국어의 ‘갈다’에 해당하는 ‘ㆍ[아래아]’가 있는 ‘굴다’에 관형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근’이 되고, 거기에 의존명사 ‘이’와 조사 ‘로’가 결합한 것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 의존명사 ‘이’는 대개 사람을 가리키는데 《음식디미방》이 쓰인 시기에는 사물을 가리키는 ‘것’에 해당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빛치 유지빚 ㄱ치 지저사 죠히니라
빛이 유지(?) 빚같이 지저야 좋으니라
빛이 유자 색같이 되도록 지저야 좋다.

‘ㅅ’이 받침에 표기되어 있는 ‘빚치’는 단순한 연철을 하면 ‘비치’로 표기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음 앞에서 표기되는 ‘ㅅ’ 받침의 ‘빚’과 함께 표기되어 ‘ㅅ’ 받침 표기가 있는 ‘빚치’가 되었습니다. ‘유지’는 아직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단어입니다. 일단 <그림 15>처럼 겨울에 노랗게 익다는 유자로 해석해 두겠습니다.

빛은 색깔 즉 빚깔을 뜻합니다. 빈대떡이 뜨거운 기름에서 유자의 빚깔처럼 노릇하게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저사’는 기름에 부친다는 뜻을 가지는 ‘지지다’의 어간 ‘지지-’에 어미 ‘-어사’가 결합한 것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어야’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읽고 제가 그 다음에 원문과 번역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①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빈자법 녹두를 ㄴ워 업시 거피히여 되게 ㄱ라
빈대떡 만드는 방법. 녹두를 ㄴ워 없이 껍질 벗기고 되게 갈아서

여기서 ‘ㄴ워’는 껍질이 남아있는 곡식 알갱이라고 했지요.

②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ㅈ즈디 아니케 부어 쓸히고 적게 ㅈ 노코
잠기지 않을 정도로 기름을 부어 끓인 후에 녹두를 조금씩 떠 놓고

③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피흔 ㅈ 쏘에 ㄱ라 소 녀코 또 그 우희 녹도 ㄱ니로 더퍼
껍질 벗긴 팥을 꿀에 반죽해서 소를 만들어 넣고 또 그 위에 녹두 간 것으로 덮어

④번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빛치 유지빚 7치 지저사 죠ㅎ니라

빛이 유자 색같이 되도록 지저야 좋다.

처음 읽었을 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 강의를 하는 강의자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많이 어렵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고 《음식디미방》의 빈대떡 요리 방법 부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빈자법

녹두를 뉘 업시 거피혀여 되게 7라

기름 즈므디 아니케 부어 쓸히고

적게 써 노코

거피흔 쫓 꿀에 므라 소 녀코

또 그 우희 녹도 7니로 더퍼

빛치 유지빚 7치 지저사 죠ㅎ니라

4. 정리

지난 시간의 한국어를 시기로 쳤을 때 개화기의 한국어라고 한다면 오늘 본 자료들은 근대 한국어를 반영한 자료들입니다. 오늘은 1809년에 나온 《규합총서》와 1670년 경에 나온 《음식디미방》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두 자료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두 자료에 모두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어서 그것을 끈으로 하여 함께 읽은 겁니다. 이 자료들은 지난 시간에 본 자료보다 더 오래되었고, 평소에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휘들이 있어서 읽어내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디미방》의 경우는 방언 형태 들어있어서 어휘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어 몇 개 모른다고 자료를 읽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모르는 단어에는 표시를 해 놓고 전에 말씀 드린 ‘우리말샘’ 같은 사이트에서 이것저것 찾아보시면서 이해해 나가시면 됩니다. 조금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10번의 수업을 통해 한글 창제 이후의 모든 자료를 쉽게 읽을 수 있다고 기대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들에 들어 있는 어휘들 중에는 아직도 명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전공으로 몇 십 년 공부한 사람들도 해석을 못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 몇 단어 모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소리 내어 읽으면서 수업에서 제가 설명한 것 이외에도 궁금한 것을 여기저기 찾아보고 생각해 보는 과정 자체가 이 수업에서 여러분께 실제로 원하는 공부 방식입니다. 앞으로도 마음 느긋하게 갖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조금조금 모르는 것보다는 이해되는 게 더 많아질 겁니다. 오늘은 근대 한국어의 자료 두 종류를 통해 지난 시기의 언어를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자료들보다 조금 더 오래된 자료를 읽어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선택형 (10분)

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음식디미방》에서 쓰인 ‘ㅁ이’는 ‘많이’의 방언형이다.
- ② 《규합총서》에는 ‘잘우’와 같이 과도하게 분절된 예가 나타난다.
- ③ 《규합총서》에는 받침으로 쓰일 자음을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적는 연철 방법을 택하였다.
- ④ 《음식디미방》에서 쓰인 ‘얼굴’은 ‘머리의 앞쪽에 있는 눈, 코, 입이 있는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정답: ④

2.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 ① 《음식디미방》에는 중부 방언만 나타난다.
- ② 《규합총서》의 제목은 저자가 직접 지은 것이다.
- ③ 《음식디미방》의 표지에는 ‘규곤시의방’이라고 적혀 있다.
- ④ 《규합총서》와 《음식디미방》은 같은 시기에 간행된 문헌이다.

정답: ③

3.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음식디미방》의 ‘노흐라’는 ‘놓으라’의 연철 표기이다.
- ② 《규합총서》에 나온 ‘덥-’은 현대 한국어의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 ③ 《음식디미방》의 ‘티-’는 구개음화를 거쳐서 현대 한국어의 ‘치-’가 되었다.
- ④ 《음식디미방》의 ‘지저사’는 기름에 부친다는 뜻을 가지는 ‘지지다’의 어간 ‘지저-’에 어미 ‘-어사’가 결합한 것이다.

정답: ②

단답형 (8분)

1.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ㆍ’는 대체로 첫 번째 음절에서는 ()로 변하고 두 번째 음절에는 ()로 변하였다.

정답: ‘ㅏ’, ‘ㅑ’

2. ‘또 그 우희 녹도 ㄱ니로 더퍼’의 ‘ㄱ니로’를 형태소 분석하시오.

정답: 굴- + -ㄴ + 이 + 로

3. ‘고초장 > 고추장’, ‘골고로 > 골고루’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음운 변화는 무엇인지 쓰시오.

정답: 두 번째 음절에서의 모음 변화(‘오’ > ‘우’)

나. 토의 (30분)

《음식디미방》의 “계란탕 만드는 법”에 나타난 방언형을 찾고, 표준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다. 과제 (60분)

아래 자료를 현대 한국어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현대어로 바꾸어 쓰시오. 그리고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표기법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두부장

두부두체을굴게점여소곰흔접시골고로썩려

잘우에너허진득히놀너

물이썩연후에뵈줌치에너허봉흐야

고초장맛헤너코혹간장맛헤도너허라

싱션굽논법

긴적곳츠로싱션입브터질너

화로가에머리들고뒤덕여덥게뵈즌즉

싱션줍이스스로입으로날거시니

그런후에토막지어구으면마시쥬흐니다

▪ **참고자료**

《규합총서》(디지털한글박물관)

《음식디미방》(디지털한글박물관)

우리말샘 (우리말샘 바로가기)

고영근(1987/2010),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이기문(1972/1998),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5차시> 16세기 자료 1

■ 학습목표

1. 16세기 중, 후반 자료를 소리 내어 읽는 능력을 기른다.
2. <선조 국문 유서>와 <구항찰요>의 표기를 통해 후기 중세국어의 특징을 이해한다.
3. 후기 중세국어와 현대 한국어의 차이를 확인한다.

■ 강의 목차

1. 도입
2. '선조국문유서(1593년)'에 대한 이해와 강독
3. '구항찰요(1554년)'에 대한 이해와 강독
4.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도입

안녕하세요? '한국어 고전 자료 읽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조선 시대의 요리 방법을 설명한 책인 1809년에 나온 《규합총서》와 1670년쯤 나온 《음식디미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기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처럼 두 종류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1593년에 임금이 백성들에게 내린 글인 <선조 국문 유서>이고, 다른 하나는 1554년에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간행한 <구항찰요>라는 책입니다. 두 자료 모두 16세기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학에서 15세기와 16세기를 후기 중세국어로 분류하는데, 오늘 읽을 자료들은 16세기의 중반 이후의 언어를 담고 있습니다.

2. '선조국문유서(1593년)'에 대한 이해와 강독

우선 <선조 국문 유서>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1593년에 조선의 14대 왕인 선조가 백성에게 내린 글입니다. 당시 왜군 즉 일본 병사들의 포로가 된 백성을 회유하기 위해 쓴 글인데, 선조 임금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왜군에게 붙들려간 백성은 죄를 묻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왜군을 잡아서 나오거나 왜군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한 정보를 알아서 나오는 사람 그리고 포로로 잡힌 백성들을 많이 데리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벼슬을 줄 것이라고 약속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권탁’이라는 장수가 이 문서를 가지고 적진에 몰래 들어가서 적 수십 명을 죽이고 백성 100여 명을 구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을 ‘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을 지칭하는 명칭으로는 ‘왜(倭)’가 있었는데, 이 ‘왜’를 이 시기에는 ‘예’라고 불렀습니다. 한자의 뜻과 음을 풀이해 놓은 ‘훈몽자회’라는 책을 보면 ‘왜[倭]’라는 한자에 대해 ‘예 와’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통해 ‘왜[倭]’라는 한자의 뜻은 ‘예’이고 그 음은 ‘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동시에 16세기 말의 한국어를 알게 해 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선조 국문 유서>가 한글로 쓰인 이유에 대해 한문을 잘 모르는 백성들을 배려한 측면도 있고, 왜군이 읽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제 전체 글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예’는 일본을 뜻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군에 잡혀갔거나 속아서 들어간 백성들에게 의심하지 말고 나오기를 바란다는 임금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의게니르눈글이라
님금이니르샤디
너희처엄의예손디후리여셔
인허여든니기느네본모음이아니라
나오다가예손디들려주글가도너기며
도르혀의심호디예손디드렸던거시니
나라히주길가도두려
이제드리나오디아니허니
이제란너희그런의심을먹디말오
서르권허여다나오면
너희를각별이죄주디아닐뿐니아니라
그등에예를자바나오거나
예허눈이를주세아라나오거나
후리인사름을만히더브러나오거나
아무란공이시면
냥천물론허여벼슬도허일거시니
너희싱심도전의먹던모음물먹디말오썰리나오라
이쁘들각쳐장슈의손디다알외여시니
싱심도의심말고모다나오라
너희등의혈마다어버이쳐주업손사름일다
네사던디도라와네대로도로살면우연허랴
이제곧아니나오면예게도주글거시오
나라히평등허휘면너흰돌아니뉘오츠랴
허물며당병이황히도와평안도애?독허엿고
경상전라도애?득기이셔
예곧과글리제짜히곧아니건너가면
요스이합병허여

부산동니인눈예들흠다틸썩이아니라
강남비와우리나라비를합혀
바르예나라희드러가다분탕홀거시니
그저기면너희조차쁘러주글거시니
너희서르닐러그전으로수이나오라
만력이십일련구월 일

이번에는 띄어쓰기를 해 놓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어떤 내용일지 상상하며 눈과 귀로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빅성의게 니르논 글이라
님금이 니르샤디
너희 처엄의 예손디 후리여셔
인혀 든니기논 네 본 모름이 아니라
나오다가 예손디 들려 주글가도 너기며
도르혀 의심호디 예손디 드렛던 거시니
나라히 주길가도 두려
이제 드리 나오디 아니하니
이제란 너희 그런 의심을 먹디 말오
서르 권혀 다 나오면
너희를 각별이 죄 주디 아닐 썩니 아니라
그 둥에 예를 자바 나오거나
예 흐논 이를 즈세 아라 나오거나
후리인 사름을 만히 더브러 나오거나
아므란 공 이시면
냥천 물론혀 벼슬도 흠일 거시니
너희 침심도
전의 먹던 모름물 먹디 말오 썰리 나오라
이 뿌들 각쳐 장슈의손디 다 알외여시니
침심도 의심 말고 모다 나오라
너희 둥의 혈마 다 어버이 쳐즈 업슨 사름일다
네 사던 디 도라와
네대로 도로 살면 우연혀라
이제 곧 아니 나오면
예게도 주글 거시오
나라히 평덩흔 휘면 너흰들 아니 뉘오츄라
흠몰며 당병이 황히도와 평안도에 그득혀였고
경상 전라도에 그득기 이셔
예 곧 과글리 제 짜히 곧 아니 건너가면
요스이 합병혀 부산 동니 인눈 예들흠
다 틈 썩이 아니라

강남 비와 우리나라 비를 합하여
바른 예 나라희 드러가
다 분탕홀 거시니
그 저기면 너희조차 쓰러 주글 거시니
너희 서르 날러 그 전으로 수이 나오라
만력 이십일련 구월 일

이번에는 띄어쓰기를 한 자료를 현대 한국어의 번역과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번역 없이 읽을 때보다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빅성의게 니르논 글이라
백성에게 이르는 글이다
백성에게 말하는(전달하는) 글이다.

님금이 니르샤디
임금이 이르시되
임금이 말씀하시되

너희 처엄의 예손디 후리여셔
너희 처음에 왜에게 후림을 당해서
너희가 처음에는 일본에게 속아서

인하여 든니기는 네 본 마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다니기는 네 본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왜군 진영에서 다니는 것은 너의 본래의 마음이 아니라

나오다가 예손디 들려 주글가도 너기며
나오다가 왜에게 들리어 죽을까도 여기며
“나오다가 왜에게 붙들려 죽을까”라고도 생각하며

도르혀 의심호디 예손디 드렛던 거시니
도리어 의심하되 왜에 들었던 것이니
오히려 의심하되, 왜군 진영에 들어갔던 것이니

나라히 주길가도 두려
나라가 죽일까도 두려워하여
“나라가 나를 죽일까” 두려워하여

이제 드리 나오디 아니하니
이제 들이 나오지 아니하니
이제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니

이제란 너희 그런 의심을 먹디 말고
이제는 너희 그런 의심을 먹지 말고
이제는 너희는 그런 의심을 품지 말고

서로 권하여 다 나오면
서로 권하여 다 나오면
서로서로 권하면서 모두 다 나오면

너희를 각별히 죄 주디 아닐 썬니 아니라
너희를 각별히 죄 주지 않을 썬이 아니라
너희를 각별하게 벌을 주지 않을 썬 아니라

그 됴에 예를 자바 나오거나
그중예 왜를 잡아 나오거나
나오는 사람 중에 왜군을 잡아서 나오거나

예 하는 이를 자세 아라 나오거나
왜 하는 일을 자세히 알아 나오거나
왜군이 하는 일을 자세하게 알아서 나오거나

후리인 사름을 만히 더브러 나오거나
속은 사람을 많이 더붙어 나오거나
속아서 왜군에 들어간 사람을 많이 함께 데리고 나오거나

아무란 공 이시면
아무런 공 있으면
어떤 공이든 있으면

냥천 물론하여 벼슬도 하일 거시니
양인과 천민은 물론 벼슬도 하게 할 것이니
신분을 논하지 않고 벼슬도 하게 할 것이니

너희 싱심도
너희 마음속에도
너희들 마음속에라도

전의 먹던 무음을 먹디 말고 썰리 나오라
전에 먹던 마음을 먹지 말고 빨리 나오라
전에 먹었던 마음을 먹지 말고 빨리 나와라.

이 뜬들 각처 장수의손디 다 알외여시니
이 뜻을 각처의 장수에게 다 알리었으니
이 뜻을 각 지역의 장군들에게 다 알렸으니

칭심도 의심 말고 모다 나오라
마음속으로도 의심 말고 모두 나오라
마음속으로도 의심하지 말고 모두 나와라

너희 등의 혈마 다 어버이 처즈 업슨 사름일다
너희 중에 설마 다 어버이 처자 없는 사람이겠는가?
너희들이 설마 다 부모와 처자식이 없는 사람이겠는가?

네 사던 디 도라와
네가 살던 데 돌아와
네가 살던 곳에 돌아와서

네대로 도로 살면 우연흐라
예전대로 도로 살면 웬만하겠는가?
예전대로 도로 살면 괜참지 않겠는가?

이제 곧 아니 나오면
이제 바로 아니 나오면
이제 바로 안 나오면

예게도 주글 거시오
왜에게도 죽을 것이고
왜군에게도 죽을 것이고

나라히 평등헌 휘면 너희들 아니 뉘오츠라
나라가 평정해진 후이면 너희인들 아니 뉘우치랴?
나라가 진정된 후면 너희인들 안 뉘우치겠는가?

흐물며 당병이 황히도와 평안도에 7득흐였고
하물며 당 병사가 황해도와 평안도에 가득하였고
하물며 당나라 군사가 황해도와 평안도에 가득하게 있고

경상 전라도에 7득기 이셔
경상 전라도에 가득히 있어
경상도와 전라도에 가득하게 있어서

예 곧 과글리 제 짜히 곧 아니 건너가면

왜가 곧 급하게 제 땅에 곧 아니 건너가면
왜군이 바로 급히 자기 땅에 바로 안 건너가면

요스이 합병하여 부산 동년 인논 예들흘
요사이 합병하여 부산, 동래에 있는 왜들을
바로 군대를 합하여 부산과 동래에 있는 왜군들을

다 털 썬이 아니라
다 칠 썬이 아니라
모두 무찌를 썬 아니라

강남 비와 우리나라 비를 합하여
강남 배와 우리나라 배를 합하여
중국의 배와 우리나라의 배를 합하여

바루에 나라희 드리가
바로 왜 나라에 들어가
바로 왜의 나라에 들어가서

다 분탕홀 거시니
다 빼앗을 것이니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니

그 저기면 너희조차 쓰러 주글 거시니
그 적이면 너희조차 쓸어 죽을 것이니
그때면 너희마져 쓸어버리듯 죽을 것이니

너희 서르 날러 그 전으로 수이 나오라
너희 서로 일러 그 전으로 쉬이 나오라
너희는 서로 말하여 그 전에 빨리 나와라

만력 이십일련 구월 일
만력 21년 9월 일
1593년 9월 일

다음으로는 각각의 표현 중 설명이 필요한 것들을 설명하며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빅성의게 니르논 글이라
백성에게 이르는 글이다
백성에게 말하는(전달하는) 글이다.

여기서 ‘니르논’은 ‘니르다’의 활용형인데 어두의 ‘ㄴ’이 모음 ‘이’ 앞에서 탈락하여 현재는 말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이르다’가 되었습니다. ‘글이라’의 ‘이라’는 현대 한국어의 ‘이다’에 해당하는데 후기중세국어 시기에는 ‘이다’는 항상 ‘이라’로 실현되었습니다.

님금이 니르샤디
임금이 이르시되
임금이 말씀하시되

여기에도 ‘니르다’의 활용형 ‘니르샤디’가 사용되었습니다. ‘-샤디’는 현대 한국어의 ‘-시되’로 이어집니다.

너희 처엄의 예손디 후리여셔
너희 처음에 왜에게 후림을 당해서
너희가 처음에는 일본에게 속아서

‘예손디’의 ‘-손디’는 조사 ‘-에게’로 해석됩니다. ‘후리여셔’는 ‘후리다’라는 동사의 피동형 ‘후리이다’의 활용형입니다. ‘후리이다’는 ‘후림을 당한다’는 뜻인데 ‘속임을 당하다’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후리여셔’를 ‘속아서’로 번역하였습니다.

인혀여 든니기는 네 본 무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다니기는 네 본 마음이 아니라
그 결과로 (왜군 진영에서) 다니는 것은 너의 본래의 마음이 아니라

‘인혀여’는 ‘그 앞에 나오는 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므로 ‘그 결과로’로 번역하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든니다’는 현대 한국어의 ‘다니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다니다’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이므로 괄호 안에 ‘왜군 진영에서’라는 표현을 하나 더 넣어 보았습니다. ‘무음’은 15세기라면 ‘ㅏ[반치음]’이 있는 ‘무숨’이었는데, 모음 사이에서 ‘ㅏ[반치음]’이 탈락하여 이 자료의 ‘무음’이 되었고, 이 ‘무음’의 제1음절의 모음은 ‘아’가 되고 두 번째 음절의 모음이 ‘으’로 변하여 현대 한국어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나오다가 예손디 들려 주글가도 너기며
나오다가 왜에게 들리어 죽을까도 여기며
“나오다가 왜에게 붙들려 죽을까”라고도 생각하며

‘예손디 들려’의 ‘들려’는 ‘들리다’의 어간이 활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들키다’의 방언형 ‘들리다’일 수도 있고, ‘잡히다’라는 뜻을 가지는 ‘붙들리다’에 들어 있는 ‘들리다’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붙들리다’로 해석하였습니다. ‘주글가’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ㄱ’이 표기에 반영되어 ‘죽을까’가 되는데 여기 보인 자료에서는 경음화된 ‘ㄱ’이 표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인 ‘가’는 표기에서만 그러한 것이지 발음 자체는 ‘까’였습니다. 15세기 자료에는 이 경우 ‘ㅎ[여린 히읏]’이 ‘ㄱ’ 뒤에 붙어 ‘주글가’처럼 쓰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왜군 진영에서 밖으로 나오다가 왜군에게 붙들

려서 죽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도르혀 의심호디 예손디 드럿던 거시니
도리어 의심하되 왜에 들었던 것이니
오히려 의심하되, 왜군 진영에 들어갔던 것이니

‘의심호디’의 ‘호디’는 현대 한국어의 동사 ‘하다’에 해당하는 ‘·[아래아]’가 있는 ‘ㅎ다’의 어간 ‘ㅎ’에 어미 ‘오디’가 결합한 어형입니다. 이 ‘-오디’는 현대 한국어의 어미 ‘-되’에 이어 집니다. 여기도 조사 ‘손디’가 보이는데 여기서는 ‘-에’로 번역됩니다.

나라히 주길가도 두려
나라가 죽일까도 두려워하여
“나라가 나를 죽일까” 두려워하여

‘나라히’는 국가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 ‘나라랴’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여 ‘나라히’가 되었 습니다. 이 명사는 ‘도’와 같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명사와 결합하면 ‘나라랴’의 말음 ‘ㅎ’과 ‘도’ 의 자음 ‘ㄷ’이 합해져서 ‘나라토’로 실현됩니다. ‘주길가’의 ‘가’는 앞에서 본 ‘주글가’의 ‘가’ 와 동일한 표기 방식입니다. ‘두려’는 ‘두리다’라는 동사의 활용형입니다. ‘두리다’는 현대 한 국어에서는 ‘두려워하다’가 됩니다. 무서워한다는 뜻의 ‘두렵다, 두려워하다’에 이 ‘두리다’의 어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드리 나오디 아니하니
이제 들이 나오지 아니하니
이제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니

‘드리’는 ‘들다’를 부사로 만들어주는 ‘-이’가 결합한 어형입니다. 현대 한국어에는 이러한 문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들어가서’로 번역하였습니다. ‘나오디’의 ‘-디’는 ‘ㄷ’이 모음 ‘이’ 앞에서 구개음화를 겪어서 현대 한국어의 어미 ‘-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란 너희 그런 의심을 먹디 말오
이제는 너희 그런 의심을 먹지 말고
이제는 너희는 그런 의심을 품지 말고

여기서는 ‘의심을 하다’가 ‘의심을 먹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먹디’의 어미 ‘-디’는 구개음화에 의해 ‘-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르 권혀여 다 나오면
서로 권하여 다 나오면
서로서로 권하면서 모두 다 나오면

‘서르’의 두 번째 음절은 일반적인 ‘·[아래아]’의 변화라면 ‘서르’가 되겠지만 이 단어에서

는 ‘ㆍ[아래아]’가 모음 ‘오’로 변하였습니다.

너희를 각별이 죄 주디 아닐 썩니 아니라
너희를 각별히 죄 주지 않을 뿐이 아니라
너희를 각별하게 벌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벌을 주는 것을 여기서는 ‘죄 주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썩니’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뿐이’로 표기되는데, 이 시기에도 분철을 하면 ‘썩이’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연철을 하면 ‘썩니’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썩니’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철의 ‘썩’을 표기하여 해당 단어의 표기형을 고정시키고 그 다음 음절을 ‘니’로 표기하여 실제 발음도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진 표기입니다. 예전 자료에서 자주 발견되는 표기 방식인데 이러한 표기 방식을 한국어학에서는 ‘중철’이라고 합니다. 중복된 표기라는 뜻입니다.

그 둥에 예를 자바 나오거나
그중에 왜를 잡아 나오거나
나오는 사람 중에 왜군을 잡아서 나오거나

‘그 둥’의 ‘둥’의 ‘ㄷ’이 모음 ‘유’ 앞에서 ‘ㅈ’으로 변한 후, 모음 ‘유’가 자음 ‘ㅈ’ 뒤에서 다시 ‘우’로 변하여 현대 한국어의 ‘중’이 되었습니다.

예 하는 이를 자세 아라 나오거나
왜 하는 일을 자세히 알아 나오거나
왜군이 하는 일을 자세하게 알아서 나오거나

‘자세’는 ‘즈셔이’로 발음됩니다. 현대 한국어에서 단모음으로 발음되는 ‘애, 에, 위, 외’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중모음이었습니니다. ‘아이, 어이, 오이, 우이’처럼 발음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인 ‘자세’의 두 번째 음절의 모음 ‘예’는 ‘여이’처럼 발음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자세’를 ‘즈셔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1음절의 모음 ‘ㆍ[아래아]’는 모음 ‘아’로 변하고 ‘ㅈ’ 뒤의 ‘여’가 ‘에’로 변하면 ‘자세이’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현대 한국어의 경우는 ‘자세하다’의 활용형인 ‘자세히’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후리인 사름을 만히 더브러 나오거나
속은 사람을 많이 더불어 나오거나
속아서 왜군에 들어간 사람을 많이 함께 데리고 나오거나

‘후리인’은 앞에서도 잠시 설명하였듯이 속았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더브러’는 ‘ㅂ’ 뒤의 모음 ‘으’가 ‘우’로 변하여 현대 한국어의 ‘더불어’가 되었습니다. 물론 ‘더브러’는 연철 방식으로 쓰인 것이고 현대 한국어의 ‘더불어’는 분철 방식으로 쓰인 것입니다.

아무란 공 이시면
아무런 공 있으면

어떤 공이든 있으면

‘있다’는 이때는 ‘이시다’였기 때문에 ‘이시면’으로 쓰여있습니다.

냥천 물론혀여 벼슬도 ㅎ일 거시니
양민과 천민은 물론 벼슬도 하게 할 것이니
신분을 논하지 않고 벼슬도 하게 할 것이니

‘냥천’은 ‘양민’과 ‘천민’을 모두 이르는 말입니다. 조선 시대에 ‘양민’은 ‘양반’과 ‘천민’의 중간 신분에 해당합니다. ‘물론’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주로 당연하다고 표현할 때 사용하지만 이 자료의 ‘물론’은 한자어 ‘물론(勿論)’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 그대로 ‘논하지 않고’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ㅎ일’은 ‘ㅎ다’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ㅎ이다’의 활용형입니다.

너희 심심도
너희 마음속에도
너희들 마음속에라도

‘심심’은 마음이 생겨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어로 여기서의 문맥을 고려하여 ‘마음속에라도’로 번역하였습니다.

전의 먹던 ㅁ음믈 먹디 말오 썰리 나오라
전에 먹던 마음을 먹지 말고 빨리 나오라.
전에 먹었던 마음을 먹지 말고 빨리 나와라.

‘ㅁ음믈’은 분철로 쓰였다면 ‘ㅁ음을’이 되었을 것이고 연철로 쓰였다면 ‘ㅁ으믈’로 쓰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에서는 중철의 방식을 택하여 ‘ㅁ음믈’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먹디’의 어미 ‘-디’는 구개음화를 겪어서 ‘-지’가 되었습니다. ‘말오’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말다’의 어간에 어미 ‘-고’가 결합한 어형입니다. 그런데 후기중세국어 시기에는 ‘ㄹ’ 뒤의 ‘ㄱ’은 그 소리가 약해져서 음가를 가지고 있는 자음 ‘ㅇ’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은 ‘말오’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자음 ‘ㅇ’이 음가가 있다고 하는 이유는 이 자음이 음가를 가지고 있지 않고 ‘말오’의 ‘오’가 단순한 모음이라면 ‘마로’처럼 표기되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철처럼 ‘말오’로 쓰인 것은 ‘오’의 ‘ㅇ’이 음가를 가지고 있는 자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ㅼ들 각처 장슈의손디 다 알외여시니
이 뜻을 각처의 장수에게 다 알리었으니
이 뜻을 각 지역의 장군들에게 다 알렸으니

현대 한국어의 ‘뜻’이 이 자료에는 ‘ㅼ’을 초성으로 가지고 있고 종성이 ‘ㄷ’인 ‘ㅼ’으로 실현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는 어두에서 ‘ㅼ’이 모두 발음되었으므로 원래의 발음대로 한다면

‘쁘들’로 읽어야 하겠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편의상 경음으로 ‘뜨들’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알외다’는 ‘알리다’에 해당하는 당시의 단어 형태입니다.

심심도 의심 말고 모다 나오라
마음속으로도 의심 말고 모두 나오라
마음속으로도 의심하지 말고 모두 나와라

‘모다’는 현대 한국어의 ‘모두’에 해당하는데, 당시에 ‘모이다’라는 뜻을 가지는 동사 ‘뵈다’의 활용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희 등의 혈마 다 아버지 처즈 업슨 사롬일다
너희 중에 설마 다 아버지 처자 없는 사람이겠는가?
너희들이 설마 다 부모와 처자식이 없는 사람이겠는가?

중세국어 자료를 보면 ‘혈마’는 ‘현마’로도 표현되는데, ‘얼마라도, 아무리, 차마, 설마’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던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설마’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없다’는 현대 한국어와 활용 양상이 달랐습니다. ‘없다’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동사처럼 ‘없는’으로 활용하지만 당시에는 형용사처럼 ‘없은’처럼 활용하였습니다. ‘사롬일다’의 ‘-르다’는 의문형 어미인데, 현대 한국어에는 없는 어미형입니다. 2인칭일 때 사용되는 어미인데, 주어 자리에 ‘너희’가 있기 때문에 ‘-르다’라는 어미가 사용된 겁니다.

네 사던 디 도라와
네가 살던 데 돌아와
네가 살던 곳에 돌아와서

‘사던’은 ‘살다’의 어간말 ‘르’이 어미 ‘던’의 ‘ㄷ’ 앞에서 탈락한 어형입니다.

네대로 도로 살면 우연흐라
예전대로 도로 살면 웬만하겠는가?
예전대로 도로 살면 괜찮지 않겠는가?

‘우연흐다’는 정도가 표준보다 조금 낮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연흐다’에 있는 ‘우연’에 ‘만하다’가 결합하여 ‘우연만하다’라는 어형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웬만하다’로 변하였습니다.

이제 곧 아니 나오면 예게도 주글 거시오
이제 바로 아니 나오면 왜에게도 죽을 것이고
이제 바로 안 나오면 왜군에게도 죽을 것이고

이 부분은 추가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라히 평덩흔 휘면 너흰들 아니 뉘오츠랴
나라가 평정해진 후이면 너희인들 아니 뉘우치랴?
나라가 진정된 후면 너희인들 안 뉘우치겠는가?

‘휘면’은 ‘후이면’으로 읽게 되는데, 후기중세국어에서 ‘위’는 ‘우이’처럼 발음된 이중모음이 었기 때문입니다. ‘뉘오츠랴’는 어간 ‘뉘웃’에 어미 ‘-으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활용형입니다.

흐물며 당병이 황해도와 평안도에 가득흐였고
하물며 당 병사가 황해도와 평안도에 가득하였고
하물며 당나라 군사가 황해도와 평안도에 가득하게 있고

여기서 ‘당병’은 중국 당나라 군사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경상 전라도에 가득기 이서
경상 전라도에 가득히 있어
경상도와 전라도에 가득하게 있어서

‘있다’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시다’였고 이것의 활용형이 ‘이서’입니다.

예 곧 과글리 제 짜히 곧 아니 건너가면
왜가 곧 급하게 제 땅에 곧 아니 건너가면
왜군이 바로 급히 자기 땅에 바로 안 건너가면

‘과글리’는 ‘급하게’라는 뜻을 가지는 부사고요, 현대 한국어의 ‘땅’은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는 ‘ㅎ’으로 끝나는 ‘짙’였습니다. 여기에 조사 ‘이’가 결합하면 ‘짜히’가 됩니다.

요스이 합병하여 부산 동니 인논 예들흘 다 툴 썬이 아니라
요사이 합병하여 부산, 동래에 있는 왜들을 다 칠 썬이 아니라
바로 군대를 합하여 부산과 동래에 있는 왜군들을 모두 무찌를 썬 아니라

‘합병하다’는 군대를 합한다는 뜻이므로 중국 군대와 조선의 군대를 합쳐서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부산, 동니’는 모두 지명이고, ‘인논’은 현대 한국어와 발음이 동일합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도 ‘있는’의 제1음절의 종성은 ‘ㄴ’ 앞에서 ‘ㄴ’으로 실현되어 ‘인논’이 되는데 이 자료에서도 ‘논’ 앞에서 ‘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 비와 우리나라 비를 합하여 바르 예 나라히 드러가
강남 배와 우리나라 배를 합하여 바로 왜 나라에 들어가
중국의 배와 우리나라의 배를 합하여 바로 왜의 나라에 들어가서

여기서 ‘강남’은 중국을 지칭하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는 ‘ㅎ’으로 끝나는 ‘나라ᄃᆞᆫ’였기 때문에 여기에 조사 ‘의’가 결합하여 ‘나라희’가 된 겁니다.

다 분탕ᄃᆞᆫ 거시니
다 빼앗을 것이니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니

‘분탕하다’는 현대 한국어에서 남의 것을 약탈한다는 의미로 ‘분탕질하다’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모든 것을 빼앗는다고 번역하였습니다.

그 저기면 너희조차 쓰러 주글 거시니
그 적이면 너희조차 쓸어 죽을 것이니
그때면 너희마저 쓸어버리듯 죽을 것이니

‘쓰러’는 ‘쓸다’의 활용형인데 초성은 ‘ㅂ’과 ‘ㅅ’이 모두 발음되었었지만 이 수업에서는 편의상 ‘ㅍ’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서르 날러 그 전으로 수이 나오라
너희 서로 일러 그 전으로 쉬이 나오라
너희는 서로 말하여 그 전에 빨리 나와라

‘날러’는 말한다는 뜻을 가진 ‘니르다’의 활용형입니다. ‘수이’는 ‘쉽다’의 활용형입니다. ‘쉬’의 모음 ‘이’도 탈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력 이십일련 구월 일
만력 21년 9월 일
만력 21년(1593년) 9월 일

‘만력’은 중국에서 사용하던 연호로 1593년에 해당합니다. 1593년 9월에 쓴 내용입니다. 날씨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먼저 읽고 제가 그 다음에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①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빅성의게 니르ᄃᆞᆫ 글이라
백성에게 말하ᄃᆞᆫ(전달하ᄃᆞᆫ) 글이다.

②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님금이 니르ᄃᆞᆫ다 너희 처엄의 예손디 후리여셔
임금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처음에는 일본에게 속아서

③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여 든니기는 네 본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왜군 진영에서 다니는 것은 너의 본래의 마음이 아니라

④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다가 예손디 들려 주글가도 너기며
“나오다가 왜에게 붙들려 죽을까”라고도 생각하며

여기서도 ①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루혀 의심호디 예손디 드렛던 거시니
오히려 의심하되, 왜군 진영에 들어갔던 것이니

②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히 주길가도 두려 이제 드리 나오디 아니하니
“나라가 나를 죽일까” 두려워하여 이제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니

③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란 너희 그런 의심을 먹디 말오 서르 권하여 다 나오면
이제는 너희는 그런 의심을 품지 말고 서로 권하면서 모두 다 나오면

④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각별이 죄 주디 아닐 썬니 아니라
너희를 각별하게 벌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여기서도 ①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됴에 예를 자바 나오거나 예 하는 이를 자세 아라 나오거나
너희 중에 왜군을 잡아 나오거나 왜군 하는 일을 자세히 알아서 나오거나

②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후리인 사롬을 만히 더브러 나오거나 아무란 공 이시면
속은 사람을 많이 함께 데리고 나오거나 어떤 공이든 있으면

③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냥천 물론하여 벼슬도 하일 거시니
신분을 논하지 않고 벼슬도 하게 할 것이니

④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칭심도 전의 먹던 마음을 먹디 말오 썰리 나오라
너희들 마음속에라도 전에 먹었던 마음을 먹지 말고 빨리 나와라.

여기서도 ①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뜬들 각처 장수의손디 다 알외여시니 칭심도 의심 말고 모다 나오라
이 뜻을 각 지역 장군들에게 다 알렸으니 조금도 의심 말고 모두 나와라

②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등의 혈마 다 어버이 쳐주 업슨 사름일다
너희들이 설마 다 부모와 처자식이 없는 사람이겠는가?

③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던 디 도라와 네대로 도로 살면 우연하랴
네가 살던 곳에 돌아와 예전대로 도로 살면 괜찮지 않겠는가?

④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아니 나오면 예게도 주글 거시오
이제 바로 안 나오면 왜군에게도 죽을 것이고

여기서도 ①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히 평등흔 휘면 너희들 아니 뉘오츠랴
나라가 진정된 후면 너희인들 안 뉘우치겠는가?

②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흐물며 당병이 황해도와 평안도에 가득흐였고 경상 전라도에 가득기 이셔
하물며 당 군사가 황해도와 평안도에 가득하고 경상 전라도에 가득히 있어

③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곧 과글리 제 짜히 곧 아니 건너가면
왜군이 바로 급히 자기 땅에 바로 안 건너가면

④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스이 합병하여 부산 동년 인논 예들흘 다 털 썬이 아니라
곧바로 군대를 합하여 부산, 동래에 있는 왜군들을 모두 칠 썬 아니라

여기서도 ①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비와 우리나라 비를 합하여 바로 예 나라히 드러가
중국의 배와 우리나라의 배를 합하여 바로 왜의 나라에 들어가서

②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분탕흘 거시니 그 저기면 너희조차 쓰러 주글 거시니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니 그때면 너희마저 쓸려 죽을 것이니

③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서르 닐러 그 전으로 수이 나오라

너희는 서로 말하여 그 전에 빨리 나와라

④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력 이십일련 구월 일

만력 21년 9월 일

이번에는 <선조 국문 유서>의 원래의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을지 상상하면서 눈과 귀로 제가 읽는 내용을 따라 오시기 바랍니다.

빅성의게 니르논 글이라

님금이 니르샤디

너희 처엄의 예손디 후리여셔 인하여 둔니기논 네 본 모습이 아니라

나오다가 예손디 들러 주글가도 너기며

도르혀 의심호디 예손디 드렛던 거시니

나라히 주길가도 두려 이제 드리 나오디 아니하니

이제란 너희 그런 의심을 먹디 말오

서르 권하여 다 나오면 너희를 각별이 죄 주디 아닐 썬니 아니라

그 등에 예를 자바 나오거나 예 하는 이를 쯔세 아라 나오거나

후리인 사름을 만히 더브러 나오거나 아무란 공 이시면

냥천 물론하여 벼슬도 허일 거시니

너희 싱심도 전의 먹던 모습을 먹디 말오 썰리 나오라

이 뜰들 각쳐 장슈의손디 다 알외여시니 싱심도 의심 말고 모다 나오라

너희 등의 혈마 다 아버지 쳐쯔 업슨 사름일다

네 사던 디 도라와

네대로 도로 살면 우연하라

이제 곧 아니 나오면

예게도 주글 거시오

나라히 평덩흔 휘면 너흰들 아니 뉘오초라

허물며 당병이 황히도와 평안도에 그득허였고

경상 전라도에 그득기 이셔

예 곧 과글리 제 짜히 곧 아니 건너가면

요스이 합병하여 부산 동니 인논 예들흘

다 털 썬이 아니라

강남 비와 우리나라 비를 합하여

바르 예 나라히 드러가

다 분탕흘 거시니

그 저기면 너희조차 뿌러 주글 거시니

너희 서르 닐러 그 전으로 수이 나오라

만력 이십일련 구월 일

3. ‘구황촬요(1554년)’에 대한 이해와 강독

이번에는 조금 전에 읽은 <선조 국문 유서>보다는 조금 더 오래된, 1554년에 발간된 《구황촬요》라는 책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게 《구황촬요》의 표지인데, 한자로 ‘救荒撮要’라고 쓰여있습니다. 여기서 ‘구황(救荒)’은 흉년 등으로 기근이 심할 때 가난한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는 뜻이고, ‘촬요(撮要)’는 요점을 골라서 취한다는 뜻입니다. 즉 ‘구황촬요’라는 책 제목의 뜻은 굶주리는 백성을 돕기 위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골라서 실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는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먹을 게 없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병드는 사람도 많았고요. 《구황촬요》에는 굶어서 영양실조로 중태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부터, 중환자를 살리는 데 필요한 비상용 술을 담그는 방법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조선 시대 초·중기의 식량정책의 일환을 살필 수 있습니다.

《구황촬요》에는 여러 가지 상황의 대처법이 나오는데, 우선 여름에 제대로 못 먹어서 굶주린 사람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2> 부분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녀름물머근히예주우린사름구홀중요로원법뵈흔것
 굴문사름올더운거슬머기면반드시죽느니모로매식거든머기라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녀름물머근히예주우린사름구홀중요로원법뵈흔것
 굴문사름올더운거슬머기면반드시죽느니모로매식거든머기라

이번에는 띄어쓰기를 한 자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녀름 물 머근 히예 주우린 사름 구홀 중요로원 법 뵈흔 것
 굴문 사름올 더운 거슬 머기면 반드시 죽느니 모로매 식거든 머기라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녀름 물 머근 히예 주우린 사름 구홀 중요로원 법 뵈흔 것
 굴문 사름올 더운 거슬 머기면 반드시 죽느니 모로매 식거든 머기라

몇 단어 이외에는 제가 읽는 발음을 들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현대 한국어의 번역을 추가하고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녀름 물 머근 히예
 여름, 못 먹은 해에

‘녀름’은 어두의 ‘ㄴ’이 ‘여’ 앞에서 떨어져서 ‘녀’가 ‘여’로 바뀌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여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수업의 목표 지점으로 삼는 15세기에는 계절의 이름이 ‘봄,

녀름, ㄱ숯, 겨숯'이었습니다. '봄'은 그대로 현재에 이어지고 '녀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을을 뜻하는 'ㄱ숯'과 '겨숯'은 모두 두 번째 음절에 삼각형 같이 생긴 '△[반치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z]로 발음되었다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자음은 현재 표준어를 사용하는 지역 중심으로 본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모음 사이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의 두 번째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ㄱ숯'은 두 번째 음절의 '·[아래아]'가 모음 '으'로 변한 후, 다시 첫 번째 음절의 '·[아래아]'가 모음 '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ㄱ숯'과 '겨숯'은 모두 'ㅎ'으로 끝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들이 주격조사 '이'와 결합하면 'ㄱ숯히, 겨숯히'로 실현되었는데, 여기서 'ㅎ'이 이후에 탈락하여 현재의 '가을, 겨울'이 되었습니다. 물론 '겨숯'의 두 번째 음절의 모음도 '으'가 '우'로 바뀌었고요. 다시 읽겠습니다.

녀름 못 머근 히에
여름, 못 먹은 해에

다음 부분 읽겠습니다.

주우린 사름 구홀 중요로윈 법 뫼흔 것
주린 사름 구할 중요로운 법 모은 것
굶주린 사름 구할 꼭 필요한 방법 모은 것

'중요로윈'은 '꼭 필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 한국어에도 '중요롭다, 중요로운'과 같이 활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뫼하다'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모오다'가 되었는데요, '뫼하다'가 '모하다'가 되고, 그 이후 '모하다'를 거쳐서 현재의 어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주우린 사름 구홀 중요로윈 법 뫼흔 것
주린 사름 구할 중요로운 법 모은 것
굶주린 사름 구할 꼭 필요한 방법 모은 것

다음 부분 읽겠습니다

굴은 사름을 더운 거슬 머기면 반드시 죽느니
굶은 사름을 더운 것을 먹이면 반드시 죽으니
굶은 사름에게 따뜻한 것을 먹이면 반드시 죽으니

여기서 '더운 것'의 '덥다'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대개 날씨 등을 이야기할 때 쓰이기는 합니다만, '식지 않고 따뜻한 밥'을 가리킬 때는 '더운 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덥다'는 무엇이든 다 해야 하는 상황에 쓰는 "찬 것 더운 것 가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에서는 '차다'의 반대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굴은 사름을 더운 거슬 머기면 반드시 죽느니

굵은 사람을 더운 것을 먹이면 반드시 죽으니
굵은 사람에게 따뜻한 것을 먹이면 반드시 죽으니

다음 부분 읽겠습니다.

모로매 식거든 머기라
모름지기 식거든 먹이라
반드시 식거든 먹여라

‘모로매’는 ‘반드시, 꼭’ 등의 의미를 가지는 ‘모름지기’에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먹이라’는 명령형인데, 현대 한국어라면 직접 명령을 하는 ‘먹여라’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모로매 식거든 머기라
모름지기 식거든 먹이라
반드시 식거든 먹여라

이번에는 방금 읽고 설명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먼저 읽고 제가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①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름 못 머근 히에
여름 못 먹은 해에

②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린 사름 구홀 중요로윈 법 뵈흔 것
굵주린 사람 구할 꼭 필요한 방법 모은 것

③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굵은 사람을 더운 거슬 머기면 반드시 죽느니
굵은 사람에게 따뜻한 것을 먹이면 반드시 죽으니

④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로매 식거든 머기라
반드시 식거든 먹여라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이해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지요?

이번에는 원문을 보면서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읽으면서 어떤 뜻인지, 그리고 현대 한국어와 비교할 때 어떤 부분이 다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름 못 머근 히에 주우린 사름 구홀 중요로윈 법 뵈흔 것
굵은 사람을 더운 거슬 머기면 반드시 죽느니 모로매 식거든 머기라

이번에도 《구황촬요》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굶어서 힘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굴머곤햐햐햐마주거가는사름구햐햐사를법
굴머곤햐사름이밥을과굴이먹거나
더운죽을먹거나햐면반드시죽느니
놀장을므레프러머기고버거시근죽을머겨
긱우니슌슌햐거사점점죽과밥을머기라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굴머곤햐햐햐마주거가는사름구햐햐사를법
굴머곤햐사름이밥을과굴이먹거나
더운죽을먹거나햐면반드시죽느니
놀장을므레프러머기고버거시근죽을머겨
긱우니슌슌햐거사점점죽과밥을머기라

이번에는 띄어쓰기를 해 놓고 읽어보겠습니다.

굴머 곤햐햐 햐햐 마 주거가는 사름 구햐햐 사를 법
굴머 곤햐 사름이 밥을 과굴이 먹거나
더운 죽을 먹거나 햐면 반드시 죽느니
놀장을 므레 프러 머기고
버거 시근 죽을 머겨
긱우니 슌슌햐거사
점점 죽과 밥을 머기라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굴머 곤햐햐 햐햐 마 주거가는 사름 구햐햐 사를 법
굴머 곤햐 사름이 밥을 과굴이 먹거나
더운 죽을 먹거나 햐면 반드시 죽느니
놀장을 므레 프러 머기고
버거 시근 죽을 머겨
긱우니 슌슌햐거사
점점 죽과 밥을 머기라

이번에는 현대 한국어 번역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은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꿀머 곤허야 허마 주거가는 사름 구허야 사를 법
꿍어 곤하여 이미 죽어가는 사람 구하여 살릴 법
꿍어 기운이 없어 이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여 살리는 방법

‘사를 법’은 ‘살릴 방법’을 뜻합니다. ‘살다’의 사동형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살리다’인데 후기 중세국어 당시에는 ‘살이다’와 ‘·[아래아]’가 있는 ‘사르다’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현대 한국어의 ‘살리다’에 그 어형이 이어지는 ‘살이다’는 ‘살게 하다, 살도록 돌보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 파생어이고 ‘·[아래아]’가 있는 ‘사르다’는 현대 한국어의 ‘살리다’ 즉 ‘죽이다’의 반대 의미를 가지는 파생어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를’은 바로 이 ‘사르다’의 두 번째 음절의 모음이 ‘으’로 변한 결과입니다.

꿀머 곤헌 사름이 밥을 과굴이 먹거나
꿍어 곤한 사람이 밥을 급하게 먹거나
꿍어서 기운이 없는 사람이 밥을 급하게 먹거나

‘과굴이’는 앞의 <선조 국문 유서>에도 나왔던 ‘과글리’와 동일한 단어로 ‘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운 죽을 먹거나 허면 반드시 죽느니
더운 죽을 먹거나 하면 반드시 죽으니
따뜻한 죽을 먹거나 하면 반드시 죽으니

‘더운 죽’의 ‘덥다’는 날씨를 뜻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장을 mre 프러 머기고 버거 시근 죽을 머겨
날장을 물에 풀어 먹이고 다음에 식은 죽을 먹여
간장을 물에 풀어서 연한 간장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식은 죽을 먹여서

‘늘장’의 ‘늘’은 익히지 않은 날것이라는 의미와 통하는 표현인데, ‘간장’을 그대로 물에 풀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대 한국어의 ‘물’은 후기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물’이었는데, ‘ㅁ’ 뒤에서 모음 ‘으’가 ‘우’로 바뀌어 ‘물’이 된 겁니다. ‘버거’는 ‘첫 번째 바로 다음’이라는 뜻을 가지는 ‘벅다’라는 동사의 활용형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최고 바로 다음이라는 ‘버금가다’라는 단어가 남아 있습니다.

기우니 슣스허거사 점점 죽과 밥을 머기라
기운이 또랑또랑하고서야 점점 죽과 밥을 먹이라
기운이 또랑또랑하게 된 다음에 점점 죽과 밥을 먹여라

‘스스하다’는 현대 한국어에 그대로 이어지는 어형이 없습니다만 문맥 등을 고려하여 ‘또랑또랑하다’로 번역하였습니다. 기운이 되살아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방금 읽고 설명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먼저 읽고 제가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①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굴며 곤^ㅎ야 ^ㅎ마 주거가는 사^ㅎ름 구^ㅎ야 사^ㅎ를 법
끓어 기^ㅎ운이 없^ㅎ어 이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여 살리는 방법

②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굴며 곤^ㅎ 사^ㅎ름이 밥을 과^ㅎ끓이 먹거나
끓어서 기^ㅎ운이 없는 사람이 밥을 급하게 먹거나

③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죽을 먹거나 ^ㅎ면 반^ㅎ드시 죽^ㅎ느니
따뜻한 죽을 먹거나 ^ㅎ면 반^ㅎ드시 죽^ㅎ으니

④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늘장을 ^ㅎ레 ^ㅎ러 머^ㅎ기고 버^ㅎ거 시^ㅎ근 죽을 머^ㅎ겨
간장을 물에 풀어서 연한 간장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식은 죽을 먹여서

⑤번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ㅎ우니 ^ㅎ쑤^ㅎ ^ㅎ거^ㅎ사 ^ㅎ점^ㅎ점 죽과 밥을 머^ㅎ기라
기^ㅎ운이 또^ㅎ랑또^ㅎ랑^ㅎ하게 된 다음에 ^ㅎ점^ㅎ점 죽과 밥을 머^ㅎ여라

이것 역시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16세기의 자료인데도 이해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원래의 자료를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읽으면서 어떤 뜻인지, 그리고 현대 한국어와 비교할 때 어떤 부분이 다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굴며 곤^ㅎ야 ^ㅎ마 주거가는 사^ㅎ름 구^ㅎ야 사^ㅎ를 법
굴며 곤^ㅎ 사^ㅎ름이 밥을 과^ㅎ끓이 먹거나
더운 죽을 먹거나 ^ㅎ면 반^ㅎ드시 죽^ㅎ느니
늘장을 ^ㅎ레 ^ㅎ러 머^ㅎ기고
버^ㅎ거 시^ㅎ근 죽을 머^ㅎ겨
기^ㅎ우니 ^ㅎ쑤^ㅎ ^ㅎ거^ㅎ사
^ㅎ점^ㅎ점 죽과 밥을 머^ㅎ기라

4. 정리

이번 시간에는 16세기 중반 이후의 자료 <선조 국문 유서>와 《구황촬요》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16세기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15세기와 묶어서 ‘후기 중세 국어’ 시기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수업의 지향점인 ‘후기 중세 국어’ 자료까지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처음부터 이 자료를 봤다면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현대 한국어에서 가까운 시기부터 표기 등에 익숙해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래된 자료로 옮겨와서 그 어려움은 조금 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다음 시간에는 16세기 초의 자료를 읽어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선택형 (10분)

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선조국문유서>에서는 중철 표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후기중세국어 시기에 '-이다'는 항상 '-이라'로 실현되었다.
- ③ <선조국문유서>에서는 '없-'이 형용사처럼 활용한 표기가 나타난다.
- ④ 후기중세국어 시기에 '살다'의 사동형으로는 '살이다', '사르다'의 두 종류가 있었다.

정답: ①

2.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 ① <선조국문유서>에서는 '일본'을 '왜'라고 표현하였다.
- ② <선조국문유서>는 왜군이 읽지 못하도록 한문으로 쓰였다.
- ③ 《구항찰요》는 <선조국문유서>가 쓰인 이후에 간행되었다.
- ④ 《구항찰요》를 통해 조선시대 초·중기의 식량정책의 일환을 살필 수 있다.

정답: ④

3.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현대 한국어의 '물'은 'ㅁ' 뒤에서 모음 '으'가 '우'로 바뀌는 변화를 겪은 것이다.
- ② <선조국문유서>에 쓰인 '쁘러'의 초성 'ㅂ', 'ㅅ'은 당시에 모두 발음되지 않았다.
- ③ <선조국문유서>에 쓰인 '짜히'는 '땅'을 의미하는 '쌍'과 조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 ④ 《구항찰요》에 쓰인 '모로매'는 '반드시, 꼭' 등의 의미를 가지는 '모름지기'에 해당하는 말이다.

정답: ②

단답형 (8분)

1.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후기중세국어 시기의 '니르다'는 어두의 ()이 모음 () 앞에서 탈락하여 오늘날 ()이 되었다.

정답: 'ㄴ', 'ㅣ', 'ㅇ'

2. 국가를 의미하는 명사 '나라'와 주격 조사 '이'의 결합형과 보조사 '도'의 결합형을 각각 쓰시오.

정답: 나라히, 나라토

3. 빈칸에 들어갈 ㉠, ㉡, ㉢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 둥'의 '둥'의 'ㄷ'이 모음 (㉠) 앞에서 (㉡)로 변한 후, 모음 (㉢)가 자음 (㉣) 뒤에서 다시 (㉤)로 변하여 현대 한국어의 '중'이 되었다.

정답: '유', 'ㅈ', '우'

나. 토의 (30분)

<선조국문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조선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다. 과제 (60분)

아래 자료를 현대 한국어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현대어로 바꾸어 쓰시오.

빅성의게니르눈글이라
님금이니르샤디
너희처엄의예손디후리여셔
인허여든니기눈네본므옴이아니라
나오다가예손디들려주글가도너기며
도르혀의심호디예손디드러던거시니
나라히주길가도두려
이제드리나오디아니허니
이제란너희그런의심을먹디말오
서르권허여다나오면
너희를각별이죄주디아닐뿐니아니라
그등에예를자바나오거나
예허눈이를즈셰아라나오거나
후리인사름을만히더브러나오거나
아므란공이시면
냥천물론허여벼술도허일거시니
너희싱심도전의먹던므옴들먹디말오썰리나오라
이쁘돌각쳐장슈의손디다알외여시니
싱심도의심말고모다나오라
너희등의혈마다어버이쳐즈업손사름일다
네사던디도라와네대로도로살면우연허라
이제끝아니나오면에게도주글거시오
나라히평등허휘면너흰돌아니뉘오츠라
허물며당병이황히도와평안도애꺾독허엿고
경상전라도애꺾기이셔
예곧과글리제짜히곧아니건너가면
요스이합병허여
부산동니인눈예들흠다틸뿐이아니라
강남비와우리나라비를합허여
바르예나라희드러가다분탕흠거시니
그저기면너희조차쁘러주글거시니
너희서르닐러그전으로수이나오라
만력이십일련구월 일

■ 참고자료

《구항찰요》(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선조국문유서>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우리말샘 (우리말샘 바로가기)

고영근(1987/2010),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이기문(1972/1998),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6차시> 16세기 자료 2

■ 학습목표

1. 16세기 초반 자료를 소리 내어 읽는 능력을 기른다.
2. 《번역노걸대》의 문법적 특징을 파악한다.
3. 중세국어와 현대 한국어의 어휘 및 문법의 차이를 확인한다.

■ 강의 목차

1. 도입
2. ‘번역노걸대(1517년)’에 대한 이해
3. ‘번역노걸대(1517년)’ 강독1
4. ‘번역노걸대(1517년)’ 강독2
5. ‘번역노걸대(1517년)’ 강독3
6.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도입

안녕하세요? ‘한국어 고전 자료 읽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중세국어 자료인 《훈민정음(언해)》와 《용비어천가》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20세기 초반의 《어린이》라는 잡지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오며 이번 여섯 번째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읽는 자료들은 중세국어 자료들입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16세기 초반의 자료를 읽겠습니다. 국어학에서 ‘훈민정음’이 창제된 15세기와 16세기를 합하여 중세국어 또는 후기 중세국어라고 구분하고 있는데, 이제 중세국어 시기의 자료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인 일곱 번째 시간에 계속해서 읽어 나갈 자료는 《번역노걸대》라는 16세기 초반의 자료입니다. 우리는 이 자료를 함께 읽으면서 중세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파악하고, 중세국어와 현대 한국어의 어휘 및 문법의 차이를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번역노걸대》라는 책을 통해 조선 시대의 외국어 학습 방법에 대한 이해에 한 걸음 다가갈 예정입니다.

2. ‘번역노걸대(1517년)’에 대한 이해

오늘 함께 읽을 자료는 16세기 초에 나온 중국어 학습서 《번역노걸대(翻譯老乞大)》입니다.

이 책은 1517년 이전에 나왔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조선 시대의 뛰어난 중국어 통역관인 '최세진(崔世珍)'이라는 사람이 이전부터 전해져 오던 한문본 《노걸대》를 번역하여 상권과 하권 두 권으로 만든 책입니다. <그림 1>이 원래 전해져 내려오던 한문본 《노걸대》이고 <그림 2>가 최세진이 만든 《번역노걸대》입니다. 《번역노걸대》의 오른쪽에 보시면 한자로 '노걸대 상'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우리는 이 수업을 하면서 《번역노걸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의 제목은 《노걸대》입니다. 이 책은 중국어 학습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번역노걸대》가 나온 이후에도 수정을 거치면서 여러 번 간행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들과 구분하기 위해 한국어학에서는 '번역'이라는 말을 앞에 붙여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은 말을 팔기 위해서 고려의 수도 왕경 즉 개성을 떠난 고려의 상인이 중국의 북경에 가는 길에 중국의 상인과 만나서 그 사람과 나누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자료는 번역이기는 하지만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림 2>를 보면 대화문이기 때문에 내용들이 짧게 짧게 나누어져 있고, 중국어 원문 바로 뒤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번역문을 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한자들을 보시면 한자 밑에 그 한자의 발음이 쓰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글자 밑에 한자음이 두 개씩 쓰여있는 게 확인됩니다. 이 각각의 음에 대해서는 중국어 역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단, 이 발음들은 당시에 중국어를 잘하기 위해 배워야 할 중국어 발음들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역노걸대》라는 중국어 학습서에 중국어 발음과 번역을 붙여서 편찬한 사람은 최세진이라는 뛰어난 중국어 통역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훈몽자회》라는 책을 통해 현대 한국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훈몽자회》는 1527년 최세진이 지은 한자 학습서입니다. 3,360자의 한자에 음과 뜻을 달아 놓은 책인데요, <그림 3>이 이 책의 모습입니다. 한글이 창제되기 전이라면 한문을 배울 때 한자의 음과 뜻을 선생님이 말해 주면 그것을 귀로 듣고 외웠을 겁니다. 그런데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자 밑에 한자의 뜻과 발음을 한글로 써 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책에는 한글로 한자의 뜻이 써 있기 때문에 16세기 초반의 한국어 단어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는 부분은 바로 책 앞 쪽에 있는 한글의 발음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최세진은 한자의 뜻과 음을 가르치기 위해 한글로 한자의 뜻과 음을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방에서는 아직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세진은 각각의 한글의 발음을 가르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림 4>는 지방에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써 놓은 최세진의 글입니다. 물론 한문으로 쓰여 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골이나 지방 사람들 가운데, 언문을(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이제 언문 자모를(한글의 자음 글자와 모음 글자)를 함께 적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언문을(한글을) 배운 다음 《훈몽자회》를 공부하게 하면,
 혹시 밝게 깨우치는데 이로움이 있을 것이니,
 한자를 모르는 사람도 역시 모두
 언문을(한글을) 배우고 한자를 알면, 비록 스승의 가르침이 없더라도
 한문에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한글을 어떻게 읽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5>가 바로 그 부

분입니다.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ㄱ’으로 시작하는 곳 보이시죠? 거기 두 번째 글자 ‘ㄴ’부터 설명하겠습니다. ‘ㄴ’ 바로 밑을 보면 한자로 ‘니(尼)’라는 글자와 ‘은(隱)’이라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이것은 ‘ㄴ’이라는 글자의 발음은 ‘니’라는 한자를 발음할 때의 첫소리와 같고 ‘은’이라는 한자를 발음할 때의 끝소리와 같다는 설명입니다.

‘ㄹ’도 보겠습니다. ‘ㄹ’ 바로 밑에 현대 한국어 음으로는 ‘이(梨)’와 ‘을(乙)’로 읽히는 한자들이 쓰여있는데, 이 한자들의 발음은 각각 ‘리’와 ‘을’이었습니다. 최세진은 이 한자들을 이용해 ‘ㄹ’이라는 한글의 발음은 ‘리’라는 한자의 첫소리와 같고 ‘을’이라는 한자의 끝소리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ㅁ’을 보겠습니다. ‘ㅁ’ 밑에는 한자 ‘미(眉)’와 ‘음(音)’이 각각 써 있습니다. 한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이것도 ‘ㅁ’이 ‘미’라는 한자의 첫소리와 발음이 같고, ‘음’이라는 한자의 끝소리와 발음이 같다는 뜻입니다. ‘ㅂ’ 밑에는 ‘비(非)’라는 한자와 ‘읍(邑)’이라는 한자가 써 있습니다. 한자 ‘비’를 읽을 때의 첫소리와 ‘ㅂ’의 발음이 같고, ‘읍’이라는 한자의 끝소리와 ‘ㅂ’의 발음이 같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꼭지가 붙어 있는 이응(ㅇ)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한국어학에서는 이것을 ‘ㅇ[옛이응]’이라고 하는데요, 그 발음은 현대 한국어의 ‘강’이라고 할 때의 종성 발음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ㅇ[옛이응]’이 가지고 있던 윗부분의 꼭지가 없어졌습니다. 현대 한국어 발음으로는 ‘이(異)’와 ‘응(癡)’으로 발음되는 한자들을 써 놓았으나 당시에는 ‘이’의 발음이 현재와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자 ‘이’의 첫소리와 한자 ‘응’의 끝소리가 바로 ‘ㅇ[옛이응]’ 될 수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발음 설명의 원칙을 보면, 최세진은 ‘이’라는 모음과 ‘으’라는 모음을 차례대로 넣은 후, 설명하려는 자음을 초성으로 가지면서 ‘이’를 모음으로 가지는 한자와 설명하려는 자음을 종성으로 가지면서 ‘으’라는 모음을 가지는 한자로 해당 자음의 음가를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 한자의 발음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편리하고 체계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ㄱ’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기(其)’라는 한자를 가져와서 그 한자의 초성이라고는 설명할 수 있는데, ‘으’이라는 한자의 종성이라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으’이라는 음을 가지고 있는 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세진은 할 수 없이 ‘역(役)’이라는 한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즉 ‘기’라는 한자의 첫소리와 ‘역’이라는 한자의 끝소리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까지는 그래도 설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귄’과 ‘시옷’에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소리는 각각 ‘디’라는 한자의 첫소리, ‘시’라는 한자의 첫소리라고 하면 되는데, ‘ㄷ’이나 ‘ㅅ’을 종성으로 가지는 한자가 없는 겁니다. ‘ㄱ’에 대해서는 모음만 바꾸어서 ‘역’이라는 한자를 가져다 쓸 수 있었지만, ‘ㄷ’과 ‘ㅅ’은 그러한 설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때 최세진은 묘안을 냅니다. ‘ㄷ’으로 끝나는 ‘을’에 대해서는 ‘끝’이라는 뜻을 가지는 ‘말(末)’이라는 한자를 가져옵니다. 16세기에 ‘끝’은 ‘ㄷ’ 종성의 ‘근’이었는데, 이 ‘근’이라는 뜻을 가지는 한자를 가져와서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리고 이 한자는 한자음 ‘말’로 읽지 말고 그 한자의 뜻인 ‘근’으로 읽으라고 합니다. 바로 이때의 종성의 발음이 ‘ㄷ’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ㅅ’ 역시 ‘옷’이라는 한자가 없기 때문에 ‘옷’이라는 뜻을 가지는 한자 ‘의(衣)’자를 가지고 와서 동그라미를 칩니다. 이것도 뜻으로 읽을 때의 종성 음이 ‘ㅅ’이라고 설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ㅅ’ 받침의 ‘옷’을 단독으로 써 놓으면 [을] 처럼 ‘ㅅ’ 발음이 나지 않지만 중세국어 당시에는 ‘오ㅅ’처럼 종성 ‘ㅅ’이 발음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처럼 한글의 발음을 한자를 통해 가르치려던 노력의 결과가 현대 한국어에서는 각각의 자음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된 겁니다.

《번역노걸대》를 만든 최세진과 현대 한국어에서 자음의 명칭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그치고 이제 오늘의 읽기 자료인 《번역노걸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번역노걸대(1517년)’ 강독1

우선 제가 먼저 시작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대화는 두 사람이 만나서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묻고 답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번역노걸대》는 두 사람의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고려 왕경’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번역노걸대》의 원 책인 《노걸대》는 고려 말쯤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누가 말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위해 각각의 대화문 앞에 ‘중’ 또는 ‘한’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중’과 ‘한’은 현재의 중국인과 한국인에 해당합니다.

중: 큰형님네어드러로서브터온다

한: 내高麗(고려)王京(왕경)으로서브터오라

중: 이제어드러가는다

한: 내北京(북경)향하야가노라

중: 네언제王京(왕경)의셔떠난다

한: 내이덥초흐룻날王京(왕경)의셔떠나라

중: 이미이덥초흐룻날王京(왕경)의셔떠나거니

이제반드리로디엇디앗가사예오노

한: 내흔버디떠디여올시내길조차날회여너

기들워오노라하니이런전초로오미더디요라

중: 그버디이제미처올가물올가

한: 이버디곧기니어재곳오다

중: 네이덥그믐씩北京(북경)의갈가가디물출가

한: 모로리로다그마를엇디니르리오

하늘히어엿비너기샤모미편안흐면가리라

지금까지 읽어오던 자료들과는 차이가 있지요? 문장의 어미도 대화문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현대 한국어라면 어디서 찍어쓰기가 되면 좋을지 표시하면서 귀와 눈으로 듣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 큰형님네어드러로서브터온다

한: 내高麗(고려)王京(왕경)으로서브터오라

중: 이제어드러가는다

한: 내北京(북경)향하야가노라

중: 네언제王京(왕경)의셔떠난다

한: 내이뵈초하룻날王京(왕경)의셔떠나라

중: 이의이뵈초하룻날王京(왕경)의셔떠나거니

이제반드리로디엇디앗가사에오노

한: 내흔버디떠디여올시내길조차날회여녀

기들워오노라하니이런전초로오미더디요라

중: 그버디이제미쳐올가몰올가

한: 이버디곧그니어재곳오다

중: 네이뵈그믐씩北京(북경)의갈가가디몰흘가

한: 모로리로다그마를엇디니르리오

하늘히어엿비너기샤모미편안하면가리라

이번에는 현대 한국어의 띄어쓰기 방식을 도입하여 써 놓고 읽어보겠습니다. 이해될 만한 부분에 표시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 큰형님 네 어드러로서부터 온다

한: 내 高麗(고려) 王京(왕경)으로서부터 오라

중: 이제 어드러 가는다

한: 내 北京(북경) 향하야 가노라

중: 네 언제 王京(왕경)의셔 떠난다

한: 내 이뵈 초하룻날 王京(왕경)의셔 떠나라

중: 이의 이뵈 초하룻날 王京(왕경)의셔 떠나거니

이제 반 드리로 디 엿 디 앓 가 사 예 오 노

한: 내 흔 버디 떠디여 올시 내 길 조차 날회여 녀

기들워 오노라 하니 이런 전초로 오미 더디요라

중: 그 버디 이제 미쳐 올가 몰 올가

한: 이 버디 곧 그니 어재 곳 오다

중: 네 이뵈 그믐씩 北京(북경)의 갈가 가디 몰 흘가

한: 모로리로다 그 마를 엿디 니르리오

하늘히 어엿비 너기샤 모미 편안하면 가리라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 표시를 하면서 제가 읽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 큰형님 네 어드러로셔브터 온다

한: 내 高麗(고려) 王京(왕경)으로셔브터 오라

중: 이제 어드러 가논다

한: 내 北京(북경) 향하야 가노라

중: 네 언제 王京(왕경)의셔 떠난다

한: 내 이뉘 초흐룻날 王京(왕경)의셔 떠나라

중: 이미 이뉘 초흐룻날 王京(왕경)의셔 떠나거니

이제 반 드리로디 엇디 앓가사 예 오노

한: 내 훈 버디 떠디여 올시 내 길 조차 날회여 녀

기들워 오노라 하니 이런 전초로 오미 더디요라

중: 그 버디 이제 미처 올가 못 올가

한: 이 버디 곧 그니 어재 곳 오다

중: 네 이뉘 그믄씩 北京(북경)의 갈가 가디 못 흘가

한: 모로리로다 그 마를 엇디 니르리오

하늘히 어엿비 너기샤 모미 편안흐면 가리라

어떻습니까? 대화문이라서 이전 자료보다 조금 쉬운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어미들을 볼 때 현대 한국어의 어미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문법형태소들을 제외한 어휘형태소들은 아주 많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현대 한국어 번역과 함께 비교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나 형용사가 활용할 때 어미를 잘 비교하며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미들이 나타내는 시제 부분을 잘 비교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역 중 먼저 보이는 번역은 단순히 후기 중세 한국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절차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는 번역은 내용 파악을 위한 표현들을 추가했으니까 그것도 이해하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 큰형님 네 어드러로셔브터 온다

큰형님, 네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큰형님(형씨), 너는(당신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한: 내 高麗(고려) 王京(왕경)으로셔브터 오라

내가 고려 왕경으로부터 왔다.

나는 고려 왕경에서부터 왔다.

중: 이제 어드러 가는다
이제 어디에 가는가?
이제 어디 가는가?

한: 내 北京(북경) 향하야 가노라
내가 북경 향하여 간다.
나는 북경 향하여 간다.

중: 네 언제 王京(왕경)의셔 떠난다
네가 언제 왕경에서 떠났는가?
너는 언제 왕경에서 떠났는가?

한: 내 이뉘 초하룻날 王京(왕경)의셔 떠나라
내가 이달의 초하룻날 왕경에서 떠났다.
나는 이번 달의 첫째 날 왕경에서 떠났다.

중: 이미 이뉘 초하룻날 王京(왕경)의셔 떠나거니
이미 이달의 초하룻날 왕경에서 떠났거늘
이미 이번 달의 첫째 날 왕경에서 떠났는데

중: 이제 반 드리로디 엇디 앓가사 예 오노
이제 반 달인데 어찌 아까야 여기 왔는가?
이제 반 달이 지났는데, 왜 아까 돼서야 여기에 왔는가?

한: 내 흔 버디 떠디여 올시 내 길 조차 날회여 너
나의 한 벼이 떨어져 오므로 내가 길 좇아 천천히 와
내 친구 한 사람이 떨어져 오므로, 내가 길을 따라서 천천히 와서

한: 기들워 오노라 하니 이런 전초로 오미 더디요라
기다려 오노라 하니 이런 까닭으로 오는 것이 더디었다.
기다리면서 오고자 했더니, 이런 이유로 오는 것이 더디었다.

중: 그 버디 이제 미쳐 올라 못 올라
그 벼이 이제 미쳐 올라 못 올라?
그 친구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 못 올라?

한: 이 버디 곧 그니 어제 곳 오다
이 벼이 곳 그이니 어제 갓 왔다.
이 친구가 바로 그 사람이니, 어제 막 왔다.

중: 네 이뉘 그믐씩 北京(북경)의 갈까 가디 문 훔가
네가 이달의 그믐께 북경에 갈까 가지 못할까?
너는 이달의 마지막날 쯤에 북경에 갈까 가지 못할까?

한: 모로리로다 그 마를 엇디 니르리오
모르겠도다. 그 말을 어찌 이르겠는가?
모르겠구나. 그 말을 어찌 말하겠는가?

한: 하늘히 어엿비 너기샤 모미 편안하면 가리라
하늘이 어여빠 여기시어 몸이 편안하면 갈 것이다.
하늘이 불쌍하게 생각하시어, 몸이 편안하면 이달 그믐까지 갈 것이다.

자료의 어미와 번역된 문장을 비교해 보면 시간 표현이나 의문 표현 등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문법적 사실은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중: 큰형님 네 어드러로서부터 온다
큰형님,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큰형님(형씨), 너는(당신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여기서는 상대방을 ‘큰형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원문에 있는 중국어 ‘다거(大哥)’를 직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중국어에서 큰형님을 지칭하기도 하고 비슷한 나이의 사람에 대한 존칭으로도 사용됩니다. 굳이 현대 국어로 번역하자면 ‘형씨’ 정도가 될 텐데, 이 단어는 이해를 위해서 번역에 넣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네’는 2인칭 명사 ‘너’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다’는 ‘오다’의 동사 어간에 어미 ‘-니다’가 결합한 것인데, 현대 한국어와는 완전히 다른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어형이 현대 한국어의 표현이라면 단순하게 누군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서술합니다. 그러나 중세국어에서 발견되는 ‘-니다’는 의문형 어미입니다. 그리고 이 의문형 어미는 항상 2인칭에 쓰였습니다. 여기서도 ‘너’에게 묻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온다’의 어미가 2인칭 의문형 어미라면 ‘오는가’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왔는가’로 번역하여 과거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중세국어에서는 이러한 경우 현재 시제가 없이 표현되었을 때는 과거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약 현재 시제를 표현하려면 현재를 나타내는 어미 ‘-느-’를 하나 더 넣어야 합니다. 이 ‘-느-’는 현대 한국어에서 ‘먹는다’라고 할 때의 ‘는’ 또는 ‘간다’라고 할 때의 ‘ㄴ’에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세국어에서는 ‘-느-’처럼 시간 표현을 하는 어미가 없는 ‘온다’는 과거로 해석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표현들이므로 나올 때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내 高麗(고려) 王京(왕경)으로서부터 오라
내가 고려 왕경으로부터 왔다.
나는 고려 왕경에서부터 왔다.

여기서 ‘내’는 1인칭 ‘나’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한국어에서는 ‘내가’로 보아야 하지만 여기서는 문맥을 고려하여 ‘나는’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오라’ 역시 현대 한국어와 많이 다른 어형입니다. ‘왔다’에 해당하는데요, 앞에서도 잠시 말씀 드렸듯이 현재 시제를 표시하는 ‘-느-’가 없으면 과거라고 했지요? 여기 보인 ‘오라’도 ‘-느-’라는 현재를 나타내는 어미가 없기 때문에 과거를 표현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다’가 되었어야 할 텐데, 여기에서는 ‘오라’로 실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경우 ‘오다’의 어간 ‘오-’에 어미 ‘-다’가 직접 결합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어절을 분석하면 ‘오-+-오-+-다’가 되는데 첫 번째 ‘오-’는 ‘오다’라는 동사의 어간이고, 두 번째 ‘-오-’는 화자 자신의 행동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1인칭 어미입니다. 이 어미는 현대 한국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끝맺는 어미 ‘-다’는 1인칭 어미 ‘-오-’ 뒤에서는 항상 ‘-라’로만 실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오라’가 되겠지만 첫 번째 음절의 ‘오-’와 두 번째 음절의 ‘-오-’가 형태가 같아서 하나의 음절 ‘오’로 실현되어 ‘오라’가 되었습니다.

중: 이제 어드러 가는다
 이제 어디에 가는가?
 이제 어디 가는가?

‘가는다’에는 앞에서 보았던 2인칭 의문형 어미 ‘-는다’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의 어간 ‘가’와 이 ‘-는다’ 사이에 어미 ‘-느-’가 들어가 있는데, 이 어미는 현재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다’가 ‘가는가?’라는 의문형으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한: 내 北京(북경) 향하야 가노라
 내가 북경 향하여 간다.
 나는 북경 향하여 간다.

‘가노라’는 ‘가다’의 어간 ‘가-’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 ‘-느-’가 결합하고, 여기에 다시 1인칭을 나타내는 어미 ‘-오-’가 결합한 후, 그 뒤에 문장을 끝맺는 ‘-다’가 결합한 어형입니다. 앞에서도 가는 주체가 ‘나’라는 사실을 알려 주는 1인칭 어미 ‘-오-’ 뒤에서는 문장을 끝내는 어미 ‘-다’가 ‘-라’로 실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미 ‘-느-’와 ‘-오-’가 결합할 때, ‘-느-’의 ‘ㄴ’[아래아]는 ‘-오-’ 앞에서 탈락하여 결과적으로 ‘노’가 됩니다. 그래서 나온 어형이 ‘가노라’입니다.

중: 네 언제 王京(왕경)의셔 떠난다
 네가 언제 왕경에서 떠났는가?
 너는 언제 왕경에서 떠났는가?

‘네’는 2인칭 대명사 ‘너’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떠난다’의 어간은 현대 한국어의 ‘떠나다’로 이어집니다. 물론 이때 ‘ㅃ’은 모두 발음이 되었지만 이 수업에서는 ‘ㅍ’으로 읽습니다. ‘떠난다’는 앞에서 본 “어드러로셔브터 온다”의 ‘온다’와 문법적으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떠나다’의 어간 ‘떠나-’에 2인칭 의문형 어미 ‘-는다’가 결합하였고 여기에 현

재 시제를 나타내는 ‘-느-’라는 형태소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과거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한: 내 이튿 초하룻날 王京(왕경)의셔 떠나라
내가 이달의 초하룻날 왕경에서 떠났다.
나는 이번 달의 첫째 날 왕경에서 떠났다.

‘떠나라’는 현대 한국어라면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중세국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국어의 ‘떠나라’는 어간 ‘떠나-’에 시제 표현 없이 1인칭 어미 ‘-오-’가 결합하고, 이 어미 ‘-오-’ 뒤에 문장을 끝맺는 ‘-다’가 결합하면서 ‘-라’로 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떠나오라’로 실현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인칭 어미 ‘-오-’는 이 시기에 모음 ‘아’로 끝나는 어미 뒤에서는 표면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떠나-’라는 어간의 제2음절의 모음 ‘아’ 뒤에서 1인칭 어미 ‘-오-’가 ‘-아-’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떠나아라’가 될 텐데 ‘나아’가 하나의 음절로 실현되어서 ‘떠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1인칭의 어미 ‘-오-’가 들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문장을 끝맺는 어미 ‘-다’가 ‘-라’로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미 ‘-다’는 특정한 형태소와 결합할 때만 ‘-라’로 실현되는 형태소였습니다. 그리고 ‘떠나라’에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느-’라는 형태소가 들어 있지 않아서 과거로 보게 됩니다. 중세국어의 시제, 1인칭, 문장 종결 등의 어미가 현대 한국어와 달라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형태소들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그때마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중: 이미 이튿 초하룻날 王京(왕경)의셔 떠나거니
이미 이달의 초하룻날 왕경에서 떠났거늘
이미 이번 달의 첫째 날 왕경에서 떠났는데

‘떠나거니’에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어미 ‘-거-’가 들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달 첫째 날 왕경에서 떠난 게 확실한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는 현대 한국어에는 사라지고 ‘가거든, 가거늘’이라고 할 때의 ‘거’에 겹모습으로만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중: 이제 반 ㄷ리로디 엇디 앓가사 예 오노
이제 반 달인데 어찌 아까야 여기 왔는가?
이제 반 달이 지났는데, 왜 아까 돼서야 여기에 왔는가?

‘앓가사’의 ‘-사’는 강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나야 말로’라고 할 때의 ‘-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노’는 의문형 어미 ‘-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시제 표현이 없어서 과거로 해석하였습니다.

한: 내 훈 버디 떠디여 올시 내 길 조차 날회여 너
나의 한 벼이 떨어져 오므로 내가 길 좇아 천천히 와

내 친구 한 사람이 떨어져 오므로, 내가 길을 따라서 천천히 와서

‘벗’은 종성의 ‘ㅈ’이 ‘ㅅ’으로 변하여 친구를 뜻하는 ‘벗’이 되었습니다. ‘떠디여’는 현대 한국어의 ‘떨어지다’와 동일한 것인데 현대 한국어의 ‘떨어지다’는 어간 ‘떨-’ 다음에 어미 ‘-어’가 결합하였는데, 이 자료의 ‘떠디여’는 어간 ‘떨-’에 어미 ‘-어’가 결합하지 않고 어간 ‘디-’가 직접 결합하면서 ‘떨-’의 종성 ‘ㄹ’이 탈락하여 ‘떠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다’는 구개음화에 의해 현대 한국어에서 ‘지다’가 되었습니다. ‘녀’는 중세국어에서 ‘가다, 다니다’ 등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 ‘녀다’의 어간 ‘녀’에 어미 ‘어’가 결합한 것입니다.

한: 기들워 오노라 하니 이런 전초로 오미 더디요라
기다려 온다 하니 이런 까닭으로 오는 것이 더디었다.
기다리면서 오고자 했더니, 이런 이유로 오는 것이 더디었다.

현대 한국어의 ‘기다리다’가 이 자료에는 ‘기들우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노라’는 동사 ‘오다’의 어간에 현재를 표현하는 어미 ‘-노-’가 결합하고, 거기에 1인칭을 나타내는 ‘-오-’가 결합하면서 ‘-노-’의 ‘아래 아[]’가 떨어진 후, 그 뒤에서 어미 ‘-다’가 ‘-라’로 바뀌어서 실현된 어형입니다. 여기서는 현대 한국어로는 문맥을 생각해서 ‘오노라 하니’를 ‘오고자 했더니’로 의역을 했습니다. 앞에 여러 번 나왔지요. ‘더디요라’는 현대 한국어의 ‘더디다’에 이어지는 ‘더디다’의 어간에 1인칭의 어미 ‘-오-’ 그리고 그 뒤에 문장을 끝맺는 ‘-다’가 결합한 것입니다. 이 ‘-다’는 ‘-오-’ 뒤에서 ‘-라’고 바뀐다는 말씀은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더디-’의 두 번째 음절의 모음 ‘의’의 영향으로 ‘요’로 실현되었습니다.

중: 그 버디 이제 미쳐 올라 못 올라
그 벗이 이제 미쳐 올라 못 올라?
그 친구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 못 올라?

‘올라’의 어미는 현대 한국어의 ‘-르까’와 동일한 발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표기에서만 ‘-르가’로 실현된 겁니다. 이 표현은 중세국어 자료에서 ‘-르가’로도 실현되기도 했지만, ‘-ㄹ가’ 또는 ‘-르까’로도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어와 발음이 같다고 한 것입니다.

한: 이 버디 곧 그니 어제 곳 오다
이 벗이 곳 그이니 어제 갔 왔다.
이 친구가 바로 그 사람이니, 어제 막 왔다.

‘그니’는 대명사 ‘그’에 ‘-이니’가 결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다’는 어간 ‘오-’에 어미 ‘-다’가 결합한 것인데, 여기에 현재를 나타내는 ‘-노-’와 같은 시제 표현이 없어서 ‘왔다’로 해석하였습니다. 이 ‘오다’는 제3자인 ‘벗’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자리에 나를 표현하는 1인칭이 온다면 이 ‘오다’는 앞에서 보았던 ‘오라’가 되었겠지요.

중: 네 이듯 그믄씩 北京(북경)의 갈가 가디 못 훌가
네가 이달의 그믄께 북경에 갈까 가지 못할까?

너는 이달의 마지막날 즈음 북경에 갈까 가지 못할까?

‘가디’의 어미 ‘-디’는 구개음화를 거쳐 현대 한국어의 ‘-지’가 되었습니다.

한: 모로리로다 그 마를 엇디 니르리오
모르겠도다. 그 말을 어찌 이르겠는가?
모르겠구나. 그 말을 어찌 말하겠는가?

‘엇디’의 두 번째 음절은 구개음화를 거쳐서 ‘지’가 됩니다. 그러면 ‘엇지’가 될 테고 이것이 현대 한국어의 ‘어찌’가 된 겁니다.

한: 하늘히 어엿비 너기샤 모미 편안하면 가리라
하늘이 어여빠 여기시어 몸이 편안하면 갈 것이다.
하늘이 불쌍하게 생각하시어, 몸이 편안하면 이달 그믐까지 갈 것이다.

여기서 ‘어엿비’는 이 수업의 첫 시간에 《훈민정음(언해)》를 읽으면서 다루었던 단어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엿브다’는 외형적으로는 현대 한국어의 ‘예쁘다’에 이어지지만 중세국어 시기에는 ‘불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언해)》에는 세종이 백성을 ‘어엿비 너겨’ 28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중세국어 시기로 올라가니까 문법적으로 복잡해졌지요? 중세국어와 현대 한국어의 의문형 어미도 다르고 시제 표현도 다르고, 당시에는 현대 한국어에는 없는 1인칭 어미 같은 것도 있고 해서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간부터 진행되고 있는 중세국어 자료에 이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때그때 그러한 내용을 머릿속에 흔적으로만 남겨두셔도 결국에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문법적인 내용들을 너무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여러분이 원문을 먼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읽은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간단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번의 밑줄 친 대화를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큰형님 네 어드러로서부터 온다 / 내 高麗(고려) 王京(왕경)으로서부터 오라
큰형님(형씨), 당신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 나는 고려 왕경에서부터 왔다.

②번의 밑줄 친 대화를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드러 가는다 / 내 北京(북경) 향하야 가노라
이제 어디 가는가? / 나는 북경 향하여 간다.

③ 번의 밑줄 친 대화를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 王京(왕경)의셔 떠난다 / 내 이뉘 초흐룻날 王京(왕경)의셔 떠나라
너는 언제 왕경에서 떠났는가? / 나는 이번 달의 첫째 날 왕경에서 떠났다.

④ 번의 밑줄 친 대화를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뭇 이뭇 초하룻날 王京(왕경)의셔 떠나거니 이제 반 두리로디 엇디 앓가사 예 오노
이미 이번 달의 초하룻날 왕경에서 떠났는데 이제 반 달이 지났는데 왜 아까 돼서야 여기에
왔는가?

⑤ 번의 밑줄 친 대화를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훈 버디 떠디여 올시 내 길 조차 날회여 녀 기들워 오노라 하니 이런 전초로 오미 더디
요라

내 친구 한 사람이 떨어져 오므로 내가 길을 따라서 천천히 와서 기다리면서 오고자 했더
니, 이런 이유로 오는 것이 더디었다.

⑥ 번의 밑줄 친 대화를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버디 이제 미쳐 올가 못 올가 / 이 버디 곧 그니 어재 곳 오다
그 친구가 이제 여기까지 올까 못 올까? / 이 친구가 바로 그 사람이니, 어제 막 왔다.

⑦ 번의 밑줄 친 질문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뭇 그믐씩 北京(북경)의 갈가 가디 못 흘가
너는 이달 마지막날 쯤에 북경에 갈까 가지 못할까?

⑧ 번의 밑줄 친 답변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로리로다 그 말을 엇디 니르리오 하늘히 어엿비 너기샤 모미 편안하면 가리라
모르겠구나. 그 말을 어찌 말하겠는가? 하늘이 불쌍하게 생각하시어, 몸이 편안하면 이달
그믐까지 갈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읽은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읽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큰형님 네 어드러로서브터 온다
내 高麗(고려) 王京(왕경)으로서브터 오라

이제 어드러 가는다
내 北京(북경) 향하야 가노라

네 언제 王京(왕경)의셔 떠난다
내 이뭇 초하룻날 王京(왕경)의셔 떠나라

이뭇 이뭇 초하룻날 王京(왕경)의셔 떠나거니 이제 반 두리로디 엇디 앓가사 예 오노
내 훈 버디 떠디여 올시 내 길 조차 날회여 녀 기들워 오노라 하니 이런 전초로 오미 더디
요라

그 버디 이제 미쳐 올가 못 올가
이 버디 곧 그니 어재 곳 오다

네 이뵈 그믄씨 北京(북경)의 갈가 가디 몬 흘가
모로리로다 그 마를 엇디 니르리오 하늘히 어엿비 너기샤 모미 편안흐면 가리라

4. '번역노결대(1517년)' 강독2

이번에는 중국어를 어디서 배웠는지 묻고 답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중: 너는 高麗(고려)사사르미어시니또엇디 漢語(한어)닐오미잘흐노뇨
한: 내 漢兒人(한아인)의손디글비호니이런전초로저그나 漢語(한어)아노라

중: 네뉘손디글비혼다
한: 내되혹당의셔글비호라

두 개의 대화쌍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고려 사람이면서도 중국어를 잘 하는 이유를 물으니까 중국인에게 배워서 그렇다는 답변이고 다른 하나는 누구한테 배웠는지 물으니까 중국인 학교에서 배웠다는 답변입니다.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어디서 띄어쓰기를 하면 좋을지 생각하며 자료를 봐 주시면 후기 중세 한국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 너는 高麗(고려)사사르미어시니또엇디 漢語(한어)닐오미잘흐노뇨
한: 내 漢兒人(한아인)의손디글비호니이런전초로저그나 漢語(한어)아노라

중: 네뉘손디글비혼다
한: 내되혹당의셔글비호라

이번에는 현대 한국어의 띄어쓰기 방식을 따라서 띄어쓰기를 해 놓고 읽어보겠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에 표시를 하시면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중: 너는 高麗(고려)사 사르미어시니 또 엇디 漢語(한어) 닐오미 잘 흐노뇨
한: 내 漢兒人(한아인)의손디 글 비호니 이런 전초로 저그나 漢語(한어) 아노라

중: 네 뉘손디 글 비혼다
한: 내 되 혹당의셔 글 비호라

다시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 표시를 하면서 제가 읽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 너는 高麗(고려)사 사르미어시니 또 엇디 漢語(한어) 닐오미 잘 흐노뇨
한: 내 漢兒人(한아인)의손디 글 비호니 이런 전초로 저그나 漢語(한어) 아노라

중: 네 뉘손디 글 비혼다

한: 내 되 흑당의셔 글 비호라

어떻습니까? 몇 개의 단어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법 형태소 등은 앞에서 여러 번 나온 것들인데, 완전히 새롭지는 않지요? 다음으로는 현대 한국어의 번역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던 단어와 이 수업에서 들었었는데 잊어버린 문법 형태소들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 너는 高麗(고려)사 사르미어시니 또 엇디 漢語(한어) 닐오미 잘 흐느뇨

너는 고려의 사람이거니와, 또 어찌 중국어 말함이 잘 하는가?

너는 고려의 사람이 분명한데, 또 어찌 중국어 말함을 잘 하는가?

한: 내 漢兒人(한아인)의손디 글 비호니 이런 전초로 저그나 漢語(한어) 아노라

내가 중국인에게서 글 배우니 이런 이유로 적으나 중국어를 안다.

나는 중국인에게서 글 배우니 이런 까닭으로 조금이지만 중국어를 안다.

중: 네 뉘손디 글 비혼다

네가 누구에게서 글 배웠는가?

너는 누구에게서 글을 배웠는가?

한: 내 되 흑당의셔 글 비호라

내가 중국인 학당에서 글 배웠다.

나는 중국인 학교에서 글 배웠다.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골라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적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 너는 高麗(고려)사 사르미어시니 또 엇디 漢語(한어) 닐오미 잘 흐느뇨

너는 고려의 사람이거니와, 또 어찌 중국어 말함이 잘 하는가?

너는 고려의 사람이 분명한데, 또 어찌 중국어 말함을 잘 하는가?

‘사르미어시니’는 ‘사름’에 ‘이다’의 ‘이’가 결합하고 여기에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거-’가 변한 ‘-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합한 ‘-시-’는 현대 한국어에서 주체를 높이는 ‘-시-’는 아닌데, 현재 그 기능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 문장을 현대 한국어로 번역할 때 분명하다라는 말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닐오미’는 ‘닐옴’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것입니다. ‘닐옴’은 말한다는 뜻을 가지는 ‘니르다’의 어간에 명사형을 만드는 어미 ‘-옴’이 결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잘 흐느뇨’의 ‘-느-’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이고 ‘-뇨’는 의문형 어미입니다.

한: 내 漢兒人(한아인)의손디 글 비호니 이런 전초로 저그나 漢語(한어) 아노라

내가 중국인에게서 글 배우니 이런 이유로 적으나 중국어를 안다.
나는 중국인에게서 글 배우니 이런 까닭으로 조금이지만 중국어를 안다.

‘-의손디’는 ‘-에게서, -에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노라’는 ‘알다’의 어간 ‘알-’에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느-’가 결합하면서 어간의 말음 ‘ㄹ’이 탈락하고 여기에 1인칭의 ‘-오-’와 문장을 끝맺는 ‘-다’가 결합한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느-’와 ‘-오-’가 결합하면 ‘-느-’의 ‘아래 아[·]’가 탈락하고, 어미 ‘-다’는 ‘-오-’ 뒤에서 ‘-라’로 변합니다.

중: 네 뉘손디 글 비혼다
네가 누구에게서 글 배웠는가?
너는 누구에게서 글을 배웠는가?

‘비혼다’는 ‘비호다’에 2인칭의 의문형 어미 ‘-나다’가 결합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소가 결합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비혼다’가 과거로 해석된 겁니다.

한: 내 되혹당의서 글 비호라
내가 중국인 학당에서 글 배웠다.
나는 중국인 학교에서 글 배웠다.

‘혹당’은 규모가 작은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중국을 ‘되’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중국인 학교’를 ‘되혹당’이라고 한 겁니다. ‘비호라’는 ‘배우다’라는 뜻을 가지는 동사의 어간 ‘비호-’에 1인칭의 어미 ‘-오-’와 문장을 끝맺는 ‘-다’가 결합하여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는 ‘-오-’ 뒤에서 ‘-라’로 변했고 ‘비호라’ 역시 과거로 해석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을 떠올리면서 여러분이 원문을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①번의 밑줄 친 대화를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高麗(고려)사 사르미어시니 또 엇디 漢語(한어) 날오미 잘 흐느뇨
너는 고려의 사람이 분명한데, 또 어찌 중국어 말함을 잘 하는가?

②번의 밑줄 친 대화를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漢兒人(한아인)의손디 글 비호니 이런 전초로 저그나 漢語(한어) 아노라
나는 중국인에게서 글 배우니 이런 까닭으로 조금이지만 중국어를 안다.

③번의 밑줄 친 대화를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뉘손디 글 비혼다 / 내 되혹당의서 글 비호라
너는 누구에게서 글을 배웠는가? / 나는 중국인 학교에서 글 배웠다.

다시 한 번 제가 이 대화문들을 읽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는 高麗(고려)사 사르미어시니 쏘 엇디 漢語(한어) 날오미 잘 흐느뇨
내 漢兒人(한아인)의손디 글 비호니 이런 전츠로 저그나 漢語(한어) 아노라

네 뉘손디 글 비훈다
내 되혹당의셔 글 비호라

5. '번역노결대(1517년)' 강독3

이번에는 중국어 학습 내용에 대해 묻고 답하는 장면입니다. 이 대화에서는 중국어를 배울 때 사용되는 교재는 '논어, 맹자, 소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듣고 집에 와서 밥을 먹은 후 학교에 다시 가서 글씨쓰기, 시 기, 외우기를 한 후에 선생님 앞에서 배운 내용을 외우는 과정인 '강'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당시의 중국어 학습 교재가 '논어, 맹자, 소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 네므슴그를비훈다
한: 論語(논어)孟子(맹자)小學(소학)을닐고라

중: 네미실므슴이력흐는다
한: 미실이른새배니러혹당의가스승님씩글듣좁고
 혹당의노하든지비와밥머기못고
 또혹당의가셔품쓰기흐고
 셔품쓰기못고년구헝기흐고
 년구헝기못고글이피흐고
 글입피못고스승님얏피글강흐노라

중: 므슴글을강흐느뇨
한: 小學(소학)論語(논어)孟子(맹자)를강흐노라

여기서 '학교'는 '학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학교보다는 아주 작은 규모라고 말씀드렸지요.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사보다는 명사에서 잘 모르는 단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단어들은 그대로 두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에 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 네므슴그를비훈다
한: 論語(논어)孟子(맹자)小學(소학)을닐고라

중: 네미실므슴이력흐는다
한: 미실이른새배니러혹당의가스승님씩글듣좁고
 혹당의노하든지비와밥머기못고
 또혹당의가셔품쓰기흐고

서품쓰기뭏고년구헝기헝고
년구헝기뭏고글이피헝고
글입피뭏고스승님얹픽글강헝노라

중: 므슴글을강헝노
한: 小學(소학)論語(논어)孟子(맹자)를강헝노라

두 번 제가 읽었는데, 이 자료를 현대 한국어의 띄어쓰기 방식에 맞추어서 다시 써 놓고 읽어보겠습니다.

중: 네 므슴 그를 비훈다
한: 論語(논어) 孟子(맹자) 小學(소학)을 닐고라

중: 네 미실 므슴 이력 헝는다
한: 미실 이른 새배 니러 흑당의 가 스승님씩 글 듣좁고
흑당의 노하든 지빅 와 밥 머기 뭏고
또 흑당의 가 서품쓰기 헝고
서품쓰기 뭏고 년구헝기 헝고
년구헝기 뭏고 글 이피 헝고
글 입피 뭏고 스승님 얹픽 글 강헝노라

중: 므슴 글을 강헝노
한: 小學(소학) 論語(논어) 孟子(맹자)를 강헝노라

몇 단어는 띄어쓰기를 해 놓아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단어들이 현재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다시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우선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에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업 영상을 정지한 후에 여러분이 어려운 단어들을 사전에서 직접 찾아본 후에 이 수업을 다시 시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중: 네 므슴 그를 비훈다
한: 論語(논어) 孟子(맹자) 小學(소학)을 닐고라

중: 네 미실 므슴 이력 헝는다
한: 미실 이른 새배 니러 흑당의 가 스승님씩 글 듣좁고
흑당의 노하든 지빅 와 밥 머기 뭏고
또 흑당의 가 서품쓰기 헝고
서품쓰기 뭏고 년구헝기 헝고
년구헝기 뭏고 글 이피 헝고
글 입피 뭏고 스승님 얹픽 글 강헝노라

중: 므슴 글을 강헝노

한: 小學(소학) 論語(논어) 孟子(맹자)를 강호노라

어떻습니까? 제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약간은 이해가 되는지요? 이번에는 원문과 현대 한국어 번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을 볼 때 어떤 부분이 과거로 해석되는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모름 그를 비훈다
네가 무슨 글을 배웠는가?
너는 무슨 글 배웠는가?

論語(논어) 孟子(맹자) 小學(소학)을 닦고라
논어 맹자 소학을 읽었다.
나는 논어 맹자 소학을 읽었다.

네 미실 모름 이력 호노다
네가 매일 무슨 일 하는가?
너는 매일 무슨 공부 하는가?

미실 이른 새벽 니러 흑당의 가
매일 이른 새벽 일어나 학당에 가
매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스승님의 글 듣잡고
스승님께 글을 삼가 듣고
스승님께 글을 경청하고

흑당의 노하든 지빅 와 밥 머기 못고
학당이 놓으면 집에 와 밥 먹기 마치고
학교가 놓아주면 집에 와서 밥 먹기 마치고

또 흑당의 가 서품 쓰기 호고
또 학당에 가 서품 쓰기 하고
또 학교에 가서 글씨 쓰기 하고

서품 쓰기 못고 년구하기 호고
서품 쓰기 마치고 연구하기 하고
글씨 쓰기 마치고 시구 잇기 하고

년구하기 못고 글 이피 호고
연구하기 마치고 글 읊기 하고
시구 잇기 마치고 글 소리내어 읽기 하고

글 입피 뭇고 스승님 앓피 글 강호노라
글 읊기 마치고 스승님 앞에서 글을 강한다.
글 소리내어 읽기 마치고 스승님 앞에서 외운다.

므슴 글을 강호노
무슨 글을 강하는가?
무슨 글을 외우는가?

小學(소학) 論語(논어) 孟子(맹자)를 강호노라
소학 논어 맹자를 강한다.
소학 논어 맹자를 외운다.

여러분은 번역노걸대의 자료와 현대 한국어 번역을 비교해 보면서 어렵פות하게라도 문법적인 차이를 확인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용을 다시 읽으면서 어휘나 문법 현상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네 므슴 그를 비혼다
네가 무슨 글을 배웠는가?
너는 무슨 글 배웠는가?

‘비혼다’는 ‘비호다’의 어간에 2인칭 의문형 어미 ‘-니다’가 결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형은 과거로 해석됩니다.

論語(논어) 孟子(맹자) 小學(소학)을 닐고라
논어 맹자 소학을 읽었다.
나는 논어 맹자 소학을 읽었다.

‘닐고라’는 어두의 ‘ㄴ’이 모음 ‘이’ 앞에서 탈락하여 현대 한국어의 ‘읽다’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닐고라’는 어간 ‘닐-’에 1인칭 어미 ‘-오-’가 결합하고, 문장을 끝맺는 어미 ‘-다’가 ‘-오-’ 뒤에서 ‘-라’로 변하면서 그 뒤에 다시 결합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시제는 과거입니다.

네 미실 므슴 이력 호는다
네가 매일 무슨 일 하는가?
너는 매일 무슨 공부 하는가?

‘미실’은 현대 한국어의 ‘매일’에 이어집니다. 한자어 ‘일’의 당시 발음이 ‘실’이었는데, ‘실’의 초성에 있는 ‘반치음[ㅅ]’이 모음 사이에서 탈락하여 ‘일’이 되었습니다. ‘이력(履歷)’은 현대 한국어에는 자신의 경력 등을 쓰는 ‘이력서’라는 단어에 들어 있는 한자어인데 여기서는 한자 없이 순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학교에 가서 하는 내용을 묻고 있으므로, ‘이력’이 공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흐는다’는 동사 어간 ‘흐-’에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어미 ‘-느-’가 결합하고, 거기에 2인칭 의문형 어미 ‘-니다’가 결합한 것입니다.

미실 이른 새벽 니러 학당의 가
매일 이른 새벽 일어나 학당에 가
매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현대 한국어의 ‘새벽’은 중세국어에서는 여기 보인 것처럼 ‘새배’ 또는 ‘새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새배’는 부사격 조사 ‘-에’가 없이도 부사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현대 한국어로 번역할 때 조사 ‘-에’를 하나 더 넣어서 ‘새벽에’로 번역하였습니다.

스승님씩 글 듣좁고
스승님께 글을 삼가 듣고
스승님께 글을 경청하고

‘듣좁고’의 ‘-좁-’이라는 어미는 현대 한국어에 없기 때문에, ‘듣좁고’와 같은 경우는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어학에서는 이러한 어미 사용 방법을 ‘객체높임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객체’를 높인다는 뜻인데요, ‘객체’는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 한국어에 살아 있는 객체높임법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 “선생님을 본다.”와 같은 문장에서 ‘선생님’을 높이려면 “선생님을 뵈는다.”라고 해야 합니다. 여기서 ‘뵈다’는 보는 행동의 목적어인 선생님을 높이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다.”라는 문장에 쓰인 ‘모시다’ 역시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쓰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객체높임이라고 합니다. 방금 본 《번역노걸대》의 “스승님씩 글 듣좁고”의 경우는 ‘스승님’을 높이기 위해 ‘듣고’가 아닌 ‘듣좁고’가 된 것입니다. ‘들어모신다’라는 표현은 없으므로 ‘모셔서 듣고’ 정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는 이 상황에 대해 ‘받들어 듣고’라고 표현한다면 어떤 의미인지 머릿속에 그려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여기서는 현대 한국어 번역으로 ‘삼가 듣고’와 ‘경청하고’ 정도를 제시하였습니다.

학당의 노하든 지빅 와 밥 머기 뭏고
학당에서 놓거든 집에 와 밥 먹기 마치고
학교가 놓아주면 집에 와서 밥 먹기 마치고

‘학당의 노하든’은 ‘방학(放學)’이라는 한자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 ‘방학’은 여름이나 겨울에 길게 쉬는 기간이지만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다가 집에 가서 다시 밥을 먹고 오라고 잠시 쉬는 시간을 여기서는 ‘방학’이라고 표현하였고, 그 번역이 ‘학당의 노하든’이 된 겁니다. ‘노하든’은 ‘놓다’의 어간에 조건을 나타내는 어미 ‘-아든’이 결합한 것입니다. 현대 한국어의 어미 ‘-거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밥 머기’의 ‘머기’는 ‘먹다’의 어간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현대 한국어에서는 ‘-기’가 결합합니다. ‘뭏고’는 ‘ㄷ’으로 끝나는 ‘뭏다’의 활용형인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마치고’가 되었습니다.

또 학당의 가 서품 쓰기 하고
또 학당에 가 서품 쓰기 하고
또 학교에 가서 글씨 쓰기 하고

‘서품(書品)’은 한자어인데 글씨 쓰기 교과서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서품 쓰기’ 자체를 ‘글씨 쓰기’로 번역하였습니다.

서품 쓰기 못하고 연구하기 하고
서품 쓰기 마치고 연구하기 하고
글씨 쓰기 마치고 시구 잇기 하고

‘연구하기’는 시의 구절을 이어간다는 의미의 ‘연구(聯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구 잇기’로 번역하였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한시를 배운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구하기 못하고 글 이피 하고
연구하기 마치고 글 읊기 하고
시구 잇기 마치고 시 소리내어 읽기 하고

‘글 이피’의 ‘이피’는 ‘잇-’이라는 동사 어간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입니다. 이 ‘잇다’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어떤 것을 소리내어 읽거나 외운다’는 뜻을 가지는 ‘읊다’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세국어에서 ‘글’은 산문과 운문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래의 한문 문장에 ‘시(詩)’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를 소리내어 읽는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글 입피 못하고 스승님 앞피 글 강호노라
글 읊기 마치고 스승님 앞에서 글을 강한다.
글 소리내어 읽기 마치고 스승님 앞에서 외운다.

‘앞피’는 표기 방식이 특이합니다. 이 단어를 철저히 분철을 하였다면 ‘알피’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은 자음 앞에서 ‘앞도’처럼 ‘ㄹ’ 받침의 ‘앞’이 됩니다. 이 자료에 보인 ‘앞피’는 이 ‘앞’과 ‘알피’의 ‘피’가 모두 표기에 나타난 겁니다. 이러한 경우를 표기법에서는 ‘중철’이라고 부르는데 ‘앞’으로 명사를 고정시키면서 모음 앞에서 발음되는 ‘ㅍ’까지 표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므슴 글을 강호노
무슨 글을 강하는가?
무슨 글을 외우는가?

‘강호노’의 ‘강’은 ‘강의실’이라고 할 때의 ‘강(講)’과 동일한 한자어입니다. 예전에는 여기 나오는 ‘학당’이나 ‘서당’에서 배운 글을 선생님 앞에서 외우는 일을 ‘강(講)’이라고 했습니다.

‘흐노뇨’는 동사 어간 ‘흐-’에 현재 시제의 ‘-노-’가 결합하고, 여기에 의문형 어미 ‘뇨’가 결합한 것입니다.

小學(소학) 論語(논어) 孟子(맹자)를 강흐노라
소학 논어 맹자를 강한다.
소학 논어 맹자를 외운다.

‘강흐노라’의 ‘흐노라’는 어간 ‘흐-’에 현재 시제의 ‘-노-’가 결합하고, 거기에 1인칭 어미 ‘오’가 결합한 후 문장을 끝맺는 ‘-다’가 결합한 어형입니다. 이때 현재 시제의 ‘-노-’가 가지고 있던 ‘-아래아’는 어미 ‘-오-’ 앞에서 탈락하였고, 문장을 끝맺는 어미 ‘-다’는 어미 ‘-오-’ 뒤에서 ‘-라’로 바뀌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①의 밑줄 친 대화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므슴 그를 비흔다 / 論語(논어) 孟子(맹자) 小學(소학)을 닐고라
너는 무슨 글 배웠는가? / 논어 맹자 소학을 읽었다.

②의 밑줄 친 질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실 므슴 이력 흐논다
너는 매일 므슴 공부 하는가?

③의 밑줄 친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실 이른 새배 니러 흑당의 가 스승님씩 글 듣좁고
매일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학교에 가 스승님께 글을 삼가 듣고(경청하고)

④의 밑줄 친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흑당의 노하든 지빅 와 밥 머기 뭇고 쏘 흑당의 가 셔품 쓰기 흐고
학교가 놓아주면 집에 와 밥 먹기 마치고 또 학교에 가 글씨 쓰기 하고

⑤의 밑줄 친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셔품 쓰기 뭇고 년구헝기 흐고 년구헝기 뭇고 글 이피 흐고
글씨 쓰기 마치고 시 짓기 하고, 시 짓기 마치고 글 소리내서 읽기 하고

⑥의 밑줄 친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글 입피 뭇고 스승님 앓피 글 강흐노라
글 소리내서 읽기 마치고 스승님 앞에서 글을 강한다.

⑦의 밑줄 친 질문과 답변을 소리 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므슴 글을 강흐노뇨 / 小學(소학) 論語(논어) 孟子(맹자)를 강흐노라

무슨 글을 강하는가? / 소학 논어 맹자를 강한다.

조선 시대에 중국어를 어떤 방식으로 배우는지 이해하셨나요? ‘논어, 맹자, 소학’에 대해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학생들은 ‘글씨 쓰기, 시 짓기, 소리내어 읽기’를 한 후에 선생님 앞에서 외우는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어를 배웠던 겁니다. 제가 전체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중: 네 모습 그를 비훈다

한: 論語(논어) 孟子(맹자) 小學(소학)을 닐고라

중: 네 미실 모습 이력 흐는다

한: 미실 이른 새배 니러 흑당의 가 스승님씩 글 듣좁고

흑당의 노하든 지빅 와 밥 머기 못고

또 흑당의 가 셔품 쓰기 흐고

셔품 쓰기 못고 년구하기 흐고

년구하기 못고 글 이피 흐고

글 입피 못고 스승님 앓피 글 강흐노라

중: 모습 글을 강흐노

한: 小學(소학) 論語(논어) 孟子(맹자)를 강흐노라

6. 정리

오늘은 중세국어의 첫 시간으로 1510년대에 나온 최세진의 《번역노걸대》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최세진이 만든 훈몽자회를 보면서 현대 한국어의 자음의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자료는 지난 시간까지 보던 내용과 비교할 때 문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들이 많아서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 표현 같은 게 현대 한국어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문법 형태소 ‘-느-’가 들어 있지 않은 ‘비호라’와 같은 단어는 과거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미 중에는 1인칭을 나타내는 ‘-오-’라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내가 높은 분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행위의 목적어인 ‘말씀’을 높이면서 실현되는 ‘듣좁고’에서 보았듯이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 어미에 의해 체계적으로 실현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현대 한국어에는 없는 문법이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지는 번역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문법적인 문제들이 처음에는 매우 어려워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글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니까 똑같은 문법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었지요? 이 수업에서는 그러한 어미들이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문법적 차이에 약간은 적응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전에 중국어를 배우던 학교와 선생님 그리고 공부하는 과목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선택형 (10분)

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번역노걸대》에 쓰인 ‘네’는 2인칭 대명사이다.
- ② 《번역노걸대》에 쓰인 ‘王京(왕경)의셔 떠나라’는 명령문이다.
- ③ 《번역노걸대》에 쓰인 의문형 어미 ‘-니다’는 항상 2인칭에 쓰였다.
- ④ 《번역노걸대》에 쓰인 ‘큰형님’은 중국어 ‘다거(大哥)’를 직역한 것이다.

정답: ①

2.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 ① 한문본 《노걸대》는 최세진이 만든 책이다.
- ② 《훈몽자회》에는 한글로 한자의 뜻과 음이 적혀 있다.
- ③ 《번역노걸대》에는 한자 밑에 한자음이 1개씩 달려있다.
- ④ 《번역노걸대》는 개성으로 가는 고려 상인과 중국 상인이 나누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정답: ②

3.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비호라’에 들어 있는 어미 ‘-오-’는 2인칭을 나타냈다.
- ② ‘스승님 앞피 글 강호노라’에서의 ‘앞피’는 중철 표기이다.
- ③ ‘어엿브다’는 중세국어 시기에 ‘불쌍하다’라는 의미를 가졌다.
- ④ 종결어미 ‘-다’는 선어말어미 ‘-오-’ 뒤에서 ‘-라’로 실현되었다.

정답: ①

단답형 (8분)

1. ‘내 高麗(고려) 王京(왕경)으로써브터 오라’의 ‘오라’를 형태소 분석하시오.

: 오- + -오- + -다

2. ‘가난다’와 ‘떠난다’를 분석하고, 각 문법형태소들의 의미를 쓰시오.

: 가- + -ㄴ- [현재 시제] + -니다 [2인칭 의문], 떠나- + -니다 [2인칭 의문]

3. ‘-디 > -지’와 ‘엇디 > 어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음운 변화를 쓰시오.

: 구개음화

나. 토의 (30분)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한글 자음자의 명칭이 어떻게 붙여졌는지 이야기해 보자.

ㄹ(梨乙), ㅁ(眉音), ㅂ(非邑), ㅇ(異凝) ㄱ(其役), ㅅ(池糸), ㅇ(時糸)

다. 과제 (60분)

아래 자료를 현대 한국어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현대어로 바꾸어 쓰시오. 그리고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후기중세 한국어 의문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중: 큰형님네어드러로서브터온다

한: 내高麗(고려)王京(왕경)으로서브터오라

중: 이제어드러가노다

한: 내北京(북경)향하야가노라

중: 네언제王京(왕경)의셔떠난다

한: 내이뉘초하룻날王京(왕경)의셔떠나라

중: 이미이뉘초하룻날王京(왕경)의셔떠나거니

이제반드리로디엇디앗가사예오노

한: 내흔버디떠디여올시내길조차날회여너

기들워오노라하니이런전 초로오미더디요라

중: 그버디이제미쳐올가몬올가

한: 이버디곧기니어재곳오다

중: 네이뉘그믐씩北京(북경)의갈가가디몬홀가

한: 모로리로다그마를엇디니르리오

하늘히어엿비너기샤모미편안하면가리라

■ 참고자료

《번역노걸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훈몽자회》 (디지털 한글박물관)

우리말샘 (우리말샘 바로가기)

고영근(1987/2010),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이기문(1972/1998),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7차시> 16세기 자료 3

■ 학습목표

1. 《번역노걸대》의 표기를 통해 16세기 초반 중세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살핀다.
2. 《번역노걸대》를 통해 현재를 나타내는 시제 표현을 이해한다.
3. 《번역노걸대》를 바탕으로 당시의 외국어 수업이 진행된 방법과 분위기를 파악한다.

■ 강의 목차

1. 도입
2. ‘번역노걸대(1517년)’ 강독4
3. ‘번역노걸대(1517년)’ 강독5
4. ‘번역노걸대(1517년)’ 강독6
5.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도입

안녕하세요? ‘한국어 고전 자료 읽기’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번역노걸대》를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16세기 초반인 중세국어의 문법적 특징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제 표현 중 어떤 것들이 과거를 나타내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오늘은 현재 시제에 대한 설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번역노걸대》를 읽으면서 당시에 외국어 수업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수업 분위기는 어땠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 내용 중에는 당시에 중국어를 배우는 이유에 대한 문답도 있는데,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와 비교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 나오는 주인공은 말을 팔러 중국에 간 것이므로, 여러분처럼 대학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목적과는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어 공부를 하는 게 대화의 주인공 자신이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생각인지도 대화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번역노걸대(1517년)’ 강독4

오늘 첫 번째로 읽을 부분은 수업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는 자신이 배운 내용을 외우는 수업 시간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글을 읽어서 해석한 후에 저녁이 다 되면 선생님 앞에 나가서 그날 공부한 것을 외웁니다. 그런데 어떤 정해진 순서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우선 대나무에 학생들의 이름을 써서 통에 넣고 그날의 학생 대표가 통을 흔들어서 자신의 이름이 써 있는 대나무 조각이 뽑힌 학생이 선생님 앞으로 나와서 공부한 내용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외우지 못하면 옆드리게 하고 세 대를 때립니다. 그렇지만 학생이 잘 외우면 그 대나무 조각 위에 다음 번 별을 한 번 면하게 해 준다고 쓰고 선생님이 사인을 해 둡니다. 그러면 학생은 자신이 외우지 못해서 세 대를 맞을 상황이 되었을 때, 선생님이 사인을 해 둔 대나무 조각을 꺼내어 맞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나무 조각은 없애버리는 거지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는 단어들에 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스승’은 선생님을 뜻하고 ‘선비’라는 단어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 글사김ㅎ기뫏고쫏므슴공부ㅎ느뇨
 한: 나죄다듣거든스승님얹피셔사술째혀글외오기ㅎ야
 외오니란스승님이免帖(면첩)ㅎ나흘주시고
 ㅎ다가외오디몰ㅎ야든딕실선비ㅎ야어피고세번티느니라

중: 엇디흘시사술째혀글외오기며엇디흘시免帖(면첩)인고
 한: 미ㅎ대쪽애ㅎ선비일흠쓰고
 모든선비일후물다아리써ㅎ사술통애다마
 딕실선비ㅎ야사술통가져다가흔드러
 그둥에ㅎ나째혀째혀니넉고ㅎ야
 문득그사름ㅎ야글외오디외와든스승이免帖(면첩)ㅎ나흘주느니라
 그免帖(면첩)우희세번마조물면ㅎ라ㅎ야쓰고스승이우희쳐두느니라
 ㅎ다가다시사술째혀외오디몰ㅎ야도免帖(면첩)내여히야브리고
 아리외와免帖(면첩)타잇던공오로이번몰외온죄를마초아티기를면ㅎ거니와
 ㅎ다가免帖(면첩)긋업스면일덩세번마조물니브리라

어떤가요? 제가 전체 이야기를 한 후에 읽었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 글사김ㅎ기뫏고쫏므슴공부ㅎ느뇨
 한: 나죄다듣거든스승님얹피셔사술째혀글외오기ㅎ야
 외오니란스승님이免帖(면첩)ㅎ나흘주시고
 ㅎ다가외오디몰ㅎ야든딕실선비ㅎ야어피고세번티느니라

중: 엇디흘시사술째혀글외오기며엇디흘시免帖(면첩)인고
 한: 미ㅎ대쪽애ㅎ선비일흠쓰고
 모든선비일후물다아리써ㅎ사술통애다마

덕실선비 ㅎ야사술통가져다가흔드리
 그똥에 ㅎ나빠혀빠혀니넛고 ㅎ야
 문득그사람 ㅎ야글외오디외와든스승이免帖(면첩) ㅎ나흘주느니
 그免帖(면첩)우희세번마조물면 ㅎ라 ㅎ야쓰고스승이우희쳐두느니라
 ㅎ다가다시사술빠혀외오디문 ㅎ야도免帖(면첩)내여히야브리고
 아리외와免帖(면첩)타잇던공오로이번문외온죄를마초아티기를면 ㅎ거니와
 ㅎ다가免帖(면첩)긋업스면일덩세번마조물니브리라

이해가 되는 부분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 어느 쪽이 더 많은가요? 이번에는 이 내용을 현대 한국어의 띄어쓰기 방법 대로 띄어쓰기를 해 놓고 읽어 보겠습니다.

중: 글 사김 ㅎ기 맞고 쏘 므슴 공부 ㅎ느뇨
 한: 나죄 다든거든 스승님 앓피셔 사술 빠혀 글 외오기 ㅎ야
 외오니란 스승님이 免帖(면첩) ㅎ나흘 주시고
 ㅎ다가 외오디 문 ㅎ야든 덕실 선비 ㅎ야 어피고 세 번 티느니라

중: 엇디흘 시 사술 빠혀 글 외오기며 엇디흘 시 免帖(면첩)인고
 한: 미 ㅎ 대쪽애 ㅎ 선비 일흠 쓰고
 모든 선비 일후물 다 이리 써 ㅎ 사술 통애 다마
 덕실 선비 ㅎ야 사술 통 가져다가 흔드리
 그똥에 ㅎ나 빠혀 빠혀니 넛고 ㅎ야
 문득 그 사람 ㅎ야 글 외오디 외와든 스승이 免帖(면첩) ㅎ나흘 주느니
 그 免帖(면첩) 우희 세 번 마조물 면 ㅎ라 ㅎ야 쓰고 스승이 우희 쳐 두느니라
 ㅎ다가 다시 사술 빠혀 외오디 문 ㅎ야도 免帖(면첩) 내여 히야브리고
 아리 외와 免帖(면첩) 타 잇던 공오로 이번 문 외온 죄를 마초아 티기를 면 ㅎ거니와
 ㅎ다가 免帖(면첩)긋 업스면 일덩 세 번 마조물 니브리라

다시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 글 사김 ㅎ기 맞고 쏘 므슴 공부 ㅎ느뇨
 한: 나죄 다든거든 스승님 앓피셔 사술 빠혀 글 외오기 ㅎ야
 외오니란 스승님이 免帖(면첩) ㅎ나흘 주시고
 ㅎ다가 외오디 문 ㅎ야든 덕실 선비 ㅎ야 어피고 세 번 티느니라

중: 엇디흘 시 사술 빠혀 글 외오기며 엇디흘 시 免帖(면첩)인고
 한: 미 ㅎ 대쪽애 ㅎ 선비 일흠 쓰고
 모든 선비 일후물 다 이리 써 ㅎ 사술 통애 다마
 덕실 선비 ㅎ야 사술 통 가져다가 흔드리
 그똥에 ㅎ나 빠혀 빠혀니 넛고 ㅎ야
 문득 그 사람 ㅎ야 글 외오디 외와든 스승이 免帖(면첩) ㅎ나흘 주느니
 그 免帖(면첩) 우희 세 번 마조물 면 ㅎ라 ㅎ야 쓰고 스승이 우희 쳐 두느니라

ㅎ다가 다시 사술 빼혀 외오디 묻ㅎ야도 免帖(면첩) 내여 히야부리고
아리 외와 免帖(면첩) 타 잇던 공오로 이번 묻 외온 죄를 마초아 티기를 면ㅎ거니와
ㅎ다가 免帖(면첩)곳 업스면 일덩 세 번 마조를 니브리라

이제는 각각의 문장을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여 16세기의 자료와 대조하며 읽어보겠습니다

글 사김ㅎ기 뭇고 쏘 므슴 공부 ㅎ느뇨
글 새김하기 마치고 또 무슨 공부하는가?
글 해석하기 끝내고 또 무슨 공부를 하는가?

나죄 다듣거든 스승님 앞피셔 사술 빼혀 글 외오기 ㅎ야
저녁에 다다르거든 스승님 앞에서 대쪽 빼서 글 외우기 하여
저녁이 되면 스승님 앞에서 대쪽을 뽑아서 글 외우기를 하여

외오니란 스승님이 免帖(면첩) ㅎ나홀 주시고
외운 이는 스승님이 면첩 하나를 주시고
외운 사람일랑은 스승님이 ‘별을 면하는 표’ 하나를 주시고

ㅎ다가 외오디 묻ㅎ야든
만일 외우지 못하거든
만일 뽑힌 사람이 외우지 못하면

덕실 선비 ㅎ야 어피고 세 번 티느니라
당번 학생 시켜 옆어지게 하고 세 번 친다.
당번 학생 시켜 외우지 못한 학생을 옆드리게 하고 세 번 때린다.

엇디홀 시 사술 빼혀 글 외오기며
어찌할 것이 대쪽 빼서 글 외우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대쪽 뽑아서 글 외우는 것이며

엇디홀 시 免帖(면첩)인고
어찌할 것이 면첩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별을 면하는 표’ 주는 것인가?

미 ㅎ 대쪽애 ㅎ 선비 일흠 쓰고
매 하나의 대쪽에 한 학생의 이름을 쓰고
각각의 대쪽 하나에 학생 한 사람 이름을 쓰고

모든 선비 일후를 다 이리 써 ㅎ 사술 통애 다마
모든 학생의 이름을 다 이렇게 써서 하나의 대쪽 통애 담아
모든 학생의 이름을 다 이렇게 써서 뽑기를 하는 대쪽 통 하나에 담아

덕실 선비 햏야 사술 통 가져다가 혼드려
당번 학생 시켜 대쪽 통 가져다가 혼들어
당번 학생 시켜서 대쪽 통 가져다가 통을 혼들어

그똥에 햏나 썰혀 썰혀니 뉘고 햏야
그중예 하나 빼서 빼진 사람 누구인가 햏여
그중예 대쪽 하나를 뽑아서 “뽑힌 사람은 누구인가?” 햏여

문득 그 사람 햏야 글 외오요디 외와든 스승이 免帖(면첩) 햏나흘 주느니
문득 그 사람 시켜 글 외우게 하되 외우거든 스승이 면첩 하나를 주니
곧바로 그 사람 시켜 글 외우게 하되, 글을 외우면 스승이 ‘별을 면하는 표’ 하나를 주는데

그 免帖 우희 세 번 마조물 면햏라 햏야 쓰고 스승이 우희 쳐 두느니라
그 면첩 위에 “세 번 맞음을 면햏라.”햏여 쓰고, 스승이 위에 표시해 둔다.
그 면첩 위에 “세 번 맞음을 면햏라.”햏여 쓰고, 스승이 대쪽 위에 사인을 해 둔다.

햏다가 다시 사술 썰혀 외오디 문햏야도 免帖(면첩) 내여 햏야버리고
만일 다시 대쪽 빼서 외우지 못햏여도 면첩 내어서 없애버리고
만일 다시 대쪽 뽑아서 외우지 못햏여도 면첩 꺼내서 없애버리고

아리 외와 免帖(면첩) 타 잇던 공으로 이번 문 외운 죄를 마초아 티기를 면햏거니와
전에 외워서 면첩 탕던 공으로 이번 못 외운 죄를 맞추어 치기를 면햏거니와
전에 외워서 면첩을 탕던 공으로 이번 못 외운 죄를 서로 맞추어서 때리기를 면햏고

햏다가 免帖(면첩)곳 업스면 일덩 세 번 마조물 니브리라
만일 면첩이 없으면 일정햏게 세 번 맞음을 입을 것이다.
만일 바로 이 면첩이 없으면 반드시 세 번 맞음을 당햏 것이다.

어떻습니까? 현대 한국어 번역을 햏께 보니까 “아, 이게 이거구나!” 햏는 생각이 드는 부분
들이 있지요? 이번에는 필요한 부분을 설명햏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디.

글 사김햏기 뉘고 쏘 믁슴 공부 햏느뇨
글 새김햏기 마치고 또 무슨 공부햏는가?
글 햏석햏기 끝내고 또 무슨 공부를 햏는가?

글의 뜻을 알기 쉽게 풀이햏는 것을 ‘새김’이라고 햏는데, 이 ‘새김’은 ‘사김’이라는 단어에
서 제1음절의 모음 ‘아’가 두 번째 음절의 모음 ‘이’의 영향을 받아 ‘애’로 변햏 것입니디. 그
리고 ‘햏느뇨’의 ‘-느-’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이고 ‘-뇨’는 의문형 어미입니디.

나죄 다듣거든 스승님 앞피쳐 사술 썰혀 글 외오기 햏야

저녁에 다다르거든 스승님 앞에서 대쪽 빼서 글 외우기 하여
저녁이 되면 스승님 앞에서 대쪽을 뽑아서 글 외우기를 하여

저녁을 뜻하는 단어는 원래 ‘ㅎ’으로 끝나는 ‘나죵’인데 여기에 부사를 만드는 조사가 결합하면 ‘나조히’가 됩니다. 이 ‘나조히’가 변화를 입어서 이 자료에 보인 ‘나죄’가 되었습니다. 현대 한국어의 ‘다다르다’는 중세국어 시기에는 ‘ㄷ’ 불규칙동사로 ‘다든다, 다드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인 ‘다듣거든’은 중세국어라면 일반적으로 ‘다듣거든’으로 표기되었어야 하는데 두 번째 음절이 모음 ‘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한국어에서 물건이나 종이에 표시를 해 놓고 그것들 중 하나를 뽑아서 승부나 차례를 정하는 것을 제비뽑기라고 하는데, 이러한 제비뽑기를 하기 위한 대나무 조각이 ‘사술’입니다. 그리고 ‘빼혀다’는 현대 한국어의 ‘빼다’ 또는 ‘빼어지다’ 즉 ‘뽑다’나 ‘뽑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 단어입니다.

외오니란 스승님이 免帖(면첩) 하나 훔 주시고
외운 이는 스승님이 면첩 하나를 주시고
외운 사람일랑은 스승님이 ‘벌을 면하는 표’ 하나를 주시고

동사 ‘외오다’의 어간에 어미 ‘-ㄴ’이 결합하고, 거기에 사람을 뜻하는 ‘이’가 결합하면 ‘외오니’가 됩니다. 이것은 외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여기에 문법형태소 ‘-란’이 결합하여서 ‘외오니란’이 되었습니다. 이 ‘-란’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주로 대화체에서만 쓰이는데 문법 형태소 ‘-일랑’에 해당합니다. 이 형태소는 ‘미련일랑 두지 말자’와 같은 표현에 쓰이는데 ‘미련일랑’은 ‘미련이라는 것은’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외오니란’의 ‘란’은 번역하지 않고 ‘외운 사람은’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면첩’은 ‘벌을 면하게 하는 표’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를 나타내는 ‘하나’는 중세국어에서는 ‘ㅎ’으로 끝나는 ‘하날’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조사 ‘-도’가 결합하면 ‘하나토’가 되고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하면 ‘하나훔’이 됩니다.

하다가 외오디 묻혀야든
만일 외우지 못하거든
만일 뽑힌 사람이 외우지 못하면

중세국어에서 ‘다가’는 현대 한국어처럼 ‘어떤 행위를 하는 중간에’라는 뜻보다는 ‘만일, 만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 표현입니다. ‘외오디’의 ‘-디’는 구개음화에 의해 현대 한국어에서는 ‘-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야든’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하거든’에 해당합니다.

딕실 선비 하야 어피고 세 번 티느니라
당번 학생 시켜 엎어지게 하고 세 번 친다.
당번 학생 시켜 외우지 못한 학생을 엎드리게 하고 세 번 때린다.

‘딕실’의 ‘딕’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직’이 되었고, ‘실’의 초성 ‘반치음[Δ]’은 탈락하여 날짜를 뜻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날 공부 이외에 선생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학생을 ‘딕실 선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피고’는 등에 업는다는 뜻의 ‘업히고’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엿드리다’의 ‘엿’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티느니라’는 동사 ‘티다’에 현재를 나타내는 어미 ‘-느-’가 결합한 것입니다. ‘티다’는 구개음화에 의해 현대 한국어에서는 때린다는 뜻의 ‘치다’가 되었습니다.

엿디훔 시 사슬 빼혀 글 외오기며
어찌할 것이 대쪽 빼서 글 외우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대쪽 뽑아서 글 외우는 것이며

여기서 ‘엿디훔 시’의 ‘디’는 구개음화에 의해 ‘지’가 된 후, ‘엇지’가 ‘어찌’로 변하여 현대 한국어의 어형이 되었습니다. 중세국어에는 의존명사 ‘스’가 있었는데, 여기에 주격조사가 결합하면서 ‘스’의 모음 ‘아래 아[·]’가 탈락하여 ‘시’가 되었습니다.

엿디훔 시 免帖인고
어찌할 것이 면첩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별을 면하는 표’ 주는 것인가?

중세국어나 현대 한국어 모두 의문문은 의문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설명의문문과 판정의문문으로 나뉩니다. 의문사가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의문문이라고 하고, ‘예, 아니오’라는 답변을 필요로 하는 의문문은 판정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인 문장은 ‘엿디’라는 의문사가 있으므로 답변에는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세국어에서 설명의문문의 의문형 어미는 ‘-고’가 사용되었습니다. 만약 이 문장이 판정의문문이었다면 의문형 어미는 ‘-가’가 사용되었을 겁니다.

미 훈 대쪽에 훈 선비 일흠 쓰고
매 하나의 대쪽에 한 학생의 이름을 쓰고
각각의 대쪽 하나에 학생 한 사람 이름을 쓰고

‘대쪽에’를 보면 조사 ‘-애’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조사 앞의 명사가 ‘우, 어’ 등 음성모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에’가 쓰였을 겁니다. 이 시기에는 ‘쪽’의 초성 ‘ㅈ’은 ‘ㅊ’과 ‘ㅉ’ 모두 발음되었지만 오늘 이 수업에서는 ‘ㅉ’으로 읽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선비 일후를 다 이리 써 훈 사슬 통애 다마
모든 학생의 이름을 다 이렇게 써서 하나의 대쪽 통애 담아
모든 학생의 이름을 다 이렇게 써서 뽑기하는 대쪽 통 하나에 담아

‘일후를’은 ‘일흠’이라는 명사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어형입니다. 여기서 ‘ㅎ’이 탈락하고 모음 ‘우’가 ‘으’로 변하여 현대 한국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덕실 선비 ㅎ야 사슬 통 가져다가 흔드러
당번 학생 시켜 대쪽 통 가져다가 흔들어
당번 학생 시켜서 대쪽 통 가져다가 통을 흔들어

‘햐’는 ‘하게 하여, 시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다’의 활용형입니다. 중세국어에서는 ‘히’의 모음은 이중모음이었기 때문에 ‘햐’와 같이 발음되었습니다. 여기에 어미 ‘-아’가 결합하면 ‘햐’로 실현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중에 햐나 햐혀 햐혀니 닐고 햐야
그중에 하나 햐서 햐진 사람 누구인가 하여
그중에 대쪽 하나를 햐아서 “햐힌 사람은 누구인가?” 하여

‘햐혀니’는 어간 ‘햐혀-’에 어미 ‘-니’가 결합하고, 거기에 사람을 뜻하는 명사 ‘이’가 결합한 어형입니다. 이 ‘햐혀다’는 현대 한국어의 ‘햐다’ 또는 ‘햐어지다’ 즉 ‘햐다’나 ‘햐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 단어입니다.

문득 그 사람 햐야 글 외오요디 외와든 스승이 免帖(면첩) 햐나흘 주느니
문득 그 사람 시켜 글 외우게 하되 외우거든 스승이 면첩 하나를 주니
곧바로 그 사람 시켜 글 외우게 하되, 글을 외우면 스승이 ‘별을 면하는 표’ 하나를 주는데

‘문득’은 첫 번째 음절의 ‘ㅁ’ 뒤에서 모음 ‘으’가 ‘우’로 변하여서 현대 한국어의 ‘문득’이 되었습니다. ‘문득’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의식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이 자료에서 사용된 것처럼 ‘곧바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오요디’는 현대 한국어에서 ‘외우다’가 된 동사 ‘외오다’의 어간에 시킨다는 의미의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외오이’가 되고 거기에 어미 ‘-오디’가 결합한 어형입니다. 이 ‘-오디’는 현대 한국어의 ‘-되’에 이어집니다. 현대 한국어의 어미 ‘-되’는 “햇볕은 강하되 바람이 불어 덥지는 않다.”와 같은 문장에서 보듯이 문장에서 앞과 뒤의 대립적인 사실을 이어주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어미는 약간은 예스러운 느낌이 나니까, 여러분은 이해의 차원에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햐나흘’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수를 나타내는 ‘하나’는 중세국어에서는 ‘ㅎ’으로 끝나는 ‘햐날’였기 때문에, 이 단어에 조사 ‘-도’가 결합하면 ‘햐나토’가 되고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하면 ‘햐나흘’이 됩니다. ‘주느니’의 ‘-느-’는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어미입니다.

그 免帖 우희 세 번 마조물 면햐라 햐야 쓰고 스승이 우희 쳐 두느니라
그 면첩 위에 “세 번 맞음을 면햐라.”하여 쓰고, 스승이 위에 표시해 둔다.
그 면첩 위에 “세 번 맞음을 면햐라.”하여 쓰고, 스승이 대쪽 위에 사인을 해 둔다.

현대 한국어의 ‘워’는 중세국어 시기에는 ‘ㅎ’으로 끝나는 명사 ‘웁’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의’가 결합할 때 ‘우희’가 된 겁니다. ‘쳐 두느니라’의 ‘쳐’는 동사 ‘치다’의 활용형입니다. 이 ‘치다’는 붓이나 연필 등으로 점을 찍거나 선이나 그림을 그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 ‘밑줄을 치다’와 같은 표현에서 그 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치다’가 면첩 위에 ‘세 번 마조물 면햐라’라고 쓰고 그 위에 표시를 해 두는 행위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느니라’의 ‘-느-’는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어

미입니다.

ㅎ다가 다시 사술 빼혀 외오디 못ㅎ야도 免帖(면첩) 내여 히야브리고
만일 다시 대쪽 빼서 외우지 못하여도 면첩 내어서 없애버리고
만일 다시 대쪽 뽑아서 외우지 못해도 면첩 꺼내서 없애버리고

중세국어에서 ‘히야브리다’는 ‘없애버리다, 헐어버리다, 망그러뜨리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히야브리다’의 ‘히야’는 ‘디다’와 결합하여 ‘히야디다’로도 실현되었는데, 이 단어는 현대 한국어에서 “닿아서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는 ‘해어지다’가 됩니다. 이 말은 줄어들면 ‘해지다’가 되는데, 이 단어는 옷이 닳아서 너덜너덜해졌을 때 사용하는 “옷이 해졌다.”와 같은 표현에 사용됩니다.

아리 외와 免帖(면첩) 타 잇던 공으로 이번 못 외운 죄를 마초아 티기를 면ㅎ거니와
전에 외워서 면첩 탔던 공으로 이번 못 외운 죄를 맞추어 치기를 면하거니와
전에 외워서 면첩을 탔던 공으로 이번 못 외운 죄를 서로 맞추어서 때리기를 면하고

‘아리’는 ‘예전’이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중세국어에서는 ‘예전’이라는 의미로 이 ‘아리’와 형태가 비슷한 ‘아래’라는 단어도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아래’는 공간적인 의미를 뜻하기도 하는데,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는 ‘아래’와는 말의 높낮이인 성조가 달랐습니다. 공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아래’는 첫 번째 음절 ‘아’가 낮은 소리인 평성이었고, 시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아래’는 첫 번째 음절 ‘아’가 처음에는 낮다가 뒷부분에는 높아지는 상성이었습니다. ‘외와’는 ‘외오다’의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한 어형입니다.

ㅎ다가 免帖(면첩)곳 업스면 일덩 세 번 마조믈 니브리라
만일 면첩이 없으면 일정하게 세 번 맞음을 입을 것이다.
만일 바로 이 면첩이 없으면 반드시 세 번 맞음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 ‘免帖(면첩)곳’의 ‘곳’은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라는 표현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조믈’은 ‘맞다’라는 동사의 어간에 명사를 만드는 ‘-음’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어형입니다.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반복되는 내용들은 약간씩 이해가 되지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원문을 여러분이 먼저 읽고, 제가 그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①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글 사김ㅎ기 뭇고 쏘 므슴 공부 ㅎ느뇨
글 해석하기 끝내고 또 무슨 공부를 하는가?

②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죄 다듣거든 스승님 앞피셔 사술 빼혀 글 외오기 ㅎ야
저녁이 되면 스승님 앞에서 대쪽을 뽑아서 글 외우기를 하여

③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외오니라 스승님이 免帖(면첩) 하나를 주시고

외운 사람일랑은 스승님이 ‘별을 면하는 표’ 하나를 주시고

④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ㅎ다가 외오디 몰ㅎ야든 덕실 선비 ㅎ야 어피고 세 번 티느니라

만일 뽑힌 사람이 외우지 못하면 당번 학생 시켜 외우지 못한 학생을 엿드리게 하고 세 번 때린다.

⑤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엇디홀 시 사술 빼혀 글 외오기며 엇디홀 시 免帖(면첩)인고

어떻게 하는 것이 대쪽 뽑아서 글 외우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별을 면하는 표’ 주는 것인가?

⑥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미 ㅎن 대쪽애 ㅎ 선비 일흠 쓰고 모든 선비 일후믈 다 이리 써 ㅎ 사술 통애 다마

각각의 대쪽 하나에 학생 한 사람 이름을 쓰고, 모든 학생의 이름을 다 이렇게 써서 뽑기하는 대쪽 통 하나에 담아

⑦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덕실 선비 ㅎ야 사술 통 가져다가 흔드러

당번 학생 시켜서 대쪽 통 가져다가 통을 흔들어

⑧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ㅎ나 빼혀 빼혀니 뉘고 ㅎ야

그중에 대쪽 하나를 뽑아서 “뽑힌 사람은 누구인가?” 하여

⑨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문득 그 사름 ㅎ야 글 외오요디 외와든 스승이 免帖(면첩) 하나를 주느니

곧바로 그 사람 시켜 글 외우게 하되, 글을 외우면 스승이 ‘별을 면하는 표’ 하나를 주는데

⑩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免帖(면첩) 우희 세 번 마조물 면ㅎ라 ㅎ야 쓰고, 스승이 우희 쳐 두느니라

그 면첩 위에 “세 번 맞음을 면하라.”하여 쓰고, 스승이 대쪽 위에 사인을 해 둔다.

⑪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ㅎ다가 다시 사술 빼혀 외오디 몰ㅎ야도 免帖(면첩) 내여 히야브리고

만일 다시 대쪽 뽑아서 외우지 못해도 면첩 꺼내서 없애버리고

⑫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리 외와 免帖(면첩) 타 잇던 공오로 이번 못 외온 죄를 마초아 티기를 면허거니와 전에 외워서 면첩을 탕던 공오로 이번 못 외온 죄를 서로 맞추어서 때리기를 면하고

㉓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허다가 免帖(면첩)곳 업스면 일덩 세 번 마조물 니브리라
만일 바로 이 면첩이 없으면 반드시 세 번 맞음을 당할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읽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중: 글 사김허기 맞고 쏘 므슴 공부 허느뇨

한: 나죄 다듣거든 스승님 앓피셔 사술 빼허 글 외오기 허야
외오니란 스승님이 免帖(면첩) 허나할 주시고
허다가 외오디 못허야든 덕실 선비 허야 어피고 세 번 티느니라

중: 엇디홀 시 사술 빼허 글 외오기며 엇디홀 시 免帖(면첩)인고

한: 미 허 대쪽애 허 선비 일흠 쓰고
모든 선비 일후물 다 이리 써 허 사술 통애 다마
덕실 선비 허야 사술 통 가져다가 혼드러
그중에 허나 빼허 빼허니 닛고 허야
문득 그 사름 허야 글 외오요디 외와든 스승이 免帖(면첩) 허나할 주느니
그 免帖(면첩) 우희 세 번 마조물 면허라 허야 쓰고 스승이 우희 처 두느니라
허다가 다시 사술 빼허 외오디 못허야도 免帖(면첩) 내여 히야브리고
아리 외와 免帖(면첩) 타 잇던 공오로 이번 못 외온 죄를 마초아 티기를 면허거니와
허다가 免帖(면첩)곳 업스면 일덩 세 번 마조물 니브리라

3. '번역노걸대(1517년)' 강독5

다음으로는 중국어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 서로 묻고 답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중: 너는 高麗(고려)사사르미어시니 漢人의 글비화므슴홀다

한: 네닐옴도올타커니와각각사르미다웃듬으로보미잇느니라

중: 네므슴웃듬보미잇느뇨네니르라내드로마

한: 이제도당이턴하를 一統(일통)허야겨시니

세간에쓰노니 漢人(한인)의마리니

우리가 高麗(고려)사말소문다문 高麗(고려)사짜해만쓰는거시오

義州(의주)디나 中朝(중조)짜해오면다 漢語(한어)허느니

아되나허마를무려든쪼디답디못허면

다른사르미우리를다가므슴사르물사마보리오

몇 단어는 쉽게 이해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아직은 많지요?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처

음 읽을 때보다 한두 단어 더 눈에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중: 너는 高麗(고려)사사르미어시니 漢人의 글 비화 므슴 흘다
한: 네 날음도 올타커니와 각각 사르미 다 웃듬으로 보미 잇느니라
중: 네 므슴 웃듬 보미 잇느뇨 네 니르라 내 드로마
한: 이제 도덩이 텨하를 一統(일통)햏야겨시니
세간에 쓰노니 漢人(한인)의 마리니
우리가 高麗(고려)사 말소문 다른 高麗(고려)사 짜해만 쓰는 거시오
義州(의주) 디나 中朝(중조) 짜해 오면 다 漢語(한어) 햏느니
아되나 햏 마를 무려든 쏘 디답디 몬 햏면
다른 사르미 우리를다가 므슴 사르물 사마 보리오

다음으로는 현대 한국어와 같은 방식으로 띄어쓰기를 해 놓고 읽겠습니다. 고려 사람이 중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 너는 高麗(고려)사 사르미어시니 漢人의 글 비화 므슴 흘다
한: 네 날음도 올타커니와 각각 사르미 다 웃듬으로 보미 잇느니라
중: 네 므슴 웃듬 보미 잇느뇨 네 니르라 내 드로마
한: 이제 도덩이 텨하를 一統(일통)햏야겨시니
세간에 쓰노니 漢人(한인)의 마리니
우리 이 高麗(고려)사 말소문 다른 高麗(고려)사 짜해만 쓰는 거시오
義州(의주) 디나 中朝(중조) 짜해 오면 다 漢語(한어) 햏느니
아되나 햏 마를 무려든 쏘 디답디 몬 햏면
다른 사르미 우리를다가 므슴 사르물 사마 보리오

다시 읽겠습니다. 고려의 말은 고려 땅에서만 쓰고 의주를 지나면 전부 중국어를 쓴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시면서 읽으시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 너는 高麗(고려)사 사르미어시니 漢人의 글 비화 므슴 흘다
한: 네 날음도 올타커니와 각각 사르미 다 웃듬으로 보미 잇느니라
중: 네 므슴 웃듬 보미 잇느뇨 네 니르라 내 드로마
한: 이제 도덩이 텨하를 一統(일통)햏야겨시니
세간에 쓰노니 漢人(한인)의 마리니
우리 이 高麗(고려)사 말소문 다른 高麗(고려)사 짜해만 쓰는 거시오
義州(의주) 디나 中朝(중조) 짜해 오면 다 漢語(한어) 햏느니
아되나 햏 마를 무려든 쏘 디답디 몬 햏면
다른 사르미 우리를다가 므슴 사르물 사마 보리오

어떻습니까? 부분부분 이해가 되는 곳들이 있으셨는지요? 이제 원문과 두 단계의 번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읽으면서 여러분이 예상했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 너는 高麗(고려)사 사르미어시니 漢人(한인)의 글 비화 므슴 홀다
너는 고려 사람이거늘 한인(漢人)의 글 배워 무엇 할 것인가?
너는 고려의 사람이 분명한데 중국인의 글 배워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한: 네 낱음도 올타커니와 각각 사르미 다 웃듬으로 보미 잇느니라
너의 말함도 옳거니와 각각의 사람이 다 으뜸으로 보는 것이 있는 것이다.
네가 말하는 것도 옳지만, 사람마다 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

중: 네 므슴 웃듬 보미 잇느뇨 네 니르라 내 드로마
네가 무슨 으뜸 보는 것이 있는가? 네가 말해라 내가 들으마.
너는 무슨 우선시 하는 것이 있는가? 너는 말해라. 내가 들으마.

한: 이제 요덩이 텨하를 一統하야 거시니 세간에 쓰노니 漢人의 마리니
이제 중국 조정이 천하를 하나로 통일하고 있으니, 세간에서 쓰는 것이 한인의 말이니
이제 중국 조정이 세상을 하나로 통일하고 있으니 세상에서 쓰는 것이 중국말이니

한: 우리 이 高麗(고려)사 말소문 다문 高麗(고려)사 짜해만 쓰는 거시오
우리 이 고려의 말은 다만 고려의 땅에만 쓰는 것이고
우리의 이 고려말은 다만 고려 땅에서만 쓰는 것이고

한: 義州 디나 中朝 짜해 오면 다 漢語 하느니 아미나 훈 마를 무려든 쏘 디답디 몬 하면
의주 지나 중국 땅에 오면 다 한어를 하니, 아무나 한 마디 말을 묻거든 또 대답하지
못하면
의주 지나서 중국 땅에 오면 다 중국어를 하는데, 아무나 말 한 마디 묻는데 대답하지
못하면

한: 다른 사르미 우리를다가 므슴 사르미 사마 보리오
다른 사람이 우리를다가 어떤 사람으로 삼아 보겠는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겠는가?

어떤가요? 번역과 함께 비교해서 보니까 중세국어의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나요? 이제는
16세기 한국어의 문법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며 읽어나가겠습니다.

중: 너는 高麗(고려)사 사르미어시니 漢人(한인)의 글 비화 므슴 홀다
너는 고려 사람이거늘 한인(漢人)의 글 배워 무엇 할 것인가?
너는 고려의 사람이 분명한데, 중국인의 글 배워서 무엇을 할 것인가?

‘므슴 홀다’에는 2인칭 의문형 어미 ‘-르다’가 결합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르’로
인해 이 부분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르미어시니’는

‘사름’에 ‘이다’의 ‘이’가 결합하고 여기에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거-’가 변한 ‘-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문장을 현대 한국어로 번역할 때 분명하다라는 말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합한 ‘-시-’는 현대 한국어에서 주체를 높이는 ‘-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형태소는 현재 그 기능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한: 네 닐옴도 올타커니와 각각 사꺠미 다 웃듬으로 보미 잇느니라
너의 말함도 옳거니와 각각의 사람이 다 으뜸으로 보는 것이 있는 것이다.
네가 말하는 것도 옳지만, 사람마다 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

여기서 ‘네’는 2인칭 대명사 ‘너’에 조사 ‘의’가 결합하면서 ‘의’의 모음 ‘으’가 탈락한 후 ‘너’와 결합한 어형입니다. ‘너’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어형과 형태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수업에서는 설명에서 제외된 말의 높낮이인 성조에서 서로 차이가 납니다. 중세국어에서 ‘너의’가 줄어든 ‘네’는 낮은 소리인 평성이고, ‘너’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네’는 처음에는 낮다가 나중에 높아지는 소리인 상성이었습니다. ‘닐옴’은 말한다는 뜻을 가지는 ‘니르다’의 어간에 명사형을 만드는 어미 ‘-옴’이 결합한 것입니다. ‘잇느니라’에는 현재를 나타내는 문법 형태소 ‘-느-’가 들어 있습니다.

중: 네 므슴 웃듬 보미 잇느뇨 네 니르라 내 드로마
네가 무슨 으뜸 보는 것이 있는가? 내가 말해라 내가 들으마.
너는 무슨 우선시 하는 것이 있는가? 너는 말해라. 내가 들으마.

여기 보이는 두 번의 ‘네’는 모두 2인칭 대명사 ‘너’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어형입니다. 그리고 ‘내’ 역시 1인칭 대명사 ‘나’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어형입니다. ‘잇느뇨’에는 현재를 나타내는 어미 ‘-느-’가 들어 있습니다. ‘드로마’는 ‘듣다/드러’와 같이 불규칙 활용을 하는 동사 어간에 약속을 뜻하면서 문장을 끝내는 종결어미 ‘-오마’가 결합한 어형입니다. 이 ‘-오마’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 일은 내가 맡으마.”와 같은 문장에서 보듯이 약속을 뜻하는 어미 ‘-오마’로 변하였습니다. 현대 한국어의 ‘-오마’는 주로 대화체에서 사용되는 약간은 예스러운 표현입니다.

한: 이제 도덩이 텃하를 一統(일통)하야 겨시니 세간에 쓰노니 漢人(한인)의 마리니
이제 중국 조정이 천하를 하나로 통일하고 있으니, 세간에서 쓰는 것이 한인의 말이니
이제 중국 조정이 세상을 하나로 통일하고 있으니 세상에서 쓰는 것이 중국말이니

여기서 ‘도덩’은 ‘ㄷ’이 ‘요, 여’ 앞에서 ‘ㅈ’으로 변하는 구개음화에 의해 이후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음 ‘요, 여’가 있는 ‘조정’이 되겠지만 ‘ㅈ’ 뒤에서 ‘요’가 ‘오’로 실현되고 ‘여’가 ‘어’로 실현되는 변화를 거쳐서 현재의 ‘조정’이 된 것입니다. ‘겨시니’는 현대 한국어로 한다면 ‘계시니’가 됩니다. 중국의 조정을 높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쓰노니’는 ‘쓰다’의 어간에 현재 시제의 ‘-느-’가 결합하고 거기에 기능이 확실하지 않은 어미 ‘-오-’가 결합한 후 관형형 어미 ‘-니’이 결합한 ‘쓰논’에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대명사 ‘이’가 다시 결합한 어형입니다.

한: 우리 이 高麗(고려)ㅅ 말소믄 다른 高麗(고려)ㅅ 짜해만 쓰는 거시오
우리 이 고려의 말은 다만 고려의 땅에만 쓰는 것이고
우리의 이 고려말은 다만 고려 땅에서만 쓰는 것이고

현대 한국어의 ‘땅’은 이 시기에는 ‘ㅎ’으로 끝나는 ‘짙’였기 때문에 여기에 조사가 결합하여 ‘짜해만’이 된 겁니다. 이 경우는 ‘짙’가 ‘아’라는 모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만’이라는 조사가 사용되지 않고 ‘에만’이라는 조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쓰는’에서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는-’의 결합이 확인됩니다.

한: 義州(의주) 디나 中朝(중조) 짜해 오면 다 漢語(한어) ㅎㄴ니 아되나 ㅎ 마를 무려든
또 디답디 몬 ㅎ면
의주 지나 중국 땅에 오면 다 한어를 하니, 아무나 한 마디 말을 묻거든 또 대답하지 못하면
의주 지나서 중국 땅에 오면 다 중국어를 하는데, 아무나 말 한 마디 묻는데 대답하지 못하면

‘디나다’는 ‘ㄷ’이 모음 ‘이’ 앞에서 ‘ㅈ’이 되는 구개음화를 겪어서 현대 한국어에서 ‘지나다’가 되었습니다. ‘아되나’는 현대 한국어의 ‘아무’에 해당하는 ‘아모’에 “그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의 ‘사람이다’의 ‘이-’와 어미 ‘-나’가 결합한 어형입니다 ‘무려든’은 ‘묻다, 무려’로 활용하는 ‘ㄷ’ 불규칙동사였습니다. ‘무려든’은 이 어간에 현대 한국어에서 “고향에 도착하거나 연락해.”라고 할 때의 조건을 나타내는 어미 ‘-거든’이 결합한 것인데, 이 경우는 ‘-어든’으로 실현되어 있습니다. ‘대답ㅎ디’에서 동사 ‘ㅎ’가 생략되어 ‘디답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답디’의 어미 ‘-디’는 ‘ㄷ’이 모음 ‘이’ 앞에서 ‘ㅈ’이 되는 구개음화를 겪은 후 ‘-지’가 됩니다.

한: 다른 사꺠미 우리를다가 므슴 사꺠물 사마 보리오
다른 사람이 우리를다가 무슨 사람으로 삼아 보겠는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겠는가?

여기 사용된 단어들은 하나하나 모두 현대 한국어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단어들을 연결하여 직역을 하면 현대 한국어로는 어색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겠는가?”로 번역하였습니다.

지금 읽은 부분에는 통일된 중국 땅에서 장사를 하려면 당연히 중국어를 알아야 하고, 중국 땅에 오면 모든 사람이 중국어를 하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으려면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읽은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 읽고, 제가 그 다음에 이어서 번역과 함께 읽겠습니다.

①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高麗(고려)ㅅ 사꺠미어시니 漢人(한인)의 글 비화 므슴 홀다
너는 고려의 사람이 분명한데 중국인의 글 배워서 무엇을 할 것인가?

②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날음도 올타커니와 각각 사르미 다 웃듬으로 보미 잇느니라
네가 말하는 것도 옳지만, 사람마다 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

③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므슴 웃듬 보미 잇느뇨 네 니르라 내 드로마
너는 무슨 우선시 하는 것이 있는가? 너는 말해라. 내가 들으마.

④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덩이 텨하를 一統(일통)햏야 겨시니 세간에 쓰노니 漢人(한인)의 마리니
이제 중국 조정이 세상을 하나로 통일하고 있으니 세상에서 쓰는 것이 중국말이니

⑤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高麗(고려)스 말소믄 다른 高麗(고려)스 짜해만 쓰는 거시오
우리의 이 고려말은 다만 고려 땅에서만 쓰는 것이고

⑥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義州(의주) 디나 中朝(중조) 짜해 오면 다 漢語(한어) 햏느니 아미나 햏 마를 무려든 쏘 디
답디 몬 햏면
의주 지나서 중국 땅에 오면 다 중국어를 하는데, 아무나 말 한 마디 묻는데 대답하지 못하
면

⑦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르미 우리를다가 므슴 사르물 사마 보리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겠는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리를 겸해서 방금 읽은 내용을 다시 읽겠습니다.

중: 너는 高麗(고려)스 사르미어시니 漢人의 글 비화 므슴 훗다

한: 네 날음도 올타커니와 각각 사르미 다 웃듬으로 보미 잇느니라

중: 네 므슴 웃듬 보미 잇느뇨 네 니르라 내 드로마

한: 이제 도덩이 텨하를 一統(일통)햏야 겨시니

세간에 쓰노니 漢人(한인)의 마리니

우리 이 高麗(고려)스 말소믄 다른 高麗(고려)스 짜해만 쓰는 거시오

義州(의주) 디나 中朝(중조) 짜해 오면 다 漢語(한어) 햏느니

아미나 햏 마를 무려든 쏘 디답디 몬 햏면

다른 사르미 우리를다가 므슴 사르물 사마 보리오

4. '번역노걸대(1517년)' 강독6

다음으로는 중국어를 배우는 게 본인의 의지인지를 묻는 내용과 배운 지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하는 내용 등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중: 네이리漢人(한인)손디글비호거니이네 무스모로비호는다

네어버시너를 하야비호라 하시느녀

한: 올하니우리어버시나를 하야비호라 하시느다

중: 네비환디언머오라뇨

한: 내비환디반히남즉하다

중: 알리로소녀아디물허리로소녀

한: 미실漢兒(한아)션비들과 하야훈디셔글비호니이런전 초로저기아노라

내용을 보면 아버지 즉 부모님이 중국어를 배우라고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중: 네이리漢人(한인)손디글비호거니이네 무스모로비호는다

네어버시너를 하야비호라 하시느녀

한: 올하니우리어버시나를 하야비호라 하시느다

중: 네비환디언머오라뇨

한: 내비환디반히남즉하다

중: 알리로소녀아디물허리로소녀

한: 미실漢兒(한아)션비들과 하야훈디셔글비호니이런전 초로저기아노라

이번에는 현대 한국어 방식으로 띄어쓰기를 해 놓고 읽겠습니다. 내용 중에는 ‘한아 션비’ 즉 중국 학생들과 함께 배운다는 이야기가 들어 있는데 어느 부분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 네 이리 漢人(한인)손디 글 비호거니 이 네 무스모로 비호는다

네 아버지 너를 하야 비호라 하시느녀

한: 올하니. 우리 아버지 나를 하야 비호라 하시느다

중: 네 비환 디 언머 오라뇨

한: 내 비환 디 반 히 남즉하다

중: 알리로소녀 아디 물허리로소녀

한: 미실 漢兒(한아) 션비들과 하야 훈디셔 글 비호니 이런 전초로 저기 아노라

처음보다는 이해하기가 조금 쉬워지셨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어를 배운지 반 해 즉 반 년이 되었다는 부분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 네 이리 漢人(한인)손디 글 비호거니 이 네 ㅁㅅ모로 비호논다

네 아버지 너를 ㅎ야 비호라 ㅎ시늬녀

한: 올ㅎ니. 우리 아버지 나를 ㅎ야 비호라 ㅎ시늬다

중: 네 비환 디 언머 오라뇨

한: 내 비환 디 반 히 남죽ㅎ다

중: 알리로소녀 아디 ㅁㅎ리로소녀

한: 미실 漢兒(한아) 셴비들과 ㅎ야 ㅎ디셔 글 비호니 이런 전츠로 저기 아노라

이번에는 현대 한국어 번역과 함께 원문을 읽겠습니다. 어떤 부분의 번역이 자신의 생각과 많이 다른지 표시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리 漢人(한인)손디 글 비호거니

네가 이리 한인(漢人)에게 글 배우거늘

너는 이처럼 중국인에게 글을 배우는데

이 네 ㅁㅅ모로 비호논다 네 아버지 너를 ㅎ야 비호라 ㅎ시늬녀

이것은 너의 마음으로 배우는가? 네 아버지 너를 시켜 배우라 하시는가?

이것이 네 생각으로 배우는 것인가? 네 부모가 너한테 배우라고 하시는 것인가?

올ㅎ니. 우리 아버지 나를 ㅎ야 비호라 ㅎ시늬다

옳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시켜 배우라 하신다.

그렇다. 우리 부모가 나에게 배우라 하신다.

네 비환 디 언머 오라뇨 / 내 비환 디 반 히 남죽ㅎ다

네가 배운 지 얼마 오래인가? / 내가 배운 지 반 해 남짓하다.

너는 배운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 나는 배운 지 반 년 조금 넘었다.

알리로소녀 아디 ㅁㅎ리로소녀

알겠는가 알지 못하겠는가?

알겠는가 알지 못하겠는가?

미실 漢兒(한아) 셴비들과 ㅎ야 ㅎ디셔 글 비호니 이런 전츠로 저기 아노라

매일 중국 학생들과 하여 한데서 글 배우니 이런 이유로 적이 안다.

매일 중국 학생들과 함께 글을 배우니 이런 까닭으로 조금 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주로 어휘인가요 아니면 문법적인 내용들인가요? 이번에는 여

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설명을 덧붙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리 漢人(한인)손디 글 비호거니
네가 이리 한인(漢人)에게 글 배우거늘
너는 이처럼 중국인에게 글을 배우는데

‘네’는 2인칭 대명사 ‘너’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어형입니다. ‘-손디’는 일반적으로 ‘-손디’로 실현되는데 여기서는 ‘손디’의 두 번째 음절의 ‘디’에 들어 있는 ‘아래 어[·]’가 ‘으’로 변하였습니다.

이 네 무슨모로 비호논다 네 아버지 너를 호야 비호라 호시느녀
이것은 너의 마음으로 배우는가? 네 아버지 너를 시켜 배우라 하시는가?
이것이 네 생각으로 배우는 것인가? 네 부모가 너한테 배우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 문장에 보이는 ‘네’는 모두 ‘너의’에 해당합니다. ‘비호논다’는 2인칭 의문어미 ‘-나다’가 결합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느-’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세 번째 음절의 초성 ‘반치음[△]’이 모음 사이에서 탈락하여 현대 한국어에서는 부모를 뜻하는 ‘아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야’는 앞에서도 나왔지만 ‘하게 하여, 시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다’의 활용형입니다. 중세국어에서는 ‘히’의 모음은 이중모음이었기 때문에 ‘히이’와 같이 발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미 ‘-아’가 결합하면 ‘호야’로 실현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호시느녀’에는 주어를 높이는 ‘-시-’가 들어 있는데, 이 어미의 기능과 용법은 현대 한국어와 동일합니다. 여기에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느-’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어미 ‘-녀’로 끝났는데, 이것은 그렇다 아니다와 같은 답변을 기대하는 판정의문문입니다. 여기에 만약 의문사가 있다면 설명의문문이 되면서 어미는 ‘-뇨’가 되었을 겁니다.

올호니. 우리 아버지 나를 호야 비호라 호시느다
옳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시켜 배우라 하신다.
그렇다. 우리 부모가 나에게 배우라 하신다.

‘올호니’는 앞 문장에서 물어본 판정의문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호야’는 앞에서도 보았지만 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시느다’에는 이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어미인 ‘-시-’와 현재 시제를 표시하는 ‘-느-’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시느다’가 현대 한국어에서 ‘하신다’로 번역된 겁니다.

네 비환 디 언머 오라뇨 / 내 비환 디 반 히 남즉하다
네가 배운 지 얼마 오래인가? / 내가 배운 지 반 해 남짓하다.
너는 배운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 나는 배운 지 반 년 조금 넘었다.

‘비환 디’의 ‘디’는 현대 한국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라뇨’에는 그 앞에 ‘얼마나’라는 뜻을 가지는 의문사 ‘언머’가 들어 있기 때문에 설명의문문의 어미 ‘-뇨’가 사용되었습니다.

알리로소녀 아디 못허리로소녀
알겠는가 알지 못하겠는가?
알겠는가 알지 못하겠는가?

‘알리로소녀’와 ‘못허리로소녀’에는 ‘알다’의 어간 ‘알’ 그리고 ‘못허다’의 ‘ㅎ’ 뒤에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리-’가 결합하고, 거기에 감탄의 의미를 가지는 ‘-도소-’가 결합하였습니다. 이 ‘-도소-’는 ‘-리-’ 뒤에서 ‘-로소-’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감탄의 의미는 현대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리로소녀’와 ‘아디 못허리로소녀’라는 두 문장을 끝맺는 어미가 모두 ‘-녀’로 실현되어 있는데, 이 문장 형식은 의문사가 없으므로 바로 앞에서 본 ‘언머 오라뇨’의 설명의문문과는 달리 ‘그렇다, 아니다’라는 답변을 요구하는 판정의문문입니다. 그리고 ‘아디’는 ‘알다’의 어간 ‘알-’에 어미 ‘-디’가 결합하면서 ‘ㄹ’이 ‘ㄷ’ 앞에서 탈락한 어형입니다.

미실 漢兒(한아) 선비들과 햏야 훈디셔 글 비호니 이런 전츠로 저기 아노라
매일 중국 학생들과 햏여 한데서 글 배우니 이런 이유로 적이 안다.
매일 중국 학생들과 햏여 글 배우니 이런 까담으로 조금 안다.

‘훈디’는 현대 한국어라면 ‘한곳’이나 ‘한군데’를 뜻하는 ‘한데’로 실현될 표현입니다. 이 문장은 바로 앞의 질문이 판정의문문이므로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는 답변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에서 질문한 ‘알겠는가 모르겠는가’에 대해 이 문장에서는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답변할 수 있을 텐데, 어느 한 가지 질문만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다’ 쪽을 택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아노라’가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입니다. ‘아노라’는 ‘알다’의 어간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느-’가 결합하고 거기에 1인칭어미 ‘-오-’가 결합한 후, 이 어미 뒤에서 문장을 끝맺는 어미 ‘-다’가 ‘-라’로 실현되어 만들어진 어형입니다.

지금 읽은 내용에는 중국어 공부는 자신이 직접 결정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시켜서 하였다는 이야기와 중국어를 중국 학생들과 햏여 반 년 정도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읽은 내용을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번역과 햏여 원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①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리 漢人(한인)손디 글 비호거니 이 네 므스모로 비호는다 네 어버시 너를 햏야 비호라
햏시느녀
너는 이처럼 중국인에게 글을 배우는데 이것이 네 생각으로 배우는 것인가? 네 부모가 너
한테 배우라고 하시는 것인가?

②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올햏니. 우리 어버시 나를 햏야 비호라 햏시느다
올다. 우리 부모가 나에게 배우라 하신다.

③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비환 디 언머 오라뇨

너는 배운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④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비환 디 반 히 남죽하다

나는 배운 지 반 년 조금 넘었다.

⑤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알리로소녀 아디 몬허리로소녀

알겠는가 알지 못하겠는가?

⑥의 밑줄 친 부분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미실 漢兒(한아) 선비들과 허야 훈디셔 글 비호니 이런 전초로 저기 아노라

매일 중국 학생들과 함께 글을 배우니 이런 까닭으로 조금 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읽은 내용을 제가 다시 읽고 《번역노걸대》 읽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중: 네 이리 漢人(한인)손디 글 비호거니

이 네 막스모로 비호는다 네 아버지 너를 허야 비호라 하시느녀

한: 올하니. 우리 아버지 나를 허야 비호라 하시느다

중: 네 비환 디 언머 오라뇨

한: 내 비환 디 반 히 남죽하다

중: 알리로소녀 아디 몬허리로소녀

한: 미실 漢兒(한아) 선비들과 허야 훈디셔 글 비호니 이런 전초로 저기 아노라

5. 정리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번역노걸대》를 통해 우리는 당시에 중국어 수업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배운 글을 외우는 시간에 외우지 못하면 학생들을 엿드리게 하고 때리기도 하였고, 만약 잘 외우면 다음에 체벌 받을 상황에서 체벌을 면제해 주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고려 왕경에는 중국 학생과 고려 학생이 함께 다니는 국제학교가 있었고, 고려의 학생이 부모님의 영향으로 그 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운다는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중국 땅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과 비교할 때 비슷한 면도 보이고 그렇지 않은 면도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를 확인하는 것도 흥미로

운 일이 될 겁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의 중국어 학습서인 《번역노걸대》를 읽었습니다. 이 책은 고려말부터 있던 《노걸대》라는 책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중국어 학습서로 《박통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박 통사’라는 말은 ‘박 씨’ 성을 가진 통역관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두 책의 차이는 문장 내용에 있습니다. 《노걸대》에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직접 읽지는 않았지만 물건 값을 흥정하는 등 상인에게 필요한 대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박통사》에는 당시 중국 사람의 생활 풍습과 제도에 대한 문답이 실려 있습니다. 두 책이 내용 면에서 서로 차이가 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교재 편찬의 목적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박통사》라는 책도 《번역노걸대》를 만든 최세진이 번역을 붙여서 출판하였습니다. <그림1>이 《번역노걸대》이고 <그림2>가 《번역박통사》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노걸대’나 ‘박통사’와 같은 중국어 회화 교과서도 있었지만 《역어유해》와 같은 중국어 어휘 사전도 나왔습니다. <그림3>이 바로 1690년에 나온 《역어유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본 《번역노걸대》처럼 한자 밑에 두 종류의 한자음이 한글로 써 있습니다. 그 밑에는 동그라미가 있고 동그라미 밑에 해당 단어의 뜻이 한글로 써 있습니다. <그림4>는 《청어노걸대》라는 책으로 만주어의 회화 학습 교재입니다. 이것은 1704년에 나온 책으로 이 책 역시 ‘노걸대’를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번역노걸대》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몽골어를 학습하기 위한 교재들도 있었는데요, <그림5>는 1768년에 나온 《몽어유해》라는 몽골어 어휘집입니다. 그리고 <그림6>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 우리가 본 《번역노걸대》와 같은 ‘노걸대’를 토대로 만들어진 몽골어 학습서 《몽어노걸대》입니다. 이 책은 1790년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교재들 외에도 《첩해신어》와 같이 일본어를 공부하는 책도 있었습니다. <그림7>이 첩해신어인데 1676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러한 책들 이외에도 조선시대의 외국어 학습서가 몇 종류 더 있지만 오늘 그것을 다 소개하는 게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이러한 책들은 대개 조선시대의 통역관들을 교육하는 교재로 쓰였던 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읽은 《번역노걸대》도 이러한 일련의 책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두 번에 걸쳐서 《번역노걸대》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자료는 1510년대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육칠십 년 후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15세기 중엽의 한국어와 유사한 점도 많지만 간혹 단어의 형태가 그 이전과 비교할 때 변화를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15세기로 가서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을 때의 한국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선택형 (10분)

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박통사》와 《노걸대》는 내용 면에서 서로 차이가 난다.
- ② 17, 18세기에는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만주어 학습서가 간행되었다.
- ③ 《번역노걸대》에 쓰인 ‘스승’과 ‘선비’는 각각 ‘선생님’과 ‘학생’을 뜻한다.
- ④ 《박통사》에는 당시 일본 사람의 생활 풍습과 제도에 대한 문답이 실려 있다.

정답: ④

2.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 ① 이 시기에 ‘이’는 단모음이었다.
- ② ‘免帖(면첩)곳’의 ‘곳’은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 ③ ‘두늑나라’의 ‘-늑-’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어미이다.
- ④ 중세국어에서는 설명의문과 판정의문에 사용되는 의문형 어미가 다른 경우가 있었다.

정답: ④

3.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므슴 흘다’에는 2인칭 의문형 어미가 들어 있다.
- ② ‘닐옴’은 ‘니르-’와 명사형 어미 ‘-옴/음’이 결합한 것이다.
- ③ 현대 한국어의 ‘지나다’는 ‘디나다’에서 구개음화를 겪은 것이다.
- ④ ‘아리’는 공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시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모두 있었다.

정답: ②

단답형 (8분)

1.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중세국어에서 ‘너+의(관형격 조사)’가 줄어든 ‘네’의 성조는 ()이고, ‘너+이(주격 조사)’가 줄어든 ‘네’의 성조는 ()이다.

: 평성, 상성

2. ‘알리로소녀’를 형태소 분석하고, 각 문법형태소들의 의미를 쓰시오.

: 알- + -리-[추측] + -도소-[감탄] + -녀[판정의문]

3.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일흠’에서 ()이/가 탈락하고 모음 ()가 ()로 바뀌어 현대 한국어의 ()이/가 되었다.

: ‘ㅎ’, ‘우’, ‘으’, ‘이름’

나. 토의 (30분)

모국어에서 현재나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생각해 보고(문법적 수단과 어

획적 수단을 모두 고려해 볼 것), 한국어와 비교하여 이야기해 보자.

다. 과제 (60분)

아래 자료를 현대 한국어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현대어로 바꾸어 쓰시오.

중: 글사김ㅎ기뫼고쑤므슴공부ㅎ느뇨

한: 나죄다듣거든스승님얹픽셔사술뺨혀글외오기ㅎ야

외오니란스승님이免帖(면첩)ㅎ나흘주시고

ㅎ다가외오디뫼ㅎ야든딕실선빅ㅎ야어피고세번티느니라

중: 엇디흘시사술뺨혀글외오기며엇디흘시免帖(면첩)인고

한: 미ㅎ대뺨애ㅎ선빅일흙쓰고

모든선빅일후믈다이리쑤ㅎ사술통애다마

딕실선빅ㅎ야사술통가져다가흔드러

그뫼에ㅎ나뺨혀뺨혀니넝고ㅎ야

믈든그사름ㅎ야글외오디외와든스승이免帖(면첩)ㅎ나흘주느니라

그免帖(면첩)우희세번마조믈면ㅎ라ㅎ야쓰고스승이우희쳐두느니라

ㅎ다가다시사술뺨혀외오디뫼ㅎ야도免帖(면첩)내여히야브리고

아리외와免帖(면첩)타잇던공오로이뫼믈외온죄를마초아티기를면ㅎ거니와

ㅎ다가免帖(면첩)긧업스면일덩세번마조믈니브리라

■ 참고자료

《번역노걸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사역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우리말샘 (우리말샘 바로가기)

고영근(1987/2010),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이기문(1972/1998),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8차시> 15세기 자료 1

■ 학습목표

1. 《삼강행실도》의 표기를 통해 15세기에 표기된 자료를 소리내어 읽는 능력을 기른다.
2. 《삼강행실도》의 표현에 대한 이해를 통해 15세기의 한국어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
3. 《삼강행실도》를 출판한 15세기의 한국어와 현대 한국어를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핀다.

■ 강의 목차

1. 도입
2. ‘삼강행실도(1481년)’에 대한 이해
3. ‘삼강행실도(1481년)’ 강독
4.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도입

안녕하세요? 한국어 고전자료 읽기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 15세기에 출판된 《삼강행실도》를 소리내어 읽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삼강행실도》의 표현에 대한 이해를 통해 15세기의 한국어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를 할 것이고, 《삼강행실도》를 출판한 15세기의 한국어와 현대 한국어를 비교하여 그 시간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2. ‘삼강행실도(1481년)’에 대한 이해

우선 《삼강행실도》가 어떤 책인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책의 표지인데요, 한자로 ‘삼강행실’이라고 써 있습니다. 1428년에 경상도 진주(晉州)에 사는 김화(金禾)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세종은 깜짝 놀라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임금이라면 백성을 올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데 자신이 그렇게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백성을 교화할 수 있는 책을 편찬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로 나온 책이 바로 1432년 세종 14년에 나온 삼강행실도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충신, 효자, 열녀의 이야기를 뽑아 한문으로 편찬한 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책이 한문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읽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에 나온 삼강행실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종실록: 세종16년 4월27일 1434년

그림을 붙이고 제목을 삼강행실(三綱行實)이라 하고 인쇄하여 널리 보급하여서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과 골목 안의 부녀들까지도 모두 쉽게 알기를 바란다. (중간 생략) 다만 백성들이 문자를 알지 못하여 책을 나누어 주어도 남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뜻을 알아서 감동하고 착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결국 백성들이 문자를 알아야 교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생각은 1443년 한글 창제에 이르게 됩니다.

한글 창제 이후 1481년 성종 12년이 되면 처음 나온 삼강행실도의 한문본에 번역을 붙인 삼강행실도의 언해본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자료가 바로 이 책입니다. 삼강행실도의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한문이 있고 왼쪽에는 그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언해 즉 번역한 내용이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이 책에 그림을 보탤라고 했는데 그림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밑에서부터 보면 집을 둘러싼 담이 있고, 그 뒤에 산자락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담과 산자락 사이사이에 사람의 모습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야기의 장면이 바뀌면 각각의 장면을 산이나 담 또는 강 등으로 나누었습니다. 담이나 산 또는 강 등이 만화의 '컷'을 나누는 경계선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동일한 인물이 한 장의 화면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 그림은 밑에서부터 위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강행실도는 여러 번 출판되었는데 다음에 보시는 내용은 1481년 성종 때 나온 책 내용 중 한 부분입니다. 잘 보시면 글자 옆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 점은 당시의 말의 높낮이인 성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 수업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자 밑에는 한자의 음이 달려 있고, 띄어쓰기는 없습니다. 글은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읽으며,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갈 삼강행실도의 내용은 중국 진(晉)나라의 '허자(許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허자'는 '공충(孔冲)'이라는 분께 배웠는데, 공충이 죽자 삼년 동안 상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걸 삼년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 삼년 동안 상복을 입고 묘 옆에서 지내면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아침저녁으로 식사를 올리는 등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허자라는 사람은 선생님께 대해서도 삼년상의 예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동일하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이야기에는 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들어있습니다.

제가 삼강행실도라는 예전 책을 가지고 원문을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읽는지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許孜 | 글 비호던 스스이 죽거늘 三三三三 居喪喪喪고

이속고 두 아버지 죽거늘 슬허 여위여 막대 덩고사 니더니
 손소 흙 지여 녹미 도보물 받디 아니하고
 슬피 운다마다 鳥들獸숨 | 모다 오더라
 이 부분은 ‘조수’가 어려운지, 해당 단어와 관련하여 각주처럼 설명을 붙였습니다.
 [鳥들논 새오 獸숨논 네 발 툰 중싱이라]
 許허攷즈 | ㅎ오사 守숯墓모 ㅎ야셔
 이 부분에서는 ‘수묘’라는 단어에 대한 뜻풀이를 붙였습니다.
 [守숯墓모논 墓모를 디킬 씨라]
 솔와 잣과를 五오六륙리리를 심겻더니
 ㅎ 사스미 와 소를 ㅎ야브려늘
 許허攷즈 | 슬허 ㄱ로디 사스문 엇데 미야커뇨
 이튿나래
 버미 그 사스물 ㄹ러다가 그 나모 미퓷 더더늘
 무덥 겨퓷 무드니 그 後훔에 남기 더 ㄷㅎ니라
 許허攷즈 | 墓모스겨퓷 집 짓고
 산 아버지 ㄱ티 썸기더니
 ㄱ웁 사르미
 사논 짜흙 孝흙順쑤리리라 ㅎ더라
 여기에서는 ‘순’과 ‘리’라는 한자를 설명하였습니다.
 [順쑤은 거슬쑤 일 업슬 씨오 ㄹ리논 ㄹ숯히라]

이제 방금 읽은 원문을 활자화시켜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 수 있도록 바꾼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許허攷즈 | 글비 호던스스이 죽거늘 삼삼年년居거喪상하고
 이속고 두 아버지 죽거늘 슬허 여위여 막대 덩고사 니더니
 손소 흙 지여 녹미 도보물 받디 아니하고
 슬피 운다마다 鳥들獸숨 | 모다 오더라
 [鳥들논 새오 獸숨논 네 발 툰 중싱이라]
 許허攷즈 | ㅎ오사 守숯墓모 ㅎ야셔
 [守숯墓모논 墓모를 디킬 시라]
 솔와 잣과를 五오六륙리리를 심겻더니
 ㅎ 사스미와 소를 ㅎ야브려늘
 許허攷즈 | 슬허 ㄱ로디 사스문 엇데 미야커뇨
 이튿나래 버미 그 사스물 ㄹ러다가 그 나모 미퓷 더더늘
 무덥 겨퓷 무드니 그 後훔에 남기 더 ㄷㅎ니라
 許허攷즈 | 墓모스겨퓷 집 짓고 산 아버지 ㄱ티 썸기더니
 ㄱ웁 사르미 사논 짜흙 孝흙順쑤리리라 ㅎ더라
 [順쑤은 거슬쑤 일 업슬 씨오 ㄹ리논 ㄹ숯히라]

몇 군데는 현대국어와 통하는 데가 있고 나머지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다음에는 방금 읽은 내용을 띄어쓰기를 해서 보여드리고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許허攷攷 | 글 비호던 스스이 죽거늘 삼삼年년 居거喪喪하고
이속고 두 아버지 죽거늘 슬허 여위여 막대 딛고사 니더니
손소 흙 지여 님 도보물 받디 아니하고
슬피 운다마다 鳥돌獸술 | 모다 오더라
[鳥돌는 새오 獸술는 네 발 툰 증싱이라]
許허攷攷 | ㅎ오사 守술墓모 ㅎ야셔
[守술墓모는 墓모를 디킬 씨라]
솔와 잣과를 五五六륙리리를 심겟더니
흔 사스미 와 소를 ㅎ야브려늘
許허攷攷 | 슬허 ㄱ로디 사스문 엇데 미야커뇨
이툧나래 버미 그 사스물 ㄹ러다가 그 나모 미퓌 더더늘
무엇 거퓌 무드니 그 後훗에 남기 더 ㄷㅎ니라
許허攷攷 | 墓모스거퓌 집 짓고
산 아버지 ㄱ티 썸기더니
ㄱ웁 사르미
사는 짜흙 孝흥順쑤리리라 ㅎ더라
[順쑤은 거슬쁜 일 업슬 씨오 ㄹ리는 ㅁ술히라]

아까보다 조금이라도 이해되는 표현들이 더 보이나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자 음의 표기를 현대 한국어의 음으로 바꾸어 놓고 읽겠습니다.

許攷(허자) | 글 비호던 스스이 죽거늘
三年(삼년) 居喪(거상)하고
이속고 두 아버지 죽거늘
슬허 여위여 막대 딛고사 니더니
손소 흙 지여
님 도보물 받디 아니하고
슬피 운다마다 鳥獸(조수) | 모다 오더라
[鳥(조)는 새오 獸(수)는 네 발 툰 증싱이라]

許攷(허자) | ㅎ오사 守墓(수묘) ㅎ야셔
[守墓(수묘)는 墓(묘)를 디킬 씨라]
솔와 잣과를 五六里(오륙리)를 심겟더니
흔 사스미 와 소를 ㅎ야브려늘
許攷(허자) | 슬허 ㄱ로디
사스문 엇데 미야커뇨
이툧나래
버미 그 사스물 ㄹ러다가 그 나모 미퓌 더더늘

무덤 겨퓌 무드니
그 後(후)에 남기 더 痘(후)니라

許(허)자 |
墓(묘)스겨퓌 집 짓고
산 아버지 7티 섬기더니
7웁 사르미
사는 짜홀 孝順里(효순리)라 ㅎ더라
[順(순)은 거슬쁜 일 업슬 씨오 里(리)는 7솔히라]

3. '삼강행실도(1481년)' 강독

이제는 부분 부분 나누어서 현대국어 번역을 밑에 붙이면서 읽겠습니다. 원래의 표현들이 어떤 단어인지 생각하며 보시기 바랍니다.

許(허)자 |
'허자'가
중국의 '허자'라는 사람이

글 비호던 스스이 죽거늘
글 배우던 스승이 죽거늘
허자에게 글을 가르쳐주던 스승이 돌아가시거늘

三(삼)年(년) 居(거)喪(상)하고
삼년 거상하고
삼년상을 치르고

이숙고 두 아버지 죽거늘
이숙고 두 어버이 죽거늘
이숙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늘

슬허 여위어
슬퍼하며 여위어
슬퍼하며 몸이 바짝 말라

막대 躡(뺨)고샤 니더니
막대 躡(뺨)고야 일어나더니
막대기를 躡(뺨)고서야 일어나더니

손소 肅(숙) 지어
손수 肅(숙)을 지어

손수 등에 흙을 지고

늑미 도보물 받디 아니하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무덤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슬피 운다마다
슬피 울 때마다
슬프게 울 때마다

鳥들獸술 | 모다 오더라
조수가 모여 오더라.
새와 짐승이 모여서 오더라.

[鳥들은 새오 獸술은 네 발 탄 짐승이라]
[‘조’는 새이고, ‘수’는 네 발 탄 짐승이다.]
[‘조’는 새이고, ‘수’는 네 발을 가지고 태어난 동물이다.]

許허孜즈 |
‘허자’가
‘허자’가

호오사 守술墓모 호야셔
혼자 수묘 하여서
혼자 무덤을 지켜서

[守술墓모는 墓모를 디킬 씨라]
[수묘는 묘를 지키는 것이다.]
[수묘는 묘를 지킨다는 뜻이다.]

솔와 잣과를 五五六륙리리를 심겻더니
솔과 잣과를 5-6리를 심었더니
소나무와 잣나무를 5-6리에 심었더니

헌 사스미 와
한 사슴이 와
한 사슴이 와서

소를 호야브려늘
소나무를 망가뜨리거늘
소나무를 망가뜨렸거늘

許허攷즈 | 슬허 ㄱ로디
'허자'가 슬퍼하여 말하되
'허자'가 슬퍼하며 말하되

사스문 엇데 미야커뇨
사슴은 어찌 매정한가?
사슴은 어찌해서 이렇게도 매정한가?

이튿나래
이튿날에
이튿날에

버미 그 사스물 ㅁ러다가
범이 그 사슴을 물어다가
호랑이가 그 사슴을 물어다가

그 나모 미퓌 더더늘
그 나무 밑에 던지거늘
그 나무의 밑에 던져놓았는데

무덤 겨퓌 무드니
무덤의 곁에 묻으니
그 사슴을 무덤 옆에 묻으니

그 後龕에 남기 더 ㄷㅎ니라
그 후에 나무가 더 좋아지니라.
그 후에 그 나무가 더 좋아졌다.

許허攷즈 | 墓모스겨퓌 집 짓고
'허자'가 묘의 곁에 집 짓고
'허자'가 무덤의 옆에 집을 짓고

산 어버시 ㄱ티 ㅅ기더니
산 어버이같이 ㅅ기더니
살아계신 부모님같이 ㅅ겼더니

ㄱ웁 사르미
고을 사람이
마을 사람이

사는 짜흫 孝흥順쑤리리라 헝더라
사는 땅을 효순리라 하더라.
'허자'가 사는 땅을 '효순리'라고 하더라.

[順쑤은 거슬쑤 일 업슬 씨오 里리는 ㅁ술히라]
['순'은 거스르는 일 없다는 것이고 '리'는 마을이다.]
['순'은 거스르는 일이 없다는 뜻이고 '리'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제는 현대국어와 비교하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許허攷즈]
'허자'가
중국의 '허자'라는 사람이

여기서 '즈'의 모음 '아래 아[·]'는 현대국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국어의 '아'로 읽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현대국어에서는 주격조사에 '이'와 '가'가 있는데, 15세기에는 '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또한 '허자'라는 단어가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주격조사의 '이'에서 자음의 자리를 나타내는 'ㅇ'[이응]이 빠지고 모음 글자 'ㅣ'만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許허攷즈]
'허자'가
중국의 '허자'라는 사람이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글 비호던 스스이 죽거늘
글 배우던 스승이 죽거늘
허자에게 글을 가르쳐주던 스승이 돌아가시거늘

'비호다'의 첫 번째 음절 '비'의 모음은 현대국어에서는 하나의 모음 'ㅣ'이지만 15세기에는 이중모음으로 '으이'와 유사하게 읽혔으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호다'의 두 번째 음절의 자음 'ㅎ'은 탈락하고 모음 '오'가 '우'로 변하여서 현대국어에서 '배우다'가 되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글 비호던 스스이 죽거늘
글 배우던 스승이 죽거늘
허자에게 글을 가르쳐주던 스승이 돌아가시거늘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三삼年년 居거喪喪享享고
삼년 거상하고
삼년상을 치르고

‘거상하다’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한 상태인 “상(喪)을 당한 상태에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상을 치르다 정도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고’의 ‘ㅎ’는 ‘아래 어[·]’가 써 있는데 현대국어에는 없는 모음입니다. 이 경우는 ‘하다’의 ‘하’로 변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三삼年년 居거喪喪享享고
삼년 거상하고
삼년상을 치르고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숙고 두 아버지 죽거늘
이옥고 두 어버이 죽거늘
이옥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늘

‘이숙고’와 ‘아버시’에는 삼각형처럼 생긴 자음 반치음 ‘ㄷ’이 있습니다. 이 반치음의 발음은 현재 ‘z’와 유사했으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음은 모음 사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숙고’는 ‘이옥고’가 되었고 ‘아버시’는 ‘어버이’로 변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숙고 두 아버지 죽거늘
이옥고 두 어버이 죽거늘
이옥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늘

슬허 여위어
슬퍼하며 여위어
슬퍼하며 몸이 바짝 말라

15세기에는 ‘슬다’라는 동사가 있었고 여기에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브-’가 결합하면 ‘슬프다’가 됩니다. ‘슬다’가 동사이기 때문에 ‘슬퍼하다’로 번역하게 됩니다. ‘여위다’는 현대국어에도 있는 단어인데 몸의 살이 빠져서 마른 상태를 뜻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슬허 여위어
슬퍼하며 여위어
슬퍼하며 몸이 바짝 말라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막대 답고샤 니더니
막대 짚고야 일어나더니
막대기를 짚고서야 일어나더니

‘답고샤’의 ‘답고’는 ‘표’으로 끝나는 ‘딛다’라는 동사의 활용형입니다. 그리고 ‘딛’은 ‘ㄷ’이 ‘ㅈ’이 되는 구개음화에 의해 현대국어에서 ‘짚다’가 되었습니다. 현대국어 표기법처럼 쓴다면 ‘표’ 받침의 ‘딛고’로 쓰겠지만 당시에는 ‘ㅂ’ 받침의 ‘답고’로 썼습니다. ‘답고샤’의 ‘샤’는 강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현대국어에서 ‘먹고서야’와 같은 표현에 보이는 ‘야’에 해당합니다. ‘니더니’는 ‘일어나다’라는 뜻을 갖는 ‘닐다’라는 동사와 어미 ‘더니’가 결합하면서 ‘닐다’의 ‘ㄹ’이 탈락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니더니’를 현대국어로 ‘일어나더니’로 번역하였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막대 답고샤 니더니
막대 짚고야 일어나더니
막대기를 짚고서야 일어나더니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손소 흙 지여
손수 흙을 지어
손수 등에 흙을 지고

‘손소’의 두 번째 음절의 ‘ㅅ’이 현대국어에서 ‘ㄴ’ 뒤에서 ‘ㅈ’으로 변하였고 ‘손소’의 두 번째 음절의 모음 ‘오’가 ‘우’로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손소’는 현대국어에서 ‘직접’의 의미를 가지는 ‘손수’가 되었습니다. ‘지여’는 무덤을 만들기 위해 등에 흙을 지었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손소 흙 지여
손수 흙을 지어
손수 등에 흙을 지고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늑미 도보돌 받디 아니히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무덤을 만들었다.

‘눔미’는 다른 사람을 뜻하는 ‘눔’에 조사 ‘이’가 결합한 것인데 현대국어로는 ‘남의’가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음절의 ‘눔’의 ‘아래 아[·]’는 현대국어에서 ‘ㄴ’가 되었고, 두 번째 음절 ‘이’의 ‘아래 아[·]’는 ‘으’가 되어 ‘이’는 ‘의’가 되었습니다. ‘도봄’은 현대국어에서 ‘도움’이 됩니다. 현대국어의 활용형이 ‘돕다, 도와’인 동사 ‘돕다’는 중세국어에서는 어간말음이 순경음 비음 ‘빙’이었기 때문에 명사형이 ‘도봄’이 된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눔미 도보물 받디 아니흐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무덤을 만들었다.

슬피 운다마다
슬피 울 때마다
슬프게 울 때마다

‘운다마다’는 동사 어간 ‘올다’에 어미 ‘ㄴ다마다’가 결합되었는데 어떤 일을 할 때마다의 의미로 보면 됩니다. 어간 ‘올다’의 ‘ㄹ’이 어미 ‘ㄴ다마다’의 ‘ㄴ’ 앞에서 탈락하였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슬피 운다마다
슬피 울 때마다
슬프게 울 때마다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鳥獸獸 | 모다 오더라
조수가 모여 오더라.
새와 짐승이 모여서 오더라.

‘조수’의 한자음은 당시에 실제로 발음되던 음이 아니라 예전의 운서(韻書)들을 참고하여 만든 이상적인 한자음을 적은 것입니다. 실제 당시의 발음은 ‘도슈’였습니다. 여기서 ‘도’의 ‘ㄷ’은 구개음화에 의해 ‘ㅈ’으로 변하였고, 이 ‘ㅈ’이 모음 ‘요’ 앞에 있기 때문에 ‘요’가 ‘ㅛ’로 바뀌어 현대국어에서 새를 뜻하는 한자의 음 ‘조’로 바뀌었습니다. ‘슈’ 역시 ‘ㅅ’ 뒤에서 ‘ㅍ’가 ‘ㅍ’로 바뀌어 동물을 뜻하는 한자의 음 ‘수’로 바뀐 것입니다. ‘모다’는 동사 ‘묻다’의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묻다’는 ‘모이다’라는 뜻을 가지는 자동사였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鳥獸獸 | 모다 오더라
조수가 모여 오더라.
새와 짐승이 모여서 오더라.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鳥돌논 새오 獸술논 네 발 툰 짐승이라]
[‘조’는 새이고, ‘수’는 네 발 탄 짐승이다.]
[‘조’는 새이고, ‘수’는 네 발을 가지고 태어난 동물이다.]

이 부분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조수’라는 단어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뜻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새오’는 날아다니는 ‘새’에 ‘이고’가 결합하였는데 당시에 ‘이고’는 ‘이오’로 실현되었고 ‘새’가 당시에 ‘사이’처럼 발음되어서 ‘이오’의 ‘이’와 발음이 겹쳐서 ‘새오’로 표기되었습니다. 발음은 ‘사이오’ 정도가 될 것입니다. ‘퉁다’는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뜻을 가진 단어로 “그는 음악적 재능을 타고 태어났다.”나 ‘타고나다’와 같은 표현에 남아 있습니다. ‘중싱’은 원래 불교 용어로 사람과 동물을 포함하여 생명을 가진 생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현대국어에서는 ‘중생’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의미로 쓰였겠지만 이 단어는 ‘증싱’이 되었다가 ‘짐승’을 거쳐서 현대국어에서 동물을 뜻하는 ‘짐승’으로 변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鳥돌논 새오 獸술논 네 발 툰 짐승이라]
[‘조’는 새이고, ‘수’는 네 발 탄 짐승이다.]
[‘조’는 새이고, ‘수’는 네 발을 가지고 태어난 동물이다.]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許허攷조 |
‘허자’가
‘허자’가

‘허조’는 시작 부분에서 설명하였듯이 ‘아래 아·|’가 ‘|’로 변하였고 모음 뒤에서도 주격 조사 ‘|’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許허攷조 |
‘허자’가
‘허자’가

호오사 守畝墓모 호야서
혼자 수묘 하여서
혼자 무덤을 지켜서

‘호오사’는 우선 첫 번째 음절 ‘호’와 ‘오’가 합쳐져서 ‘호’가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호사’의 첫 번째 음절의 모음 ‘오’와 두 번째 음절의 받침음 ‘ㅏ’ 사이에 ‘ㄴ’이 삽입되었고, ‘ㄴ’

뒤에서 ‘ㄷ’이 ‘ㅈ’으로 바뀌어 현대국어의 ‘혼자’가 되었습니다. ‘햏아셔’는 ‘아래 아[·]’로 끝나는 ‘햏다’에 어미가 결합하였는데 모음조화를 따라서 ‘아’가 결합되었습니다. 현대국어에서는 ‘햏’ 뒤에 ‘어’가 결합되어 ‘햏여’가 되는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셔’는 현대국어에서 ‘셔’에 해당하기 때문에 ‘햏아셔’는 ‘햏여셔’가 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햏오사 守劔墓모 햏아셔
혼자 수묘 햏여셔
혼자 무덤을 지켜셔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守劔墓모는 墓모를 디킈 썸라]
[수묘는 묘를 지키는 것이다.]
[수묘는 묘를 지킨다는 뜻이다.]

이 부분에는 당시 사람들이 ‘수묘’라는 단어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뜻풀이를 해놓았습니다. ‘수묘’도 이상적인 한자음으로 쓰였습니다. ‘디킈 썸라’에는 동사 ‘디킈다’가 들어 있습니다. ‘디킈다’의 첫 번째 음절은 구개음화에 의해 ‘지’가 되고 두 번째 음절의 ‘키’는 현대국어에서 ‘기’가 되었습니다. ‘디킈다’가 ‘지킈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간에 ‘ㄹ 썸라’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주석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디킈 썸라’를 현대국어로 직역을 한다면 ‘지킈 것이다’ 정도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구성에서는 미래의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다’로 번역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守劔墓모는 墓모를 디킈 썸라]
[수묘는 묘를 지키는 것이다.]
[수묘는 묘를 지킨다는 뜻이다.]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솔와 잣과를 五〇六륙리리를 심겜터니
솔과 잣과를 5-6리를 심었더니
소나무와 잣나무를 5-6리에 걸쳐서 심었더니

현대국어의 ‘소나무’는 ‘솔’에 ‘나무’가 결합하면서 ‘솔’의 ‘ㄹ’이 ‘나무’의 ‘ㄴ’ 앞에서 떨어진 단어입니다. ‘솔’은 소나무의 열매에 해당하는 ‘솔방울’에 남아 있습니다. ‘솔’에 조사 ‘과’가 결합하였는데 ‘솔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중세국어에서는 ‘ㄹ’ 뒤에서 ‘ㄱ’의 발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솔와’로 표기되었습니다. ‘솔와 잣과’의 ‘ㄹ’은 현대국어의 목적격 조사 ‘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현대국어라면 ‘솔과 잣’이 되었을 텐데 중세국어에서는 조사 ‘과’에 의해 단어들끼리 계속 연결될 때 마지막 단어 뒤에서 ‘과’를 붙였기 때문에 현대국어와 다른 ‘솔과

잣과를'과 같은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심꺄터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국어에서 "나무를 심다"라고 할 때의 '심다'는 중세국어에서는 어간말에 'ㄱ'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국어의 방언에서 '심다'를 '심구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구'에 '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국어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 '었'은 중세국어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심꺄터니'에는 현대국어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 '었'이 쓰일 자리에 현대국어의 '어 있'에 해당하는 '옛'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솔와 잣과를 五五六륙리리를 심꺄터니

솔과 잣과를 5-6리를 심었더니

소나무와 잣나무를 5-6리에 걸쳐서 심었더니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흔 사슴이 와

한 사슴이 와

한 사슴이 와서

'흔'은 현대국어에서 '아래 아[·]'가 'ㅏ'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슴'의 두 번째 음절의 '아래 아[·]'가 'ㅡ'로 바뀌어 현대국어에서는 '사슴'이 '사슴'이 되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흔 사슴이 와

한 사슴이 와

한 사슴이 와서

소를 햏야브려늘

소나무를 망가뜨리거늘

소나무를 망가뜨렸거늘

'소를'은 소나무를 뜻하는 '솔'에 조사 '을'이 결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햏야브려늘'은 동사 '햏야브리다'에 현대국어의 어미 '거늘'에 해당하는 '어늘'이 결합하였습니다. '햏야브리다'는 망가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국어에는 '닿아서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는 '해어지다, 해지다'에 남아 있습니다. '옷이 너털너털하게 해졌다'와 같은 표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소를 햏야브려늘

소나무를 망가뜨리거늘

소나무를 망가뜨렸거늘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許허攷주 | 슬허 ㄱ로디
‘허자’가 슬퍼하여 말하되
‘허자’가 슬퍼하며 말하되

‘슬허’는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세기에는 ‘슬다’라는 동사가 있었고 여기에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브-’가 결합하면 ‘슬프다’가 됩니다. ‘슬다’가 동사이기 때문에 ‘슬퍼하다’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ㄱ로디’는 ‘말하되’로 번역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許허攷주 | 슬허 ㄱ로디
‘허자’가 슬퍼하여 말하되
‘허자’가 슬퍼하며 말하되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사스문 엇데 미야커뇨
사슴은 어찌 매정한가?
사슴은 어찌해서 이렇게도 매정한가?

‘사스문’의 ‘사슴’은 ‘사슴’에 해당하고 ‘사슴’에 결합한 조사 ‘은’은 ‘아래 아[·,]’가 ‘으’로 바뀌었습니다. ‘엇데’는 현대국어의 ‘어찌’에 해당하는데 ‘엇데’의 두 번째 음절의 ‘ㄷ’은 구개음화에 의해 ‘ㅈ’으로 바뀌고 첫 번째 음절의 ‘ㅅ’에 의해 ‘ㅈ’이 ‘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음에도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야커뇨’는 당시에 있던 ‘미야하다’라는 형용사에 어미 ‘거뇨’가 결합한 것입니다. 여기서 ‘미야하다’는 정이 없다는 뜻의 ‘매정하다’로 번역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사스문 엇데 미야커뇨
사슴은 어찌 매정한가?
사슴은 어찌해서 이렇게도 매정한가?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툏나래
이툏날에
이툏날에

‘이툏나래’는 ‘이툏’과 ‘날’이 결합하면서 ‘ㅅ’이 사이에 들어간 ‘이툏날’에 조사 ‘애’가 결합하였습니다. 이 조사 ‘애’는 현대국어에서는 ‘에’로 실현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이튿날에
이튿날에

버미 그 사슴물 무러다가
범이 그 사슴을 물어다가
호랑이가 그 사슴을 물어다가

‘사슴물’은 ‘사슴’으로 변한 ‘사슴’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것인데, 이 조사 ‘을’은 현대국어에서는 ‘을’이 되었습니다. ‘무러다가’는 동사 ‘물다’에 어미 ‘어다가’가 결합한 것입니다. ‘물다’는 ‘ㅁ’ 뒤에 모음 ‘으’가 있었는데 ‘ㅁ’의 영향으로 이 ‘으’가 ‘우’로 바뀌어 현대국어에서는 ‘물다’가 되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버미 그 사슴물 무러다가
범이 그 사슴을 물어다가
호랑이가 그 사슴을 물어다가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그 나무 미퓌 더더늘
그 나무 밑에 던지거늘
그 소나무의 밑에 던져놓았는데

‘나무’는 현대국어의 ‘나무’입니다. 그리고 ‘미퓌’는 ‘밑’에 조사 ‘의’가 결합한 것인데, 이 ‘의’는 현대국어의 ‘에’에 해당합니다. ‘더더늘’은 동사 ‘더디다’에 현대국어의 어미 ‘거늘’에 해당하는 ‘어늘’이 결합한 것입니다. ‘더디다’는 첫 번째 음절 ‘더’와 두 번째 음절 ‘디’ 사이에 ‘ㄴ’이 들어가고 두 번째 음절의 ‘디’가 구개음화에 의해 ‘지’로 바뀌어 현대국어의 ‘던지다’가 되었습니다. ‘그 나무’라고 할 때, ‘그’는 사슴이 망가뜨린 바로 그 소나무를 가리키기 위해 쓰였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 나무 미퓌 더더늘
그 나무 밑에 던지거늘
그 소나무의 밑에 던져놓았는데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무덤 겨퓌 무드니
무덤의 곁에 묻으니
그 사슴을 무덤 옆에 묻으니

‘겨퉁’은 옆의 뜻을 가지는 ‘곁’에 조사 ‘의’가 결합한 것입니다. ‘의’는 현대국어의 조사 ‘에’에 해당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무덤 겨퉁 무드니
무덤의 곁에 묻으니
그 사슴을 무덤 옆에 묻으니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그 後鬣에 남기 더 ㄷㅎ니라
그 후에 나무가 더 좋아지니라.
그 후에 나무가 더 좋아졌다.

鬣(後)는 이상적인 한자음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국어의 ‘나무’는 중세국어에서는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자음 앞에서는 ‘나모’로 실현되었고 모음 앞에서는 ‘모기’으로 끝나는 ‘남기’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기’는 ‘모기’으로 끝나는 ‘남기’과 주격조사 ‘이’로 분석됩니다. 이때의 ‘모’은 이후에 ‘기’ 앞에서 ‘오’로 발음되기도 해서 방언에서 ‘나무’를 뜻하는 ‘낭구’와 같은 단어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ㄷㅎ니라’는 현대국어의 ‘좋다’에 해당하는 ‘동다’에 어미 ‘ㅇ니라’가 결합한 것입니다. ‘동다’는 구개음화를 거치면서 현대국어의 ‘좋다’가 되었는데, 현대국어의 ‘좋다’는 형용사이지만 중세국어의 ‘동다’는 형용사로도 쓰였고 자동사로도 쓰여서 ‘좋아지다’로 번역하였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 後鬣에 남기 더 ㄷㅎ니라
그 후에 나무가 더 좋아지니라.
그 후에 나무가 더 좋아졌다.

許허攷攷 | 墓모스겨퉁 집 짓고
‘허자’가 묘의 곁에 집 짓고
‘허자’가 무덤의 옆에 집을 짓고

이 부분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許허攷攷 | 墓모스겨퉁 집 짓고
‘허자’가 묘의 곁에 집 짓고
‘허자’가 무덤의 옆에 집을 짓고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산 어버시긔 썬기더니
산 어버이같이 썬기더니

살아계신 부모님같이 섬겼더니

‘산’은 ‘살다’의 활용형입니다. 현대국어와 동일합니다. ‘아버시’도 앞에서 설명하였는데, 세 번째 음절의 받침음 ‘ㅅ’이 사라졌습니다. ‘ㄱ티’는 현대국어에서 [가치]로 발음되는 ‘같이’입니다. 첫 번째 음절의 ‘아래 아[·]’가 ‘아’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산 아버지 ㄱ티 섬기더니
산 어버이같이 섬기더니
살아계신 부모님같이 섬겼더니

ㄱ울 사름이
고을 사람이
마을 사람이

‘ㄱ울 사름’에 조사 ‘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ㄱ울’이라는 단어와 ‘사름’ 사이에 시옷이 들어가 있습니다. ‘ㄱ울’은 첫 번째 음절과 두 번째 음절이 합쳐지면서 ‘아래 아[·]’가 탈락하여 긴 소리의 ‘골’로 변하고, 이 단어가 마을을 뜻하는 ‘고을’이 되었습니다. ‘사름’은 두 번째 음절의 ‘아래 아[·]’가 모음 ‘아’로 바뀌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두 번째 음절 이하의 ‘아래 아[·]’는 ‘으’로 변하는데, 이 단어에서는 예외적으로 ‘아’로 변하였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ㄱ울 사름이
고을 사람이
마을 사람이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사닌 짜흫 孝흫順쑤리리라 ㅎ더라
사는 땅을 효순리라 하더라.
‘허자’가 사는 땅을 ‘효순리’라고 하더라.

‘사닌’은 ‘살다’에 어미 ‘닌’이 결합하면서 ‘살다’의 ‘ㄴ’이 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미 ‘닌’은 현대국어의 어미 ‘느’입니다. ‘짜흫’은 ‘ㅎ’으로 끝나는 명사 ‘짱’에 현대국어의 목적격 조사 ‘을’에 해당하는 ‘울’이 결합하였습니다. ‘ㅎ’으로 끝나는 명사 ‘짱’은 ‘ㅎ’이 ‘ㅇ’으로 바뀌어 현대국어에서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짱’의 ‘ㅈ’은 당시에 경음인 ‘ㅉ’으로 발음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효순’은 마을 이름인데 이상적인 한자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ㅎ더라’는 현대국어의 ‘하다’에 해당하는 ‘ㅎ’에 어미 ‘더라’가 결합한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사닌 짜흫 孝흫順쑤리리라 ㅎ더라
사는 땅을 효순리라 하더라.
‘허자’가 사는 땅을 ‘효순리’라고 하더라.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順畚은 거슬쁜 일 업슬 씨오 𪛗리논 𪛗술히라]

['순'은 거스르는 일 없다는 것이고 '리'는 마을이다.]

['순'은 거스르는 일이 없다는 뜻이고 '리'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당시 사람들은 '순'이라는 한자와 '리'라는 한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붙였습니다. '거슬쁜'은 현대국어의 '거스르다'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 '거슬다'의 어간에 강세를 나타내는 접미사 '쁘'가 결합하고 거기에 어미 '은'이 결합한 것입니다. 이때 'ㅅ'은 모두 받음되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업슬 씨오'는 '없다'의 어간에 어미 '을 씨오'가 붙어 있는데, 직역한다면 '없을 것이고' 정도가 되겠지만 이러한 구성에서는 미래의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없다는 것이고'로 번역됩니다. 'ㅎ'으로 끝나는 '𪛗술'에 '이'가 붙어서 '𪛗술히라'가 되었는데 첫 번째 음절의 '아래 아[·]'는 '아'가 되었고 두 번째 음절의 '아래 아[·]'는 '으'가 되어 현재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다'는 항상 '이라'로 실현되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順畚은 거슬쁜 일 업슬 씨오 𪛗리논 𪛗술히라]

['순'은 거스르는 일 없다는 것이고 '리'는 마을이다.]

['순'은 거스르는 일이 없다는 뜻이고 '리'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전체 이야기가 파악되시나요? 전체 이야기에 대한 파악을 돕기 위해 현대국어 번역만을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허자'라는 사람이 글을 가르쳐주던 스승이 돌아가시거늘 삼년상을 치르고 이윽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늘 슬퍼하며 몸이 바짝 말라 막대기를 짚고서야 일어나더니 손수 등에 흙을 지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무덤을 만들었다.
슬프게 울 때마다 새와 짐승이 모여서 오더라.
'허자'가 혼자 무덤을 지켜서 소나무와 잣나무를 5-6리에 걸쳐서 심었더니 한 사슴이 와서 소나무를 망가뜨렸거늘
'허자'가 슬퍼하며 말하되 사슴은 어찌해서 이렇게도 매정한가?
이튿날에 호랑이가 그 사슴을 물어다가 그 소나무의 밑에 던져놓았는데
'허자'가 그 사슴을 무덤 옆에 묻으니 그 후에 나무가 더 좋아졌다.
'허자'가 무덤의 옆에 집을 짓고 살아계신 부모님같이 섬겼더니
마을 사람이 '허자'가 사는 땅을 '효순리'라고 하더라.

다음으로는 어떤 내용이 그림에 반영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사실은 이야기의 주인공인 '허자'가 하나의 그림 속에 여러 번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는 '허자'가 네 번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살표된 부분을 보면 '허자'가 스승을 모시고 공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림 왼쪽 위의 화살표가 된 부분은 관이 두 개 있는 것으로 보아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그린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림

가운데의 화살표 부분은 ‘허자’가 막대를 짚고 겨우 일어서서 걷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덤을 만들기 위해 혼자 흙을 지고 있는 ‘허자’의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허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만든 무덤인 것 같습니다. 슬프게 울 때마다 모여드는 새와 짐승들도 보입니다. 이 부분은 5-6리에 걸쳐 심은 소나무와 잣나무에 해당할 겁니다. 소나무 밑에 호랑이가 물어다 던져놓은 사슴의 모습도 보입니다. 허자가 지내기 위해 무덤 옆에 지어 놓은 집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제 현대어 번역을 통해 전체 내용을 파악했고 그림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확인했으니, 여러분이 먼저 읽는 방식으로 내용을 읽어나가겠습니다.

①의 밑줄 친 부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許孜(허자) | 글 비호던 스스로 죽거늘 三年(삼년) 居喪(거상)하고
‘허자’가 글을 배우던(허자에게 가르쳐주던) 스승이 돌아가시거늘 삼년상을 치르고

②의 밑줄 친 부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속고 두 아버지 죽거늘 슬허 여위여 막대 딛고사 니더니
이속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늘 슬퍼하며 몸이 바짝 말라 막대기를 짚고서야 일어나더니

③의 밑줄 친 부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손소 흙 지어 노미 도보물 받디 아니하고
손수 등에 흙을 지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무덤을 만들었다.

④의 밑줄 친 부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슬피 운다마다 鳥獸(조수) | 모다 오더라 [鳥(조)는 새오 獸(수)는 네 발 툰 짐승이라]
슬프게 울 때마다 새와 짐승이 모여서 오더라. [‘조’는 새이고, ‘수’는 네 발을 가지고 태어난 동물이다.]

⑤의 밑줄 친 부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許孜(허자) | 호오사 守墓(수묘) 호야셔 [守墓(수묘)는 墓(묘)모를 디킬 씨라]
‘허자’가 혼자 무덤을 지켜서 [수묘는 묘를 지킨다는 뜻이다.]

⑥의 밑줄 친 부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솔와 잣과를 五六里(오륙)리를 심겻더니 한 사슴미 와 소를 호야부려늘
소나무와 잣나무를 5-6리에 심었더니 한 사슴이 와서 소나무를 망가뜨렸거늘

⑦의 밑줄 친 부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許孜(허자) | 슬허 7로디 사스문 엇데 미야커뇨
‘허자’가 슬퍼하며 말하되 사슴은 어찌해서 이렇게도 매정한가?

⑧의 밑줄 친 부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툇나래 버미 그 사스물 무러다가 그 나모 미퓌 더더늘
이툇날에 호랑이가 그 사슴을 물어다가 그 소나무의 밑에 던져놓았는데

㉑의 밑줄 친 부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덤 겨퓌 무드니 그 後(후)에 남기 더 ㉑허니라
그 사슴을 무덤 옆에 묻으니 그 후에 나무가 더 좋아졌다.

㉒의 밑줄 친 부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許孜(허자) | 墓(묘)스겨퓌 집 짓고 산 아버지 ㉒터 섬기더니
'허자'가 무덤의 옆에 집을 짓고 살아계신 부모님같이 섬겼더니

㉓의 밑줄 친 부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㉓웁 사르미 사는 짜홀 孝順里(효순리)라 ㉓더라
마을 사람이 '허자'가 사는 땅을 '효순리'라고 하더라.

㉔의 밑줄 친 부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順(순)은 거슬픈 일 업슬 씨오 리(리)는 ㅁ솔히라]
[‘순’은 거스르는 일이 없다는 뜻이고 ‘리’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제 번역 없이 전체를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어 설명을 하는 주석 부분은 제외하고 읽겠습니다.

許孜(허자) | 글 비호던 스스이 죽거늘 三年(삼년) 居喪(거상)하고
이속고 두 아버지 죽거늘 슬허 여위여 막대 ㉑고사 니더니
손소 흙 지여 ㉑미 도보물 받디 아니하고
슬피 운다마다 鳥獸(조수) | 모다 오더라
許孜(허자) | ㉑오사 守墓(수묘) ㉑야셔
솔와 잣과를 五六里(오륙)리를 심겻더니 ㉑ 사스미 와 소를 ㉑야브려늘
許孜(허자) | 슬허 ㉑로디 사스문 ㉑데 미야커노
이툏나래 버미 그 사스물 ㉑러다가 그 나모 미퓌 더더늘
무덤 겨퓌 무드니 그 後(후)에 남기 더 ㉑허니라
許孜(허자) | 墓(묘)스겨퓌 집 짓고 산 아버지 ㉒터 섬기더니
㉓웁 사르미 사는 짜홀 孝順里(효순리)라 ㉓더라

4. 정리

지금까지 삼강행실도의 내용 중 한 부분을 현대국어와 비교하면서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정리를 겸해서 원문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눈과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許허孜ㅈ | 글 비호던 스스이 죽거늘 三삼年년 居거喪상하고
'허자'가 글 배우던 스승이 죽거늘 삼년 거상하고

이측고 두 아버지 죽거늘 슬허 여위여 막대 딛고사 니더니
이측고 두 아버지 죽거늘 슬퍼하며 여위어 막대 짚고야 일어나더니

손소 흙 지어 녹미 도보물 받디 아니하고
손수 흙을 지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슬피 운다마다 烏들獸술 | 모다 오더라
슬피 올 때마다 조수가 모여서 오더라.

[烏들논 새오 獸술논 네 발 탄 중싱이라]
[‘조’는 새이고, ‘수’는 네 발 탄 짐승이다.]

許허攷조 | ㅎ오사 守술墓모 ㅎ야셔
‘허자’가 혼자 수요하여서, 묘를 지켜서

[守술墓모논 墓모를 디킬 씨라]
[수묘는 묘를 지키는 것이다.]

솔와 잣과를 五五六륙리리를 심겻더니
솔과 잣과를 5-6리를 심었더니

훈 사스미 와 소를 ㅎ야브려늘
한 사슴이 와 소나무를 망가뜨리거늘

許허攷조 | 슬허 ㄱ로디 사스문 엇데 미야커뇨
‘허자’가 슬퍼하여 말하되 사슴은 어찌 매정한가?

이툏나래
이툏날에

버미 그 사스물 ㄹ러다가 그 나무 미퓌 더더늘
범이 그 사슴을 물어다가 그 나무 밑에 던지거늘

무덤 겨퓌 무드니 그 後훔에 남기 더 ㄷㅎ니라
무덤의 곁에 묻으니 그 후에 나무가 더 좋아지니라.

許허攷조 | 墓모스겨퓌 집 짓고 산 아버지ㄱ터 썸기더니
‘허자’가 묘의 곁에 집 짓고 산 아버이같이 썸기더니

ㄱ웁 사ꓯ미 사논 짜흙 孝흙順쑤리리라 ㅎ더라

고을 사람이 '허자'가 사는 땅을 '효순리'라고 하더라.

[順쑤은 거슬쑤 일 업슬 씨오 뽀리논 뽀솔히라]

['쑤'은 거스르논 일 없다는 것이고 '리'는 마을이다.]

어떠셨나요? 《삼강행실도》를 반복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 당시의 윤리관도 어렵뜻하게나마 알게 되고, 이 강의 시작 전보다 약간이라도 중세국어에 더 가까워지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선택형 (10분)

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④

- ① 《삼강행실도》는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 편찬한 책이다.
- ② 《삼강행실도》 언해본에는 이상적인 한자음이 달려있다.
- ③ 《삼강행실도》는 충신, 효자, 열녀의 이야기를 뽑아 한문으로 편찬한 책이다.
- ④ 《삼강행실도》 언해본에서는 글자 옆에 말의 길이를 나타내는 점이 찍혀 있다.

정답: ④

2.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②

- ① 15세기의 주격조사는 현대국어와 같다.
- ② 15세기에는 현재는 쓰이지 않는 자음 ‘빙’이 사용되었다.
- ③ 15세기의 ‘똥다’는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형용사로만 사용되었다.
- ④ 15세기에 조사 ‘과’에 의해 단어들이 연결될 때, 마지막 단어 뒤에 ‘과’를 붙일 수 없었다.

정답: ②

3.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②

- ① 15세기 ‘뉘다’는 구개음화를 거쳐 ‘짚다’가 되었다.
- ② 15세기 당시 ‘鳥獸’의 실제 한자음은 ‘돌출’이었다.
- ③ 15세기 한국어에서 어간 말 ‘ㄹ’은 ‘ㄴ’ 앞에서 탈락하였다.
- ④ 15세기 종결의 ‘-다’는 ‘이다’의 ‘이’ 뒤에서 항상 ‘-라’로 실현되었다.

정답: ②

단답형 (8분)

1.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15세기 ‘숯-’의 품사는 ()이었고, 여기에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오늘날 ()이/가 되었다.

: 동사, ‘-브-’, ‘스프-’

2.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심궤터니’에는 현대국어에서 ()을/를 나타내는 어미 ()이/가 쓰일 자리에 ()이/가 사용되었습니다.

: 과거, ‘-었-’, ‘-엇-’

3.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현대국어 ‘나무’는 중세국어에서는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자음 앞에서는 ()(으)로 실현되었고 모음 앞에서는 ()(으)로 실현되었다.

: ‘나모’, ‘남ㄱ’

나. 토의 (30분)

다음 《삼강행실도》의 다른 부분을 현대어역한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세종이 《삼강행실도》 언해를 명한 까닭에 대해 생각해 보고, 당시의 윤리관에 대해 현대와 비교하여 이야기해 보자.

송나라 공공의 부인 백희는 밤에 불이 나서 좌우 사람들이 사퇴기를, “불을 피하소서” 하니, 백희가 이르기를, “여자의 법도는 부모와 부모가 함께하지 않고는 밤에 집에서 내려가지 않는 것이니, 부모와 부모를 기다리라.” 부모는 오고 부모는 오지 않았는데, 좌우에서도 사퇴기를, “나가소서.” 하니, 백희가 이르기를, “여자의 법도는 부모가 오지 않았으면 집에서 내려가지 않는 것이니, 법도를 어기고 사는 것이 의를 지키고 죽는 것만 못하다.” 하고, 불에 죽었다. <백희채화(伯姬逮火)> 《역주 삼강행실도》

왜구가 선주를 포위하므로 이성 만호 김원규가 병력을 이끌고 가서 구원하니, 왜구들이 싸움을 못 이겨 쫓겨 가니, 너무 쫓아 들어가서 죽었다. 간관이 건의하기를, “원규가 제 몸을 아끼지 않고 한 몸으로 만민의 목숨을 바꾸니, 벼슬을 추증하시고 사당 세우고 자손을 채용하셔서 충성한 넋을 위로하시고 후세 사람의 본을 삼으소서.” 하니, 그리하라 하시었다. <원계함진(原桂陷陳)> 《역주 삼강행실도》

다. 과제 (60분)

아래 자료를 현대 한국어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현대어로 바꾸어 쓰시오. 그리고 밑줄 친 표현들이 현대 한국어로 오면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설명해 보시오.

許허攷攷 | 글비호던스스이죽거늘삼삼年년居거喪상하고
이속고두어버시죽거늘슬허여위여막대답고산니더니
손소흙지여늬미도보물받디아니하고
슬피운다마다鳥돌獸獸 | 모다오더라
[鳥돌는새오獸獸는네발튼중칭이라]
許허攷攷 | 호오산守壽墓모호야서
[守壽墓모는墓모를디킬시라]
솔와자과를五오六륙리리를심갯더니
헌사스미와소를호야브려늘
許허攷攷 | 슬허?로디사스몬엇데미야커뇨
이툐나래버미그사스물므러다가그나모미티더더늘
무덥겨티무드니그後뿔에남기더도호니라
許허攷攷 | 墓모스겨티집짓고산어버시?티섬기더니
?웁사르미사는짜홀孝홀順순리리라호더라
[順순은거슬쁜일업슬씨오리리는모솔히라]

▪ 참고자료

《삼강행실도》 (디지털 한글박물관)

《삼강행실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우리말샘 (우리말샘 바로가기)

고영근(1987/2010),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집부(2010), 《역주 삼강행실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이기문(1972/1998),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9차시> 15세기 자료 2

■ 학습목표

1. 15세기에 표기된 자료를 소리내어 읽는 능력을 기른다.
2. 《월인석보》를 통해 15세기 한국어 표기와 문법을 이해한다.
3. 《월인석보》의 언어 표현이 현대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실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강의 목차

1. 도입
2. ‘월인석보(1447년)’에 대한 이해
3. ‘월인석보(1447년)’ 강독
4.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도입

안녕하세요? 한국어 고전 자료 읽기 아홉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0세기 초의 《어린이》라는 잡지에서 시작하여 시간을 조금씩 거슬러 올라와서 지난 시간에는 15세기의 《삼강행실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역시 15세기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 대상은 《월인석보》입니다.

오늘 수업은 한글이 창제된 직후의 언어 자료인 《월인석보》를 통해 15세기의 전형적인 한국어 표기와 문법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언어 표현이 현대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실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이번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월인석보》는 1459년에 간행되었는데, 이 책 앞 부분에 ‘나랏말싸미’로 시작하는 《훈민정음 언해》가 실려 있습니다. 《월인석보》는 세종대왕의 아들이자 조선의 7대 임금인 세조가 편찬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실제로는 1447년에 나온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합쳐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월인천강지곡》에서 ‘월인’을 가져오고, 《석보상절》에서 ‘석보’를 가져와 책의 제목을 ‘월인석보’라고 붙였습니다.

2. ‘월인석보(1447년)’에 대한 이해

1446년에 세종 임금의 왕비 ‘소헌왕후(昭憲王后)’가 돌아가(시)자, 세종이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아들인 수양대군에게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중요한 설법을 엮어서 한글로 번역하라는 명을 내리고, 그 명에 따라서 편찬된 책이 바로 《석보상절》입니다. 여기서 ‘석보’는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썼다는 뜻이고, ‘상절’은 중요한 내용은 자세히 쓰고 그렇지 않은 내용은 줄였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이 이 《석보상절》을 아버지 세종에게 바치니까, 세종은 《석보상절》의 내용을 보면서 500여 수의 노래를 지었는데, 그게 바로 ‘월인천강지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인천강지곡’은 석보상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이 된 후 이 두 책을 합치는데, 아버지가 지은 ‘월인천강지곡’을 앞에 놓고 바로 그 뒤에 그 노래에 해당하는 석보상절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월인석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월인석보》를 읽어나가야 할 텐데, 책이 불교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 수업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어떤 책이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을 때는 그 내용에 나오는 용어 등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단어들을 모르는 채 내용 전체와 문법을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몇 단어라도 미리 알고 내용을 접하면 이 자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월인석보》를 읽어내기 전에 우리가 오늘 읽을 부분의 이야기 전체를 현대 한국어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인석보》는 ‘월인천강지곡’이 먼저 나오지만 여기서는 ‘석보상절’에 나온 이야기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아주 오래된 옛날에 어떤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도자를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하는데, 이 보살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 보살은 자신의 나라를 아우에게 맡기고 도리를 배우러 나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살은 ‘구담’이라는 승려를 만나 자기의 옷은 벗고 ‘구담’의 옷을 입었습니다. ‘구담’의 옷을 입은 보살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 과일하고 물을 먹으면서 앉아서 참선을 하였다가 자기가 떠났던 나라에 빌어먹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왕이었던 보살을 알아보지 못하고, 보살이 ‘구담’의 옷을 입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소구담’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살이 성 바깥의 ‘감자원’이라는 곳에서 수도를 하기 위해 집을 짓고 혼자 앉아 있었는데, 500명의 도둑들이 나라의 재물을 훔쳐서 보살이 거처하는 집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들은 보살의 전생의 원수였습니다. 다음날 나라에서 도둑의 흔적을 따라가서 보니까 보살이 수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는 그 보살이 도둑이라고 여겨서 보살을 잡아서 나무에 몸을 꿰어 두었습니다. 이때 보살과 옷을 바꾸어 입었던 승려 ‘구담’이 이러한 과정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하늘로 날아와서 보살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자식도 없는데 무슨 죄로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자 보살이 대답하였습니다. “이미 나는 죽을 몸인데 자손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은 의미 없다.” 바로 그때 보살의 동생인 왕이 형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을 시켜서 활로 쏘서 보살을 죽였습니다.

승려 ‘구담’은 슬퍼하며 보살의 시신을 관에 넣고 보살의 피가 묻은 흙을 파서 보살이 수행하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왼쪽 피와 오른쪽 피를 따로 담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보살이 정성이 지극했다면 하늘이 이 피로 사람을 만들 것이다.” 열 달 만에 왼쪽 피는 남자가 되고 오른쪽 피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구담 씨라고 하였고, 그 결과로 구담 씨의 자손이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내용이 15세기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들으면서 띄어쓰기를 하면 좋을 자리에 표시를 하면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있는 한자어는 그 옆에

현대 한국어의 발음을 써 놓았습니다.

넷 阿僧祇(아승기) 劫(겁) 時節(시절)에 訥 菩薩(보살)이 王(왕) ㄷ외야 겨샤
나라홀 아수 맞디시고 道理(도리) 비호라 나아가샤
瞿曇(구담) 婆羅門(바라문)을 만나샤
즈갓 오스란 밧고 瞿曇(구담)이 오솔 니브샤
深山(심산)에 드러 果實(과실)와 물와 좌시고 坐禪(좌선)히시다가
나라해 빌머그라 오시니 다 몰라 보습더니 小瞿曇(소구담)이라 히더라
菩薩(보살)이 城(성) 밧 甘蔗園(감자원)에 精舍(정사) 밧고 오 訥오사 안자 잇더시니
도죽 五百(오백)이 그윗 거슬 일버서 精舍(정사)스 겨투로 디나가니
그 도즈기 菩薩(보살)스 前世(전세) 生(생)스 怨讎(원수)ㅣ러라.
이튼나라 나라해 이셔 도즈기 자취 바다 가아
그 菩薩(보살)을 자바 남기 모물 빼스박 뒷더니
大瞿曇(대구담)이 天眼(천안)오로 보고 虛空(허공)에 ㄴ라와 묻즈보디
그디 子息(자식) 업더니 므스 罪(죄)오.
菩薩(보살)이 對答(대답)히샤디 訥마 주글 내어니 子孫(자손)을 議論(의론)히리여.
그 王(왕)이 사름 브려 쏘아 주기스 ㄴ니라.
大瞿曇(대구담)이 슬허 뿌리여 棺(관)에 녀쑤고
피 무든 흘글 파 가져 精舍(정사)에 도라와
원넉 피 달 담고 올흔넉 피 달 다마 두고 날오디
이 道士(도사)ㅣ 精誠(정성)이 至極(지극)히단디면
하늘히 당다이 이 피를 사름 ㄷ외에 히시리라.
열 닳마내 원넉 피는 男子(남자)ㅣ ㄷ외오 올흔넉 피는 女子(여자)ㅣ ㄷ외어늘
姓(성)을 瞿曇(구담) 氏(씨)라 히더니
일로브터 子孫(자손)이 니스시니 瞿曇(구담) 氏(씨) 다시 니려나시니라.

어떻습니까? 한자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지요?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읽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에 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어 중 ‘보살, 구담, 바라문, 소구담’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고, ‘감자원’과 ‘정사’는 장소를 지칭하는 단어들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읽을 내용 중 ㉒번에 나오는 ‘아수’는 동생을 뜻하는 ‘아우’라는 단어에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왕이 자신의 자리를 동생 즉 아우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도리를 배우기 위해 나라의 밖으로 나간다는 내용에 나오는 ‘아수’가 바로 동생입니다. ㉒번과 ㉓번에 가면 두 사람의 대화도 나옵니다. “그대는 자식도 없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가?”라는 질문과 “나는 이미 죽게 되었는데 자손에 대해 의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식의 답변이 나오는데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가 없는 상태로 다시 읽겠습니다.

- ① 넷 阿僧祇(아승기) 劫(겁) 時節(시절)에 訥 菩薩(보살)이 王(왕) ㄷ외야 겨샤
- ② 나라홀 아수 맞디시고 道理(도리) 비호라 나아가샤

- ③ 瞿曇(구담) 婆羅門(바라문)을 만나샤
- ④ 즈갓 오스란 밧고 瞿曇(구담)이 오솔 니브샤
- ⑤ 深山(심산)에 드러 果實(과실)와 물와 좌시고 坐禪(좌선)히시다가
- ⑥ 나라해 빌머그라 오시니 다 몰라 보습더니 小瞿曇(소구담)이라 히더라
- ⑦ 菩薩(보살)이 城(성) 밧 甘蔗園(감자원)에 精舍(정사) 밧글오 히오샤 안자 잇더시니
- ⑧ 도죽 五百(오백)이 그윳 거슬 일버셔 精舍(정사)스 겨뜻로 디나가니
- ⑨ 그 도즈기 菩薩(보살)스 前世(전세) 生(생)스 怨讎(원수) | 러라.
- ⑩ 이툏나래 나라해 이셔 도즈기 자최 바다 가아
- ⑪ 그 菩薩(보살)을 자바 남기 모물 빼스박 뒷더니
- ⑫ 大瞿曇(대구담)이 天眼(천안)으로 보고 虛空(허공)에 느라와 문즈보디 그디 子息(자식) 업더니 므스 罪(죄)오.
- ⑬ 菩薩(보살)이 對答(대답)히샤디 히마 주글 내어니 子孫(자손)을 議論(의론)히리어.
- ⑭ 그 王(왕)이 사름 브러 쏘아 주기스 북나라.
- ⑮ 大瞿曇(대구담)이 슬허 뿌리여 棺(관)에 녀쑹고
- ⑯ 피 무든 흘글 파 가져 精舍(정사)에 도라와
- ⑰ 윈녁 피 단 담고 올흔녁 피 단 다마 두고 날오디
- ⑱ 이 道士(도사) | 精誠(정성)이 至極(지극)히단디면 하늘히 당다이 이 피를 사름 ㅅ외에 히시리라.
- ⑲ 열 닻마내 윈녁 피는 男子(남자) | ㅅ외오 올흔녁 피는 女子(여자) | ㅅ외어늘
- ⑳ 姓(성)을 瞿曇(구담) 氏(씨)라 히더니 일로브터 子孫(자손)이 니스시니 瞿曇(구담) 氏(씨) 다시 니러나시니라.

두 번 읽었는데 아직도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이번에는 띄어쓰기를 해 놓은 자료를 보고 다시 읽겠습니다. 이번에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에 표시를 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구담’이라는 말이 몇 차례 나오는데, ④번을 보면 어떤 보살이 ‘구담’을 만나고 옷을 바꾸어 입었다고 하고 ⑥번을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보살을 ‘소구담’이라고 부른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의 구담은 ‘대구담’이라고 하게 됩니다. ‘대구담’이라는 표현은 ⑫번과 ⑮번에 나옵니다. ⑫번과 ⑬번의 대화는 ‘대구담’이 원래 보살이었던 ‘소구담’에게 하늘로 날아와서 묻고 나무에 꿰어서 죽어가는 ‘소구담’이 자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⑭번을 보면 소구담이 활에 맞아 죽는데, ⑯번에 써 있듯이 대구담이 흠에 묻은 피를 가져가서 ⑰번에서 ⑲번의 내용처럼 왼쪽의 피와 오른쪽의 피로 사람을 만들고, 그 결과로 ‘구담’이라는 성이 이어진다는 내용이 ⑳번에 나옵니다.

- ① 넷 阿僧祇(아승기) 劫(겁) 時節(시절)에 히 菩薩(보살)이 王(왕) ㅅ외야 겨샤
- ② 나라힐 아스 맛디시고 道理(도리) 비호라 나아가샤
- ③ 瞿曇(구담) 婆羅門(바라문)을 만나샤
- ④ 즈갓 오스란 밧고 瞿曇(구담)이 오솔 니브샤
- ⑤ 深山(심산)에 드러 果實(과실)와 물와 좌시고 坐禪(좌선)히시다가
- ⑥ 나라해 빌머그라 오시니 다 몰라 보습더니 小瞿曇(소구담)이라 히더라
- ⑦ 菩薩(보살)이 城(성) 밧 甘蔗園(감자원)에 精舍(정사) 밧글오 히오샤 안자 잇더시니
- ⑧ 도죽 五百(오백)이 그윳 거슬 일버셔 精舍(정사)스 겨뜻로 디나가니

- ⑨ 그 도즈기 菩薩(보살)스 前世(전세) 生(생)스 怨讎(원수) | 러라.
- ⑩ 이튿나래 나라해 이셔 도즈기 자취 바다 가아
- ⑪ 그 菩薩(보살)을 자바 남기 모물 빼스박 뒷더니
- ⑫ 大瞿曇(대구담)이 天眼(천안)으로 보고 虛空(허공)애 느라와 묻즈보디 그디 子息(자식) 업더니 므스 罪(죄)오.
- ⑬ 菩薩(보살)이 對答(대답)흐사디 ㅎ마 주글 내어니 子孫(자손)을 議論(의론)흐리여.
- ⑭ 그 王(왕)이 사름 브러 쏘아 주기스 북니라.
- ⑮ 大瞿曇(대구담)이 슬허 뿌리여 棺(관)애 녀쑤고
- ⑯ 피 무든 흘굴 파 가져 精舍(정사)애 도라와
- ⑰ 윈녁 피 달 담고 올흔녁 피 달 다마 두고 날오디
- ⑱ 이 道士(도사) | 精誠(정성)이 至極(지극)흐단디면 하늘히 당다이 이 피를 사름 ㄷ외에 흐시리라.
- ⑲ 열 닳마내 윈녁 피는 男子(남자) | ㄷ외오 올흔녁 피는 女子(여자) | ㄷ외어늘
- ⑳ 姓(성)을 瞿曇(구담) 氏(씨)라 흐더니 일로브터 子孫(자손)이 니스시니 瞿曇(구담) 氏(씨) 다시 니러나시니라.

다시 한 번 띄어쓰기를 한 자료를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들에 표시를 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①번에 나오는 한자어 ‘아승기’는 산스크리트어 ‘아상가(asanga)’를 발음대로 한자로 써 놓은 말로, 수로는 10의 56승을 뜻한다고 합니다. 매우 많다는 표현이겠지요. 그리고 ‘겁’은 산스크리트어로는 ‘칼파(kalpa)’에 해당하는데, ‘겁’은 우주의 시간을 재는 단위입니다. 수로 나타낼 수 없는 무한한 시간을 ‘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넷 아승기 겁 시절’은 ‘아주아주 오래된 옛날’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③번에 나오는 ‘바라문’은 산스크리트어 ‘브라만(brāhmaṇa)’을 발음대로 한자로 써 놓은 말로, 고대 인도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 승려 계급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왕이었던 보살이 구담이라는 승려를 만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⑦번에 나오는 ‘감자원’은 사탕수수가 있는 작은 언덕이고 ‘정사’는 수도를 하기 위해 지은 작은 집입니다. 이 부분은 왕이었다가 구담의 옷을 입어서 소구담이라고 불리게 된 보살이 성 밖의 감자원이라는 곳에 정사를 만들고 수도한다는 내용입니다.

- ① 넷 阿僧祇(아승기) 劫(겁) 時節(시절)에 ㅎ 菩薩(보살)이 王(왕) ㄷ외야 겨샤
- ② 나라할 아스 맛디시고 道理(도리) 비호라 나아가샤
- ③ 瞿曇(구담) 婆羅門(바라문)을 만나샤
- ④ ㅈ갯 오스란 밧고 瞿曇(구담)이 오술 니브샤
- ⑤ 深山(심산)애 드러 果實(과실)와 물와 좌시고 坐禪(좌선)흐시다가
- ⑥ 나라해 빌머그라 오시니 다 몰라 보습더니 小瞿曇(소구담)이라 흐더니
- ⑦ 菩薩(보살)이 城(성) 밧 甘蔗園(감자원)애 精舍(정사) 밧고 오 ㅎ오사 안자 잇더니
- ⑧ 도죽 五百(오백)이 그웁 거슬 일버서 精舍(정사)스 겨투로 디나가니
- ⑨ 그 도즈기 菩薩(보살)스 前世(전세) 生(생)스 怨讎(원수) | 러라.
- ⑩ 이튿나래 나라해 이셔 도즈기 자취 바다 가아
- ⑪ 그 菩薩(보살)을 자바 남기 모물 빼스박 뒷더니
- ⑫ 大瞿曇(대구담)이 天眼(천안)으로 보고 虛空(허공)애 느라와 묻즈보디 그디 子息(자식)

업더니 므숯 罪(죄)오.

- ⑬ 菩薩(보살)이 對答(대답)흐샤디 ㅎ마 주글 내어니 子孫(자손)을 議論(의론)흐리여.
- ⑭ 그 王(왕)이 사름 브려 쏘아 주기스 ㄸ니라.
- ⑮ 大瞿曇(대구담)이 슬허 ㄸ리여 棺(관)애 녀쑹고
- ⑯ 피 무든 흘글 파 가져 精舍(정사)애 도라와
- ⑰ 윈녁 피 달 담고 올흔녁 피 달 다마 두고 널오디
- ⑱ 이 道士(도사)ㅣ 精誠(정성)이 至極(지극)흐단디면 하눌히 당다이 이 피를 사름 ㄸ외에
흐시리라.
- ⑲ 열 닻마내 윈녁 피는 男子(남자)ㅣ ㄸ외오 올흔녁 피는 女子(여자)ㅣ ㄸ외어늘
- ⑳ 姓(성)을 瞿曇(구담) 氏(씨)라 ㅎ더니 일로브터 子孫(자손)이 니스시니 瞿曇(구담) 氏(씨)
다시 니러나시니라.

어떻습니까? 몇 단어의 뜻을 알고 몇 문장의 상황을 알면서 읽어보셨는데 처음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3. ‘월인석보(1447년)’ 강독

이번에는 원문과 현대 한국어의 번역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오늘 읽는 내용에 나오는 ‘원래의 왕, 보살, 소구담’은 모두 이후의 생에서 석가모니 부처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면 이 대상을 높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구담이 문장의 주어로 사용되면 문장을 끝낼 때 ‘-시-’라는 어미가 사용되었고, ‘소구담’이 어떤 행동의 대상이 될 때는 ‘-습-, -습-, -줍-’ 같은 어미가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이 대상을 높이는 문법적인 요소인지 생각하면서 원문과 번역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읽겠습니다.

넷 阿僧祇(아승기) 劫(겁) 時節(시절)에 ㅎ 菩薩(보살)이 王(왕) ㄸ외야 겨샤
옛 아승기 겁의 시절에 한 보살이 왕이 되어 계셔
아주 오래된 옛날에 어떤 수도자가 왕이셨는데

나라를 아수 맞디시고 道理(도리) 비호라 나아가샤
나라를 아우 맡기시고 도리 배우러 나아가시어
나라를 동생에게 맡기시고 도리를 배우러 나가시어

瞿曇(구담) 婆羅門(바라문)을 만나샤
‘구담’ ‘바라문’을 만나시어
‘구담’이라는 승려를 만나셔서

즈갓 오스란 밧고 瞿曇(구담)이 오솔 니브샤
자기의 옷일랑 벗고 구담의 옷을 입으시고
자신의 옷은 벗고 구담의 옷을 입으시고

深山(심산)에 드리 果實(과실)와 물와 좌시고 坐禪(좌선)하시다가
심산에 들어 과일과 물과 자시고 좌선하시다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 과일과 물을 드시면서 앉아서 참선하시다가

나라해 빌머그라 오시니 다 몰라 보습더니 小瞿曇(소구담)이라 하더라
나라에 빌어먹으러 오시니 다 몰라뵈더니 ‘소구담’이라고 하더라
자신이 다스리던 나라에 구걸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다 그를 몰라뵈고 그가 ‘구담’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소구담’이라고 했다.

菩薩(보살)이 城(성) 밖 甘蔗園(감자원)에 精舍(정사) 밍굴오 호오사 안자 잇터시니
보살이 성 밖 감자원에 정사를 만들고 혼자 앉아 있으시더니
소구담이라고 불린 수도자 즉 보살이 성 바깥의 사탕수수 동산에 마음을 닦는 집을 만들고
혼자 앉아 있으셨는데

도둑 五百(오백)이 그윽 거슬 일버서 精舍(정사)스 겨투로 디나가니
도적 500이 관청의 것을 훔쳐서 정사의 곁으로 지나가니
도둑 500명이 나라의 물건을 훔쳐서 소구담이 있는 정사의 곁으로 지나갔는데

그 도즈기 菩薩(보살)스 前世(전세) 生(생)스 怨讎(원수)ㅣ 러라.
그 도적이 보살의 전세 생의 원수이더라.
그 도둑들이 보살의 전생의 원수이더라.

이튿날 나라해 이셔 도즈기 자취 바다 가아
이튿날에 나라에서 도적의 자취 따라가서
다음날에 나라에서 도둑의 흔적을 따라가

그 菩薩(보살)을 자바 남기 모물 빼스바 뒸더니
그 보살을 잡아 나무에 몸을 꿰어 두고 있더니
그 수도자 소구담을 잡아서 나무에 몸을 꿰어(몸이 꿰어지시게 하여) 두었는데

大瞿曇(대구담)이 天眼(천안)으로 보고 虛空(허공)애 嚧라와 문즈보디
대구담이 천안으로 보고 허공으로 날아와 문되
대구담이 마음의 눈으로 보고 하늘로 날아와 여쭙되

그디 子息(자식) 업더니 므스 罪(죄)오.
“그대가 자식 없더니 무슨 죄인가?”
“그대는 자식이 없는데 무슨 죄인가?(무슨 죄로 이렇게 되었는가?)”

菩薩(보살)이 對答(대답)하시디 호마 주글 내어니 子孫(자손)을 議論(의론)하시여.
보살이 대답하시되 “이미 죽을 나이거니 자손을 의논하겠는가?”
수도자 소구담이 대답하시되 “이미 죽을 나이거늘 자손에 대해 이야기하겠는가?”

그 王(왕)이 사름 브려 쏘아 주기스 븃니라.

그 왕이 사름 시켜 쏘아서 죽였다.

소구담의 동생인 바로 그 왕이 사름을 시켜서 활로 쏘아서 소구담을 돌아가시게 하였다.

大瞿曇(대구담)이 슬허 뿌리여 棺(관)에 녀쑤고

대구담이 슬퍼하여 꾸리어 관에 넣고

대구담이 슬퍼하며 시신을 꾸려(시신을 수습하여) 관에 모셔 넣고

피 무든 흠글 파 가져 精舍(정사)에 도라와

피 문은 흠을 파 가져 정사에 돌아와

피가 문은 흠을 파서 가지고 정사에 돌아와서

왼녜 피 달 담고 올흔녜 피 달 다마 두고 날오디

왼녜 피 따로 담고 오른녜 피 따로 담아 두고 이르되

왼쪽 피 따로 담고 오른쪽 피 따로 담아 두고 말하되

이 道士(도사) | 精誠(정성)이 至極(지극)헝단디면

이 도사가 정성이 지극했더라면

이 도사가 정성이 지극했다면

하늘히 당다이 이 피를 사름 ㄷ외에 헝시리라.

하늘이 당당히 이 피를 사름 되게 하시리라.

하늘이 마땅히 이 피를 사름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열 달 만에 왼녜 피는 男子(남자) | ㄷ외오 올흔녜 피는 女子(여자) | ㄷ외어늘

열 달 만에 왼녜 피는 남자가 되고 오른녜 피는 여자가 되거늘

열 달 만에 왼쪽 피는 남자가 되고 오른쪽 피는 여자가 되거늘

姓(성)을 瞿曇(구담) 氏(씨)라 헝더니

성을 구담 씨라 하더니

그 남녀의 성을 구담 씨라고 하더니

일로부터 子孫(자손)이 니스시니 瞿曇(구담) 氏(씨) 다시 니려나시니라.

이로부터 자손이 이으시니 구담 씨 다시 일어나시니라

이것으로부터 ‘소구담’의 자손이 이어지시니 ‘구담 씨’가 다시 일어나셨다.

어떻습니까? 석가모니의 전생인 보살 소구담을 높이는 문법적인 표현들을 찾으셨는지요?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세종’이 지은 《월인천강지곡》을 보겠습니다. (가)부터 (마)까지는 각각이 시의 한 구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의 구들은 ‘-니’라는 어미로 끝나다가 마지막 구만 완전한 문장 종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를 해 놓은 상태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읽었던 석보상절의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을지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 (가) 阿僧祇(아승기) 前世(전세) 劫(겁)에 님금 位(위)르 브리샤 精舍(정사)에 안팍터시니
- (나) 五百(오백) 前世(전세) 怨讐(원수) | 나랏 천 일버샤 精舍(정사)를 디나야 가니
- (다) 兄(형)님을 모를씨 발 자철 바다 남기 빼여 性命(성명)을 므츰시니
- (라) 子息(자식) 업스실씨 몸엿 필 퇴화 그르세 담야 男女(남녀)를 내스븍니
- (마) 어엿브신 命終(명종)에 甘蔗(감자) 氏(씨) 니스샤물 大瞿曇(대구담)이 일우니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 (가) 阿僧祇(아승기) 前世(전세) 劫(겁)에 님금 位(위)르 브리샤 精舍(정사)에 안팍터시니
- (나) 五百(오백) 前世(전세) 怨讐(원수) | 나랏 천 일버샤 精舍(정사)를 디나야 가니
- (다) 兄(형)님을 모를씨 발 자철 바다 남기 빼여 性命(성명)을 므츰시니
- (라) 子息(자식) 업스실씨 몸엿 필 퇴화 그르세 담야 男女(남녀)를 내스븍니
- (마) 어엿브신 命終(명종)에 甘蔗(감자) 氏(씨) 니스샤물 大瞿曇(대구담)이 일우니이다

이번에는 《월인천강지곡》의 각각의 문장을 현대 한국어의 번역과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월인천강지곡 가사 다음에 석보상절의 해당 부분도 보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 (다)로 써 있는 부분은 《월인천강지곡》이고 ①, ②, ③ 등은 《석보상절》입니다.

- (가) 阿僧祇(아승기) 前世(전세) 劫(겁)에 님금 位(위)르 브리샤 精舍(정사)에 안팍터시니
아주 오랜 옛날에 임금 자리를 버리시어 정사에 앉아 있으시더니
아주 오랜 옛날에 소구담이 임금 자리를 버리시고 정사에 앉아 있으셨는데

다음은 이 내용이 써 있는 《석보상절》 부분입니다.

- ① 넷 阿僧祇(아승기) 劫(겁) 時節(시절)에 훈 菩薩(보살)이 王(왕) ㄷ외야 겨샤
- ② 나라흠 아스 맛디시고 道理(도리) 비호라 나아가샤
- ③ 瞿曇(구담) 婆羅門(바라문)을 만나샤
- ④ 조갓 오스란 밧고 瞿曇(구담)이 오솔 니브샤
- ⑤ 深山(심산)에 드러 果實(과실)와 물와 좌시고 坐禪(좌선)히시다가
- ⑥ 나라해 빌머그라 오시니 다 몰라 보습더니 小瞿曇(소구담)이라 히더라
- ⑦ 菩薩(보살)이 城(성) 밧 甘蔗園(감자원)에 精舍(정사) 밧고 오 히오샤 안자 잇터시니

이 내용이 “阿僧祇(아승기) 前世(전세) 劫(겁)에 님금 位(위)르 브리샤 精舍(정사)에 안팍터시니”가 된 겁니다.

《월인천강지곡》의 다음 가사를 보겠습니다.

- (나) 五百(오백) 前世(전세) 怨讐(원수) | 나랏 천 일버샤 精舍(정사)를 디나야 가니
500 전세의 원수가 나라의 재물을 훔쳐서 정사를 지나가니

500명의 소구담의 전생의 원수가 나라의 재물을 훔쳐서 소구담이 있는 정사를 지나갔는데

다음은 이 내용이 써 있는 《석보상절》 부분입니다.

- ⑧ 도죽 五百(오백)이 그윽 거슬 일버서 精舍(정사)스 거뜰로 디나가니
- ⑨ 그 도즈기 菩薩(보살)스 前世(전세) 生(생)스 怨讎(원수) | 러라.

이 내용이 “五百(오백) 前世(전세) 怨讎(원수) | 나랏 천 일버사 精舍(정사)를 디나가니”가 된 겁니다.

《월인천강지곡》의 다음 가사를 보겠습니다.

- (다) 兄(형)님을 모를씨 발 자철 바다 남기 빼여 性命(성명)을 ㅁ츠시니
형님을 모르므로 발 자취를 따라 나무에 꺾어 목숨을 마치시니
동생 왕이 형님을 몰라보고 도둑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소구담을 잡아 나무에 꺾어
소구담이 생명을 마치시니

다음은 이 내용이 써 있는 《석보상절》 부분입니다.

- ⑩ 이툃나래 나라해 이셔 도즈기 자취 바다 가아
- ⑪ 그 菩薩(보살)을 자바 남기 모물 빼스박 뒷더니
- ⑫ 大瞿曇(대구담)이 天眼(천안)으로 보고 虛空(허공)애 ㄴ라와 문즈보디 그디 子息(자식) 업더니 ㅁ스 罪(죄)오.
- ⑬ 菩薩(보살)이 對答(대답)흐샤디 ㅎ마 주글 내어니 子孫(자손)을 議論(의론)흐리여.
- ⑭ 그 王(왕)이 사름 브려 쏘아 주기스 ㅁ니라.

이 내용이 “兄(형)님을 모를씨 발 자철 바다 남기 빼여 性命(성명)을 ㅁ츠시니”가 된 겁니다.

《월인천강지곡》의 다음 가사를 보겠습니다.

- (라) 子息(자식) 업스실씨 몸엿 필 되화 그르세 담아 男女(남녀)를 내스 ㅁ니
자식이 없으시므로 몸의 피를 모아 그릇에 담아 남녀를 내니
소구담이 자식이 없으시므로 대구담이 소구담의 몸의 피를 모아 그릇에 담아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내니

다음은 이 내용이 써 있는 《석보상절》 부분입니다.

- ⑮ 大瞿曇(대구담)이 슬허 ㅁ리여 棺(관)애 녀쑹고
- ⑯ 피 무든 흘 굴 파 가져 精舍(정사)애 도라와

- ⑰ 윈녁 피 달 담고 올흔녁 피 달 다마 두고 날오디
- ⑱ 이 道士(도사) | 精誠(정성)이 至極(지극)하단디면 하늘히 당다이 이 피를 사름 ㄷ외에
히시리라.
- ⑲ 열 닻마내 윈녁 피는 男子(남자) | ㄷ외오 올흔녁 피는 女子(여자) | ㄷ외어늘

이 내용이 “子息(자식) 업스실씨 몸엿 필 퇴화 그르세 담아 男女(남녀)를 내스북니”가 된 겁니다.

《월인천강지곡》의 다음 가사를 보겠습니다.

(마) 어엿브신 命終(명종)에 甘蔗(감자) 氏(씨) 니스샤물 大瞿曇(대구담)이 일우니이다
불쌍하신 생명 마침에 감자 씨 이으심을 대구담이 이루었습니다.
불쌍하신 생명 마침에 감자 씨(구담 씨) 이어지심을 대구담이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이 내용이 써 있는 《석보상절》 부분입니다.

㉔ 姓(성)을 瞿曇(구담) 氏(씨)라 하더니 일로브터 子孫(자손)이 니스시니 瞿曇(구담) 氏(씨)
다시 내려나시니라.

이 내용이 “어엿브신 命終(명종)에 甘蔗(감자) 氏(씨) 니스샤물 大瞿曇(대구담)이
일우니이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월인천강지곡》 마지막의 (마)와 《석보상절》 마지막의 ㉔을 보면 이어지는 성 씨가
각각 ‘구담 씨’와 ‘감자 씨’로 달리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석보상절》의 주석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小瞿曇(소구담)이 甘蔗園(감자원)에 사르실씨 甘蔗(감자) 氏(씨)라도 하더니라.
‘소구담’이 ‘감자원’에 사셨으므로 ‘감자 씨’라고도 하더라

이러한 주석을 토대로 볼 때 전해지는 두 가지 성 씨 중에서 《석보상절》은 ‘구담 씨’를
택하였고 《월인천강지곡》은 ‘감자 씨’를 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월인석보》의 《석보상절》 부분의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문법적인 내용과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앞에서 읽었던 내용을 다시 읽겠습니다.

넛 阿僧祇(아승기) 劫(겁) 時節(시절)에 訥 菩薩(보살)이 王(왕) ㄷ외야 겨샤
옛 아승기 겁의 시절에 한 보살이 왕이 되어 계셔
아주 오래된 옛날에 어떤 수도자가 왕이셨는데

‘ㄷ외야’의 ‘ㄷ외다’는 현대 한국어의 ‘되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겨샤’의 ‘겨시다’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계시다’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보살’을 높이기 위해 ‘겨시다’가
사용되었습니다.

나라홀 아수 맞디시고 道理(도리) 비호라 나아가샤
나라를 아우 맡기시고 도리 배우러 나아가시어
나라를 동생에게 맡기시고 도리를 배우러 나가시어

현대 한국어에서 동생을 뜻하는 ‘아우’라는 단어는 15세기에 ‘아수’였습니다. 이 단어는 여기서 보인 것처럼 단독형으로 쓰이거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아수’로 실현되었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앗ㅇ’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단어가 조사 ‘-도’와 결합한다면 ‘아수도’가 되겠지만 조사 ‘-이’와 결합한다면 ‘앗이’가 됩니다. ‘아수’의 ‘반치음[△]’은 모음 사이에서 탈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맞디시고’는 ‘ㅅ’으로 끝나는 ‘맞다’라는 동사 어간에 사동의 접미사 ‘-이’가 결합한 어형입니다. 이 ‘ㅅ’으로 끝나는 ‘맞다’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ㅌ’으로 끝나는 ‘말다’가 되었습니다. ‘비호다’의 ‘ㅎ’은 모음 사이에서 탈락하였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음절의 ‘오’가 ‘우’로 바뀌어 현대 한국어의 ‘배우다’가 되었습니다. 물론 ‘비호다’의 첫 번째 음절의 모음 역시 현대 한국어의 모음 ‘애’와는 발음이 달랐습니다. ‘아래 아[·]’와 그 다음에 써있는 모음 ‘이’가 모두 발음되던 이중모음이었습니다. ‘맞디시고’와 ‘나아가샤’에 들어 있는 ‘-시-’도 이 보살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 겁니다.

瞿曇(구담) 婆羅門(바라문)을 만나샤
‘구담’ ‘바라문’을 만나시어
‘구담’이라는 승려를 만나셔서

‘만나샤’의 ‘만나다’는 첫 번째 음절 ‘만’의 종성 ‘ㅅ’이 /ㅅ/로 발음되었는데, 이후에 /ㄷ/로 발음이 바뀌고 그 /ㄷ/이 바로 다음 음절 ‘나’의 초성의 /ㄴ/의 영향으로 /ㄴ/으로 바뀌어 현대 한국어에서는 단일한 단어로 굳어져서 ‘만나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단어의 첫 번째 음절은 ‘만이하다’의 ‘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살’을 높이기 위해 ‘만나샤’에 ‘시’가 사용되었습니다.

즈갯 오스란 밧고 瞿曇(구담)이 오솔 니브샤
자기의 옷일랑 벗고 구담의 옷을 입으시고
자신의 옷은 벗고 구담의 옷을 입으시고

‘즈갯’은 ‘자가’와 ‘옷’을 이어주는 ‘ㅅ’이 ‘즈갯’의 종성 자리에 쓰여 있습니다. 이 ‘자가’는 ‘자기 자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밧고’의 ‘밧다’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벗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15세기에도 ‘벗다’라는 단어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벗다’는 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다.”와 같이 추상적인 상황에서 사용되었고, ‘옷’과 같이 구체적인 명사에 대해서는 ‘밧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17세기 이후에 사라져서 ‘밧다’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니브샤’는 후대에 ‘입다’로 바뀌는 ‘닙다’의 어간에 어미 ‘-으샤’가 결합한 것인데, 이 경우도 옷을 벗거나 입는 주체인 소구담을 높이기 위해 ‘-시-’가 사용되었습니다.

深山(심산)에 드러 果實(과실)와 물와 좌시고 坐禪(좌선)하시다가

십산에 들어 과일과 물과 자시고 좌선하시다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 과일과 물을 드시면서 앉아서 참선하시다가

‘과실’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은 ‘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사 ‘-과’를 결합시키면 ‘과일과 물과’처럼 되어야 할 텐데, 이 자료를 보면 조사가 ‘-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5세기에 ‘ㄹ’ 뒤에서 ‘ㄱ’이 ‘ㅇ’으로 약화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ㅇ’은 음가를 가지고 있는 자음이었습니다. 정확한 음가를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ㅎ’과 비슷하면서 유성음이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ㅇ’이 자음이 아니었다면 ‘과시와, 므와’로 실현되었어야 할 겁니다. ‘좌시고’의 ‘좌시다’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자시다’가 되었습니다. ‘자시다’는 ‘먹다’의 높임말로 먹는 주체가 높을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소구담’이 높여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좌시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였습니다.

나라해 빌머그라 오시니 다 몰라 보습더니 小瞿曇(소구담)이라 ㅎ더라
나라에 빌어먹으러 오시니 다 몰라뵈더니 ‘소구담’이라고 하더라
자신이 다스리던 나라에 구걸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다 그를 몰라뵈고 그가 ‘구담’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소구담’이라고 했다.

‘나라해’는 현대 한국어라면 ‘나라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15세기에는 ‘나라’가 ‘ㅎ’으로 끝나는 명사였고 조사 역시 모음조화를 따라서 ‘-애’가 선택되어 ‘나라해’라는 어형이 만들어진 겁니다. ‘빌머그라’는 ‘구걸하러’의 뜻을 가지는데 현대 한국어라면 ‘빌어먹으러’가 될 겁니다. 그러나 15세기에는 용언 어간끼리 직접 결합하여 ‘빌먹다’라는 어간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보습더니’는 나라의 사람들이 소구담을 본다는 상황에 사용되었습니다. 나라의 사람들은 ‘소구담’보다 낮은 신분이기 때문에 보는 대상인 ‘소구담’을 높이면서 보는 주체인 나라의 사람들을 낮추기 위해 어미 ‘-습-’이 사용되었습니다.

菩薩(보살)이 城(성) 밖 甘蔗園(감자원)에 精舍(정사) 밧굴오 ㅎ오사 안자 잇더시니
보살이 성 밖 감자원에 정사를 만들고 혼자 앉아 있으시더니
소구담이라고 불린 수도자 즉 보살이 성 바깥의 사탕수수 동산에 마음을 닦는 집인 정사를 만들고 혼자 앉아 있으셨는데

‘밧굴오’는 만든다는 뜻을 가지는 ‘밧굴다’의 어간 ‘밧굴-’에 어미 ‘-고’가 결합한 어형입니다. 그런데 ‘-고’의 ‘ㄱ’이 ‘밧굴’의 ‘ㄹ’ 뒤에서 약화되어 음가를 가지고 있는 자음 ‘ㅇ’이 되었고 그것이 표기에 반영된 어형이 ‘밧굴오’입니다. 만약 ‘오’가 순수하게 모음이었다면 ‘밧궤로’로 표기되었을 겁니다. ‘ㅎ오사’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ㄴ’이 들어가고 ‘반치음[Δ]’이 ‘ㅈ’으로 변하였습니다. ‘잇더시니’는 현대 한국어라면 ‘있으시더니’가 됩니다. 이 대응을 통해 ‘-시-’의 결합 순서가 15세기와 현대 한국어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족 五百(오백)이 그웁 거슬 일버서 精舍(정사)스 겨투로 디나가니
도적 500이 관청의 것을 훔쳐서 정사의 곁으로 지나가니

도둑 500명이 나라의 물건을 훔쳐서 소구담이 있는 정사의 곁으로 지나갔는데

‘그위’는 관청의 의미를 가지고 있던 단어로 이 경우는 관청 또는 나라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반치음[△]’으로 끝나는 ‘일벗다’는 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던 단어입니다.

그 도즈기 菩薩(보살)스 前世(전세) 生(생)스 怨讎(원수)ㅣ 러라.

그 도적이 보살의 전세 생의 원수이더라.

그 도둑들이 보살의 전생의 원수이더라.

‘怨讎(원수)ㅣ 러라’는 ‘원수’에 ‘이다’의 ‘이’가 결합하고, 거기에 과거 회상의 ‘-더-’가 결합한 후, 여기에 다시 문장을 끝내는 어미 ‘-다’가 결합한 어형입니다. 15세기에 ‘-더-’는 ‘이다’의 ‘이’ 뒤에서 항상 ‘러’로 실현되었고, 문장을 끝내는 ‘-다’ 역시 어미 ‘-더-’ 뒤에서는 항상 ‘-라’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怨讎(원수)ㅣ 러라’가 된 겁니다.

이튿날에 나라해 이셔 도즈기 자취 바다 가아

이튿날에 나라에서 도적의 자취 따라가서

다음날에 나라에서 도둑의 흔적을 따라가

현대 한국어에서 단체가 주어일 때 조사 ‘-에서’가 쓰이는데, 이 자료를 보면 ‘-애 이셔’가 쓰였습니다. ‘-애’는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이고 ‘이셔’는 현대 한국어의 ‘있다’에 이어지는 용언 ‘이시다’의 활용형입니다. ‘바다’는 따른다는 뜻을 가지는 용언 ‘받다’의 활용형입니다. 이 단어는 현대 한국어에는 모범이 되는 것을 따라서 행동한다고 할 때의 ‘본받다’라는 단어에 남아 있습니다.

그 菩薩(보살)을 자바 남기 모물 빼스박 뒷터니

그 보살을 잡아 나무에 몸을 꿰어 두고 있더니

그 수도자 소구담을 잡아서 나무에 몸을 꿰어(몸이 꿰어지시게 하여) 두었는데

15세기에 나무는 단독으로 쓰이거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나모’로 실현되었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남’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여기 나온 ‘남기’는 ‘나모’가 조사 ‘-이’ 앞에서 ‘남’으로 실현된 어형입니다. ‘빼스박’의 ‘빼’는 꿰다는 뜻을 가지는 동사 ‘빼다’의 어간입니다. 초성 ‘ㅍ’은 ‘ㅂ’과 ‘ㅅ’으로 나뉘는데, 15세기에는 이 자음군이 ‘ㅂ’과 ‘ㄱ’의 발음으로 났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일단 이 자료를 읽을 때는 ‘ㄱ’으로 읽습니다. ‘빼스박’에는 어미 ‘-습-’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어미는 꿰어지는 대상이 소구담으로 높은 존재이고 꿰는 행위자는 소구담보다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합되었습니다. 이 어미 ‘-습-’은 종성이 원래 ‘순경음 비읍[빙]’이었기 때문에 ‘빼스박’의 세 번째 음절이 ‘순경음 비읍[빙]’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뒷터니’는 ‘두다’의 어간에 ‘있다’의 의미를 가지는 용언 ‘있다’의 활용형이 결합한 것입니다.

大瞿曇(대구담)이 天眼(천안)으로 보고 虛空(허공)애 느라와 묻즈보디

대구담이 천안으로 보고 허공으로 날아와 묻되

대구담이 마음의 눈으로 보고 하늘로 날아와 여쭙되

‘묻즈보디’는 질문한다는 뜻을 가지는 동사 ‘묻다’의 어간에 어미 ‘-줍-’과 ‘-오디’가 결합한 어형입니다. 여기서 묻는 행위를 하는 주체는 ‘대구담’이고 그 물음을 당하는 사람이 ‘소구담’인데 ‘소구담’이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묻다’의 어간에 어미 ‘-줍-’이 결합하였습니다. 이 ‘-줍-’은 종성이 원래 ‘순경음 비읍[빙]’이기 때문에 ‘묻즈보디’의 세 번째 음절에 ‘순경음 비읍[빙]’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디 子息(자식) 업더니 므숯 罪(죄)오.

“그대가 자식 없더니 무슨 죄인가?”

“그대는 자식이 없는데 무슨 죄인가? (무슨 죄로 이렇게 되었는가?)”

‘罪(죄)오’의 ‘오’는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고’의 변이형입니다. ‘罪(죄)오’의 ‘罪(죄)’는 ‘이’로 끝나는 이중모음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다음 음절의 초성 ‘ㄱ’이 약화되기 때문에 ‘罪(죄)고’가 아니라 ‘罪(죄)오’가 된 겁니다.

菩薩(보살)이 對答(대답)ᄃ샤디 ᄃ마 주글 내어니 子孫(자손)을 議論(의론)ᄃ리여.

보살이 대답하시되 “이미 죽을 나이거니 자손을 의논하겠는가?”

수도자 소구담이 대답하시되 “이미 죽을 나이거늘 자손에 대해 이야기하겠는가?”

‘ᄃ리여’는 의문형 어미가 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여’가 현대 한국어로는 ‘-겠는가’ 정도로 해석된 겁니다.

그 王(왕)이 사람 브려 쏘아 주기스ᄃ니라.

그 왕이 사람 부려서 쏘아 죽였다.

소구담의 동생인 바로 그 왕이 사람을 시켜서 활로 쏘아서 소구담을 돌아가시게 하였다.

‘브려’는 시킨다는 뜻을 가지는 ‘브리다’의 활용형입니다. ‘주기스ᄃ니라’는 죽이는 주체는 낮은 존재이고 죽임을 당하는 존재가 높은 존재인 소구담이기 때문에 ‘주기다’의 어간에 어미 ‘-습-’이 결합하였습니다.

大瞿曇(대구담)이 슬허 뿌리여 棺(관)에 녀츝고

대구담이 슬퍼하여 꾸리어 관에 넣고

대구담이 슬퍼하며 시신을 꾸려(시신을 수습하여) 관에 모셔 넣고

‘슬허’는 동사 ‘슬다’의 활용형입니다. 이 동사 어간에 접미사 ‘-브-’가 결합하면 형용사 ‘슬프다’가 되는 겁니다. ‘녀츝고’는 넣는다는 뜻을 가지는 동사 ‘넣다’의 어간에 어미 ‘-습-’이 결합한 어형입니다. 이 경우는 돌아가신 소구담의 시신을 관에 넣는 상황인데, ‘소구담’이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넣다’의 어간말음 ‘ㅎ’은 ‘ㅅ’과 만나면 ‘ㅆ’이 되기 때문에 ‘녀츝고’가 되었습니다.

피 무든 흘궂 파 가져 精舎(정사)에 도라와
피 문은 흙을 파 가져 정사에 돌아와
피가 문은 흙을 파서 가지고 정사에 돌아와서

‘가져’는 ‘가지다’의 어간에 어미 ‘-어’가 결합한 것인데, ‘가져’로 그대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가지고’로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왼녜 피 달 담고 올흔녜 피 달 다마 두고 날오디
왼녜 피 따로 담고 오른녜 피 따로 담아 두고 이르되
왼쪽 피 따로 담고 오른쪽 피 따로 담아 두고 말하되

‘날오디’는 말한다는 뜻을 가지는 동사 ‘니르다’의 어간에 어미 ‘-오디’가 결합한 것입니다.

이 道士(도사) | 精誠(정성)이 至極(지극)하단디면
이 도사가 정성이 지극했더라면
이 도사가 정성이 지극했다면

앞에서도 여러번 나왔지만 이 당시의 주격조사는 ‘-가’는 없고 ‘-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道士(도사) | ’가 된 겁니다.

하늘히 당다이 이 피를 사롬 ㄷ외에 하시리라.
하늘이 당당히 이 피를 사람 되게 하시리라.
하늘이 마땅히 이 피를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ㄷ외에’는 된다는 뜻을 가지는 용언 어간 ‘ㄷ외-’에 어미 ‘-게’가 결합한 어형입니다. 이때 ‘ㄷ외’의 두 번째 음절이 ‘이’로 끝나는 이중모음이었고 이 경우에는 ‘ㄱ’이 약화하여 ‘에’가 됩니다. 이때 ‘에’의 초성 자리의 ‘ㅇ’은 음가가 없는 게 아니라 음가를 가지고 있는 자음입니다.

열 닻 마내 왼녜 피는 男子(남자) | ㄷ외오 올흔녜 피는 女子(여자) | ㄷ외어늘
열 달 만에 왼녜 피는 남자가 되고 오른녜 피는 여자가 되거늘
열 달 만에 왼쪽 피는 남자가 되고 오른쪽 피는 여자가 되거늘

‘ㄷ외오’와 ‘ㄷ외어늘’은 어간 ‘ㄷ외-’에 어미 ‘-고’와 ‘-거늘’이 결합한 어형들입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이’로 끝나는 ‘외’라는 이중모음 뒤에서 어미의 ‘ㄱ’이 약화하여 ‘ㅇ’으로 실현되었습니다.

姓(성)을 瞿曇(구담) 氏(씨)라 하더니
성을 구담 씨라 하더니
그 남녀의 성을 구담 씨라고 하더니

‘씨라’는 ‘씨’에 ‘이다’의 어간 ‘이’가 결합하고 거기에 어미 ‘-다’가 결합한 어형입니다. 이때 ‘이다’의 ‘이’ 뒤에서 어미 ‘-다’의 ‘ㄷ’이 ‘ㄹ’로 변화하였습니다.

일로부터 子孫(자손)이 니스시니 瞿曇(구담) 氏(씨) 다시 내려나시니라.
이로부터 자손이 이오시니 구담 씨 다시 일어나시니라
이것으로부터 ‘소구담’의 자손이 이어지시니 ‘구담 씨’가 다시 일어나셨다.

‘니스시니’는 잇는다는 뜻을 가지는 어간 ‘닐-’의 활용형입니다. 어간말 자음이 ‘받침음[ㄷ]’이기 때문에 ‘니스시니’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월인석보》의 일부분을 함께 보면서 내용과 문법적인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먼저 읽고 제가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①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① 넷 阿僧祇(아승기) 劫(겁) 時節(시절)에 훈 菩薩(보살)이 王(왕) ㄷ외야 겨샤
아주 오래된 옛날에 어떤 수도자가 왕이셨는데

밑줄 친 ②를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② 나라흠 아스 맛디시고 道理(도리) 비호라 나아가샤
나라를 동생에게 말기시고 도리를 배우러 나가시어

밑줄 친 ③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③ 瞿曇(구담) 婆羅門(바라문)을 만나샤
‘구담’이라는 승려를 만나셔서

밑줄 친 ④를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④ 즈갓 오스란 밧고 瞿曇(구담)이 오술 니브샤
자신의 옷은 벗고 구담의 옷을 입으시고

밑줄 친 ⑤를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⑤ 深山(심산)에 드리 果實(과실)와 물와 좌시고 坐禪(좌선)히시다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 과일과 물을 드시면서 앉아서 참선하시다가

밑줄 친 ⑥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⑥ 나라해 빌머그라 오시니 다 몰라 보습더니 小瞿曇(소구담)이라 히더라
자신이 다스리던 나라에 구걸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다 그를 몰라뵈고 그가 ‘구담’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소구담’이라고 했다.

밑줄 친 ⑦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⑦ 菩薩(보살)이 城(성) 밧 甘蔗園(감자원)에 精舍(정사) 밧고 오 히오샤 안자 잇더시니
소구담이라고 불린 수도자 즉 보살이 성 바깥의 사탕수수 동산에 마음을 닦는 집을 만들고

혼자 앉아 있으셨는데

밑줄 친 ⑧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⑧ 도둑 五百(오백)이 그릇 거슬 일버서 精舍(정사)스 겨투로 디나가니
도둑 500명이 나라의 물건을 훔쳐서 소구담이 있는 정사의 곁으로 지나갔는데

밑줄 친 ⑨를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⑨ 그 도즈기 菩薩(보살)스 前世(전세) 生(생)스 怨讎(원수)ㅣ 러라.
그 도둑들이 보살의 전생의 원수이더라.

밑줄 친 ⑩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⑩ 이튿나래 나라해 이셔 도즈기 자최 바다 가야
다음날에 나라에서 도둑의 흔적을 따라가

밑줄 친 ⑪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⑪ 그 菩薩(보살)을 자바 남기 모물 빼스박 뒷더니
그 수도자 소구담을 잡아서 나무에 몸을 꿰어(몸이 꿰어지시게 하여) 두었는데

밑줄 친 ⑫를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⑫ 大瞿曇(대구담)이 天眼(천안)으로 보고 虛空(허공)애 느라와 묻즈보디 그디 子息(자식)
업더니 므스 罪(죄)오.
대구담이 마음의 눈으로 보고 하늘로 날아와 여쭙되 “그대는 자식이 없는데 무슨
죄인가?(무슨 죄로 이렇게 되었는가?)”

밑줄 친 ⑬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⑬ 菩薩(보살)이 對答(대답)흐샤디 흐마 주글 내어니 子孫(자손)을 議論(의론)흐리여.
수도자 소구담이 대답하시되 “이미 죽을 나이거늘 자손에 대해 이야기하겠는가?”

밑줄 친 ⑭를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⑭ 그 王(왕)이 사롭 브려 쏘아 주기스북니라.
소구담의 동생인 바로 그 왕이 사람을 시켜서 활로 쏘아서 소구담을 돌아가시게 하였다.

밑줄 친 ⑮를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⑮ 大瞿曇(대구담)이 슬허 뿌리여 棺(관)애 녀썩고
대구담이 슬퍼하며 시신을 꾸려(시신을 수습하여) 관에 모셔 넣고

밑줄 친 ⑯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⑯ 피 무든 흘굴 파 가져 精舍(정사)애 도라와
피가 묻은 흙을 파서 가지고 정사에 돌아와서

밑줄 친 ⑰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⑰ 왼쪽 피 달 담고 올흔녁 피 달 다마 두고 날오디
왼쪽 피 따로 담고 오른쪽 피 따로 담아 두고 말하되

밑줄 친 ⑱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⑱ 이 道士(도사)ㅣ 精誠(정성)이 至極(지극)하단디면 하늘히 당다이 이 피를 사롬 ㄷ외에
하시리라.

이 도사가 정성이 지극했다면 하늘이 마땅히 이 피를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밑줄 친 ⑲를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⑲ 열 님내 왼쪽 피는 男子(남자)ㅣ ㄷ외오 올흔녁 피는 女子(여자)ㅣ ㄷ외어늘
열 달 만에 왼쪽 피는 남자가 되고 오른쪽 피는 여자가 되거늘

밑줄 친 ㉔을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㉔ 姓(성)을 瞿曇(구담) 氏(씨)라 하더니 일로브터 子孫(자손)이 니스시니 瞿曇(구담) 氏(씨)
다시 내려나시니라.

그 남녀의 성을 구담 씨라고 하더니 이것으로부터 ‘소구담’의 자손이 이어지시니 ‘구담 씨’가
다시 일어나셨다.

4. 정리

지금까지 우리는 《월인석보》의 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월인석보》의 내
용은 다음 시간에도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내용을 정리할 겸 해서 제가
다시 읽고 오늘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넷 阿僧祇(아승기) 劫(겁) 時節(시절)에 ㄹ 菩薩(보살)이 王(왕) ㄷ외야 겨샤

나라흘 아스 맛디시고 道理(도리) 비호라 나아가샤

瞿曇(구담) 婆羅門(바라문)을 맛나샤

조갯 오스란 밧고 瞿曇(구담)이 오솔 니브샤

深山(심산)애 드러 果實(과실)와 들와 좌시고 坐禪(좌선)하시다가

나라해 빌머그라 오시니 다 몰라 보습더니 小瞿曇(소구담)이라 하더라

菩薩(보살)이 城(성) 밧 甘蔗園(감자원)에 精舍(정사) 밧고 오샤 안자 잇더시니

도죽 五百(오백)이 그윗 거슬 일버서 精舍(정사)스 겨투로 디나가니

그 도즈기 菩薩(보살)스 前世(전세) 生(생)스 怨讎(원수)ㅣ 러라.

이툃나래 나라해 이셔 도즈기 자취 바다 가아

그 菩薩(보살)을 자바 남기 모물 빼스바 뒤터니

大瞿曇(대구담)이 天眼(천안)으로 보고 虛空(허공)애 ㄹ라와 문즈보디 그디 子息(자식) 업더니
므스 罪(죄)오.

菩薩(보살)이 對答(대답)하시디 ㄹ마 주글 내어니 子孫(자손)을 議論(의론)하시어.

그 王(왕)이 사롬 브려 쏘아 주기스브니라.

大瞿曇(대구담)이 슬허 뿌리여 棺(관)애 녀쑹고

피 무든 흘글 파 가져 精舍(정사)애 도라와

원녃 피 달 담고 올흔녃 피 달 다마 두고 날오디

이 道士(도사) | 精誠(정성)이 至極(지극)하단디면 하늘히 당다이 이 피를 사름 ㄷ외에
하시리라.

열 닻마내 원녃 피는 男子(남자) | ㄷ외오 올흔녃 피는 女子(여자) | ㄷ외어늘

姓(성)을 瞿曇(구담) 氏(씨)라 하더니 일로브터 子孫(자손)이 니스시니 瞿曇(구담) 氏(씨) 다시
니러나시니라.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선택형 (10분)

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④

- ① 《석보상절》은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편찬한 책이다.
- ② 《월인석보》의 앞 부분에는 《훈민정음 언해》가 실려 있다.
- ③ 《월인석보》 세종의 아들이자 조선의 7대 임금인 세조가 편찬한 책이다.
- ④ 《월인석보》에서 《석보상절》이 앞에 나오고, 이에 해당하는 《월인천강지곡》이 이어진다.

정답: ④

2.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 ① 15세기에는 ‘ㄹ’ 뒤에서 ‘ㄱ’이 ‘ㅇ’으로 약화되는 현상이 있었다.
- ② ‘비호다’의 첫 번째 음절 모음은 현대 한국어 모음 ‘애’와 발음이 같았다.
- ③ 어미 ‘-습-, -습-, -습-’의 종성은 자음 어미 앞에서 ‘빙’으로 실현되었다.
- ④ 15세기 ‘벗다’는 구체적인 명사에 사용되었고, ‘밧다’는 추상적인 상황에 대해 사용되었다.

정답: ①

3.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②

- ① 현대 한국어의 ‘나라’는 15세기에 ‘ㅎ’으로 끝나는 명사였다.
- ② 15세기와 현대 한국어의 ‘-시-’와 ‘-더-’의 결합 순서는 동일하다.
- ③ 15세기 어미 ‘-더-’는 ‘이다’의 ‘이’ 뒤에서 항상 ‘-러-’로 사용되었다.
- ④ 15세기 한국어에서 단체가 주어인 경우 ‘-애 이셔’가 사용될 수 있었다.

정답: ②

단답형 (8분)

1. ‘大瞿曇(대구담)이 슬허 뿌리여 棺(관)애 녀썩고’의 ‘녀썩고’를 형태소 분석하시오.

: 녀- + -습- + -고

2.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ㄷ외에’, ‘ㄷ외오’, ‘ㄷ외어늘’은 각각 어간 ()에 어미 ‘-게’, ‘-고’, ‘-거늘’이 결합한 어형이다. 세 결합형 모두 ‘ㅣ’로 끝나는 () 뒤에서 어미의 ‘ㄱ’이 약화하여 ‘ㅇ’으로 실현된 것이다.

: ‘ㄷ외-’, 이중모음

3.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현대국어 ‘아우’는 중세국어에서는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자음 앞에서는 ()로 실현되었고 모음 앞에서는 ()로 실현되었다.

: ‘아스’, ‘앗ㅇ’

나. 토의 (30분)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삼강행실도》는 유교적 가치관을 담았던 것이고, 오늘 읽은 《석보상절》은 불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헌이다.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성격의 문헌이 공존한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다. 과제 (60분)

아래 자료를 현대 한국어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현대어로 바꾸어 쓰시오. 그리고 밑줄 친 부분이 누구를 높이는 것인지 적어보시오.

넷阿僧祇(아승기)劫(겁)時節(시절)에흔菩薩(보살)이王(왕)드외야겨샤나라홀아스맛디시고道理(도리)비호라나아가샤瞿曇(구담)婆羅門(바라문)을맛나샤즈갓오스란밧고瞿曇(구담)이오솔니브샤深山(심산)애드러果實(과실)와물와좌시고坐禪(좌선)흐시다가나라해빌머그라오시니다몰라보습더니小瞿曇(소구담)이라흐더라菩薩(보살)이城(성)밧甘蔗園(감자원)에精舍(정사)밍골오흐오사안자잇더시니도죽五百(오백)이그윗거슬일버서精舍(정사)스겨트로디나가니그도즈기菩薩(보살)스前世(전세)生(생)스怨讎(원수)ㅣ러라.

■ 참고자료

《월인석보》(디지털 한글박물관)

《월인석보》(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우리말샘 (우리말샘 바로가기)

고영근(1987/2010),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이기문(1972/1998),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10차시> 15-20세기 자료

■ 학습목표

1. 사진 자료를 보면서 중세국어 자료를 직접 읽어내는 능력을 기른다.
2. 중세국어 문헌에 나타나는 언어의 동질성과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이질성을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한다.
3. 15세기의 자료부터 최근의 자료까지 사진 자료로 전부 읽으며 한국어의 변화 과정을 살핀다.

■ 강의 목차

1. 도입
2. 15세기 자료 강독
3. 16-17세기 자료 강독
4. 19-20세기 자료 강독
5. 정리

■ 강의 내용 전문

1. 도입

안녕하세요? 한국어 고전 자료 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읽은 《월인석보》 부분을 사진 자료로 직접 읽음으로써 실제의 문헌 자료를 읽어내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습을 통해 이루어진 능력이 《용비어천가》와 《훈민정음(언해)》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수업 목표는 중세국어 자료를 직접 읽어내는 것 자체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세기와 16세기에 만들어진 중세국어 문헌에 나타나는 언어의 동질성,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이질성도 여러분이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데도 이번 수업의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차시부터 읽어온 자료들을 전부 읽으면서 한국어의 변화 과정을 체감해 보겠습니다. 이 수업의 전체적인 순서는 최근의 자료부터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방식이었지만 오늘은 그 순서와는 반대로 오래된 자료부터 현재 시간으로 접근하는 순서로 자료를 읽겠습니다.

2. 15세기 자료 강독

우선 15세기 중반 자료부터 보는데, 지난 시간에 보았던 《월인석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가 《월인석보》입니다. 오른쪽은 큰 글씨로 되어 있고 제일 왼쪽에 한 칸 내려서 조금은 작은 글씨들로 써 있습니다. 오른쪽 큰 글씨는 《월인석보》의 《월인천강지곡》에 해당하고 한 칸 내려서 쓴 작은 글씨의 내용은 《석보상절》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칸 내려서 쓴 석보상절 부분도 더 작은 글씨로 어려운 단어들에 대한 해석을 써 놓은 부분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아승기’에 대해 ‘아승기는 그지 업슨 수이라 헛논 마리라’와 같이 뜻을 풀어서 써 놓았습니다. 이것은 “아승기는 끝이 없는 수라고 하는 말이다.” 정도로 번역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없다’의 관형형이 현재는 ‘없는’으로 실현되어서 동사처럼 활용을 하지만 15세기에는 ‘없은’으로 실현되어서 형용사처럼 활용을 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인석보》의 오른쪽에 있는 큰 글씨인 《월인천강지곡》은 원래 출판되었던 《월인천강지곡》을 토대로 만들어졌는데 이 두 자료는 한자음 표기에서 차이가 발견됩니다.

이 두 자료는 우선 한자음을 표기한 위치가 다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월인천강지곡》은 한글로 한자음을 먼저 쓰고 한자를 썼는데 《월인석보》의 《월인천강지곡》은 한자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해당 한자음을 한글로 써놓았습니다. 한자와 한글을 우선시 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자음 자체의 차이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인천강지곡》은 ‘아승기’라고 할 때의 ‘아’가 동그라미 위에 선이 하나 그어 있는 여린히읃과 모음 ‘ㅏ’로 표기되어 있는데 《월인석보》의 《월인천강지곡》에서는 그러한 표기 밑에 동그라미인 이응을 하나 더 써놓았습니다. 이 동그라미, 이응은 종성 자리에서 그 자체가 음가를 가지고 발음된 것은 아닙니다. 한자음이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이론적인 틀에서 이러한 표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표기를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고 합니다. 이 두 자료의 비교를 통해 《월인천강지곡》 자체를 만들 때는 《동국정운》식의 한자음 표기가 아직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표기의 차이가 일어났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인석보》 원문의 《석보상절》 부분을 읽겠습니다.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 주석 부분은 읽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읽은 부분이므로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활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읽고 번역을 함께 본 후, 사진을 보면서 원문을 읽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밑줄 친 ①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넷 阿僧祇(아승기) 劫(겁) 時節(시절)에 訶 菩薩(보살)이 王(왕) ㄷ외야 겨샤
아주 오래된 옛날에 한 보살이(수도자가) 왕이 되어 계셔(왕이었는데)

밑줄 친 ②를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라 訶 아스 맛디시고 道理(도리) 비호라 나아가샤 瞿曇(구담) 婆羅門(바라문)을 만나샤
나라를 동생에게 맡기시고 도리를 배우러 나가시어 ‘구담’이라는 승려를 만나셔서

이 부분을 사진 자료를 보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넷 阿僧祇(아승기) 劫(겁) 時節(시절)에 訶 菩薩(보살)이 王(왕) ㄷ외야 겨샤
나라 訶 아스 맛디시고 道理(도리) 비호라 나아가샤 瞿曇(구담) 婆羅門(바라문)을 만나샤

이번에는 제가 방금 읽은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사진 자료를 보면서 소리 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자음은 각각의 한자 옆에 현대 한자음으로 써 놓았습니다. 그 음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우선 ㉗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넷 阿僧祇(아승기) 劫(겁) 時節(시절)에 熏 菩薩(보살)이 王(왕) ㄷ외야 겨샤

다음으로 ㉘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흠 아수 맛디시고 道理(도리) 비호라 나아가샤 瞿曇(구담) 婆羅門(바라문)을 만나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친 ㉓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조갯 오스란 밧고 瞿曇(구담)이 오솔 니브샤
자신의 옷은 벗고 구담의 옷을 입으시고

밑줄 친 ㉔를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深山(심산)에 드러 果實(과실)와 물와 좌시고 坐禪(좌선)히시다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 과일과 물을 드시면서 앉아서 참선하시다가

밑줄 친 ㉕를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라해 빌머그라 오시니 다 몰라 보습더니 小瞿曇(소구담)이라 히더라
나라에 빌어먹으러 오시니 다 몰라뵈더니 ‘소구담’이라고 하더라

이 부분을 사진 자료를 보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조갯 오스란 밧고 瞿曇(구담)이 오솔 니브샤

深山(심산)에 드러 果實(과실)와 물와 좌시고 坐禪(좌선)히시다가
나라해 빌머그라 오시니 다 몰라 보습더니 小瞿曇(소구담)이라 히더라

이번에는 여러분이 소리 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㉘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갯 오스란 밧고 瞿曇(구담)이 오솔 니브샤

㉙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深山(심산)에 드러 果實(과실)와 물와 좌시고 坐禪(좌선)히시다가

㉚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해 빌머그라 오시니 다 몰라 보습더니 小瞿曇(소구담)이라 히더라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친 ⑥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菩薩(보살)이 城(성) 밧 甘蔗園(감자원)에 精舍(정사) 밧글오 호오사 안자 잇더시니
보살이 성 밖 감자원에 정사를 만들고 혼자 앉아 있으시더니

밑줄 친 ⑦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도죽 五百(오백)이 그웁 거슬 일버서 精舍(정사)스 겨투로 디나가니
도적 500이 나라의 재물을 훔쳐서 정사의 곁으로 지나가니

밑줄 친 ⑧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도즈기 菩薩(보살)스 前世(전세) 生(생)스 怨讎(원수)ㅣ러라.
그 도둑이 보살의 전세 생의 원수이더라.

지금 읽은 내용을 사진 자료를 보면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菩薩(보살)이 城(성) 밧 甘蔗園(감자원)에 精舍(정사) 밧글오 호오사 안자 잇더시니
도죽 五百(오백)이 그웁 거슬 일버서 精舍(정사)스 겨투로 디나가니
그 도즈기 菩薩(보살)스 前世(전세) 生(생)스 怨讎(원수)ㅣ러라.

이번에는 이 사진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이 소리 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㊸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菩薩(보살)이 城(성) 밧 甘蔗園(감자원)에 精舍(정사) 밧글오 호오사 안자 잇더시니

㊹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죽 五百(오백)이 그웁 거슬 일버서 精舍(정사)스 겨투로 디나가니

㊺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도즈기 菩薩(보살)스 前世(전세) 生(생)스 怨讎(원수)ㅣ러라.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친 ⑨를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튿나래 나라해 이셔 도즈기 자취 바다 가아 그 菩薩(보살)을 자바 남기 모물 𠵼스박 𠵼터니
이튿날에 나라에서 도적의 자취를 따라가서 보살을 잡아 나무에 몸을 꿰어 두고(꺾어지시게
하고) 잇더니

여기서 ‘𠵼스박’에는 보살이 높은 존재임을 보여주는 어미 ‘습’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진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나라해 이서 도즈기 자최 바다 가아
그 菩薩(보살)을 자바 남기 모뎨 뵈스박 뒸더니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 자료를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학생 읽기: ㉠ 부분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나라해 이서 도즈기 자최 바다 가아

㉠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菩薩(보살)을 자바 남기 모뎨 뵈스박 뒸더니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밑줄 친 ㉡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大瞿曇(대구담)이 天眼(천안)으로 보고 虛空(허공)에 嚧라와 問즈보디 그디 子息(자식) 업더니
므스 罪(죄)오.

대구담이 천안으로 보고 허공으로 날아와 問되 “그대가 자식 없더니 무슨 죄인가?”

밑줄 친 ㉢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菩薩(보살)이 對答(대답)흐샤디 嚧마 주글 내어니 子孫(자손)을 議論(의론)흐리여.

보살이 대답하시되 “이미 죽을 나이거늘 자손을 의논하겠는가?”

이 부분을 사진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大瞿曇(대구담)이 天眼(천안)으로 보고 虛空(허공)에 嚧라와 問즈보디 그디 子息(자식) 업더니
므스 罪(죄)오.

菩薩(보살)이 對答(대답)흐샤디 嚧마 주글 내어니 子孫(자손)을 議論(의론)흐리여.

이번에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부분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大瞿曇(대구담)이 天眼(천안)으로 보고 虛空(허공)에 嚧라와 問즈보디 그디 子息(자식) 업더니
므스 罪(죄)오.

㉣ 부분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菩薩(보살)이 對答(대답)흐샤디 嚧마 주글 내어니 子孫(자손)을 議論(의론)흐리여.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밑줄 친 ㉤를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王(왕)이 사름 브려 쏘아 주기스 븃니라.
그 왕이 사람 시켜 쏘아서 죽였다(돌아가시게 했다).

밑줄 친 ㉓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大瞿曇(대구담)이 슬허 뿌리여 棺(관)애 녀쑹고 피 무든 흘굴 파 가져 精舍(정사)애 도라와 윈
넉 피 달 담고 올흔넉 피 달 다마 두고 널오디
대구담이 슬퍼하여 꾸리어 관애 넣고(모셔넣고) 피 문은 흠을 파 가져 정사에 돌아와 윈쪽 피
따로 담고 오른쪽 피 따로 담아 두고 이르되

여기서 ‘녀쑹고’는 조금 어색하지만 ‘넣어지시기’ 정도의 느낌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사진 자료를 통해 다시 읽겠습니다.

그 王(왕)이 사름 브려 쏘아 주기스 븃니라.
大瞿曇(대구담)이 슬허 뿌리여 棺(관)애 녀쑹고 피 무든 흘굴 파 가져 精舍(정사)애 도라와 윈
넉 피 달 담고 올흔넉 피 달 다마 두고 널오디

이번에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㉔ 부분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王(왕)이 사름 브려 쏘아 주기스 븃니라.

㉕ 부분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大瞿曇(대구담)이 슬허 뿌리여 棺(관)애 녀쑹고 피 무든 흘굴 파 가져 精舍(정사)애 도라와
윈넉 피 달 담고 올흔넉 피 달 다마 두고 널오디

다음 내용을 읽겠습니다.

밑줄 친 ㉖를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道士(도사) | 精誠(정성)이 至極(지극)하단디면 하늘히 당다이 이 피를 사름 ㄷ외에 ㅎ시리
라.
이 도사가 정성이 지극했다라면 하늘이 마땅히 이 피를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밑줄 친 ㉗를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열 닻마내 윈넉 피는 男子(남자) | ㄷ외오 올흔넉 피는 女子(여자) | ㄷ외어늘
열 달 만에 윈쪽 피는 남자가 되고 오른쪽 피는 여자가 되거늘

밑줄 친 ㉘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을 瞿曇(구담) 氏(씨)라 ㅎ더니 일로부터 子孫(자손)이 니스시니 瞿曇(구담) 氏(씨) 다시 니
러나시니라.
성을 구담 씨라 하더니 이로부터 자손이 이으시니 구담 씨 다시 일어나시니라

이 내용을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 道士(도사) | 精誠(정성)이 至極(지극)하단디면 하늘히 당다이 이 피를 사름 ㄷ외에
헝시리라.

열 닻마내 윈녁 피는 男子(남자) | ㄷ외오 올흔녁 피는 女子(여자) | ㄷ외어늘
姓(성)을 瞿曇(구담) 氏(씨)라 헝더니 일로브터 子孫(자손)이 니스시니 瞿曇(구담) 氏(씨) 다시
니러나시니라.

이번에는 여러분이 사진 자료를 보면서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㉑ 부분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道士(도사) | 精誠(정성)이 至極(지극)하단디면 하늘히 당다이 이 피를 사름 ㄷ외에
헝시리라.

㉒ 부분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 닻마내 윈녁 피는 男子(남자) | ㄷ외오 올흔녁 피는 女子(여자) | ㄷ외어늘

㉓ 부분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姓(성)을 瞿曇(구담) 氏(씨)라 헝더니 일로브터 子孫(자손)이 니스시니 瞿曇(구담) 氏(씨) 다시
니러나시니라.

수고하셨습니다. 직접 사진 자료를 읽어보시니까 어떤가요? 부분적으로 잘 읽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반복해서 읽어왔기 때문에 접근이 쉬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자료를 처음으로 여러분이 접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읽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모르는 단어는 표시를 해 놓고 띄어쓰기를 해 놓은 상태에서 모르는 단어를 ‘우리말샘’ 등을 통해 찾아서 띄어쓰기를 다시 해 나가는 순서로 해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극히 일부분 이외에는 여러분 힘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어떤 특정한 문헌이나 시기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그 문헌이나 그 시기의 문헌을 읽어내는 전문가 수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월인석보》의 《석보상절》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는 첫 시간에 읽었던 15세기의 《용비어천가》와 《훈민정음(언해)》를 다시 읽겠습니다. 읽는 순서는 《월인석보》를 읽을 때와 동일합니다. 활자로 되어 있는 자료를 먼저 읽은 후, 제가 사진으로 된 원문을 읽고 여러분이 같은 자료를 다시 읽어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밑줄 친 ①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불휘 기픈 남근 ㅼㄹ매 아니 뭇씨 곳 도쿄 여름 하나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움직이므로 꽃 좋고 열매 많으니

밑줄 친 ②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미 기픈 므른 ㄱㅅ래 아니 그출씨 내히 이러 ㅼㄹ래 가느니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 안 끊어지므로 내가(넋물이) 이루어져 바다에 가니

이제는 제가 사진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뿔씨 곱 도쿄 여름 하나니
시미 기픈 므른 그므래 아니 그출씨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이번에는 여러분이 사진 자료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뿔씨 곱 도쿄 여름 하나니

㉡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미 기픈 므른 그므래 아니 그출씨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어디서 끊어서 읽을까 하는 거지요? 끊어 읽기가 처음에는 힘들지만 반복해서 하다 보면 끊어 읽기의 감각이 생깁니다. 그 감각은 새로운 자료에 적용시킬 수도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훈민정음(언해)》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부분은 한 칸 내려서 쓴 한국어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단어의 뜻을 풀이하는 주석 부분은 읽지 않겠습니다.

우선 밑줄 친 ㉠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트 말썸미
나라의 말이

제가 사진 자료를 읽겠습니다.

나라트 말썸미

여러분이 이 자료를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트 말썸미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밑줄 친 ㉡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中國(중국)에 달아
중국과 달라서

제가 사진 자료를 읽겠습니다.

中國(중국)에 달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달아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밑줄 친 ㉓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文字(문자)와로 서르 스몯디 아니흘씨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제가 사진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文字(문자)와로 서르 스몯디 아니흘씨

이번에는 여러분이 사진 자료의 ㉔ 부분을 직접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文字(문자)와로 서르 스몯디 아니흘씨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밑줄 친 ㉕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초로 어린 百姓(백성)이 니르고져 흙 배 이셔도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이번에는 제가 사진 자료를 읽겠습니다.

이런 전초로 어린 百姓(백성)이 니르고져 흙 배 이셔도

이번에는 여러분이 ㉖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초로 어린 百姓(백성)이 니르고져 흙 배 이셔도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밑줄 친 ㉗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ㅁ춤내 제 ㅼ들 시러 ㅼ디 ㅁ흙 노미 하니라

마침내 자기의 뜻을 능히 (글로) 펼치지(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번에는 제가 사진 자료를 읽겠습니다.

ㅁ춤내 제 ㅼ들 시러 ㅼ디 ㅁ흙 노미 하니라

다음으로 여러분이 사진 자료의 ㉘ 부분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ㅁ춤내 제 ㅼ들 시러 ㅼ디 ㅁ흙 노미 하니라

다음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밑줄 친 ㉙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룰 爲(위)햏야 어엿비 너겨

내가 이것을 위하여 불쌍하게 생각하여

이번에는 제가 사진 자료를 읽겠습니다.

내 이를 爲(위)하야 어엿비 너겨

다음으로는 ㉠ 부분을 여러분이 소리 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를 爲(위)하야 어엿비 너겨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친 ㉡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스물 여덟 字(자)를 밍ᄃ노니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이 부분의 사진 자료를 제가 읽겠습니다.

새로 스물 여덟 字(자)를 밍ᄃ노니

여러분이 ㉢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스물 여덟 字(자)를 밍ᄃ노니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밑줄 친 ㉣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름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뿌메 便安(편안)키 ᄃ고져 ᄃᄃ ᄃᄃᄃ미니라

사람마다 쉽게 익히게(배우게) 하여 날마다 사용하기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다음으로는 이 내용을 사진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사름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뿌메 便安(편안)키 ᄃ고져 ᄃᄃ ᄃᄃᄃ미니라

이번에는 사진의 ㉤ 부분을 여러분이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름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뿌메 便安(편안)키 ᄃ고져 ᄃᄃ ᄃᄃᄃ미니라

여기까지가 15세기 중반에 한글로 쓰인 자료들입니다. 문자인 ‘훈민정음’ 즉 한글이 창제된 시기의 문헌 자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방금 15세기 중반의 한글 자료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15세기 후반의 《삼강행실도》를 읽겠습니다. 어려운 단어의 뜻을 풀이하기 위해 작은 글씨로 써 놓은 주석 부분은 읽지 않겠습니다. 읽는 방식도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활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읽고 사진 자료를 제가 한 번 읽은 후 여러분이 그 사진 자료를 다시 읽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밑줄 친 ㉥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許孜(허자) | 글 비호던 스스이 죽거늘 三年(삼년) 居喪(거상)ᄃ고

‘허자’가 글을 배우던(허자에게 가르쳐주던) 스승이 돌아가시거늘 삼년상을 치르고

밑줄 친 ②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측고 두 아버지 죽거늘 슬허 여위여 막대 딛고사 니더니

이측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늘 슬퍼하며 몸이 바짝 말라 막대기를 짚고서야 일어나더니

밑줄 친 ③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소 흙 지여 녹미 도보물 받디 아니호고

손수 등에 흙을 지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여기에는 “무덤을 만들었다”는 말이 생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진 자료를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許孜(허자) | 글 비호던 스스이 죽거늘 三年(삼년) 居喪(거상)호고

이측고 두 아버지 죽거늘 슬허 여위여 막대 딛고사 니더니

손소 흙 지여 녹미 도보물 받디 아니호고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사진 자료를 보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부분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許孜(허자) | 글 비호던 스스이 죽거늘 三年(삼년) 居喪(거상)호고

㉡ 부분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측고 두 아버지 죽거늘 슬허 여위여 막대 딛고사 니더니

㉢ 부분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소 흙 지여 녹미 도보물 받디 아니호고

다음 내용 읽겠습니다.

밑줄 친 ④를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슬피 운다마다 鳥獸(조수) | 모다 오더라

슬프게 울 때마다 새와 짐승이 모여서 오더라.

밑줄 친 ⑤를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許孜(허자) | 호오사 守墓(수묘) 호야셔 솔와 잣과를 五六里(오륙)리를 심겠더니

‘허자’가 혼자 무덤을 지켜서 소나무와 잣나무를 5-6리에 심었더니

밑줄 친 ⑥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헌 사슴미 와 소를 호야브려늘 許孜(허자) | 슬허 7로디 사슴은 엇데 미야커뇨

한 사슴이 와서 소나무를 망가뜨렸거늘 ‘허자’가 슬퍼하며 말하되 사슴은 어찌해서 이렇게도 매정한가?

이번에는 제가 사진 자료를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슬피 운다마다 鳥獸(조수) | 모다 오더라
許孜(허자) | ㅎ오사 守墓(수묘) ㅎ야셔 솔와 잣과를 五六里(오륙)리를 심겟더니
흔 사스미 와 소를 ㅎ야브려늘 許孜(허자) | 슬허 ㄱ로디 사스문 엇데 미야커뇨

이번에는 이 사진 자료를 여러분이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㊸ 부분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슬피 운다마다 鳥獸(조수) | 모다 오더라

㊹ 부분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許孜(허자) | ㅎ오사 守墓(수묘) ㅎ야셔 솔와 잣과를 五六里(오륙)리를 심겟더니

㊺ 부분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흔 사스미 와 소를 ㅎ야브려늘 許孜(허자) | 슬허 ㄱ로디 사스문 엇데 미야커뇨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밑줄 친 ㉗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툃나래 버미 그 사스물 ㄹ러다가 그 나모 미퓌 더더늘
이툃날에 호랑이가 그 사슴을 물어다가 그 소나무의 밑에 던져놓았는데

밑줄 친 ㉘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덤 겨퓌 무드니 그 後(후)에 남기 더 ㄷㅎ니라
(그 사슴을) 무덤 옆에 묻으니 그 후에 나무가 더 좋아졌다.

이번에는 제가 이 내용을 사진 자료를 보면서 읽겠습니다.

이툃나래 버미 그 사스물 ㄹ러다가 그 나모 미퓌 더더늘 무덤 겨퓌 무드니 그 後(후)에 남기
더 ㄷㅎ니라

이번에는 여러분이 사진 자료를 보면서 이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㊻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툃나래 버미 그 사스물 ㄹ러다가 그 나모 미퓌 더더늘

㊼ 부분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덤 겨퓌 무드니 그 後(후)에 남기 더 ㄷㅎ니라

다음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㉑를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許孜(허자) | 墓(묘)스겨턱 집 짓고 산 아버지긔터 섬기더니
'허자'가 무덤의 옆에 집을 짓고 살아계신 부모님같이 섬겼더니

㉒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ᄒᆞᆫ 사ᄒ미 사ᄒ 짜ᄒ 孝順里(효순리)라 ᄒᄒᄒ라
마을 사람이 ('허자'가) 사는 땅을 '효순리'라고 ᄒᄒᄒ라.

이번에는 사진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 내용을 읽겠습니다.

許孜(허자) | 墓(묘)스겨턱 집 짓고 산 아버지긔터 섬기더니
ᄒᆞᆫ 사ᄒ미 사ᄒ 짜ᄒ 孝順里(효순리)라 ᄒᄒᄒ라

이번에는 여러분이 사진 자료를 보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㉓ 부분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許孜(허자) | 墓(묘)스겨턱 집 짓고 산 아버지긔터 섬기더니

㉔ 부분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ᄒᆞᆫ 사ᄒ미 사ᄒ 짜ᄒ 孝順里(효순리)라 ᄒᄒᄒ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5세기 문헌인 《월인석보》, 《용비어천가》, 《훈민정음(언해)》, 《삼강행실도》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수업의 첫 시간에 《용비어천가》와 《훈민정음(언해)》를 읽기는 하였지만 그때보다는 조금 읽어나가기 편해지셨기를 바랍니다.

3. 16-17세기 자료 강독

이번에는 16세기 초반의 자료인 《번역노걸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번에도 읽어나가는 방식은 지금까지와 동일합니다. 《번역노걸대》 수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자료는 두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㉑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큰형님 네 어드러로서부터 온다 / 내 高麗(고려) 王京(왕경)으로서부터 오라
큰형님(형씨), 당신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 나는 고려 왕경에서부터 왔다.

다음 대화를 읽겠습니다. ㉒를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드러 가는다 / 내 北京(북경) 향하야 가노라
이제 어디 가는가? / 나는 북경 향하여 간다.

다음 대화를 읽겠습니다. ㉓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 王京(왕경)의셔 떠난다 / 내 이뉘 초하룻날 王京(왕경)의셔 떠나라
너는 언제 왕경에서 떠났는가? / 나는 이번 달의 첫째 날 왕경에서 떠났다.

이번에는 제가 사진 자료를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입니다.

큰형님 네 어드러로서부터 온다 / 내 高麗(고려) 王京(왕경)으로셔부터 오라

두 번째 대화입니다.

이제 어드러 가는다 / 내 北京(북경) 향하야 가노라

다음의 대화입니다.

네 언제 王京(왕경)의셔 떠난다 / 내 이뉘 초하룻날 王京(왕경)의셔 떠나라

이번에는 여러분이 사진 자료를 보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 대화를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큰형님 네 어드러로서부터 온다 / 내 高麗(고려) 王京(왕경)으로셔부터 오라

다음으로 ㉡의 대화를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드러 가는다 / 내 北京(북경) 향하야 가노라

다음으로 ㉢의 대화를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 王京(왕경)의셔 떠난다 / 내 이뉘 초하룻날 王京(왕경)의셔 떠나라

다음의 대화를 읽겠습니다. 앞의 대화보다는 조금 깁니다. 대화의 질문인 ㉣를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뉘 이뉘 초하룻날 王京(왕경)의셔 떠나거니 이제 반 드리로디 엇디 앓가사 예 오노
이미 이달 초하룻날 왕경에서 떠났는데 이제 반 달이 지났는데 왜 아까 돼서야 여기에 왔는가?

대화의 답변인 ㉤를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흥 버디 떠디여 올시 내 길 조차 날회여 녀 기들워 오노라 흥니 이런 전츠로 오미 더디요
라

내 친구 한 사람이 떨어져 오므로, 내가 길을 따라서 천천히 와서 기다리면서 오고자 했더니,
이런 이유로 오는 것이 더디었다.

이번에는 제가 사진 자료를 보면서 이 대화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이뵈 초흐룻날 王京(왕경)의셔 떠나거니 이제 반 드리로디 엇디 앓가샤 예 오노
/ 내 훈 버디 떠디여 올시 내 길 조차 날회여 녀 기들워 오노라 하니 이런 전초로 오미
더디요라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이 자료를 소리 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㉔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뵈 초흐룻날 王京(왕경)의셔 떠나거니 이제 반 드리로디 엇디 앓가샤 예 오노

대화의 답변인 ㉔ 부분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훈 버디 떠디여 올시 내 길 조차 날회여 녀 기들워 오노라 하니 이런 전초로 오미
더디요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㉔의 대화를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버디 이제 미쳐 올가 못 올가 / 이 버디 곧 괴니 어재 곳 오다

그 친구가 이제 여기까지 올까 못 올까? / 이 친구가 바로 그 사람이니, 어제 막 왔다.

다음 대화의 질문인 ㉕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뵈 그믄씩 北京(북경)의 갈가 가디 못 훌가

너는 이달 마지막날 쯤에 북경에 갈까 가지 못할까?

이 질문의 답변인 ㉕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로리로다 그 마를 엇디 니르리오 하늘히 어엿비 너기샤 모미 편안흐면 가리라

모르겠구나. 그 말을 어찌 말하겠는가? 하늘이 불쌍하게 생각하시어, 몸이 편안하면 (이달
그믄까지) 갈 것이다.

이번에는 이 내용을 제가 사진 자료를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읽겠습니다.

그 버디 이제 미쳐 올가 못 올가 / 이 버디 곧 괴니 어재 곳 오다

그 다음 대화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뵈 그믄씩 北京(북경)의 갈가 가디 못 훌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로리로다 그 마를 엇디 니르리오 하늘히 어엿비 너기샤 모미 편안흐면 가리라

이번에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사진 자료를 보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㉔의 대화를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버디 이제 미쳐 올라 물 올라 / 이 버디 곧 귀니 어재 곳 오다

그 다음 대화의 질문인 ㉕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뵤 그믄씩 北京(북경)의 갈가 가디 물 훑가

이 질문의 답변인 ㉖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로리로다 그 마를 엇디 니르리오 하늘히 어엿비 너기샤 모미 편안흐면 가리라

지금까지의 내용은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인사를 하고 어디까지 가는지 등에 대해 묻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앞의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번역노걸대》의 내용은 훨씬 많지만 오늘은 정리를 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므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읽은 16세기 초반의 《번역노걸대》에 이어서 16세기 중반의 《구황촬요》를 읽겠습니다. 읽는 방식은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다룰 내용입니다. ㉑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굵은 사름을 더운 거슬 머기면 반드시 죽느니 모로매 식거든 머기라

굵은 사람에게 따뜻한 것을 먹이면 반드시 죽으니 모름지기 식거든 먹여라

이번에는 이 내용을 제가 사진 자료를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굵은 사름을 더운 거슬 머기면 반드시 죽느니 모로매 식거든 머기라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사진 자료를 보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㉑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굵은 사름을 더운 거슬 머기면 반드시 죽느니 모로매 식거든 머기라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㉒를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굵머 곤흔 사름이 밥을 과같이 먹거나 더운 죽을 먹거나 흐면 반드시 죽느니

굵어서 기운이 없는 사람이 밥을 급하게 먹거나 따뜻한 죽을 먹거나 하면 반드시 죽으니

㉓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늘장을 므레 프러 머기고 버거 시근 죽을 머겨 귀우니 숲숲허거샤 점점 죽과 밥을 머기라

간장을 물에 풀어서 (연한 간장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식은 죽을 먹여서 기운이 또랑또랑하게 된 다음에 점점 죽과 밥을 먹여라

이번에는 제가 이 내용을 사진 자료를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굴머 곤흔 사툼이 밥을 과골이 먹거나 더운 죽을 먹거나 흐면 반드시 죽느니
놀장을 므레 프러 머기고 버거 시근 죽을 머겨 괴우니 쉼쉼헝거사 점점 죽과 밥을 머기라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사진 자료를 보면서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굴머 곤흔 사툼이 밥을 과골이 먹거나 더운 죽을 먹거나 흐면 반드시 죽느니

다음으로 ㉡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놀장을 므레 프러 머기고 버거 시근 죽을 머겨 괴우니 쉼쉼헝거사 점점 죽과 밥을 머기라

이번에는 16세기 후반 자료인 <선조국문유서>를 함께 읽겠습니다.

㉠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님금이 니르샤디 너희 처엄의 예손디 후리여셔 인하여 든니기논 네 본 모양이 아니라
임금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처음에는 일본에게 속아서 그래서 왜군 진영에서 다니는 것은 너의
본래의 마음이 아니라

㉡를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다가 예손디 들러 주글가도 너기며 도르혀 의심호디 예손디 드럿던 거시니
“나오다가 왜에게 붙들려 죽을까”라고도 생각하며 오히려 의심하되, 왜군 진영에 들어갔던
것이니

㉢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히 주길가도 두려 이제 드리 나오디 아니하니
“나라가 (나를) 죽일까” 두려워하여 이제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니

이번에는 제가 사진 자료를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님금이 니르샤디 너희 처엄의 예손디 후리여셔 인하여 든니기논 네 본 모양이 아니라
나오다가 예손디 들러 주글가도 너기며 도르혀 의심호디 예손디 드럿던 거시니 나라히
주길가도 두려 이제 드리 나오디 아니하니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사진 자료를 보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님금이 니르샤디 너희 처엄의 예손디 후리여셔 인하여 든니기논 네 본 모양이 아니라

㉤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다가 예손디 들려 주글가도 너기며 도르혀 의심호디 예손디 드럿던 거시니

㉔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히 주글가도 두려 이제 드리 나오디 아니흐니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④를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란 너희 그런 의심을 먹디 말오 서르 권호여 다 나오면 너희를 각별이 죄 주디 아닐 썬니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그런 의심을 품지 말고 서로 권하면서 (모두) 다 나오면 너희를 각별하게 벌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⑤를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둥에 예를 자바 나오거나 예 흐논 이를 쯤세 아라 나오거나 후리인 사롬을 만히 더브러 나오거나 아무란 공 이시면

너희 중에 왜군을 잡아 나오거나, 왜군 하는 일을 자세히 알아서 나오거나, 속은 사람을 많이 함께 데리고 나오거나 어떤 공이든 있으면

⑥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냥천 물론호여 벼슬도 흐일 거시니 너희 싱심도 전의 먹던 므음물 먹디 말오 썰리 나오라 신분을 논하지 않고 벼슬도 하게 할 것이니, 너희들 마음속에라도 전에 먹었던 마음을 먹지 말고 빨리 나와라.

이번에는 제가 사진 자료를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란 너희 그런 의심을 먹디 말오 서르 권호여 다 나오면 너희를 각별이 죄 주디 아닐 썬니 아니라

그 둥에 예를 자바 나오거나 예 흐논 이를 쯤세 아라 나오거나 후리인 사롬을 만히 더브러 나오거나 아무란 공 이시면

냥천 물론호여 벼슬도 흐일 거시니 너희 싱심도 전의 먹던 므음물 먹디 말오 썰리 나오라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사진 자료를 보면서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㉔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란 너희 그런 의심을 먹디 말오 서르 권호여 다 나오면 너희를 각별이 죄 주디 아닐 썬니 아니라

㉔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둥에 예를 자바 나오거나 예 흐논 이를 쯤세 아라 나오거나 후리인 사롬을 만히 더브러 나오거나 아무란 공 이시면

㉔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냥천 물론하여 벼슬도 허일 거시니 너희 칭심도 전의 먹던 무음을 먹디 말오 썰리 나오라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㉕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뜰들 각쳐 장슈의손디 다 알외여시니 칭심도 의심 말고 모다 나오라
이 뜻을 각 지역 장군들에게 다 알렸으니 조금도 의심 말고 모두 나와라

㉖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등의 혈마 다 어버이 쳐즈 업손 사름일다
너희들이 설마 다 부모와 처자식이 없는 사람이겠는가?

㉗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던 디 도라와 네대로 도로 살면 우연허라
네가 살던 곳에 돌아와 예전대로 도로 살면 괜찮지 않겠는가?

㉘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아니 나오면 예게도 주글 거시오 나라히 평등한 휘면 너흰들 아니 뉘오츄라
이제 바로 안 나오면 왜군에게도 죽을 것이고, 나라가 진정된 후면 너희인들 안
뉘우치겠는가?

이번에는 이 내용을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 뜰들 각쳐 장슈의손디 다 알외여시니 칭심도 의심 말고 모다 나오라
너희 등의 혈마 다 어버이 쳐즈 업손 사름일다
네 사던 디 도라와 네대로 도로 살면 우연허라
이제 곧 아니 나오면 예게도 주글 거시오 나라히 평등한 휘면 너흰들 아니 뉘오츄라

다음으로는 이 사진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㉔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㉔ 이 뜰들 각쳐 장슈의손디 다 알외여시니 칭심도 의심 말고 모다 나오라

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㉕ 너희 등의 혈마 다 어버이 쳐즈 업손 사름일다

㉖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㉖ 네 사던 디 도라와 네대로 도로 살면 우연허라

㉠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아니 나오면 예게도 주글 거시오 나라히 평정한 휘면 너흰들 아니 뉘오츠라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흐물며 당병이 황해도와 평안도에 ㄱ독흐였고 경상 전라도에 ㄱ득기 이셔
하물며 당 군사가 황해도와 평안도에 가득하고 경상 전라도에 가득히 있어

㉢를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곧 과글리 제 짜히 곧 아니 건너가면 요스이 합병하여 부산 동니 인논 예들흘 다 털 썬이
아니라

왜군이 바로 급히 자기 땅에 바로 안 건너가면, 곧바로 군대를 합하여 부산, 동래에 있는
왜군들을 모두 칠 썬 아니라

㉣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강남 비와 우리나라 비를 합하여 바르 예 나라히 드러가 다 분탕흘 거시니 그 저기면 너희조
차 쓰러 주글 거시니

중국의 배와 우리나라의 배를 합하여 바로 왜의 나라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니,
그때면 너희마저 쓸려 죽을 것이니

㉤를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서르 닐러 그 전으로 수이 나오라
너희는 서로 말하여 그 전에 빨리 나와라

이번에는 이 내용을 사진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흐물며 당병이 황해도와 평안도에 ㄱ독흐였고 경상 전라도에 ㄱ득기 이셔
예 곧 과글리 제 짜히 곧 아니 건너가면 요스이 합병하여 부산 동니 인논 예들흘 다 털 썬이
아니라

강남 비와 우리나라 비를 합하여 바르 예 나라히 드러가 다 분탕흘 거시니 그 저기면
너희조차 쓰러 주글 거시니

너희 서르 닐러 그 전으로 수이 나오라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사진 자료를 보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부분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흐물며 당병이 황해도와 평안도에 ㄱ독흐였고 경상 전라도에 ㄱ득기 이셔

㉦부분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곧 과글리 제 짜히 곧 아니 건너가면 요스이 합병하여 부산 동니 인논 예들흘 다 털 썬이

아니라

㉔부분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강남 비와 우리나라 비를 합하여 바루 예 나라희 드러가 다 분탕홀 거시니 그 저기면
너희조차 뿌러 주글 거시니

㉕부분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서르 닐러 그 전으로 수이 나오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어사에서 일반적으로 중세국어 시기에 해당한다고 하는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17세기 후반 자료인 《음식디미방》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 중에서 계란탕 만드는 방법을 읽겠습니다.

①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이젓국이나 지령국이나 맛 마초와 기름 터 막이 쓸혀 고빅질 제
새우젓국이거나 간장국이거나 맛을 맞추고 기름 쳐서 많이 끓여서 (물이) 굵이칠 때

②를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알을 옷 부으리틀 허러 곁에 붓고 두에 다다 소소 쓸혀 저근덧 스이에 얼의거든
알을 윗부리를 깨서 그 즉시 (끓는 물에) 쏟고 뚜껑 달아 (물이) 솟구치게 끓여 잠깐 사이에
(달걀흰자가) 엉기거든

③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알 소옥이 채 닉지 아녀셔 옛튼 그릇식 7만7만 썸
알 속이 아직 익지 않았을 때 열은(깊지 않은) 그릇에 가만가만 떠서

④를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젓국이거든 초 타 하고 장국이든 그저 노흐라. 오온 알 얼굴이 잇느니라
새우젓국이거든 식초를 타서 하고 간장국이거든 그대로 놓아라. 온전한 알의 모습이 있게
된다.

이번에는 사진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글씨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잘 따라오면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젓국이나 지령국이나 맛 마초와 기름 터 막이 쓸혀 고빅질 제
알을 옷 부으리틀 허러 곁에 붓고 두에 다다 소소 쓸혀 저근덧 스이에 얼의거든
알 소옥이 채 닉지 아녀셔 옛튼 그릇식 7만7만 썸
젓국이거든 초 타 하고 장국이든 그저 노흐라. 오온 알 얼굴이 잇느니라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사진 자료를 보면서 이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이젯국이나 지령국이나 맛 마초와 기름 터 막이 쓸혀 고빅질 제

㉡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알을 옷 부으리틀 허러 곁에 붓고 두에 다다 소소 쓸혀 저근덧 스이에 얼의거든

㉢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알 소옥이 채 낙지 아녀셔 옛튼 그르식 7만7만 씨

㉣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젯국이든 초 타 하고 장국이든 그저 노흐라. 오온 알 얼굴이 잇느니라

이 자료는 글씨를 읽어내기도 힘들고 간혹 방언형들이 들어 있어서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4. 19-20세기 자료 강독

이번에는 19세기 초반 자료인 《규합총서》의 요리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부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①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부 두 체을 곱게 점여 소곰 훈 접시 골고로 뿌려
두부 두 체를 곱게 저미어 소곰 한 접시 골고루 뿌려

②를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우에 너허 진득히 눌너 물이 썩연 후에
자루에 넣어 진득하게(힘을 약간만 주어) 눌러 물이 뿌영게 된 후에

③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볶춤치에 너허 봉햐야 고초장 밋헤 너코 혹 간장 밋헤도 너허라
베주머니에 넣어 봉햐야 고초장 밑에 넣고 혹 간장 밑에도 넣어라.

이번에는 제가 사진 자료를 보면서 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글씨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두부 두 체을 곱게 점여 소곰 훈 접시 골고로 뿌려
잘우에 너허 진득히 눌너 물이 썩연 후에
볶춤치에 너허 봉햐야 고초장 밋헤 너코 혹 간장 밋헤도 너허라

이번에는 여러분이 사진 자료를 보면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부 두 체을 곱게 점여 소곰 훈 접시 골고로 뿌려

㉡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우에 너허 진득히 놀너 물이 썩연 후에

다음으로 ㉢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뵈춤치에 너허 봉햐야 고초장 밋헤 너코 혹 간장 밋헤도 너허라

수고하셨습니다. 인쇄 상태나 글씨가 이전 자료보다는 알아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개인이 만들어낸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9세기로 와서 《독립신문》의 광고를 보겠습니다. 책 광고였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조선 사람이 영국 말을 비호라면 이 두 칙보다 더 긴훈 거시 업는지라

조선 사람이 영국 말을 배우려면 이 두 책보다 더 긴요한(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어서

㉡를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칙이 미국인 워두우 문든 거시니

이 두 책이 미국인 월두우가(언더우드가/Underwood가) 만든 것이니

㉢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영즈턴은 영국 말과 언문과 한문을 합햐야 문든 칙이오

한영자전은 영국 말과 언문과(조선어와) 한문을 합하여 만든 책이오

㉣를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영문법은 영국 문법과 조선 문법을 서로 견주엇시니

한영문법은 영국 문법과 조선 문법을 서로 비교하였으니

㉤를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간단햐야 영국 말을 즈세히 비호라면 이 칙이 잇서야 흘 거시니라

말이 간단하여 영국 말을 자세히 배우려면 이 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사진 자료를 보면서 이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선 사람이 영국 말을 비호라면 이 두 칙보다 더 긴훈 거시 업는지라

이 두 칙이 미국인 워두우 문든 거시니

한영즈턴은 영국 말과 언문과 한문을 합햐야 문든 칙이오

한영문법은 영국 문법과 조선 문법을 서로 견주엇시니

말이 간단햐야 영국 말을 즈세히 비호라면 이 칙이 잇서야 흘 거시니라

이번에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조선 사람이 영국 말을 비호라면 이 두 칙보다 더 긴훈 거시 업논지라

㉡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칙이 미국인 워두우 문돈 거시니

㉢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영즈던은 영국 말과 언문과 한문을 합햐야 문돈 칙이오

㉣를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영문법은 영국 문법과 조선 문법을 서로 견주엇시니

㉤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간단햐야 영국 말을 즈세히 비호라면 이 칙이 잇서야 흘 거시니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앞의 자료들보다는 조금 읽기 쉽다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자료로 20세기의 잡지 《어린이》에 나온 <석양파리소녀> 중에서 앞부분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①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섭게 추운 밤이였습니다.

무섭게 추운 밤이였습니다.

②를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눈은 자꾸 쏘다지고 밤은 점점 깊혀 가는데, 이 날은 일년에도 맨쑈 첫달그믐날 밤이였습니다.

눈은 자꾸 쏟아지고 밤은 점점 깊어 가는데, 이 날은 일년에도 맨끝 선달그믐날(1년의 마지막날) 밤이였습니다.

③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러케 춥고 어두운 밤에 한 어린 소녀(少女)가 머리에는 아무것도 돌느지 안코,
이렇게 춥고 어두운 밤에 한 어린 소녀(少女)가 머리에는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

④를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별거벗은 맨발로 눈 싸히는 한길을 아장아장 곱고 잇섯습니다.

별거벗은 맨발로 눈 쌓이는 큰길을 아장아장 곱고 잇섯습니다.

이번에는 사진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 내용을 읽겠습니다.

무섭게 추운 밤이었습니다. 눈은 자꾸 쏘다지고 밤은 점점 깊혀 가는데, 이 날은 일년에도 맨쫘 첫달그믐날 밤이었습니다. 이러케 춥고 어두운 밤에 한 어린 소녀(少女)가 머리에는 아모것도 돌느지 안코, 별거벗은 맨발로 눈 싸히는 한길을 아장아장 곱고 잇섯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사진 자료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섭게 추운 밤이었습니다.

㉡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은 자꾸 쏘다지고 밤은 점점 깊혀 가는데, 이 날은 일년에도 맨쫘 첫달그믐날 밤이었습니다.

㉢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케 춥고 어두운 밤에 한 어린 소녀(少女)가 머리에는 아모것도 돌느지 안코,

㉣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별거벗은 맨발로 눈 싸히는 한길을 아장아장 곱고 잇섯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을 출발한 지점까지 돌아와서 한국어 고전 자료 읽기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출발했다가 15세기까지 갔다가 반환점을 돌아 다시 원점에 온 셈입니다.

5. 정리

우리는 '한국어 고전 자료 읽기'라는 제목으로 20세기에서 시작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다양한 자료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에는 다시 시간을 따라 내려오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자료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에서 중요시한 점은 인쇄상태 등으로 잘 안 보이는 것들도 있었지만 여러분이 사진 자료를 보면서 직접 자료를 읽는 연습을 해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업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매우 지루한 반복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이전 자료를 직접 읽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지루하고 힘들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국어 고전 자료를 읽어 낼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생겼기를 바라면서 전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선택형 (10분)

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번역노걸대》는 두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 ② 《독립신문》과 <석낭파리소녀>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
- ③ 《삼강행실도》는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 충신, 효자, 열녀의 이야기를 뽑아 편찬한 책이다.
- ④ 《월인석보》에 있는 《월인천강지곡》과 원래 출판되었던 《월인천강지곡》의 한자음 표기는 서로 같다.

정답: ④

2.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 ① 《삼강행실도》에는 성조를 표기하는 방점이 찍혀 있지 않다.
- ② 《월인석보》에서 사용된 ‘없다’의 관형형은 현대와 동일한 형태를 가진다.
- ③ <석낭파리소녀>에서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ㅅ, ㅆ, ㅈ, ㅊ’가 어두에 사용되었다.
- ④ 《번역노걸대》에서는 항상 3인칭에 쓰이는 의문형 어미 ‘-나다’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정답: ③

3.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규합총서》에 쓰인 ‘잘우’는 과도 분철된 표기이다.
- ② 《독립신문》에 쓰인 ‘즈뎌’은 구개음화에 의해 오늘날 ‘자전’이 되었다.
- ③ 《음식디미방》에 쓰인 ‘뿔고’의 ‘ㅄ’은 당시에 ‘ㅅ’과 ‘ㅆ’이 모두 발음되었다.
- ④ <선조국문유서>에 쓰인 ‘우연하다’에 있는 ‘우연’에 ‘만하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어형은 현대 한국어의 ‘웬만하다’로 변화했다.

정답: ③

단답형 (8분)

1. 오늘 읽은 《음식디미방》에서 방언형을 찾아 쓰시오.

: 사이, 지령, 막이

2.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한 글자로 쓰시오,

《훈민정음 언해》의 “뭇흙 노미 하니라”에서 ‘하니라’는 현대 한국어 ‘()으니라’로 번역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현대 한국어의 형용사 ‘하고맴다’도 ‘()고맴다’로 바꾸어도 그 의미는 같다.

3.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선조국문유서>에 쓰인 ‘서르’는 일반적인 ‘·’의 변화라면 ()가 되겠지만, 이 단어에서는 ‘·’가 모음 ()로 변하여 오늘날 ()가 되었다.

: ‘서르’, ‘오’, ‘서로’

나. 토의 (30분)

<한글 맞춤법> 제1항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공부한 옛 문헌의 표기 방식과 비교해 보고, 어떠한 이유로 위와 같은 원칙을 세웠는지 이야기해 보자.

다. 과제 (60분)

아래는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들이다. 현대 한국어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현대어로 바꾸어 쓰시오.

1.
소녀는 손을 녹이면서 환하게 빛나는 그불을 드러다보느라니싸 이상도하지요 눈물에게즌 그눈에는 훌륭한 커-다란난로가보이고 자기가 그크고 훈훈한난로엽해불을쏘이고있는것가맞습니다.
<석낭파리소녀>
2.
우리가 독립신문을 오늘 처음으로 출판하느니 조선 속에 있는 니외국 인민의게 우리 주의를 미리 말습혀여 아시게 하노라 《독립신문》
3.
긴적곳츠로싱선입브터질너화로가에머리들고뒤덕여덱게뵈죽싱선줍이스스로입으로날거시니그런 후에토막지어구으면마시죠흐니다《규합총서》
4.
이제곧아니나오면예게도주글거시오나라히평명훈휘면너흰돌아니뉘오츄라<선조국문유서>
5.
나죄다듣거든스승님얹피셔사슬빠혀글외오기하야외오니란스승님이免帖(면첩)하나할주시고하다가 외오디물하야든딕실선벽하야어피고세번티느니라《번역노걸대》
6.
許허攷즈 | 슬허?로디사스 문엇데미야커뇨이툏나래버미그사스 물므러다가그나모미퇴더더늘무덥 겨퇴무드니그後훙에남기더도하나라許허攷즈 | 墓모스겨퇴집짓고산어버시?티섬기더니?웁사르 미사느짜흙孝흙順순리리라하더라《삼강행실도》
7.
大瞿曇(대구담)이슬허쁘리여棺(관)애녀썩고피무든흙골파가져精舍(정사)애도라와원넉피달담고올흔 넉피달다마두고닐오디이道士(도사) | 精誠(정성)이至極(지극)하단디면하늘히당다이이피를사름드외 에하시리라열달마내원넉피는男子(남자) | 드외오올흔넉피는女子(여자) | 드외어늘姓(성)을瞿曇(구담)氏(씨)라하더니일로브터子孫(자손)이니스시니瞿曇(구담)氏(씨)다시니러나시니라.《월인석보》

■ 참고자료

- 《구항찰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규합총서》 (디지털한글박물관)
- 《독립신문(창간호)》 (디지털한글박물관)
- 《독립신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번역노걸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사역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삼강행실도》 (디지털 한글박물관)
- 《삼강행실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선조국문유서>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어린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용비어천가》 (디지털한글박물관)
- 《월인석보》 (디지털 한글박물관)
- 《월인석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음식디미방》 (디지털한글박물관)
- 《훈몽자회》 (디지털 한글박물관)
- 《훈민정음 언해》 (디지털한글박물관)

우리말샘 (우리말샘 바로가기)

고영근(1987/2010),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이기문(1972/1998),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